

자활사업조사연구
【 2019-~~(중앙자활~~ 등록번호) 】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자 1차년도 패널구축 연구

2019. 11

동국대학교 산학협력단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연구책임

최상미

책임연구원 동국대학교 사회복지상담학과 교수

연구진

김아래미

공동연구원 서울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조자영

공동연구원 동국대학교 사회복지상담학과 강의초빙교수

이혜인

보조연구원 숭실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석사

설소희

보조연구원 동국대학교 사회복지상담학과 학부생

이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진의 견해로서
연구용역 발주기관의 의견과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

요약

□ 연구 배경 및 필요성

○ 우리사회 청년들은 현재 높은 청년실업률, 주거비 및 생활비의 압박 등으로 인하여 다차원적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음. 이러한 사회환경 속에서 빈곤청년들은 더욱 큰 삶의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는 삶의 희망을 찾기 어렵게 하며, 이후의 삶을 계획하기 어렵게 하고 있음.

○ 이러한 청년들의 삶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 청년들은 여전히 사회적 취약계층으로 분류되지 않고, 사회복지의 주요 대상으로 고려되지 않고 있음. 박근혜정부 이후부터 이 문제를 직시하고, 관련 지원을 확대하였으나 다양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제도는 여전히 취창업에 초점을 두었음.

○ 최근 청년들의 빈곤문제를 해결하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키우기 위하여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년 대상 자산형성지원사업을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음. 자산형성지원사업은 목돈 마련을 통해 빈곤 예방과 빈곤 탈출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자산형성지원사업에 대한 선행 연구들은 경제적 측면 뿐 아니라 정서적, 사회적 측면에서도 그 성과를 보고해오고 있음.

○ 본 연구는 이러한 자산형성지원사업 중 중앙정부가 수급 가구의 빈곤 청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청년희망키움통장 사업 참여 청년 대상의 1차년도 패널 구축하여, 향후 청년희망키움통장에 대한 과학적·체계적 성과를 평가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 연구 내용 및 방법

○ 본 연구의 내용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음.

◦ 청년 대상 지원 제도, 청년 대상 지원 제도 중 자산형성지원사업의 의미와 역할, 자산형성지원사업 및 자산형성의 성과 및 효과성에 대한 문헌 및 선행 연구 검토

- 자산형성지원사업에 대한 해외 사례 검토
- 패널구축을 위한 조사표 구축
- 청년희망키움통장 참여자, 비참여자, 중도해지자를 대상으로 심층집단면접조사 실시
- 청년희망키움통장 참여자 대상 1차 설문조사 실시
- 패널 참여에 동의하고 1차 설문조사에 참여한 패널 구축 및 관리
- 집단심층면접 및 설문조사 결과 분석을 통해 청년희망키움통장 사업 대상자의 실태 및 사업 효과성 도출
- 청년희망키움통장 사업의 효과성 향상을 위한 개선 방향 및 발전 방안 모색

○ 본 연구의 방법은 문헌연구, 설문조사, 집단심층면접으로 구성되어 있음.

◦ 문헌연구: 본 연구는 먼저 기존의 청년대상 지원정책에 대해 검토하고, 청년대상 자산형성지원사업과 청년희망키움통장에 대해 검토함. 이후 국내 및 해외 자산형성지원사업의 성과지표 및 성과를 확인하고, 자산형성의 영향에 대해 검토함.

◦ 설문조사: 청년희망키움통장 사업 참여 청년 7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조사를 통해 1차년도 패널을 구축하고, 기술통계, 카이제곱검정, 독립표본 t검정, 일원배치분산분석 등의 분석방법을 활용함.

◦ 집단심층면접: 청년희망키움통장 사업 참여자 1집단과 중도해지자 1집단을 대상으로 청년희망키움통장 및 청년의 삶에 대한 집단심층면접을 실시함.

□ 정책 및 선행 연구 검토

○ 청년대상 지원정책

◦ 본 절에서는 청년과 청년정책에 대해 정의하고, 청년 실태를 청년 실업률, 청년 니트 현황, 청년층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상대임금, 물질적 박탈감 경험여부, 청년 부채와 소득, 청년과 부양 부담의 측면에서 확인하였음. 또한, 중앙정부의 생활·복지, 주거·금융, 창업지원, 취업지원 관련 청년 정책을 검토하였음.

○ 청년대상 자산형성지원사업과 청년희망키움통장

◦ 본 절에서는 자산형성지원사업의 등장 배경과 그 의미,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

년자산형성지원사업을 검토하고, 청년희망키움통장의 특성을 정리하였음. 마지막으로 중앙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년자산형성지원사업의 특성을 비교한 결과, 가입대상이 전국의 근로를 하는 청년으로 연령대는 다소 상이하였으며, 저소득층 대상의 사업이 대부분이었음. 본인저축액은 일반적으로 10-15만원을 의무 본인 저축액으로 설정하고 있었고, 정부지원액은 10-15만원이 일반적이며, 지원용도는 다양하였음. 지원조건은 대부분 가입기간 동안 통장납안유지 및 근로유지, 지역 거주 유지를 조건으로 하고 있었으며, 실질혜택은 2-3년 가입 유지 시 최소 500만원에서 최대 약 3,000만원이었음.

○ 자산형성지원사업의 성과

◦ 본 절에서는 미국 IDA, 미국 CDA: The SEED for OK, 에티오피아 HABP, 방글라데시의 credit program, 인도의 microcredit program와 같은 해외 자산형성지원사업의 성과 지표와 성과를 살펴보았음. 또한 국내 대표적인 자산형성지원사업인 보건복지부 희망키움통장, 보건복지부 청년희망키움통장, 서울시 희망플러스통장,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의 성과지표를 살펴보았음.

○ 자산형성의 영향

◦ 본 절에서는 자산형성의 영향에 대해 선행연구를 검토하였는데, 자산형성은 통장개설, 집 소유, 마이크로크레딧 사업을 통한 자산형성, 저축을 통한 금융자산형성 등을 의미하기도 전체 자산을 의미하기도 하였음. 자산형성은 심리정서적 안정, 신체적 건강, 경제적 안정 및 관련 행동, 시민행동, 여성의 지위, 아동의 삶의 질, 개인적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음. 국내 자산형성지원사업에서는 경제적 생활수준에 대한 인식, 자산의 증가, 주거 안정, 미래에 대한 긍정적 인식 및 태도, 대출 및 생활비 증가 등이 성과로 나타났다.

□ 해외 자산형성지원사업의 사례

○ 본 절에서는 해외 자산형성지원사업을 개인발달계좌(IDA)와 아동발달계좌(CDA)로 구분하여 살펴보았음. 개인발달계좌는 지원대상, 전달체계, 사용용도, 추가지원 서비스의 측면에서 미국 IDAs, 영국 Help to Save, 캐나다 Learn\$ave, 대만 FDA의 제도적 특징을 제시하였음. 아동발달계좌는 지원대상, 전달체계 및 급여, 사용용도의 측면에서 영국 Junior ISA, 싱가포르 PSEA, 그리고 미국 CSA의 제도적 특징을 제시하였음.

□ 연구 방법

○ 사업성과 분석틀

◦ 사업성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일반적 현황, 경제적 현황(소득·저축·부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 지출, 주거, 예상진로, 사회활동 참여와 같은 객관적 지표를 사업성과 지표로 포함시켰음. 심리·정서적 요인, 재무관리 관련 요인, 진로 및 고용 관련 요인, 사회적 역량 요인과 같은 주관적 지표도 사업성과지표로 포함시켰음. 마지막으로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 현황, 사업 만족도, 애로사항 및 개선점, 희망 서비스의 수요, 자산형성지원사업 만기 후 지원금 사용계획 및 사용비중과 같은 자산형성지원사업 관련 문항을 설문지에 포함시켰음.

○ 참여자 대상 1차 패널 조사 방법

◦ 표본구성: 2018년에 청년희망키움통장 사업에 가입한 참여자 3,752명을 모집단으로 설정하고, 한국자활복지개발원으로부터 받은 참여자목록을 표본틀로 삼아 체계적 표집방법을 통해 표본을 추출하였음. 최종적으로 722명이 연구에 참여하였음.

◦ 조사방법: 조사원을 통해 유선으로 패널 참여동의를 받은 후, Survey monkey를 활용하여 온라인조사를 실시하였음. 개인정보활용동의서를 획득한 후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기프티콘이 보상으로 제공되었음. 본 조사는 IRB 심의 승인을 받아 진행된 것임.

◦ 분석방법: 기술통계, 카이제곱검정, 독립표본 t검정, 일원배치 분산분석 등의 방법을 활용하였음.

○ 참여자 및 중도해지자 대상 집단심층면접 방법

◦ 청년희망키움통장 참여자 1집단(4명)과 중도해지자 1집단(3명)을 대상으로 집단심층면접을 실시하였음. 구체적으로는 ‘현재 삶에서의 어려움’, ‘통장사업 참여 이후 생활의 변화’, ‘중도해지 이유’ ‘통장사업에 대해 바라는 점’ 등에 대하여 질문하였으며, 일반적인 질적 분석 절차에 따라 코딩, 범주화, 의미도출의 방식으로 분석을 수행하였음.

□ 연구 결과

○ 1차 패널 자료 분석 결과

◦ 조사 대상은 과반수가 20대 초반으로 평균 24.7세였으며, 대체로 1인가구와 4인 가구로 나타났다. 학력은 고등학교 졸업이 49.4%로 과반수, 다음으로는 4년제 대졸이 25.5%, 2년제 대졸이 18.6%를 차지하였다. 패널 중 70% 이상이 하나 이상의 자격증을 가지고 있었으며, 24.1%는 3개 이상의 자격증을 21.6%는 2개의 자격증을, 26.3%는 1개의 자격증을 가지고 있었음.

◦ 생계급여 수급가구의 저소득근로 청년인 청년희망키움통장 사업 참여자는 임시직, 일용직, 시간제 근로 등 불안정한 고용 지위를 접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는 다시 낮은 소득으로 생활비 지출 부담과 부채를 야기하며 경제적 어려움을 초래함을 추정할 수 있음.

◦ 부정적 정서 경험 빈도가 높으며, 20대 청년이 대부분을 차지함에도 자신을 건강하지 않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높은 특성, 부채를 가지고 있는 비율이 높은 점, 월세 비율이 높고 주거 상황이 열악한 비율이 높은 점 등이 확인되었음.

◦ 학력수준, 근로시간, 연령, 가구주, 거주지역으로 집단별 분석을 실시한 결과, 고졸이하, 시간제근로, 30세 이상, 가구주, 농어촌지역거주일수록 삶의 어려움이 더 큰 것으로 확인되었음.

○ 참여자 및 중도해지자 대상 집단심층면접 분석 결과

◦ 사업참여 및 중도해지 청년들은 경제적 어려움, 심리정서적 어려움, 일가정균형의 어려움, 구직 어려움, 주거 어려움, 수급심사 때 겪는 수치심과 탈수급 부담, 불안한 미래와 탈수급에 대한 두려움과 등과 같은 삶의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음.

◦ 청년희망키움통장 사업 참여자들은 사업 종료 후 가족과 자신을 위한 경제적 지원과 적극적 경제활동을 통한 자립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였고, 사업 참여 이후 정서적 안정감과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지게 되었으며, 탈수급을 기대하고 있었음. 한편, 중도해지자들의 청년희망키움통장 중도해지 이유는 생활비 충당, 근로 중단, 탈수급으로 확인되었음.

◦ 통장사업에 바라는 점으로는 사업과 탈수급 이후의 지원 제도 등에 대한 다양한 정보 제공, 온라인 신청 및 이용, 청년대상 재무교육, 휴지기 연장, 신청 및 해지 절차 간소화 등과 같은 행정절차의 효율화를 제시하였음.

□ 결론 및 제언

○ 본 연구의 의의

◦ 본 연구는 전국의 청년희망키움통장사업 참여자를 대상으로 1차 패널자료를 구축하여 전국의 대표성을 가진 자료를 확보하였고, 이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현재 청년 삶의 다양한 측면에 대한 이해도를 높였다는데 그 의의가 있음.

◦ 또한, 본 연구는 참여자의 신체적 및 심리·정서적 건강, 경제적 상황, 주거 상황, 근로 및 고용 상황, 사회적 역량 정도의 변화를 3년에 걸쳐 추적함으로써, 장기적 성과를 파악하기 위한 기준점의 역할을 수행할 것임.

○ 청년희망키움통장 사업 관련 제언

◦ 청년희망키움통장 사업 유지 및 확대를 위한 제언으로는 청년희망키움통장 사업 지속, 청년희망키움통장 사업 수혜 조건인 탈수급 조건 완화 필요, 청년희망키움통장 사업 중도 해지 방지 방안 모색 필요가 제시되었음.

◦ 청년희망키움통장 사업 내용 관련 제언으로는 부가서비스로 재무(금융)교육 및 재무컨설팅 제공 필요, 사이버 교육 및 전화와 온라인 상담 활용, 저축의 목적에 따른 맞춤형 프로그램 및 서비스 제공이 제시되었음.

◦ 청년희망키움통장 사업 전달체계 관련 제언으로는 통합적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행정 절차의 간소화를 통한 효율화와 지정은행의 확대를 통한 접근성 강화, 청년희망키움통장 사업 정보 제공 체계 구축, 주민자치센터 담당 공무원의 사업 숙지, 사업 이후 탈수급한 청년 대상으로 궁극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체계 구축이 제시되었음.

○ 자산형성지원사업 등 청년 대상 지원 제도에 대한 전반적 제언

◦ 청년 대상 지원 제도에 대한 전반적 제언으로는 이용자의 욕구를 반영한 지속적 사업 개선, 탈수급이 어려운 계층 및 차상위층까지 포괄하도록 청년 대상 자산형성지원사업의 보편화, 자산형성지원사업을 가능한 한 출생 시부터 적용하도록 아동까지 확대, 청년 대상 지원 제도와 연계, 지자체 통장사업과의 연계가 제시되었음.

목차

I. 연구 개요	1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3
1) 변화하는 환경에서 빈곤 청년들이 직면하는 다차원적 어려움	3
2) 우리나라의 청년 대상 지원 제도	3
3) 청년 대상 자산형성지원사업의 의미와 역할	5
4) 자산형성사업의 기대 효과	6
2. 연구 내용 및 방법	9
1) 연구 내용	9
2) 연구 방법	10
3. 연구 수행 체계	13
II. 관련 정책 및 선행 연구 검토	15
1. 청년대상 지원정책	17
1) 청년과 청년정책	17
2) 청년 생활 실태	18
3) 청년 정책	25
2. 청년대상 자산형성지원사업과 청년희망키움통장	35
1) 자산형성지원사업의 등장 배경과 그 의미	35
2) 청년 대상 자산형성지원사업의 현황	36
3) 청년희망키움통장의 특성	50
4) 소결	51
3. 자산형성지원사업의 성과	53
1) 해외 및 국내 자산형성지원사업의 성과지표	53
2) 해외 및 국내 자산형성지원사업의 성과	57
4. 자산형성의 영향	59

III. 해외 사례 검토	65
1. 개인발달계좌	68
1) 미국 IDAs(Individual Development Accounts)	68
2) 영국 Help to Save	69
3) 캐나다 Learn\$ave	70
4) 대만 TFDA(Taipei Family Development Accounts)	71
2. 아동발달계좌	74
1) 영국 Junior ISA(Junior Individual Savings Accounts)	74
2) 싱가포르 PSEA(Post-Secondary Education Account)	75
3) 미국 CSAs(Child Savings Accounts)	76
IV. 연구 방법	79
1. 사업성과 분석틀	81
1) 일반적 현황 및 객관적 지표	81
2) 주관적 지표	84
3)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 관련 문항	88
2. 참여자 대상 1차 패널 조사 방법	91
1) 조사 설계	91
2) 연구 윤리	92
V. 연구결과	93
1. 참여자 대상 1차 패널 조사 분석 개요	95
1) 분석 방법	95
2. 참여자 대상 1차 패널 조사 분석 결과	96
1) 조사대상자 전체 응답 결과	96
2) 학력구분에 따른 집단 비교	114
3) 근로시간 구분에 따른 집단 비교	134
4) 연령대 구분에 따른 집단 비교	155
5) 가구주 구분에 따른 집단 비교	178
6) 거주 지역 구분에 따른 집단 비교	198

3. 참여자 및 중도해지자 대상 집단심층면접 분석 결과	218
1) 청년희망키움통장 참여자 집단심층면접	218
2) 중도해지자 집단심층면접	229
4. 요약 및 정리	235
1) 참여자 대상 1차 패널 조사 분석 결과 요약	235
2) 참여자 및 중도해지자 대상 집단심층면접 분석 결과 요약	237
 VI. 결론 및 제언	 239
1. 청년희망키움통장 사업 관련 결론	241
2. 청년희망키움통장 사업 관련 제언	245
1) 청년희망키움통장 사업 유지 및 확대	245
2) 청년희망키움통장 사업 내용 관련 제언	247
3) 청년희망키움통장 사업 전달체계 관련 제언	249
3. 자산형성지원사업 등 청년 대상 지원 제도에 대한 전반적 제언	252
 참고문헌	 255
부록: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자 패널 조사표	261

표목차

<표 I -1> 연구 수행 체계	13
<표 II -1> 실업자 수, 실업률	18
<표 II -2> 졸업자·신규졸업자 청년(15~29세) 실업률	19
<표 II -3> 니트(NEET) 비율	20
<표 II -4> 비정규직근로자 비율	20
<표 II -5> 청년층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상대임금(비정규직 특수형태 제외)	21
<표 II -6> 청년층의 물질적 박탈감 경험	22
<표 II -7> 서울시 청년의 재무상태	23
<표 II -8> 청년의 생애주기별 부모의 경제적 지원 제공 여부	24
<표 II -9> 세대 간 경제적 지원 특성	24
<표 II -10> 중앙정부의 청년정책 유형과 세부 사업명	26
<표 II -11> 취업지원 영역 사업	29
<표 II -12>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청년취업성공패키지, 청년내일채움공제 ...	30
<표 II -13> 창업지원 영역 사업: 지원 시기별 구분	31
<표 II -14> 건강, 문화 유형 사업	32
<표 II -15> 주거 지원 유형 사업	33
<표 II -16> 학자금 지원 유형 사업	33
<표 II -17> 생활비 지원 및 금융 혜택 유형 사업	34
<표 II -18> 중앙정부의 청년자산형성지원사업 개요	37
<표 II -19> 지방자치단체의 청년자산형성지원사업 개요	44
<표 II -20> 지방자치단체의 청년자산형성지원사업 개요(계속)	45
<표 II -21> 지방자치단체의 청년자산형성지원사업 개요(계속)	46
<표 II -22> 지방자치단체의 청년자산형성지원사업 개요(계속)	47
<표 II -23> 지방자치단체의 청년자산형성지원사업 개요(계속)	48
<표 II -24> 지방자치단체의 청년자산형성지원사업 개요(계속)	49
<표 II -25> 해외 자산형성지원사업의 성과지표	54

<표Ⅱ-26> 국내 자산형성지원사업의 성과	56
<표Ⅱ-27> 자산형성이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선행 연구의 발견	60
<표Ⅱ-28> 자산형성지원사업의 성과에 대한 국내 연구 결과	62
<표Ⅲ-1> 해외 자산형성지원사업 사례 - 개인발달계좌	73
<표Ⅳ-1> 일반적 현황 및 객관적 지표	83
<표Ⅳ-2> 주관적 지표: 심리적 요인	85
<표Ⅳ-3> 주관적 지표: 재무관리 요인	86
<표Ⅳ-4> 주관적 지표: 진로 및 고용 관련 요인	87
<표Ⅳ-5> 주관적 지표: 사회적 요인	88
<표Ⅳ-6>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 관련	90
<표Ⅴ-1> 조사대상의 일반적 현황: 조사대상자 전체	96
<표Ⅴ-2> 조사 대상의 가구 현황: 조사대상자 전체	97
<표Ⅴ-3> 조사대상의 근로 현황: 조사대상자 전체	99
<표Ⅴ-4> 근로에 대한 생각과 태도: 조사대상자 전체	100
<표Ⅴ-5> 지난 3개월 동안의 월평균 소득: 조사대상자 전체	100
<표Ⅴ-6> 조사대상의 자산 및 부채 현황: 조사대상자 전체	101
<표Ⅴ-7> 조사대상의 자산 및 부채 현황(없음 제외): 조사대상자 전체	101
<표Ⅴ-8> 조사대상의 주요 부채 이유: 조사대상자 전체	101
<표Ⅴ-9>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기간(가구): 조사대상자 전체	102
<표Ⅴ-10>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현황: 조사대상자 전체	102
<표Ⅴ-11> 조사대상의 월평균 생활비: 조사대상자 전체	103
<표Ⅴ-12> 조사대상의 부담지출순위: 조사대상자 전체	103
<표Ⅴ-13> 개인 부채 부담, 가족 부양 부담 정도: 조사대상자 전체	104
<표Ⅴ-14> 자신의 미래경제상황에 대한 전망: 조사대상자 전체	104
<표Ⅴ-15> 경제적 상황에 대한 인식: 조사대상자 전체	105
<표Ⅴ-16> 조사대상의 주거형태: 조사대상자 전체	106
<표Ⅴ-17> 조사대상의 주거자산: 조사대상자 전체	106
<표Ⅴ-18> 조사대상의 예상 진로: 조사대상자 전체	107
<표Ⅴ-19> 진로행동: 조사대상자 전체	107
<표Ⅴ-20> 자아존중감 및 자신의 역량에 대한 평가: 조사대상자 전체	108
<표Ⅴ-21> 사회적 자본과 가족지지: 조사대상자 전체	108

<표 V-22> 지난 1년 동안 사회참여 정도: 조사대상자 전체	109
<표 V-23> 사회의 소득불평등 인식: 조사대상자 전체	109
<표 V-24> 청년희망키움통장 사업 참여 경로: 조사대상자 전체	110
<표 V-25> 청년희망키움통장 월 자유납입금액: 조사대상자 전체	110
<표 V-26> 청년희망키움통장 사업만족도: 조사대상자 전체	111
<표 V-27> 청년희망키움통장 사업 포기 고려 이유: 조사대상자 전체	111
<표 V-28> 청년희망키움통장의 개선점: 조사대상자 전체	112
<표 V-29> 청년희망키움통장사업과 함께 받고 싶은 서비스 및 프로그램 조사대상자 전체	113
<표 V-30> 청년희망키움통장 사업 지원금 수령시 사용 계획: 조사대상자 전체	113
<표 V-31> 조사 대상의 일반현황: 학력 구분	114
<표 V-32> 조사 대상의 주관적 건강상태: 학력 구분	114
<표 V-33> 조사 대상의 가구현황: 학력 구분	115
<표 V-34> 조사 대상의 동거 가구원 수: 학력 구분	115
<표 V-35> 조사 대상의 근로 현황: 학력 구분	116
<표 V-36> 근로에 대한 생각과 태도: 학력 구분	118
<표 V-37> 지난 3개월 동안의 월평균 소득: 학력 구분	118
<표 V-38> 조사 대상의 저축 및 부채 현황: 학력 구분	119
<표 V-39> 조사 대상의 저축 및 부채 현황(없음 제외): 학력 구분	119
<표 V-40> 조사 대상의 주요 부채 이유: 학력 구분	120
<표 V-4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기간(가구): 학력 구분	120
<표 V-4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현황: 학력 구분	121
<표 V-43> 조사 대상의 월평균 생활비: 학력 구분	122
<표 V-44> 개인 부채 및 가족 부양 부담 정도: 학력 구분	122
<표 V-45> 미래 경제상황에 대한 전망: 학력 구분	123
<표 V-46> 경제적 상황에 대한 인식: 학력 구분	124
<표 V-47> 조사 대상의 주거형태: 학력 구분	125
<표 V-48> 조사 대상의 주거자산: 학력 구분	126
<표 V-49> 조사 대상의 예상 진로: 학력 구분	127
<표 V-50> 진로행동: 학력 구분	127
<표 V-51> 자아존중감 및 자신의 역량에 대한 평가: 학력 구분	128
<표 V-52> 사회적 자본과 가족지지: 학력 구분	129

<표 V-53> 지난 1년 동안 사회참여 정도: 학력 구분	129
<표 V-54> 사회의 소득불평등 인식: 학력 구분	130
<표 V-55> 청년희망키움통장 사업 참여 경로: 학력 구분	130
<표 V-56> 청년희망키움통장 월 자유납입금액: 학력 구분	130
<표 V-57> 청년희망키움통장 사업만족도: 학력 구분	131
<표 V-58> 청년희망키움통장 사업 포기 고려 이유: 학력 구분	131
<표 V-59> 청년희망키움통장 사업 개선점: 학력구분	132
<표 V-60> 청년희망키움통장 사업과 함께 받고 싶은 서비스 및 프로그램: 학력구분 ..	132
<표 V-61> 청년희망키움통장 사업 지원금 수령시 사용 계획: 학력구분 ..	133
<표 V-62> 조사 대상의 일반현황: 근로시간 구분	135
<표 V-63> 조사 대상의 주관적 건강상태: 근로시간 구분	135
<표 V-64> 조사 대상의 가구현황: 근로시간 구분	136
<표 V-65> 조사 대상의 동거 가구원 수: 근로시간 구분	137
<표 V-66> 조사 대상의 근로 현황: 근로시간 구분	138
<표 V-67> 근로에 대한 생각과 태도: 근로시간 구분	139
<표 V-68> 지난 3개월 동안의 월평균 소득: 근로시간 구분	140
<표 V-69> 조사 대상의 저축 및 부채 현황: 근로시간 구분	140
<표 V-70> 조사 대상의 저축 및 부채 현황(없음 제외): 근로시간 구분 ..	141
<표 V-71> 조사 대상의 주요 부채 이유: 근로시간 구분	141
<표 V-7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기간(가구): 근로시간 구분	142
<표 V-73>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현황: 가구주 구분	142
<표 V-74> 조사 대상의 월평균 생활비: 근로시간 구분	143
<표 V-75> 조사 대상의 부담지출 순위: 근로시간 구분	144
<표 V-76> 개인 부채 및 가족 부양 부담 정도: 근로시간 구분	144
<표 V-77> 미래 경제상황에 대한 전망: 근로시간 구분	145
<표 V-78> 경제적 상황에 대한 인식: 근로시간 구분	146
<표 V-79> 조사 대상의 주거형태: 근로시간 구분	147
<표 V-80> 조사 대상의 주거자산: 근로시간 구분	148
<표 V-81> 조사대상의 예상 진로: 근로시간 구분	148
<표 V-82> 진로행동: 근로시간 구분	149
<표 V-83> 자아존중감 및 자신의 역량에 대한 평가: 근로시간 구분	149

<표 V-84> 사회적 자본과 가족지지: 근로시간 구분	150
<표 V-85> 지난 1년 동안 사회참여 정도: 근로시간 구분	150
<표 V-86> 사회의 소득불평등 인식: 근로시간 구분	151
<표 V-87> 청년희망키움통장 월 자유납입금액: 근로시간 구분	151
<표 V-88> 청년희망키움통장 사업만족도: 근로시간 구분	152
<표 V-89> 청년희망키움통장 사업 포기 고려 이유: 근로시간 구분	152
<표 V-90> 청년희망키움통장 사업 개선점: 근로시간 구분	153
<표 V-91> 청년희망키움통장 사업과 함께 받고 싶은 서비스 및 프로그램 근로시간 구분	153
<표 V-92> 청년희망키움통장 사업 지원금 수령시 사용 계획: 근로시간 구분	154
<표 V-93> 조사 대상의 일반현황: 연령대 구분	155
<표 V-94> 조사 대상의 주관적 건강상태: 연령대 구분	156
<표 V-95> 조사 대상의 가구현황: 연령대 구분	156
<표 V-96> 조사 대상의 동거 가구원 수: 연령대 구분	157
<표 V-97> 조사 대상의 근로 현황: 연령대 구분	158
<표 V-98> 근로에 대한 생각과 태도: 연령대 구분	160
<표 V-99> 지난 3개월 동안의 월평균 소득: 연령대 구분	161
<표 V-100> 조사 대상의 저축 및 부채 현황: 연령대 구분	161
<표 V-101> 조사 대상의 저축 및 부채 현황(없음 제외): 연령대 구분	162
<표 V-102> 조사 대상의 주요 부채 이유: 연령대 구분	162
<표 V-103>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기간(가구): 연령대 구분	163
<표 V-104>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현황: 연령대 구분	163
<표 V-105> 조사 대상의 월평균 생활비: 연령대 구분	164
<표 V-106> 조사대상의 부담지출 순위: 연령대 구분	165
<표 V-107> 개인 부채 및 가족 부양 부담 정도: 연령대 구분	166
<표 V-108> 미래 경제상황에 대한 전망: 연령대 구분	166
<표 V-109> 경제적 상황에 대한 인식: 연령대 구분	167
<표 V-110> 조사 대상의 주거형태: 연령대 구분	169
<표 V-111> 조사 대상의 주거자산: 연령대 구분	170
<표 V-112> 조사 대상의 예상 진로: 연령대 구분	170
<표 V-113> 진로행동 : 연령대 구분	171
<표 V-114> 자아존중감 및 자신의 역량에 대한 평가: 연령대 구분	171

<표 V-115> 사회적 자본과 가족지지 : 연령대 구분	172
<표 V-116> 지난 1년 동안 사회참여 정도 : 연령대 구분	173
<표 V-117> 사회의 소득불평등 인식 : 연령대 구분	173
<표 V-118> 청년희망키움통장 월 자유납입금액 : 연령대 구분	174
<표 V-119> 청년희망키움통장 사업만족도 : 연령대 구분	174
<표 V-120> 청년희망키움통장 사업 포기 고려 이유 : 연령대 구분	175
<표 V-121> 청년희망키움통장 사업 개선점 : 연령대 구분	175
<표 V-122> 청년희망키움통장 사업과 함께 받고 싶은 서비스 및 프로그램 : 연령대 구분	176
<표 V-123> 청년희망키움통장 사업 지원금 수령시 사용 계획 : 연령대 구분	177
<표 V-124> 조사 대상의 일반현황: 가구주 구분	178
<표 V-125> 조사 대상의 주관적 건강상태: 가구주 구분	179
<표 V-126> 조사 대상의 가구현황: 가구주 구분	180
<표 V-127> 조사 대상의 동거 가구원 수: 가구주 구분	180
<표 V-128> 조사 대상의 근로 현황: 가구주 구분	181
<표 V-129> 근로에 대한 생각과 태도: 가구주 구분	182
<표 V-130> 지난 3개월 동안의 월평균 소득: 가구주 구분	183
<표 V-131> 조사 대상의 저축 및 부채 현황: 가구주 구분	183
<표 V-132> 조사 대상의 저축 및 부채 현황(없음 제외): 가구주 구분	184
<표 V-133> 조사 대상의 주요 부채 이유: 가구주 구분	184
<표 V-134>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기간(가구): 가구주 구분	185
<표 V-135>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현황: 가구주 구분	185
<표 V-136> 조사 대상의 월평균 생활비: 가구주 구분	186
<표 V-137> 조사 대상의 부담지출 순위: 가구주 구분	187
<표 V-138> 개인 부채 및 가족 부양 부담 정도: 가구주 구분	188
<표 V-139> 미래 경제상황에 대한 전망: 가구주 구분	188
<표 V-140> 경제적 상황에 대한 인식: 가구주 구분	189
<표 V-141> 조사 대상의 주거형태: 가구주 구분	190
<표 V-142> 조사 대상의 주거자산: 가구주 구분	191
<표 V-143> 조사 대상의 예상 진로: 가구주 구분	191
<표 V-144> 진로행동: 가구주 구분	192
<표 V-145> 자아존중감 및 자신의 역량에 대한 평가: 가구주 구분	192

<표 V-146> 사회적 자본과 가족지지: 가구주 구분	193
<표 V-147> 지난 1년 동안 사회참여 정도: 가구주 구분	194
<표 V-148> 사회의 소득불평등 인식: 가구주 구분	194
<표 V-149> 청년희망키움통장 월 자유납입금액: 가구주 구분	195
<표 V-150> 청년희망키움통장 사업만족도: 가구주 구분	195
<표 V-151> 청년희망키움통장 사업 포기 고려 이유: 가구주 구분	196
<표 V-152> 청년희망키움통장 사업 개선점: 가구주 구분	196
<표 V-153> 청년희망키움통장 사업과 함께 받고 싶은 서비스 및 프로그램: 가구주 구분	197
<표 V-154> 청년희망키움통장 사업 지원금 수령시 사용 계획 : 가구주 구분	197
<표 V-155> 조사 대상의 일반현황: 거주 지역 구분	198
<표 V-156> 조사 응답자 일반현황: 거주 지역 구분	199
<표 V-157> 조사 대상의 가구현황: 거주 지역 구분	199
<표 V-158> 조사 대상의 동거 가구원 수: 거주 지역 구분	200
<표 V-159> 조사 대상의 근로 현황: 거주 지역 구분	201
<표 V-160> 근로에 대한 생각과 태도: 거주 지역 구분	202
<표 V-161> 지난 3개월 동안의 월평균 소득: 거주 지역 구분	203
<표 V-162> 조사대상의 저축 및 부채 현황: 거주 지역 구분	203
<표 V-163> 조사대상의 저축 및 부채 현황(없음 제외): 거주 지역 구분	204
<표 V-164> 조사대상의 주요 부채 이유: 거주 지역 구분	204
<표 V-165>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기간(가구): 거주 지역 구분	204
<표 V-166>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현황: 거주 지역 구분	205
<표 V-167> 조사 대상의 월평균 생활비: 거주 지역 구분	206
<표 V-168> 조사대상의 부담지출 순위: 거주 지역 구분	207
<표 V-169> 개인 부채 및 가족 부양 부담 정도: 거주 지역 구분	207
<표 V-170> 미래 경제상황에 대한 전망: 거주 지역 구분	208
<표 V-171> 경제적 상황에 대한 인식: 거주 지역 구분	209
<표 V-172> 조사 대상의 주거형태: 거주 지역 구분	210
<표 V-173> 조사 대상의 주거자산: 거주 지역 구분	211
<표 V-174> 조사 대상의 예상 진로: 거주 지역 구분	212
<표 V-175> 진로행동: 거주 지역 구분	212
<표 V-176> 자아존중감 및 자신의 역량에 대한 평가: 거주 지역 구분	213

<표 V-177> 사회적 자본과 가족지지: 거주 지역 구분	213
<표 V-178> 지난 1년 동안 사회참여 정도: 거주 지역 구분	214
<표 V-179> 사회의 소득불평등 인식: 거주 지역 구분	214
<표 V-180> 청년희망키움통장 월 자유납입금액: 거주 지역 구분	215
<표 V-181> 청년희망키움통장 사업만족도: 거주 지역 구분	215
<표 V-182> 청년희망키움통장 사업 포기 고려 이유: 거주 지역 구분	216
<표 V-183> 청년희망키움통장 사업 개선점: 거주 지역 구분	216
<표 V-184> 청년희망키움통장사업과 함께 받고 싶은 서비스 및 프로그램: 거주 지역 구분	217
<표 V-185> 청년희망키움통장 사업 지원금 수령시 사용 계획: 거주 지역 구분	217
<표 V-186> 사업참여자(유지자) 집단심층면접 참여자의 특성	218
<표 V-187> 통장사업 참여자 집단심층면접을 통해 도출된 범주	219
<표 V-188> 중도해지자 집단심층면접 참여자의 특성	229
<표 V-189> 중도해지자 집단심층면접을 통해 도출된 범주	230

그림 목차

[그림Ⅱ-1] 청년의 첫 취업 임금 분포	23
[그림Ⅱ-2] 행복한 삶을 위한 요건	25

I

연구 개요

- 연구 배경 및 필요성
- 연구 내용 및 방법
- 연구 수행 체계

I. 연구 개요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1) 변화하는 환경에서 빈곤 청년들이 직면하는 다차원적 어려움

2007년 청년들을 힘든 삶을 표현하기 위해 ‘88만원 세대’라는 용어가 등장한지 10년이 넘는 시간이 지났지만 여전히 청년들의 삶은 어렵다. 현재의 청년들은 고등교육의 일반화로 전반적으로 높은 역량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용없는 성장, 경기침체의 장기화, 노동시장 유연화 및 이중화, 저임금 저기술 서비스 중심의 일자리 확대 등으로 인해 자신의 눈높이와 역량에 맞는 일자리를 가지는 것이 어려워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청년층’은 실업과 불안정한 노동에 고통 받는 동시에 높은 주거비와 생활비의 압박 하에서 다차원적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청년들은 특히 정규직과 비정규직, 대기업과 중소기업으로 이분화되어 있는 노동시장의 희생자로서 연장된 청년기를 살아간다.

경제적 어려움 없이 청년기를 살아가는 청년들도 나름의 어려움을 경험하지만 가족들로부터 지원을 기대하기 어렵거나 가족이 오히려 짐이 되는 빈곤 가구 청년의 경우에는 생존의 위협을 경험한다. 생존의 위협을 경험하며 빈곤 청년들은 미래를 위한 준비와 투자보다는 현재의 생존에 급급하여 불안정한 일자리에서의 노동을 감내한다. 그러나 불안정한 일자리는 불투명한 미래, 불안감, 성인기로의 진입의 어려움을 수반한다.

2) 우리나라의 청년 대상 지원 제도

이렇듯 청년들이 다차원적 어려움에 직면해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 청년들은 여전히 사회적 취약계층으로, 사회복지의 주요 대상으로 고려되지 않고 있다.

청년만을 대상으로 하는 청년 지원 제도의 경우, 김대중 정부까지는 존재하지 않다가 노무현¹⁾, 이명박²⁾ 정부 때 직업 훈련 및 취업지원 프로그램 중심으로 생겨나기 시작하였다. 이후 박근혜 정부 때에는 청년이 직면하는 다차원적 문제들이 사회 이슈화 되며 청년대상의 지원 제도들이 새로이 생겨났으나 여전히 직업훈련과 취창업 중심의 사업들이 주를 이루었다³⁾. 예서 청년의 주거, 생활 관련한 문제들이 후보들의 공약으로 등장하고 실제로 관련 제도들이 생겨나기 시작하였으나 여전히 직업훈련 및 취창업에 초점을 두었다.

2017년 20대 총선에서 본격적으로 청년 대상의 다양한 지원 제도에 대한 공약들이 담기기 시작하였다.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는 청년 문제가 사회적 문제화 되고 일부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청년 대상의 수당 및 자산형성지원사업이 시도되었다. 이에 여전히 노동가능 계층인 청년에 대한 지원 제도가 직업교육·훈련 및 취창업 지원에 초점을 두면서도 주거지원, 수당 등 교육비 및 생활비 지원, 목돈마련 지원 등으로 다원화되고 있다.

현재 청년 대상의 지원 제도는 그 안에서 세부 정책 및 제도 별로 세제혜택, 현물지원, 현금지원, 청년 대상 지원, 기업 대상 지원 등 지원의 형태와 대상은 다양하게 나타나나 제도의 목적과 내용은 다음과 같이 직업교육·훈련을 통한 취창업 지원, 일자리 제공을 통한 고용지원, 자산형성지원사업을 통한 목돈마련 지원, 생활비 지원, 주거 지원의 범주를 벗어나지 않고 있다.

1) 산업혁신 및 지식기반사회에 부응한 청년층 일자리 창출 강화 제도가 실시되었다 (참여정부 국정비전과 국정 과제, 2003.3).

2) 이명박 정부 때에는 중소기업 중심의 청년 일자리 창출(중소기업청), 고용지원서비스 강화(고용노동부), 청년취업 아카데미 운영 및 지원(고용노동부), 고학력 청년 여성 커리어 개발(여성가족부), 해외취업수요처 발굴을 통한 청년층 취업진출기회 확대(고용노동부) 등의 청년 지원 제도가 실시되었다 (이명박 정부 100대 국정 과제, 2008. 10)

3) 박근혜 정부 때에는 청년 친화적 일자리 확충기반 조성, 청년 대상 사회적 일자리 확대, 창업·벤처 활성화를 통한 청년 일자리 창출, 맞춤형 취업지원 및 고용서비스망 강화,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활성화,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청년 신규채용시 임금 일부 등 지원, 학벌이 아닌 능력중심 사회 만들기, 일자리 외교 확대, ODA 청년인턴사업·주니어 컨설턴트 제도 활성화 등의 청년 지원 제도가 실시되었다 (박근혜 정부 국정과제, 2013. 2).

3) 청년 대상 자산형성지원사업의 의미와 역할

이 중에서도 자산형성지원사업은 청년을 대상으로도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주도로 다수의 사업이 시행되고 있다. 자산형성지원사업은 목돈 마련을 통해 빈곤 예방과 빈곤 탈출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자산형성지원사업에 대한 선행 연구들은 경제적 측면 뿐 아니라 정서적, 사회적 측면에서도 그 성과를 보고해왔다.

실제로 자산형성지원사업은 고용없는 성장, 경기침체의 장기화, 노동시장의 이중화와 저임금·저기술 일자리 중심의 일자리 확대 등으로 자산 축적이 어려워졌음에도 전통적으로 사회적 취약계층으로 다루어지지 않음으로써 사회적 안전망이 취약한 한편, 가족 자원에서의 의존도가 높은 청년층의 목돈 마련을 지원함으로써 가족 자원의 불평등을 감소시키고 빈곤층으로의 진입을 예방할 수 있는 기제로서의 잠재력을 가진다.

최근 이러한 이유로 자산형성지원사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주요 사회복지지체도로 자리잡고 있다. 청년 대상의 자산형성지원사업으로는 중앙정부 주도로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이 운영 중이며, 지자체별로도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서울시 희망두배청년통장 외에도 전남, 대전시, 광주시, 충남, 부산시 등에서 청년 대상의 자산형성지원사업을 운영 중이다.

본 연구는 이 중에서 중앙정부가 수급 가구의 빈곤 청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청년희망키움통장 사업 참여 청년 대상의 1차년도 패널 구축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청년희망키움통장 사업은 생계, 의료수급가구의 가구원으로서 본인의 근로 및 사업 소득의 합이 1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20% 이상인 청년(15세 이상 34세 이하)을 대상으로 한다. 청년희망키움통장은 대부분의 다른 자산형성지원사업의 경우 본인저축액을 의무하고 그에 대비하여 매칭금액을 부여하고 있는 것과 달리 본인저축액 없이 매월 근로소득공제금 10만원과 근로소득장려금이 적립된다는 특징을 가진다. 이는 빈곤 청년이 통장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가질 수 있는 본인저축의 부담을 경감하는 의미를 가진다. 또한 가입기간 동안 소득이

발생하는 근로를 유지하고, 3년 이내 탈수급을 해야 한다는 수급 조건을 가짐으로써 탈수급을 독려한다.

4) 자산형성사업의 기대 효과

Sherraden(1991)은 자산형성사업의 기대 효과로 가족 관계 개선을 통한 가족 안정성 개선, 미래에 대한 희망, 계획 수립과 실행력 향상, 갑자기 닥칠 위험에 대비할 기반을 제공함으로써 심리적 안정감 및 지지 제공, 인적자본 및 자산형성, 경제활동 참여 및 삶의 질 향상, 위험대응 역량, 사회활동 참여, 빈곤의 대물림 방지 등을 제안한 바 있다. Sherraden외에도 일련의 연구들은 자산형성지원사업이 개인적으로는 자산 형성 지원을 통한 경제적 여건 개선, 심리적 안정감, 시민행동, 사회활동 참여, 삶의 질 향상과 같은 효과를, 거시적으로는 교육비 향상을 통한 빈곤 대물림 완화, 여성의 지위 향상의 성과를 가짐을 보고해왔다 (Galster, 1987; Oskamp et al., 1991; Perkins et al., 1990; Rohe & Stegman, 1994; Thompson, 1993; Levinson, 1989; Noponen, 1992; Page-Adams, 1995; Peterson, 1980; Schuler & Hashemi, 1994; Cheng, 1995; Green & Whit, 1997; Sherraden, 1991; Page-Adams & Sherraden, 1997; Green & White, 1997; Noponen, 1992; Page-Adams, 1995; Schler & Hashemi, 1994; Oskamp et al., 1991; Perkins et al., 1990; Rohe & Stegman, 1994).

우리나라의 경우 자산형성사업이 시행된 이래 그 성과를 평가하기 위해 희망키움통장, 서울희망플러스 통장, 서울희망두배 청년통장사업,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사업 등 우리나라의 주요 자산형성지원사업별로 성과평가 연구(최현수 외, 2010, 2011, 2012, 2013; 이순성 외, 2009, 2010; 2011; 서종녀, 2015, 2017; 최조순 외, 2017)가 이루어져 왔다.

최현수 외(2013)는 희망키움통장 참여가구에 대해 2010년 기초선 조사를 수행하며 참여자 및 참여가구의 변화를 추적한 결과 경제적 생활수준에 대한 인식, 저축관련 인식 및 태도, 저축 습관에 대한 전망에 있어서의 긍정적 변화를 보고하였다. 이순성 외(2010)외의 경우 서울시 저소득층 대상 자산형성지원사업인

희망플러스 통장 사업 참여자를 대상으로 사업 성과를 분석한 결과, 계획적 소비 인식, 소득계층 인식, 배우자 및 자녀와의 문제해결 방법, 희망플러스 통장사업에 대한 인식 등에서의 긍정적 변화를 발견하였다.

청년대상 자산형성지원사업의 성과로는 서중녀 외(2017)가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사업 참여자를 대상으로 그 효과를 분석한 결과, 참여자의 금융자산, 근로소득 증가, 소비(월평균 생활비)증가, 미래의 상황에 대한 인식 등 경제적, 정서적 측면에서 긍정적 변화를 보고하였다.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사업 참여자를 대상으로 사업 성과를 분석한 최조순 외(2017)의 연구 또한 근로빈곤청년에 대한 자산형성지원사업이 이들의 소득, 저축, 자산 증가를 통해 경제적 스트레스 감소와 경제적 역량 강화, 소비에 대한 자기결정권 향상 등의 경제적 측면의 성과와 함께 미래에 대한 희망이 증가한 정서적 성과를 발견, 보고한 바 있다.

청년희망키움통장 사업 1차년도에 참여자, 비참여자 비교를 통해 참여 성과를 탐색한 최상미 외(2018)의 연구 또한 참여자 집단은 비참여자 집단에 비해 더 높은 상용근로 참여율, 더 높은 근로소득과 총소득, 더 높은 자아정체감을 가지고 있음을 보고하였으나, 이러한 차이가 사업의 효과가 아닌 참여자 자체의 특성 차이일 수 있으므로 주의깊은 해석이 필요함을 제안하였다.

이처럼 자산형성지원사업이 그 대상과 지원 내용, 조건을 달리하며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선행연구들로부터 자산형성지원사업은 경제적 측면 뿐 아니라 정서적 측면에서 효과를 가짐을 추정해볼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중앙정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청년 대상 자산형성지원사업인 청년희망키움통장 참여자를 대상으로 이용자중심적 접근으로부터 사업 성과를 체계적, 종단적으로 평가, 파악하기 위해 패널자료 구축이 요구된다. 이를 통해 사업 효과성 평가에서 나아가 국내 근로 빈곤 청년들의 탈수급과 경제적 안정을 통한 궁극적 자활 성취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적, 제도적 제언 기초 자료로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즉 청년 대상의 자산형성지원사업에 대한 패널 자료를 구축하는 것은 일차적으로는 사업의 효과성 및 성과를 분석하고, 참여자의 변화를

다차원적 측면에서 추적하며, 나아가 향후 해당 사업 및 관련 정책과 제도의 방향에 대한 제언을 도출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이는 현재 시점에서 사회적 책임성을 검증하는 한편 개선방안 도출과 보완을 통해 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한다는 측면에서 의의를 가진다.

2. 연구 내용 및 방법

1) 연구 내용

본 연구는 2018년 실시하기 시작한 ‘청년희망키움통장’ 사업의 1차 패널구축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다음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첫째, 청년 대상 지원 제도, 청년 대상 지원 제도 중 자산형성지원사업의 의미와 역할, 자산형성지원사업 및 자산형성의 성과 및 효과성에 대한 문헌 및 선행연구 검토

둘째, 자산형성지원사업에 대한 해외 사례 검토

셋째, 패널구축을 위한 조사표 구축

넷째, 청년희망키움통장 참여자, 비참여자, 중도해지자를 대상으로 심층집단면접조사 실시

다섯째, 청년희망키움통장 참여자 대상 1차 설문조사 실시

여섯째, 패널 참여에 동의하고 1차 설문조사에 참여한 패널 구축 및 관리

일곱째, 심층집단면접 및 설문조사 결과 분석을 통해 청년희망키움통장 사업 대상자의 실태 및 사업 효과성 도출

여덟째, 청년희망키움통장 사업의 효과성 향상을 위한 개선 방향 및 발전 방안 모색

위의 내용을 중심으로 본 연구의 2장에서는 청년 대상 지원 제도와 우리나라에서 수행 중인 청년 대상 자산형성지원사업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나아가 자산형성지원사업 및 자산형성의 성과에 대한 국내외 문헌을 검토한다. 또한 본 연구는 기존의 자산형성지원사업 관련 연구와의 차별성으로 ‘청년’에 초점을 두고 청년의 목돈 마련 지원을 통해 가져올 수 있는 변화에 초점을 둔다.

본 연구의 3장에서는 청년희망키움통장 사업의 수정, 보완을 위한 함의 도출을 위해 해외 자산형성지원사업 사례를 검토한다.

이어 본 연구의 4장에서는 1차 패널 구축을 위한 청년희망키움통장 사업 참여자 대상 연구설계 방법을 조사대상, 척도구성, 조사방법과 분석방법 중심으로 검토하고 제시한다. 설문조사와 더불어 보완적으로 실시한 청년희망키움통장 사업 참여자, 비참여자, 중도해지자 집단 대상의 심층집단면접 조사방법을 제시한다.

5장에서는 설문조사와 심층집단면접 결과를 분석하여 제시하고, 마지막 6장에서는 조사결과로부터의 해석에 기반한 결론과 함의를 제시함. 결론과 함의에서는 청년희망키움통장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 대상, 사업의 수급금액, 사업 내용, 사업 절차 및 체계와 관련한 논의를 제시한다.

2) 연구 방법

(1) 문헌연구

문헌연구로서 청년 대상 지원 제도, 청년 대상 자산형성지원사업, 해외 자산형성지원사업 사례, 자산형성지원사업 및 자산형성의 성과 및 효과성 관련 국내외 법률과 제도, 기존 연구보고서 및 논문을 검토한다.

(2) 설문조사

본 연구는 2018년 실시하기 시작한 청년대상 자산형성지원사업인 ‘청년희망키움통장’ 사업 1차 패널구축을 위한 기초연구로서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패널 조사표를 활용하여 ‘청년희망키움통장’ 사업 참여자 중 7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조사표는 청년 참여자의 실태, 특성 및 사업 참여를 통한 변화를 파악하기 위한 내용으로 구성된다. 청년이라는 생애주기적 특성을 고려함과 동시에 직접적 효과와 더불어 간접적 효과, 단기적 효과와 장기적 효과, 객관적 상황의 변화와 더불어 주관적 인식과 태도에 있어서의 변화를 단계적, 포괄적으로 파악하기 위

해 각 차원 별로 객관적 지표와 주관적 지표를 균형있게 포함하였다. 최종적으로 조사표에 포함된 지표는 다음과 같다.

- 일반적 특성 - 성별, 연령, 혼인상태, 학력, 장애여부, 가구주여부, 가구구성
- 고용 상태 - 근로형태, 직종분류, 근로시간형태, 근로지속가능성
- 경제적 상황 - 소득, 자산, 부채, 수급, 소비 현황
- 경제적 상황에 대한 인지와 역량 - 경제적 스트레스, 미래의 경제 상황에 대한 생각, 재무관리역량
- 저축 상황 및 저축 상황에 대한 생각 - 저축액, 저축의 주요 목적, 저축에 대한 생각
- 주거 상황 - 거주지유형, 주거위치, 점유형태, 점유형태별 거주자산 금액, 주택의 면적
- 건강 상황 - 최근 건강상태에 대한 인지
- 가족관계 - 가족 지지
- 사회적 역량 - 사회 참여 정도, 사회적 자본
- 진로에 대한 생각 - 1년뒤 예상 진로, 진로행동
- 근로에 대한 생각, 태도 및 행동 - 근로의욕, 일에 대한 생각, 고용장벽, 고용 희망
- 심리정서적 상황: 자아존중삼행복, 끈기, 회복탄력성
- 사회에 대한 생각: 우리 사회 소득불평등 수준에 대한 인지
- 사업 관련 : 사업 만족도, 포기생각 여부와 이유, 개선점, 지원금 수령시 사용 계획, 함께 받고 싶은 서비스 및 프로그램

본 연구에서 설문조사를 위한 자료 수집과정, 조사표 구성, 자료 분석과 같은 설문조사의 일련의 과정은 청년희망키움통장 사업 참여자의 현황 및 실태 파악, 사업 참여 성과 분석, 향후 패널 구축을 통한 중단 변화 분석, 청년희망키움통장 사업 및 청년 지원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적, 실천적 제언 제공을 위한 자료로 활용한다.

(3) 심층면접조사

본 연구는 청년희망키움통장 사업 참여 대상인 수급 가구의 근로 빈곤 청년들의 실태도 보다 심층적으로 파악하고, 사업에의 제언을 위한 함의를 구하기 위해 사업 참여 청년, 사업 대상이나 비참여 청년, 중도해지 청년을 대상으로 초점집단조사를 실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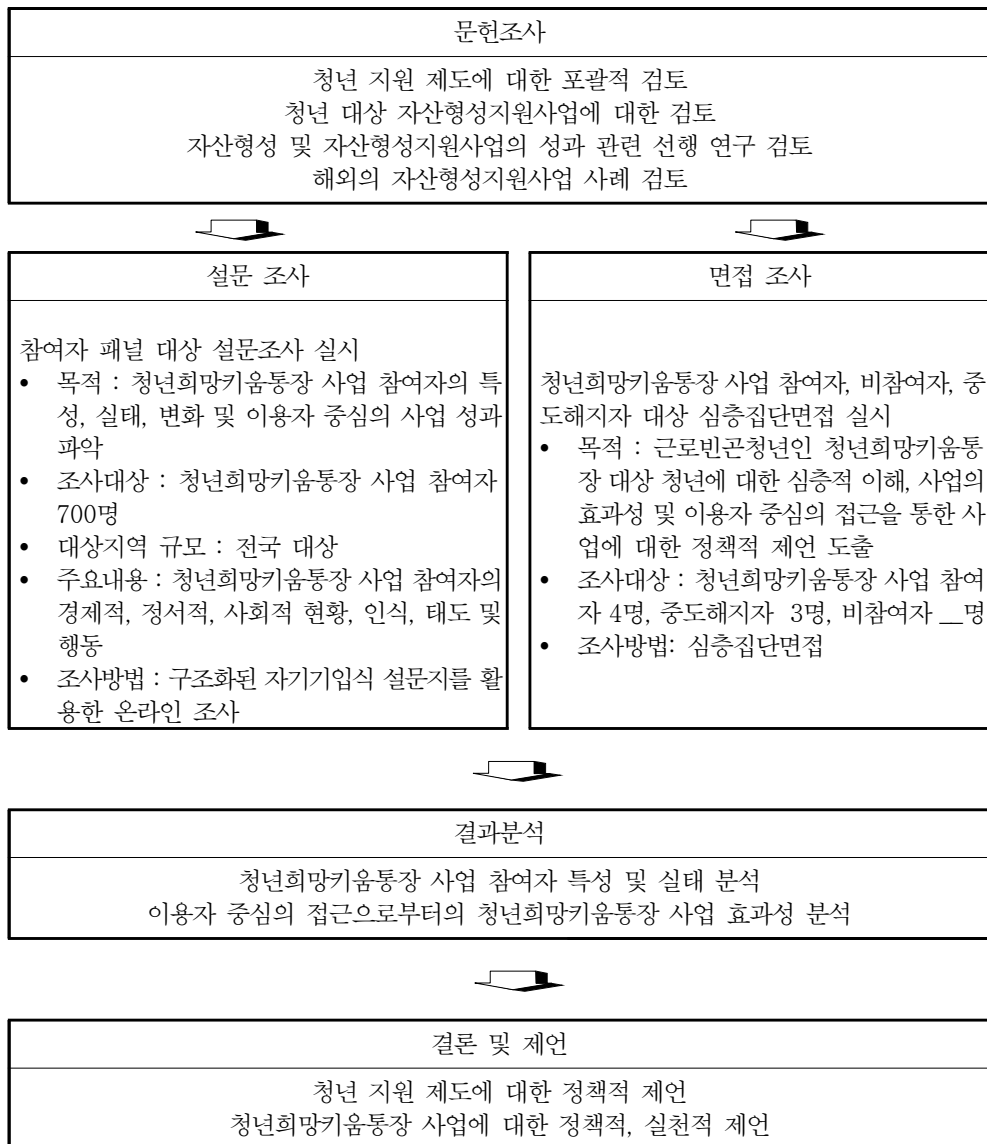
심층집단면접은 청년희망키움통장 사업 참여 청년 총 4명, 중도해지 청년 3명 등 총 7명을 대상으로 2019년 8월에서 10월 사이에 2회에 걸쳐 각각 두 시간 가량 진행되었다.

심층집단면접에서는 ‘청년의 삶’, ‘현재의 삶에서 힘이나게 하는 것’, 자신이 하고자하는 일을 가로막는 장벽’, ‘5년 뒤, 10년 뒤 자신의 삶’ 등 근로 빈곤 청년의 근로와 삶, 미래에 대한 전망과 계획, 삶의 장벽과 희망 요인 등을 전반적으로 파악하였다. 더하여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사업 참여자에게는 ‘통장사업 참여 이후 생활의 변화’, ‘통장사업 만기 시 지원금 활용 계획’, ‘통장사업 만기 후 기대하는 생활의 변화’, ‘통장사업 이용시 불편한 점, 제언 및 바라는 점’, 중도해지자에게는 ‘해지 이유’를, 비참여자에게는 ‘비참여 이유’와 ‘향후 참여의사’등을 파악하였다.

3. 연구 수행 체계

위에서 제시한 연구내용과 방법에 따른 연구 수행체계는 다음과 같다.

<표 I-1> 연구 수행 체계



II

관련 정책 및 선행 연구 검토

1. 청년대상 지원정책
2. 청년대상 자산형성지원사업과 청년희망키움통장
3. 자산형성지원사업의 성과
4. 자산형성의 영향

II. 관련 정책 및 선행 연구 검토

1. 청년대상 지원정책

1) 청년과 청년정책

현재 한국에서 청년 문제는 높은 청년 실업률로 대표되듯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사회 문제 중 하나로 논의되고 있다(이윤주 외, 2017). 청년 문제가 오늘날과 같이 사회 문제로 다뤄지기 시작한 것은 2000년대 초, 외환위기 이후 청년 실업률 증가와 이를 해결하기 위한 청년 정책이 수립되면서부터라 할 수 있다(김기현, 2017; 최하예·황성수, 2018).

청년 정책은 주로 실업 및 취업, 창업 등의 고용 및 일자리 영역에 집중 되는 경향을 보이는데, 오늘날 청년들이 미취업 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소득, 부채, 주거, 건강, 나아가 결혼과 출산 등 삶의 전반에서 어려움을 경험한다는 점에서 청년을 둘러싼 환경에 대한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이윤주 외, 2017).

한편, 청년 정책이 복지, 문화 등과 같은 기능 중심의 정책이 아니라 아동, 청소년 등과 같은 대상 중심의 정책 중 하나라는 점에서(김기현, 2017), 정책 대상으로서 청년에 대한 개념화가 필요함에도 여전히 청년을 어떻게 규정하고 이해할 것인가에 대한 사회적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은 실정이다(최하예·황성수, 2018). 현재 청년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이 유일한데, 이 법에 따르면 청년이란 취업을 원하는 사람으로서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⁴⁾.

4) 다만,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이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는 경우에 청년은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2조(정의),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제2조(청년의 나이))

2) 청년 생활 실태

청년은 경제활동의 주축이자 결혼과 출산을 앞두고 있는 세대 확장의 시작점이며, 정치적 변화의 핵심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경제적·사회적·정치적으로 의미를 가진다(김기현 외, 2017).

하지만 오늘날 우리나라의 청년들은 노동시장 진입 전부터 학자금 대출에 의한 개인 부채를 시작으로 구직난에 의한 실업과 비정규직 확산에 따른 고용 불안, 주거 나아가 결혼과 출산 등에 이르기까지 생활 전반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김기현, 2017).

(1) 청년 실업률

최근 대한민국의 가장 심각한 청년 관련 문제는 매년 증가하는 청년 실업률이다. 경제활동인구 전체에 대한 실업률과 청년으로 분류되는 연령대의 실업률을 비교하여 보면, 청년 실업률이 매우 심각한 수준임을 알 수 있다.

15세-29세의 실업률은 2015년 9.1%에서, 2016년과 2017년에는 9.8%, 2018년에는 9.5%로 증가했다 다소 감소한 모습을 보였으나, 15세-34세의 실업률은 2015년 6.7%에서 2018년 7.6%로 0.9% 증가하며 악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전체 경제활동인구의 실업률과 비교하였을 때, 2018년도 15세-29세의 실업률은 약 2.5배, 15세-34세의 실업률은 약 2배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Ⅱ-1> 실업자 수, 실업률

(단위: 천명, %)

구분	2015	2016	2017	2018
15세 이상 (경제활동인구 전체)	976(3.6)	1,009(3.7)	1,023(3.7)	1,073(3.8)
15세-29세	389(9.1)	426(9.8)	425(9.8)	408(9.5)
15세-34세	486(6.7)	534(7.4)	536(7.6)	525(7.6)

*출처: 통계청(각 년도), 경제활동인구조사, 2019.11.14. 인출

한편, 최종학교 신규 졸업자⁵⁾의 실업률은 전체 청년 및 기졸업자의 실업률과 비교하였을 때도 더욱 심각한 수준일 뿐 아니라, 매년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신규졸업자의 경우 최종학교 졸업 후 처음으로 구직활동을 경험하게 되기에 기졸업자에 비하여 충분히 구직에 더 많은 어려움을 경험할 수 있지만(김종욱, 2018) 2017년 기준, 신규졸업자의 실업률이 기졸업자의 실업률에 비해 약 1.6배, 경제활동인구 전체 실업률 대비 4.3배 높은 것으로 나타난 것은 신규졸업자의 실업률 단순한 어려움으로 치부되어서는 안 됨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표II-2> 졸업자·신규졸업자 청년(15~29세) 실업률

(단위: %)

구분	2014	2015	2016	2017
졸업자	8.6	8.7	9.6	9.8
신규졸업자	14.9	14.5	15.0	15.9

*출처: 김종욱(2018), 청년 졸업자 주요 고용지표 현황, 노동리뷰(4월호), p.85

(2) 청년 니트(NEET) 현황

니트(NEET)란, 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의 줄임말로 경제 활동인구 가운데 교육 및 훈련을 받지 않으면서, 일도 하지 않고 일하고자 하는 의지도 없는 사람을 의미한다. 니트족은 취업과 관련한 의욕이 전혀 없기 때문에, 실업자와는 다르다.

니트족의 경우 1990년대 고용환경의 악화에 따라 유럽 및 일본 등의 국가에서 취업을 포기하는 청년들을 지칭하는 말로 사용되었으나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청년 실업문제가 나날이 심각해짐에 따라 청년 니트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5) 신규졸업자란 경제활동인구 조사 중 조사연도와 최종학교 졸업연도가 같거나 한 해 차이 나는 청년을 말함(김종욱, 2018).

<표Ⅱ-3> 니트(NEET) 비율

(단위: %)

구분	2014	2015	2016	2017
청년 니트(NEET) 비율	17.8	18.6	18.9	19.1

*출처: 김형주 외(2018), 청년 사회경제 실태 및 정책방안연구, p.142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 따르면, 니트(NEET)의 비율은 2014년 17.8%에서 2015년 18.6%, 2016년 18.9%, 2017년 19.1%로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추세를 고려한다면 청년 니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청년 니트가 실업자와 달리 취업에 대한 의사와 욕구를 완전히 상실한 사람들이라는 점을 고려한 새로운 정책적 접근에 대한 고민이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

(3) 청년층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상대임금

청년의 실업률 증가와 관련하여 주목해야 할 또 다른 측면은 양질의 일자리와 관련된 부분이다. 세계적으로 불안정한 경제 상황은 고용의 기회 뿐 아니라 고용의 안정성 역시 악화시켰다. 그 결과 2014년 32.2%였던 비정규직의 비율은 2018년 33.0%로 증가하였으며, 특히 15세-19세의 비정규직 비율은 2014년 70.0%에서 2018년 74.0%로 4%, 20세-29세 비정규직의 비율은 2014년 32.0%에서 2018년 32.3%로 0.3% 증가했다.

<표Ⅱ-4> 비정규직근로자 비율

(단위: %)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전체	32.2	32.4	32.8	32.9	33.0
15세-19세	70.0	74.3	75.2	73.4	74.0
20세-29세	32.0	32.1	32.2	33.1	32.3

*출처: 통계청, 비정규직근로자비율

비정규직 근로자 비율의 증가는 다시 고용 형태에 따른 소득의 격차로 이어지

는데 연도별 청년층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상대임금을 살펴보면 특수형태 비정규직을 제외했을 때, 비정규직의 상대임금은 2017년 기준 44.8%에 불과한 수준이었다.

<표Ⅱ-5> 청년층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상대임금(비정규직 특수형태 제외)

(단위: %)

구분	2014	2015	2016	2017
전체	42.3	43.0	44.0	44.8
15세-29세	45.4	47.0	48.6	48.4

*출처: 김형주의(2018), 청년 사회경제 실태 및 정책방안연구, p.158

(4) 물질적 박탈감 경험여부

청년의 물질적 박탈감 경험여부를 살펴보기 위하여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에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EU에서 발간하는 Youth Report에 포함된 문항을 활용하였다. 총 9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는 물질적 박탈감 질문 중 3가지에서 결핍을 경험한다면 물질적 박탈감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4가지 이상에서 결핍을 느낄 경우 심각한 물질적 박탈감을 경험하는 것으로 분류할 수 있다.

세부 문항은 돈이 없어서 임대료, 대출금, 관리비 등 주거 관련 비용을 지불하지 못한 경험, 돈이 없어서 집의 냉/난방을 유지하지 못한 경험, 돈이 없어 예상치 못한 지출이 발생했을 때 비용을 지불하지 못한 경험, 돈이 없어서 규칙적인 식사를 못한 경험, 돈이 없어서 휴일에 놀러가지 못하거나 사고 싶은 것을 사지 못한 경험, TV, 냉장고, 자동차, 통신수단 보유여부로 구성되어 있다.

<표Ⅱ-6> 청년층의 물질적 박탈감 경험

(단위: %)

구분	2017			2018		
	전체	15-18	19-29	전체	15-18	19-29
주거 관련 비용 지불 못한 경험	2.7	0.4	2.9	0.8	0.0	0.6
냉/난방 유지 못한 경험	0.8	0.0	1.2	0.6	0.9	0.3
예상치 못한 지출 발생시 비용을 지불하지 못한 경험	7.9	5.7	9.2	10.3	10.7	11.1
규칙적인 식사를 못한 경험	2.2	1.5	3.9	1.1	1.0	1.1
휴일에 놀러가지 못하거나 사고 싶은 것을 사지 못한 경험	13.9	11.5	17.2	18.7	23.4	19.7
TV를 가지고 있지 못한 경우	2.7	1.7	4.3	0.5	0.4	0.5
냉장고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	0.7	0.7	1.0	0.3	0.4	0.2
자동차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	24.6	24.1	36.1	22.4	29.3	30.0
통신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	0.3	1.1	0.2	0.4	0.2	0.6

*출처: 김형주의(2018), 청년 사회경제 실태 및 정책방안연구, p.165~173

조사 결과 2018년 기준, 3가지 항목에서 결핍을 경험한 비율은 2.0%로, 4가지 이상에서 결핍을 경험한 비율은 0.8%로 나타나 청년 100명 중 2명은 물질적 박탈감을 1000명 중 8명은 심각한 물질적 박탈감을 경험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5) 청년 부채와 소득

3포 세대, 4포 세대 그리고 N포 세대를 넘어 최근 청년들 사이에서 포기해야 할 것은 한 가지, 이번 생이라는 의미의 1포 세대라는 신조어가 확산되고 있다. 청년들은 스스로를 실업과 신용불량의 합성어인 실신세대라 칭한다⁶⁾.

청년·대학생 금융 실태조사(2017)에 따르면 전체 청년 중 20.1%가 대출 경험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중 고금리 금융기관 이용 경험이 있는 청년은 13%, 연체 경험이 있는 청년은 15.2%로 나타났다.

6) 중앙SUNDAY, 2018.11.03.자 기사

서울시 거주 청년들의 평균 자산과 부채를 바탕으로 순자산을 산출했을 때, 만 24세 이하 청년의 순자산은 -166만원, 만 29세 이하 청년의 순자산은 5,299원, 만 34세 이하 청년의 순자산은 3,100만원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평균 순자산이 3,100만원으로 조사된 만 29세~만34세 청년들 중에서도 격차가 있어 상당 수의 청년은 미래의 자산이 없는 상태로 부채로 미래를 설계하고 있는 실정이다.

<표Ⅱ-7> 서울시 청년의 재무상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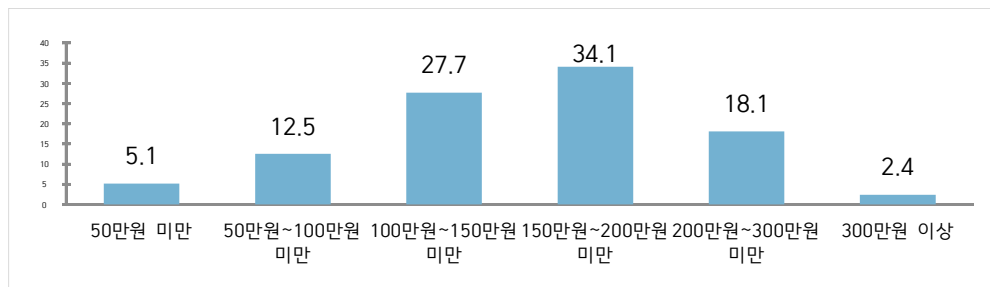
(단위: 만원)

구분	만 24세 이하	만 29세 이하	만 34세 이하
평균 자산	484	1,013	—
평균 부채	650	1,013	—
순자산	-166	5,299(원)	3,100

*출처: 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2017), 이행기청년 금융지원 모형 개발 연구, p.55

또한 첫 일자리를 얻기 위해 청년들은 평균 10.7개월을 소요하지만, 첫 직장에 서 평균 17.9개월(1년 5.9개월)을 근속하고 34.1%가 150만원~200만원 미만의 수입을 얻는 것으로 나타났다⁷⁾.

[그림Ⅱ-1] 청년의 첫 취업 임금 분포



*출처: 통계청(2019), 2019년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 결과, p.16

7) 통계청, 2019년 5월 기준.

(6) 청년과 부양 부담

청년자녀의 69.0%는 부모에게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결과 특히, 청년자녀가 평균 23세가 되는 시점부터 부모에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는 비율이 그렇지 않은 비율 보다 높아지는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이는 자녀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부모에 대한 부양책임을 져야 한다는 전통적 사고방식이 여전히 유효함을 보여준다.

청년의 부모에 대한 경제적 지원 제공여부는 청년의 고용상태에 따라 조금씩 다른 양상을 보였으나 자녀가 취업준비생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부모에게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II-8> 청년의 생애주기별 부모의 경제적 지원 제공 여부

(단위: %)

구분	학생	취업준비생	비정규직	정규직
제공하지 않음	50.0	57.3	35.8	22.8
제공 함	50.0	42.2	64.3	77.2

*출처: 한국여성정책연구원(2017), 가족계층에 따른 청년자녀세대의 성인기 이행 및 정책대응 방안 연구, p.50

한편, 청년 자녀와 부모의 경제적 지원 교류 현황을 살펴보면 부모의 경제적 지원은 없으나 자녀가 부모에게 경제적 지원을 하는 경우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부모가 경제적으로 취약한 경우 자녀의 부양 정도와 그에 따른 부담이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

<표II-9> 세대 간 경제적 지원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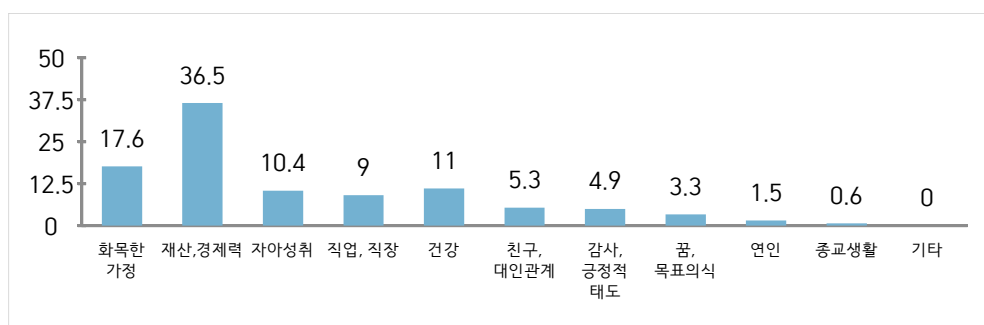
부모의 자녀에 대한 경제적 지원	자녀의 부모에 대한 경제적 지원	비율(%)
없음	없음	24.4
있음	없음	6.7
없음	있음	48.4
있음	있음	20.6

*출처: 한국여성정책연구원(2017), 가족계층에 따른 청년자녀세대의 성인기 이행 및 정책대응 방안 연구, p.51

3) 청년 정책⁸⁾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에서 청년을 대상으로 행복한 삶을 위한 요건을 조사한 결과, 청년들은 행복한 삶을 위해 재산·경제력 36.5%, 화목한 가정 17.6%, 건강 11.0%, 자아성취 10.4% 순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청년들이 현재 경험하는 경제적 어려움의 무게를 보여주는 대목으로 현 정부의 청년정책이 청년 고용 문제에 강조점을 두고 있는 이유와도 맥을 같이한다.

[그림 II-2] 행복한 삶을 위한 요건



*출처: 김형주의(2018), 청년 사회경제 실태 및 정책방안연구, p.235

(1) 중앙정부의 청년정책 및 사업

현재 중앙정부는 생활·복지, 주거·금융, 창업지원, 취업지원 4가지의 영역에서 160개의 청년정책을 시행 중에 있으며⁹⁾, 세부적으로는 생활·복지 영역에서 건강과 문화 관련 사업이 5개, 주거·금융 영역에서 생활비 지원 및 금융 혜택, 주거 지원, 학자금 지원 사업이 36개, 창업지원 영역에서 R&D 지원, 경영 지원, 자본금 지원 사업이 21개, 취업지원 영역에서 교육훈련·체험·인턴, 전문분야 취업지원, 중소기업 취업지원, 해외진출 사업이 98개 운영되고 있다.

8) 온라인청년센터 내 정책을 참고하여 작성

9) 온라인청년센터 <https://www.youthcenter.go.kr/main.do>, 2019.10.6. 기준

<표II-10> 중앙정부의 청년정책 유형과 세부 사업명

유형	세부 사업명
교육 훈련· 체험· 인턴	내일배움카드(실업자·구직자), 내일배움카드(근로자), 중소기업 취업하는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 대학일자리센터, 여성새로일하기센터(청년여성 내일역량 개발지원1),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직업계고 현장실습 제도 개선, 단기집단상담프로그램, 중소중견기업 맞춤형 석박사 연수 사업, 이공계 전문기술 연수사업, 기업대학, 농식품 벤처창업 인턴제, 빈곤 청년에 대한 근로인센티브 확대, 지역 중소·중견기업 R&D 인턴지원사업, 청소년 근로권익센터, CAP+(청년직업지도)프로그램, HI(고졸 청년취업지원)프로그램, 일학습병행제, 학교 밖 청소년 맞춤형 취업지원(내일이룸학교), 군 복무 중 자기개발 지원, 취업특강, allA(청년진로역량강화)프로그램, 청년장병 진로/취업지원강화, 청년 취업역량 프로그램, 청년취업 아카데미, 직업심리검사, 일반고 특화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청년여성멘토링(청년여성 내일역량 개발지원2), 한국형 온라인 공개관자(K-MOOC), 국기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4차 산업혁명 선도 인력 양성 사업
취업 지원	항공조종사 先선발 後교육 제도, 항공분야 취업지원,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 사업, 신진 석·박사 연구인력 채용지원, 초고속 정보통신기반 인력양성1(2년제 학위과정), 빅데이터 청년인재 양성 및 일자, 초고속 정보통신기반 인력양성2(직업훈련과정), 항공정비인력양성채용, 청년기능 장기교육, 화학물질 위해성 평가·관리 전문인력 양성사업, 농업법인 취업지원사업, 청년농업인 육성정책(청년창업농 영농정착지원금), 생활체육지도자 활동지원, 청춘마이크 사업을 통한 청년문화예술가 지원, 해운항만물류전문인력양성 산학연계 지원, 생물자원전문인력양성사업2(생물다양성협약 대응 전문인력 양성 사업),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산업기능요원(보충역), 산업전문인력 역량강화사업, 에너지 R&D 전문인력양성(에너지 인력양성사업), 생물자원전문인력양성사업1(미개척 생물분류군 전문인력 양성), 자원봉사관리자 일자리 제공, 물산업 프로젝트 매니저(PM)양성 사업, 스마트시티 혁신인재육성, 여성과학기술인 R&D 경력복귀 지원사업, 관광전문인력 양성,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 활성화 사업, 국가우수장학금(이공계), 취업맞춤특기병 모집제도, 물류전문인력양성2(글로벌물류인력양성사업), 물류전문인력양성1(물류기능인력양성사업)
중소기업 취업지원	오프라인 청년센터,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청년취업성공패키지, 중소기업 탐방프로그램, 일자리성공패키지,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지원(중소기업 취업연계 장려금),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교통비 지원(청년동행카드), 청년고용증대세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청년친화강소기업, 일자리창출촉진자금
해외진출	월드프렌즈(World Friends Korea, WFK)-일반봉사단, 글로벌 청년리더 양성사업, WFK-KOICA UNV 대학생봉사단, WFK-청년봉사단(The Pacific Asia Society, PAS), WFK-ICT봉사단(Korea ICT Volunteersk, KIV), WFK봉사단 코디네이터, WFK-청년봉사단(한국대학사회봉사협의

		회), KOICA 다자협력전문가(KOICA cooperation officer, KMCO), WFK-과학기술지원단, 월드프렌즈(World Friends Korea, WFK)해외봉사단-청년 중기봉사단, WFK-KOICA NGO봉사단, 개발협력코디네이터, WFK-한방봉사단(KOMSTA), KF 글로벌 챌린저(청년 해외진출 활성화), 한상 청년채용 인턴십, 해외산림인턴사업, 청년 해외진출 멘토링, 해외 취업정착지원금, 농식품 청년 해외개척단(AFLO), ODA 사업수행기관 영프로페셔널, 해외인턴사업(글로벌 현장학습 프로그램), KOICA 해외사무소/재외공간 영프로페셔널, K-MOVE 스쿨
창업 지원	R&D지 원	스마트 벤처 캠퍼스, 창업성공패키지(청년창업사관학교), 민간투자주도형 TIPS과제(TIPS프로그램), 생활혁신형 창업가 지원, 사회적 기업가 육성 사업, 대한민국 창업리그, 소셜벤처 아이디어 경연대회, 재도전 성공 패키지, 초기창업패키지
	경영지원	창조경제혁신센터 원스톱서비스존, 해양신산업 인큐베이팅 지원 사업, 청년창업기업 세금 면제, 벤처기업 공동채용 지원, 외식창업인큐베이팅(청년 키움식당), 청년창업지원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내 희망상가 제공
	자본금 지원	고속도로 청년휴게소(청년창업, 푸드트럭), 청년전용창업자금, 수산모태 펀드 운용, 대학창업펀드 조성, 글로벌엑셀러레이팅, 1인 소상공인 고용보 험료 지원
주거 · 금융	생활비 지원 및 금융 혜택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청년 보증부 월세대출, 희망키움통장I, II, 내일키움 통장,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군복무기간 이자 면제,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청년 금융교육 지원, 청년 신용회복 지원(대학생 미취업청년지원), 청년희망키움통장
	주거지원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주거안정 월 세대출, 행복기숙사(사립), 행복기숙사(연합), 청년을 위한 공적임대주택 공급, 청년 주거급여 지원 강화, 청년 주거정보제공 및 교육 강화,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 활성화를 통한 청년주택 확대, 청년 사회주택 공급 활성화(청년 사회적 주택), 대학생 기숙사 확충 지원(대학기숙사 용적률 완화 등 추진), 민간기부형 대학생 연합기숙사
	학자금 지원	국가근로장학금, 국가장학금 I유형(학생직접지원형), 취업 후 상환학자금 대출, 희망사다리장학금 I (중소기업취업연계장학금), 희망사다리학자금II (고졸 선취업 후학습자 장학금), 대학 입학금 부담 완화, 다자녀 국가 장학금, 대통령 과학장학금, 학자금 대출 상환 부담 경감 인문100년 장학금,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지역인재 장학금, 농어촌출신대 학생 학자금 융자 국가장학금 II유형(대학연계지원형)
생활 · 복지	건강	청년층에 대한 정신건강 지원(마음건강버스/마인드링크)
	문화	청년공동체 활성화사업, 대한민국 해양영토 대장정, 관광두레 청년 참여 지원

(2) 청년정책 영역별 세부 사업

① 취업지원 영역

취업지원 영역에서 운영되고 있는 사업은 유형에 따라 교육훈련·체험·인턴, 전문분야 취업지원, 중소기업 취업지원, 해외진출로 구분되며, 목적에 따라 실제 취업을 지원하는 사업과 취업을 위한 역량 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 대상에 따라 청년, 학교, 기업 대상 사업으로 구분된다.

유형별 세부 사업의 내용을 살펴보면, 전문분야 취업지원 유형의 사업들은 항공, 농업, 관광, 생물, 에너지, 이공계 분야 등의 취업 희망자를 전문인력으로 양성하기 위하여 교육, 경영, 기술 등의 프로그램 또는 인건비, 생활비 등의 비용을 지원하며, 중소기업 취업지원 유형의 사업들은 구직자를 고용한 중소기업에게 각종 혜택(세제 혜택, 금리 우대 등)을 제공하거나 중소기업 재직자에 장려금, 자산형성 등을 지원하고 있다.

한편, 해외진출 유형의 사업들에는 주로 해외(채용) 인턴십, 봉사단 등의 활동들이 포함되어 있으며, 교육훈련·체험·인턴 유형의 사업들에는 구직과 관련된 기관(고용복지플러스센터, 대학 일자리 센터 등)의 운영과 해당 기관에서 운영하는 상담, 프로그램, 교육 및 실습, 인턴십 프로그램과 인센티브 제공 및 소득세 감면 지원 등이 포함되어 있다.

사업의 목적에 따라 취업지원 영역의 사업들은 실제 취업을 지원하는 사업과 취업을 위한 역량 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구분해 볼 수 있는데, 실제 취업을 지원하는 사업에는 구직자를 고용한 기업에 인건비 및 각종 혜택을 지원하는 사업들이 역량 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에는 취업희망자의 역량을 강화 하기 위한 교육 및 실습, 상담 프로그램의 지원, 혹은 이와 같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관(대학, 센터, 직업학교 등)에 대한 지원 사업 등이 포함된다.

<표Ⅱ-11> 취업지원 영역 사업

구분	세부 사업명
취업 지원	일자리창출촉진자금, 청년친화강소기업,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청년고용증대 세제,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 교통비 지원(청년동행카드),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지원(중소기업취업연계 장려금),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여성과학기술인 R&D 경력복귀 지원 사업, 자원봉사관리자 일자리 제공, 산업기능요원,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청춘마이크사업을 통한 청년문화예술가 지원, 생활체육지도자 활동지원, 농업법인 취업지원 사업, 신진 석박사 연구인력 채용지원, 일학습병행제, 지역 중소·중견기업 R&D인턴 지원사업, 빈곤청년에 대한 근로인센티브 확대, 농식품 벤처창업 인턴제, 기업대학, 직업계고 현장실습 제도 개선,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중소기업 취업하는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 중소기업 탐방프로그램
역량 개발 지원	물류전문인력양성, 취업맞춤특기병 모집제도, 국가우수장학금, 관광전문인력 양성, 스마트시티 혁신인재육성, 물산업 프로젝트 매니저 양성 사업, 생물자원전문인력양성사업, 오프라인청년센터, 에너지R&D 전문인력양성(에너지 인력양성 사업), 산업전문인력 역량강화사업, 해운항만물류전문인력양성 산학연계 지원, 청년농업인 육성정책, 화학물질 위해성 평가관리 전문인력 양성사업, 청년귀농 장기교육, 항공정비인력양성채용, 초고속 정보통신기반 인력양성, 빅데이터 청년인재 양성, 일자리성공패키지,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 사업, 항공분야 취업지원, 항공조종사 先선발 後교육제도, 4차 산업혁명 선도 인력 양성 사업, 국가기간 전략산업직종훈련,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 청년여성멘토링, 일반고 특화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직업심리검사, 청년취업아카데미, 청년취업역량 프로그램, 청년장병 진로/취업지원강화, allA(청년진로역량강화)프로그램, 취업특강, 군복무 중 자기개발 지원, 학교 밖 청소년 맞춤형 취업지원, HI 프로그램, CAP+프로그램, 청소년 근로권익센터, 이공계 전문기술 연수사업, 중소중견기업 맞춤형 석박사 연수 사업, 단기집단상담 프로그램,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여성새로일하기센터, 대학일자리센터, 내일배움카드(구직자, 근로자), 청년취업성공패키지, 청년구직활동 지원금

사업 대상별 구분은 사업에 의한 지원이 누구(무엇)를 대상으로 하는가에 의한 것으로 크게 청년(구직자), 기업, 대학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이 중 청년대상 사업에는 교육훈련비 및 취업 준비 기간 생활비 등의 취업 관련 직간접 비용 지원, 교육 및 실습, 상담 등의 프로그램 지원, 취업 연계, 해외봉사 및 인턴십 기회 제공 등이 포함된다.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대표적인 사업들로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청년 취업성공 패키지, 청년내일채움공제를 꼽을 수 있는데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가구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20%이하인 만18세~만34세, 고등학교·대학교·대학원 졸업 또는 중퇴 후 2년 이내의 미취업자에 월 50만원씩 6개월 간 최대 300만원의 구직활동 지원금과 취업 후 3개월 근속한 경우 현금 50만원의 취업성공금, 고용서비스(고용센터 및 자치단체의 취업지원 프로그램, 취업특강, 직무교육, 심리상담 등)를 지원한다.

한편, 청년취업성공패키지는 만18세~만34세의 졸업 직전 학기 재학생을 대상으로 직업 상담과 교육비, 취업 알선 서비스를 지원하는데, 지원 대상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 중위소득 60%이하 저소득층, 영세업자 및 특정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패키지 I 유형과 청년(만18세~만34세, 소득무관) 및 중장년(만35세~만69세, 중위소득 100%이하)를 대상으로 하는 패키지 II 유형으로 세분화된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미취업 청년들의 중소·중견기업 유입의 촉진과 장기근속, 자산형성을 목적으로 청년과 기업, 정부가 함께 공제금을 적립하는 사업이다. 청년내일채움공제의 유형으로는 2년형과 3년형이 있는데, 2년형의 경우 청년이 2년간 300만원을 적립하면, 정부가 900만원, 기업이 400만원을 공동 적립하여 총 1,600만원을 3년형의 경우 청년이 3년간 600만원을 적립하면 정부가 1,800만원, 기업이 600만원을 적립하여 총 3,000만원의 목돈 형성을 지원한다.

<표 II-12>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청년취업성공패키지, 청년내일채움공제

구분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청년취업성공패키지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 대상	- 만18세~만34세 - 고등학교·대학교·대학원 졸업 또는 중퇴 후 2년 이내 - 미취업자 - 가구소득 기준중위소득 120%이하	- 만18세~만34세 - 졸업 직전 학기(고교재학생 3학년 2학기, 대학(원) 재학생 마지막 학기 중) - 무관(단, 재직자의 경우 근로시간 주30시간 미만, 자영업자의 경우 연간 매출액 1억 5천만원 미만 참여 가능)	- 만15세~만34세 - 중소·중견기업 재직자(정규직)

지원 내용	• 구직활동지원금: 월 50만원 씩 6개월 간 최대 300만원 지원 • 취업성공금: 취업 후 3개월 근속한 경우 현금 50만원 지급 • 고용서비스 지원: 취업지원 프로그램 안내, 취업특강, 멘토링, 직무교육, 상담 등	• (1단계) 진단 및 상담 프로그램 지원 • (2단계) 직무역량 개발을 위한 훈련비 지급 • (3단계) 일자리 안내, 컨설팅 제공	• (2년형) 청년 300만원 적립시, 정부: 취업지원금 900만원, 기업: 400만원(정부지원) 추가 적립 • (3년형) 청년 600만원 적립시, 정부: 취업지원금 1,800만원, 기업: 600만원(정부지원) 추가 적립
----------	---	---	--

② 창업지원 영역

창업지원 영역에서 운영되고 있는 사업은 유형에 따라 R&D 지원, 경영 지원, 자본금 지원으로 구분되며 지원 시기에 따라 사업화를 지원하는 사업, 사업화 이후 사업비, 임대료, 인건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구분된다.

사업화를 지원하는 대표적인 사업으로는 창업 자금, 사업화, 공간 등을 지원하는 사회적 기업가 육성사업, 대학창업펀드 조성, 창업성공패키지(청년창업사관학교) 등을 예로 들 수 있으며, 사업화 이후 지원 사업으로는 세금 면제, 임대료 등을 지원하는 청년창업기업 세금 면제, 고속도로 청년휴게소(청년창업, 푸드트럭), 청년창업지원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내 희망상가 제공 사업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표II-13> 창업지원 영역 사업: 지원 시기별 구분

구분	세부 사업명
사업화 지원	스마트 벤처 캠퍼스, 창업성공패키지(청년창업사관학교), 사회적 기업가 육성사업, 대한민국 창업리그, 소셜벤처 아이디어 경진대회, 재도전 성공 패키지, 초기창업패키지, 청년전용창업자금, 해양신산업 인큐베이팅 지원 사업, 수산모태펀드운용, 대학창업펀드 조성
사업화 이후 지원	민간투자주도형 TIPS과제(TIPS프로그램), 생활혁신형 창업가 지원, 창조경제혁신센터 원스톱서비스존, 고속도로 청년휴게소(청년창업, 푸드트럭), 청년창업기업 세금 면제, 벤처기업 공동채용 지원, 글로벌엑셀러레이팅, 청년창업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내 희망상가 제공,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③ 생활·복지 영역

생활·복지 영역에서 운영되고 있는 사업은 유형에 따라 건강, 문화로 구분되는데 건강 유형에는 정신건강 지원사업이, 문화 유형에는 청년의 사회 참여 사업들이 포함된다.

생활·복지 영역에서 운영되고 있는 사업들의 경우 그 수도 적을 뿐 아니라(생활·복지 영역으로 운영되고 있는 사업은 전체 청년 정책 160개 중 단 6개에 불과) 한정된 영역에서, 선별적인 대상에게 드물게 제공되고 있는 실정으로 사업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표II-14> 건강, 문화 유형 사업

구분	세부 사업명
건강	청년층에 대한 정신건강 지원(마음건강버스)
문화	청년공동체 활성화사업, 대한민국 해양영토 대장정, 관광두레 청년참여 지원

④ 주거·금융 영역

주거·금융 영역에서 운영되고 있는 사업은 유형에 따라 주거 지원, 학자금 지원, 생활비 지원 및 금융 혜택 사업으로 구분된다.

주거 지원 유형은 크게 청년에 대한 임차료 직접 지원과 기숙사와 청년 대상 임대주택, 사회주택 확충 등의 주택 공급을 늘리는 제도로 구분된다. 청년에 대한 직접 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주거 지원 제도는 전·월세 보증금 저리대출, 월세 대출, 주거급여 확충 등이 있으며, 주택의 공급을 늘리기 위한 제도로는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 활성화를 통한 청년주택 확대, 청년 사회주택 공급 활성화 등이 있다.

<표Ⅱ-15> 주거 지원 유형 사업

구분	세부 사업명
임차료 직접 지원	중소기업취청년 전월세보증금,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청년 주거급여 지원 강화
주택 공급 지원	행복기숙사(사립, 연합), 청년을 위한 공적임대주택 공급,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 활성화를 통한 청년주택 확대, 청년 사회주택 공급 활성화(청년 사회적 주택), 대학생 기숙사 확충 지원, 민간기부형 대학생 연합기숙사

학자금 지원 유형의 사업은 크게 장학금과 학자금 대출 지원 사업으로 구분되는데, 장학금 지원 사업은 주로 저소득, 중소기업 취업연계, 선취업 후학습자 등을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다. 학자금 지원 유형의 대표적인 사업으로는 국가(근로) 장학금, 다자녀 국가 장학금, 취업 후 상환학자금 대출, 농어촌출신대학생 학자금 융자 등이 있다.

<표Ⅱ-16> 학자금 지원 유형 사업

구분	세부 사업명
장학금 지원	국가(근로)장학금, 희망사다리장학금I(중소기업취업연계장학금), 희망사다리학자금II(고졸선취업후학습자장학금), 다자녀 국가 장학금, 대통령 과학장학금, 인문100년 장학금, 지역인재장학금
학자금 대출 지원	취업 후 상환학자금 대출, 학자금 대출 상환 부담 경감,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 농어촌출신대학생 학자금 융자

한편, 생활비 지원 및 금융 혜택 유형의 사업은 크게 저소득 청년 대상 월세 대출 등의 생활비 지원사업과 청약통장 및 자산형성 지원사업으로 구분된다. 대표적인 사업으로는 청년 보증부 월세대출,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청년희망 키움통장, 희망키움통장(I, II), 내일키움통장 사업 등이 있다.

<표Ⅱ-17> 생활비 지원 및 금융 혜택 유형 사업

구분	세부 사업명
생활비 지원	청년 보증부 월세대출,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군복무기간 이자면제,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청년 신용회복 지원
청약통장 및 자산형성 사업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희망키움통장(I,II), 내일키움통장, 청년 금융교육 지원,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들의 경제적 안정을 위한 정책적 필요성과 현 정부의 청년정책이 청년 고용 문제에 강조점을 두고 있음을 감안 하더라도, 전체 160개의 청년정책 중, 취·창업 지원에 해당하는 사업이 119개로 약 74%에 달한다는 점은 지금의 청년정책이 청년의 삶 전반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포괄적으로 다루기엔 한계가 있음을 보여준다.

뿐만 아니라, 청년들이 졸업과 동시에 갖게 되는 부채와 첫 직장에서 받게 되는 낮은 임금, 저소득 청년들이 처하게 되는 가족부양 부담 등의 문제 앞에서 위와 같은 취·창업 지원 사업이 얼마나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

현재의 청년정책은 지속적인 사회적 논의를 바탕으로 분명히 과거보다 다양화되었고, 다차원적인 접근방법을 취하고 있다. 하지만 세부 사업들에 청년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경험하는 원인, 그들이 처한 현실과 외부 환경, 그리고 그들의 미래에 대한 충분한 고민이 포함되지 않는다면 오늘날의 청년문제가 내일의 빈곤의 대물림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2. 청년대상 자산형성지원사업과 청년희망키움통장

본 절에서는 국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서 실시하는 청년대상 자산형성지원 사업을 검토하도록 한다.

1) 자산형성지원사업의 등장 배경과 그 의미

자산형성 지원사업은 중산층을 포함하는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과 저소득층을 위한 자산형성지원사업으로 구분할 수 있다.

모든 국민 대상 자산형성지원사업은 소득 불평등을 고려하였으나, 자산 불평등은 상대적으로 고려하지 못하였다(Spilerman, 2000). 이는 중산층과 저소득층 사이의 자산 불평등을 악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Sherraden, 1991).

저소득층을 위한 지원사업들도 소득 중심으로 설계된 경우가 많고, 자산형성을 지원해주는 사업은 미흡한 실정이다.

이러한 기존 자산형성지원사업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국내에서는 최근 10년 사이에 저소득층 청년자산형성지원사업이 확대되었다.

저소득층 자산형성지원사업은 자산형성의 성과뿐만 아니라, 자산을 형성해가는 과정 속에서 보다 계획적이고 희망적이며 적극적인 삶을 살게 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미래를 계획하고, 미래의 그 결과를 기대하며 투자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 의지를 보이는 청년들에게 자산형성지원사업은 그 의미가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

2) 청년 대상 자산형성지원사업의 현황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최근 10년 사이에 저소득층을 위한 자산형성 지원사업(예, 디딤씨앗통장(아동발달지원계좌), 희망키움통장)을 도입하여 운영해 왔으나, 청년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된 2015년 이후부터 경기도를 시작으로 청년자산형성지원사업을 도입하기 시작하였고, 최근 3년 사이에 크게 확대되었다.

보건복지부 및 광역 시도단체의 청년자산형성지원사업은 고용노동부의 청년내일채움공제와 경북 청년근로자 사랑채움을 제외하고는, 일하는 저소득 청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본 연구의 대상과 범위를 고려하여, 자산형성지원사업의 현황은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년자산형성지원사업을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1) 중앙정부의 청년자산형성지원사업

현재 중앙정부의 청년자산형성지원사업은 두 가지로,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청년희망키움통장과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가 있으며, 연령은 본래 만 15세~34세로 동일하였으나, 2019년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청년희망키움통장의 가입대상이 만 39세로 상향 조정되었다.

청년희망키움통장은 생계수급 청년을 대상으로 하며, 의무적인 저축액 없이 0원에서 50만원까지 자유납입이 가능하다. 매월 근로·사업소득 공제액 10만원과 근로소득 장려금을 지원하며, 3년 만기 후 탈수급이 수혜조건이다. 월 80만원을 소득 기준으로 3년 후, 1,500만원을 수령한다.

청년희망키움통장은 2019년 9월 지침 개정을 통해 월 2만원 한도 내에서 개인과 정부 1:1 매칭을 통해 년 최대 24만원의 추가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자유납입금 확대를 통한 목돈 마련을 촉진하고 있다.

2019년 9월 청년희망키움 통장 지침이 변경되어, 가구당 1명 제한 기준이 철

폐되었다. 또한, 소득하한 기준이 삭제되어, 기준 중위소득 30%이하의 생계급여 청년이기만 하면, 총년 총 소득 * 45% 근로소득장려금 지급하게 되었다. 또한, 기존의 청년내일채움공제 포함 지방자치단체의 청년자산형성지원사업의 수혜조건은 가입기간 동안 매월 적립인 반면, 청년희망키움통장은 탈수급을 요건으로 제한하고 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중견기업 정규직 신규 취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며, 가입 기간인 2~3년 동안 매월 사업장 근무와 매월 적립이 수혜조건이다. 2년간 300만원을 적립하면, 기업지원 400만원, 정부지원 900만원이 더해져 총 1,600만원에 더하여 이자를 수령하게 된다.

또한, 아직 도입되지는 않았으나 주거·교육·차상위 저소득 청년(만15~39세)에게 목돈마련 기회를 제공하는 청년저축계좌사업이 논의 중이다. 청년저축계좌사업은 청년이 매월 본인적립금 10만원을 저축하면 근로소득장려금을 30만원 매칭하여 3년 만기 시 1,44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 단, 만기 시 근로소득장려금을 수령하려면, 국가공인자격증을 1개 이상 취득하는 등의 조건을 두고 있다. 청년 청년저축계좌는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 있어 예산이 통과되어야 시행될 수 있다.

청년저축계좌는 중소기업 정규직을 대상으로 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와 달리, 아르바이트나 임시직인 경우에도 신청 가능하다.

<표II-18> 중앙정부의 청년자산형성지원사업 개요

구분		청년희망키움통장 (2019, 9월 개정)	청년내일채움공제(2019)	청년저축계좌 (2020년 도입 논의 중)
대상, 연령, 소득, 자산 기준	가입대상	만 15세~39세 일하는 생 계수급 청년	만 15세~34세 중소·중견기 업 정규직 신규 취업자	만 15세~39세 차상위 계층 청년
	가입조건	-기준중위소득 30% 이하 의 생계급여 청년(1인 가 구 제한 없음)	-생애 최초 취업자(고용보험 최초 취득자)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가입기간 총 12개월 이하인 경우	-중위소득 50%(2인 기준 월 145만원) 이하인 차상위 계 층 청년 -아르바이트나 임시직 경우 에도 가능

			-단, 2년형에 한해 고용보험 총 12개월 초과자 중 6개월 이상 장기 실직자는 가입허용	-청년내일채움공제와 중복 지원 불가
지원 내용	본인저축액	의무적인 저축액 없음 (단, 0~50만원까지 자유 납입 가능) 금리 2.75%	매월 12.5만원 납입	매월 10만 원
	정부 지원액	-매월 근로사업소득 공제 액 10만원 -근로소득장려금(청년 총 소득 × 45%) *근로소득공제금이 발생 하지 않는 경우 본인적립 금(10만원)으로 대체 - 탈수급 장려금(민간매 칭금) 1,000원 이상 본인 저축시 1:1 매칭, 월 최대 2만원까지 적립.	(정부>청년)취업지원금 2년 900만원 적립 (기업>청년)장기근속 기여 금 2년간 400만원 적립	매월 근로소득장려금 30만원 매칭
	지원용도	가구, 교육, 취·창업 등 자활, 자립에 활용	미취업 청년의 중소·중견 기업 유입 촉진, 청년 목돈마련 지원 및 장기근속 유도	불안정한 일자리를 가진 저소득층 청년들의 목돈 마련 지원
수혜 조건 지원	지원조건	생계수급 청년이 3년 이내 탈수급시	-매월 적립시 -최소 2~3년 동안 동일 사업 장 근무 시	국가공인자격증 1개 이상 취득
	실질혜택	(월 100만원 소득기준) 월 40만원 지원 → 3년 후 1,500만원 지원	-(2년형) 청년 저축 300만 원 +기업 400만원+정부 900 만원 → 2년 후 1,600만원 수령 -(3년형) 청년저축 600+기 업 600+정부 1,800만원 → 3년 후 3,000만원 수령	매달 10만원씩 3년간 360만 원 저금 → 만기시 1,440만원 혜택

(2) 지방자치단체의 청년자산형성지원사업

지방자치단체는 정책 실험의 일환으로 새로운 통장사업들을 시행하였으며(예, 서울시 희망두배청년통장) 최근 4년 사이에 청년자산형성지원사업이 전국으로 확대되는 모습을 보였다.

각 지방자치단체의 청년자산형성지원사업을 간략히 살펴보자면, 경기도 일하

는 청년통장은 경기도 거주 만 18세 이상~ 34세 이하 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중위 소득 100%이하인 가구를 기준으로 한다. 매월 10만원씩 저축 시, 매월 17.2만원을 도에서 지급하며, 3년 만기 후에는 1,000원을 적립할 수 있다. 단,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은 근로유지와 금융교육을 필수이수로 조건으로 하고 있다.

서울시 희망두배청년통장은 서울시 거주 만 18세 이상~34세 이하 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하며, 본인의 근로소득액 220만원 이하이면서 부양의무자의 소득 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80%이하를 대상으로 한다. 매월 10원씩 저축 시 10만원, 15만원을 저축씩 15만원을 지급하는 1:1 매칭방식을 택하고 있다. 매월 의무 납입과 의무 금융교육(연 1회)을 조건으로 하고 있다. 2년 납입 기준으로 최소 400만원과 이자를 수령할 수 있으며, 최대 3년동안 15만원 납입 시 최대 000만원과 이자를 수령할 수 있다.

부산시 청년희망 날개통장은 부산시 거주 만 15세~3세 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기준 중위소득 80%이하를 조건으로 하고있다. 매월 10만원 납입시 10만원을 지급하는 1:1 매칭이며, 3년 후 최대 720만원과 이자를 수령할 수 있다. 단, 교육과 사례관리를 필수로 이수해야하며, 사용용도를 증빙해야 한다.

대전시는 만 18세~39세 저소득층 근로청년 중 기준중위소득 120% 미만을 대상으로 하며 매월 15만원 납입 시 15만원을 지급하는 1:1 매칭이다. 적립금 매월 적립과 근로유지를 의무조건으로 하며, 3년 만기 후 약 1,100만원과 이자를 수령할 수 있다.

전남 청년희망디딤돌 통장은 전남 거주 만 18세~39세 일하는청년을 대상으로 월평균 소득 200만원 이하, 중위소득 120% 이하의 청년을 대상으로 한다. 매월 10만원 납입시 10만원을 매칭하는 1:1 매칭 방식이며, 매월 납입과 근로유지시 3년 만기 후, 720만원과 이자를 수령할 수 있다.

인천시 드림For청년 통장은 인천거주 만 15세~39세 4대보험 가입 청년근로자를 대상으로 인천 소재의 중소중견제조기업에 근무중인 정규직 근로자를 대상

으로 한다. 연봉 기준 2,400만원 이하인 근로자를 기준으로 한다. 중소기업제조기업의 장기근속과 자산형성을 지원하며, 매월 10만원 납입시, 3년 후 약 1,000만원을 마련할 수 있다.

경북 청년근로자 사랑채움사업은 도내 거주 만 18세 이상~39세 이하 미혼청년 근로자를 대상으로 급여와 업종에 제한은 없으나, 포항, 구미, 경산, 경주 내 소재한 중소기업을 조건으로 한다. 단, 특수한 지역의 청년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다보니(포항 21명, 경주 11명, 구미시 18명, 경산시 12명 총 62명) 수혜인원이 매우 적다. 매월 15만원을 납입 시, 2년 후 1,060만원을 수령할 수 있다.

경남 청년상생공제는 도내 거주 만 15세 이상~34세 이하의 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한 후, 만기가 도래된 자를 대상으로 한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과 연계하여 운영한다는 점에서 다른 지자체 사업과 구별된다. 추가로 1년 간 총 200만원을 근로자 공제계좌로 납입 시 만기금을 경남 상생공제로 연계하여 적립한다. 역시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려는 목적이며, 도내에 주소를 유지하며, 동일 근무지를 유지해야 하며, 채움공제 수령액(1,600만원)을 미사용해야 신청가능하다. 채움공제 금액을 제외하고 추가 1년 후, 최대 600만원을 수령할 수 있다.

충북 행복결혼공제사업은 충북 거주 만 18세~40세 이하 근로 청년 중, 도내 제조업종 중소기업에 종사중인 미혼 근로 청년 및 청년 농업인을 대상으로 한다. 매월 30만원을 납입시, 매월 50만원(도 30, 기업 20)을 지원하며, 청년층의 결혼장려를 통해 출산율을 제고하고 중소기업의 장기근속을 유도한다는 점이 두드러진다. 5년간 납입과 근속, 결혼을 조건으로 하기에 다소 까다로운 편이나 매월 적립금이 높다는 점에서 매력적이라 할 수 있다. 단, 기업당 1명씩 400명을 선정하기에 수혜인원이 적은 편이다. 매월 납입과 결혼, 5년 근속시 약 4,800만원을 수령할 수 있다.

충남 열혈청년통장은 충남 거주 만 18세~34세 또는 도내대학졸업자 중 중소기업 근로청년을 대상으로, 월 소득 250만원 미만의 6개월 이상 근로청년을 대

상으로 한다. 만기시까지 통장유지와 도내 중소기업의 근로유지를 조건으로 한다. 매월 10만원씩 납입시 총 6회에 나누어 260만원이 지급되어 2년 만기 후, 500만원과 이자를 수령할 수있다.

광주시 청년 13(일+삶) 통장드림은 광주시 거주하는 만 19세~34세 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근로유형에 상관없이 612,102원 이상~1,707,008 이하 소득의 청년근로자를 대상으로 한다.매월 10만원 납입 시, 10만원을 지급하는 1:1 매칭 방식이며, 소액단기 자산형성(10개월)을 지원한다는 점이 두드러진다. 만기 10개월 후에는 최대 200만원을 수령받으며, 목돈뿐만 아니라, 근로 생활역량강화 지원 프로그램도 제공받을 수 있다.

제주도 거주하는 만 15세~39세 이하 6개월 이상 정규직 근로자 중 월 급여 2,650천원 미만인 자를 대상으로, 중소기업진흥공단 내일채움공제 가입되어있거나 해지이력이 있는 청년을 대상으로 한다. 중소기업진흥공단의 “내일채움공제”사업과 연계하여,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근로자의 목돈마련과 장기근속을 목적으로 한다. 적립기간은 5년으로 긴 편이나, 10만원 적립시, 매월 도에서 25만원, 기업에서 15만원을 지급하여 5년 후에는 3,000만원과 이자를 수령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 청년자산형성지원사업들의 공통점은 각 지역에 거주하는 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과 지원조건으로 통장 유지를 해야한다는 점이다. 충남은 일하는 중소기업 청년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다른 청년자산형성지원 사업과 구별되며, 광주는 소액단기 자산형성을 목적으로 지원한다는 점에서 구별된다.

지원대상은 연령대가 다소 상이한 모습을 보인다. 서울시·경기도·충남은 만 18세~34세 이하의 청년을, 충북은 만 18세~40세 이하의 청년을 대상으로 한다. 광주시는 만 19세~34세 이하의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한편, 경북·전남·대전시는 만 18세~39세 이하의 청년을 대상으로 한다. 부산·경남시는 만 15세~ 34세 이하의 청년을 대상으로 하나, 인천과 제주는 만 15세~39세로 대상 범위가

가장 높다. 지자체의 지원 목적에 따라 연령대가 조금씩 달라지나, 대체로 청년 자산형성지원사업의 대상은 만 15세에서 39세 이하의 연령대로 제한된다.

본인 저축액과 정부 지원액은 각각 10~17.2(경기도)만원으로 큰 차이가 없는 편이나, 충북은 결혼장려를 목적으로 매월 30만원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보다 적극적인 지원이라 할 수 있다.

납입기간은 보통 2~3년이 대부분이나(2년: 경북, 충남 (서울은 2,3년 중 선택 가능); 3년: 경기, 부산, 대전, 전남, 인천), 최소 10개월(소액단기를 목적으로 하는 광주시 청년 13(일+삶) 통장드림)에서 최대 5년(결혼을 목적으로 하는 '충북 행복결혼공제 사업'과, 내일채움공제 사업과 연계하여 운영되는 '제주도 일자리재형저축')까지 자산형성 목적에 따라, 보다 유연한 납입기간을 설정하고 있다.

경기도는 2015년 5월에 가장 먼저 일하는 청년통장이라는 청년자산형성지원 사업을 시작하였고, 그 다음으로 서울시가 희망두배청년통장사업을 시작하였다.

서울시에서는 청년자산형성지원사업에서 통장개설뿐만 아니라, 금융교육을 연 1회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경기도, 대전시, 부산시로 금융교육이 확대되었다.

경기도, 서울시, 전남, 대전, 광주, 충남, 부산시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청년자산형성지원사업을 시범적으로 실시하였으나, 2019년에는 보다 전국적으로 확대되는 모습을 보였다. 단, 강원도, 세종시, 대구시에서는 청년자산형성사업을 시행하고 있지 않다. 또한, 강원도는 근로자의 장기재직을 통해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근로자의 목돈 마련을 통해 실질 임금수준을 개선하고 생애 위기에 대비할 수 있도록 도우려는 취지에서 도내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강원도형 일자리 안심공제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울산시는 일하는 청년들에게 기프트 카드를 발급하는 '울산청년 일+행복카드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전북시는 일하는 청년이 아닌 관내에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포인트 연계 카드를 발급하는 '전북 청년지역정착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지자체의 청년자산형성지원사업은 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중앙 정부나 다른 부처에서 시행중인 유사 자산형성지원사업의 참여자를 가입조건에서 제한하고 있다.

<표Ⅱ-19> 지방자치단체의 청년자산형성지원사업 개요

구분		경기도 일하는 청년 통장(2019)	서울시 희망두배청년통장(2019)
가입대상 및 조건	가입대상	경기도 거주 만 18세 이상~34세 이하 일하는 청년	서울시 거주 만 18세~34세 이하 일하는 청년
	가입조건	가구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구	-본인 근로소득금액이 세전 월 220만원 이하 -부양의무자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80%이하
지원내용	본인저축액	매월 10만원 금리 2.1%	매월 10만원 15만원 금리 2.0(2년)-3.0%(3년)
	정부 지원액	매월 17.2만원	매월 10만원·15만원
	지원용도	교육, 주거, 결혼, 창업, 대출금 상환 등 자립기반 조성	주거, 결혼, 교육, 창업, 목적으로 지원
수혜조건 지원	지원조건	-3년동안 근로유지 -상담 및 금융교육(연 1회) 필수이수	-적립금액 매월 적립시 -의무교육(금융교육 연1회) 이수
	실질혜택	-본인 저축 월 10만원+경기도 지원금 월 17.2만원 > 3년 후 1,000만원 적립	-(2년형, 10만원) 400만원+이자 -(2년형, 15만원) 720만원+이자 -(3년형, 10만원) 720만원+이자 -(3년형, 15만원) 1,080만원+이자

<표Ⅱ-20> 지방자치단체의 청년자산형성지원사업 개요(계속)

구분		부산시 청년희망날개통장(2019)	대전시 청년희망통장(2019)
가입대상 및 조건	가입대상	부산시 거주 만 15세~34세 일하는 청년	대전시 거주 만 18세~39세 저소득층 근로청년
	가입조건	가구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대전시 사업장 소재 및 4대 보험 가입자로 6개월 계속 근로 중인 청년 -가구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20% 미만 -대전시 사업장 창업 후 3년 이내 연 매출액 5천만원 이하의 업체를 6개월간 운영중인 청년사업소득자
지원내용	본인저축액	매월 10만원	매월 15만원
	정부 지원액	매월 10만원	매월 15만원
	지원용도	창업, 교육, 결혼 및 주택자금 등 자립기반 목적	구직, 창업, 결혼, 주거 등 자립기반 조성에 활용
수혜조건지원	지원조건	-3년 만기 이후 사용용도 증빙(수강증명서, 월세계약서 등) -교육 및 사례관리 이수(연 1회)	-적립금액 매월 적립(연속, 연 3회 이상 미적립시 통장해지) -근로 유지(통장가입 후 90일 이상 근로하지 않는 경우 해지)
	실질혜택	- 본인 월 10만원+부산시 지원금 월 10만원 → 3년 후 최대 720만원+이자	- 본인 월 15만원+대전 지원금 월 15만원 > 3년 만기 후 1,100만원+이자

<표Ⅱ-21> 지방자치단체의 청년자산형성지원사업 개요(계속)

구분		전남 청년희망디딤돌 통장(2019)	인천시 드림For청년통장(2019)
가입대상 및 조건	가입대상	전남 거주 만 18세~39세 이하 일하는 청년	인천 거주 만 15~39세 4대 보험가입 청년근로자
	가입조건	-근로 유형에 관계없이 180일 동안 90일 이상의 근로경력이 있는 자 -본인 근로소득 월평균 200만원 이하(세전),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인천 소재 중소·중견 제조기업(동일기업 2년 이상) 근무 중인 정규직 근로자 -주당 근로시간이 35시간 이상인 자 -계약연봉 기준 2,400만원 이하인 자 (근로계약서 기준)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유사 자산형성사업 참여자는 지원불가
지원내용	본인저축액	매월 10만원	매월 10만원(36회 납입)
	정부 지원액	매월 10만원	분기 50만원, 8회 납입(최초2년) 분기 60만원, 4회 납입(잔여1년) 총 640만원
	지원용도	구직, 창업, 결혼, 주거 등 자립기반 조성에 활용	중소·중견 제조기업 재직자 장기근속 유지 및 자산형성 지원
수혜조건 지원	지원조건	-매월 납입 -근로 유지 시(통장가입 후 90일 이상 근로하지 않는 경우 해지)	-매월 납입 -적금 만기시까지 (3년간) 인천시 계속 거주 조건 유지, 동일 기업 근무 유지
	실질혜택	본인 월 10만원+전남 지원금 월 10만원 > 3년 만기 후 720만원+이자	매월 10만원을 저축(360만원)+ 3년 후 인천시 지원(640만원)을 포함, 약 1,000만원 마련

<표Ⅱ-22> 지방자치단체의 청년자산형성지원사업 개요(계속)

구분		경북 청년근로자 사랑채움사업 (2019)	경남 청년상생공제(2019)
가입 대상 및 조건	가입대상	경북지역 도내(포항, 구미, 경산, 경주) 거주 만18세 이상~39세 이하 미혼 청년 근로자	경남 도내거주 만15세 이상~34세 이하의 청년
	가입조건	-포항, 구미, 경산, 경주 중 '중소기업 인턴사원제사업 수료자(1년)'로써 당해 기업에 계속 근무 중인 미혼청년 -급여·업종 제한 없으나, 포항, 구미, 경산, 경주 내 소재한 중소기업 -청년 내일채움공제 등 유사 자산형성지원과 중복참여 불가	-경남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 후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하고 만기(가입기간 2년)가 도래된 자 -근로자가 일하는 해당 기업이 경남상생공제 가입대상 기업이면서, 경남상생공제 가입한 경우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과 연계하여 운영하는 사업
지원 내용	본인저축액	매월 15만원	참여 근로자는 추가 1년간 총 200만원(12개월 분납, 1~2월차 20만원, 3~12월차 16만원)을 근로자 공제계좌로 납입, 정부기본형(2년) 청년공제 만기금은 근로자의 경남 상생공제 계좌로 연계 적립.
	정부 지원액	지자체 분기별 175만원, 1년(총700만원) 지원 +청년 매달 15만원 납입 2년 (총 360만원)납입	청약계좌에 12개월 200만원 적립 시, 600만원 청년지원금 지급
	지원용도	중소기업 미혼 청년 근로자에게 목돈마련 지원하여 일하는 청년층의 장기재직 활성화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지원하여 장기근속을 유도,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격차 완화에 기여
수혜 조건 지원	지원조건	재직 유지	-도내에 주소 유지, 동일 근무지 유지 -채움공제 수령액 1,600만원 미사용해야 신청가능
	실질혜택	2년 만기 납입시, 1,060만원(+이자) 적립금 수령	최대 600만원(내일채움공제 금액 제외)

<표Ⅱ-23> 지방자치단체의 청년자산형성지원사업 개요(계속)

구분		충북 행복결혼공제사업(2019)	충남 열혈청년 통장(2019)
가입 대상 및 조건	가입대상	충북 거주 만 18세~40세 이하 중소중견기업 미혼 근로자 및 청년 농업인	충남 거주 만 18세~34세 또는 도내 대학 졸업자 중 중소기업 근로 청년
	가입조건	-도내 제조업종 중소(중견)기업 미혼근로자	-월 소득 250만원 미만 -도내 중소중견기업에 6개월 이상 근로청년
지원 내용	본인저축액	매월 30만원	매월 10만원 (2년 240만원)
	정부 지원액	매월 80만원(도·시·군 30, 기업 20, 근로자 30) -결혼 35만원(도·시·군 20, 근로자 15) -근속 45만원(도·시·군 10, 기업 20, 근로자 15)	매월 260만원(1,6,12,18, 24개월/ 6회)
	지원용도	청년층 결혼장려를 통한 출산을 제고, 중소중견기업 장기근속 유도 및 청년농업인 육성	구직, 창업, 결혼, 주거 등 자립기반 조성에 활용
수혜 조건 지원	지원조건	-5년간 납입, 근속 -결혼(미결혼시 미지급액 12백만원, 본인 희망시 1년 유예가능, 유예기간 중 결혼 시 지급)	-2년 만기까지 통장유지 -도내 중소·중견기업에 6개월 이상 근로청년이 추가 2년간 근로유지
	실질혜택	- 결혼+근속=48백만원(도·시·군 18, 기업 12, 근로자 18)+ α ·미혼+근속=36백만원(도·시·군 6, 기업 12, 근로자 18) ·결혼 안할시=미지급 12백만원(도·시·군 12) ※ 공제이율(변동금리): 결혼(도금고) 1.4% /근속(중진공) 1.9% * 만기시 본인부담 외 근속적립금에 대한 소득세 최대 50% 감면	-본인 월 10만원+충남 지원금 총 260만원→ 2년 만기 후 500만원+이자

<표Ⅱ-24> 지방자치단체의 청년자산형성지원사업 개요(계속)

구분		광주시 청년 13(일+삶) 통장드림(2019)	제주일자리재형저축(53+2통장) (2019)
대상, 연령, 소득, 자산 기준	가입대상	광주시 거주 만 19세~34세 일하는 청년	제주도내 거주 만 15세~39세 이하 정규직 근로자
	가입조건	근로유형(상용직, 일용직 등)에 관계없이 근로하는 청년 월 소득기준(세전) 612,102원 이상~1,707,008 이하	-6개월 이상 정규직 근로자 -월 급여 2,650천원 미만인 자 -중소기업진흥공단 내일채움공제에 가입이 되어 있거나 해지 이력이 있는 자 -타 기관, 지자체의 공제 가입 지원금을 받고 있는 자
지원 내용	본인저축액	매월 10만원	매월 10만원
	정부 지원액	매월 10만원	매월 도 25만원, 기업 15만원 적립
	지원용도	소액단기 자산형성과 근로 생활역량 강화 지원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근로자의 목돈마련을 지원하고, 장기근속(5년 이상)유도를 통한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근로자와 사업주, 제주특별자치도가 공동으로 적립하는 재형저축 * 중소기업진흥공단의 “내일채움공제”사업과 연계 운영
수혜 조건 지원	지원조건	10개월 만기(중도해지 불가)	5년간 적립, 근로 유지
	실질혜택	본인 월 10만원+ 광주시 지원금 월 10만원→(만기)10개월 후 최대 200만원 근로 생활역량강화지원(재무, 직업, 가족, 사회, 문화지원 프로그램 운영)	근로자 적립금 총 600(5년간 매월 10만원 적립) + 기업부담금 총 900(5년간 매월 15만원 적립) + 도 지원금 총 1,500(5년간 매월 25만원 적립)= 5년 적립시 3,000만원 + 이자지급

3) 청년희망키움통장의 특성

청년희망키움 통장은 탈수급 조건을 전제로 만 15세~39세의 수급청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연령대가 넓다.

2019년 9월 청년희망키움 통장 지침 변경을 통해, 소득하한 기준을 삭제하였다. 이로 인해,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의 생계급여 청년이기만 하면, 총년 총소득 * 45% 근로소득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의무납입액이 없으며, 10~50만원 중에서 자유납입액을 설정할 수 있다. 의무적인 납입액 없이도 매월 근로사업소득공제액 10만원과 근로소득 장려금을 지급한다. (금리 2.75%) 그러나, 탈빈곤을 위한 탈수급 장려금(민간 매칭금,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을 지원 하여, 1,000원 이상 본인 저축시 1:1 매칭을 통해, 월 최대 2만원까지 적립할 수 있다. 최대 24만원의 추가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적극적으로 목돈 마련을 촉진하고 있다.

교육, 취·창업, 결혼, 주거 등 다양한 목적을 지원하며, 3년 후 생계급여 탈수급을 하면, 1,500만원 지원받을 수 있다.

4) 소결

현재 운영되고 있는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년자산형성지원사업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 가입대상: 모든 사업의 가입대상은 전국의 일하는 청년이다. 청년의 연령은 만 18~ 34세가 가장 일반적이나 청년희망키움통장은 만15~39세로 가장 넓은 연령범위를 갖는다. 최소연령은 만15세이고, 최고연령은 만 40세이다.
- 근로조건: 모두 근로를 조건으로 하고 있다. 추가적으로 중소기업 근로, 4대 보험 가입자, 일정기간 이상 근로를 추가 조건으로 부여하고 있기도 하다.
- 가입조건: 일정 소득기준 이하인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곳이 대부분(경기, 서울, 부산, 대전, 인천, 충남, 전남, 광주, 제주)이나, 경북은 특정 지역의 중소기업 근로자만을 지원하며, 경남과 충북은 소득을 제한하지 않고 있다. 이처럼 소득을 제한하지 않는 경우는 주로 지원대상을 중소기업 근로자를 제한으로 하는 경우(인천, 경북, 경남, 충북, 충남)이다. 다만 인천과 충남은 소득과 중소기업 지원을 둘 다 제한하고 있다.
- 본인저축액: 일반적으로 10~15만원을 의무 본인 저축액으로 설정하고 있으나, 청년희망키움통장은 의무납입액 없고, 0~50만원 중에서 자유납입액 자유롭게 선택 가능하다. 금리는 2.75%이며, 참여자 중 자유납입자 비율은 37%를 차지한다. 자유납입자 평균 납입액은 월 13.8만원이며, 전체로 보면 5.1만원이다. 청년희망키움 통장은 0~50만원 중에서 자유납입액을 선택할 수 있다. 더욱이 개정을 통해, 탈수급 장려금(사회복지 공동모금회 민간매칭금)을 통해 1,000원 이상 본인저축시 1:1 매칭(최대 2만원 적립)을 지원하여, 탈수급 기회를 확대 제공하려 하고 있다. 단, 충북은 결혼을 장려한다는 점에서 본인 저축액 또한 30만원으로 가장 높다.
- 정부지원액: 일반적으로 10~15만원을 정부가 지원하며, 청년희망키움 통장은 소득공제액과 근로소득 장려금, 탈수급 장려금을 추가 지급하고 있고(월

평균 40만원), 청년내일채움공제는 2년간 900만원을 지원하며 지원 금액이 가장 크다. 충북 행복결혼공제사업의 정부지원액 역시 월 30만원으로 높다.

- 지원용도: 주거, 결혼, 교육, 구직, 창업, 목돈 마련 등 다양하고 포괄적인 용도로 지원하고 있으며, 청년의 자활과 자립기반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나, 일부 지자체에서는 근로와 결혼을 장려하기 위하여 장기간의 납입기간과 더 큰 목돈을 지원하기도 한다.
- 지원조건: 대부분 가입기간 동안 통장납입유지 및 근로유지, 지역 거주 유지를 조건으로 하고 있으며, 청년희망키움통장만 탈수급의 조건이 있다. 과거 서울시만 의무 금융교육을 조건으로 실시하였으나, 다른 지자체로 연 1회 의무 금융교육의 조건이 확대되는 모습이 보이고 있다.
- 실질혜택: 2-3년 가입 유지 시 최소 약 500만원에서 최대 약 3,000만원까지 혜택이 있다. 단, 소액단기 자산형성은 최대 200만원의 혜택으로 짧은 기간에 비례하여 소액의 혜택을 받게 된다.

3. 자산형성지원사업의 성과

해외 및 국내 자산형성지원사업이 약 20년간 수행되어옴에 따라 이에 대한 성과를 확인하기 위한 여러 노력이 이어져 왔다. 자산형성지원사업의 성과는 무엇일까? 성과 확인에 앞서 성과를 합리적으로 정의하는 것은 신뢰할만한 정책 평가를 가능케 하는 핵심 작업이다. 성과는 정책목표와의 연관성, 달성가능성, 측정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정의되어야 한다. 이에 본 절에서는 자산형성지원사업의 성과가 어떻게 정의되고, 어떻게 측정되고 있는지를 해외 및 국내 자산형성지원사업들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실제 성과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검토해보고자 한다.

1) 해외 및 국내 자산형성지원사업의 성과지표

해외 및 국내 자산형성지원사업으로는 미국 IDA, 미국 CDA: The SEED for OK, 에티오피아 HABP, 방글라데시의 credit program, 인도의 microcredit program의 성과 정의와 측정지표를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국내 자산형성지원사업의 성과지표로는 보건복지부 희망키움통장, 서울시 꿈나래통장의 성과지표를 살펴보겠다.

해외 자산형성지원사업으로 미국의 대표적 자산형성지원사업인 개인발달계좌(Individual Development Account: IDA)의 사업의 성과지표는 크게 자산과 부채, 경제적 웰빙, 시민적/사회적/심리적 성과, IDA의 비용과 혜택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그 중 자산과 부채영역에서는 저축액, 자산/부채 등, 저축액의 사용처 등의 결과지표와 중단율, 저축 패턴(평균 저축액, 저축빈도) 등과 같은 과정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미국의 아동발달계좌사업 중 Oklahoma의 프로그램(The SEED for Oklahoma Kids)은 재정적 효과와 심리사회적 효과로 구분하여 성과를 측정하고 있다. 재정적 효과에는 저축액, 부동산 외 자산액, 부동산 외 부채가 포함되며, 심리사회적 효과로는 우울, 낙관성, 양육태도, 가구내 교육자원이용수준, 미래지향성, 아동행동이 포함된다(Marks, 2014). 캐나다의 Learn\$ave 프로그램도 미국과 유사하게 결과, 과정, 재정적 효과, 심리사회적 효과를 성과로 구성하고 있

다. 결과지표로는 완료율, 저축액, 최대저축액달성비율, 48-54개월 동안 해지 및 투자 비율, 재정관리교육과 사례관리의 효과, 예산/저축/순자산/곤란의 영향, 교육/근로지위/창업의 영향, 비용효과성을 측정하고 있고, 과정지표로는 최대저축액달성시간, 생활비 유지 및 목표달성비율을 측정하고 있다. 미국과 캐나다는 여러 측면에서 다양하게 성과를 측정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홍콩은 시티은행에서 인간발달계좌사업(Human Development Account:HDA)을 실시하고 있는데, 성과로는 고용률 또는 창업, 저축습관, 탈수급을 주요지표로 측정하고 있다. 자산형성지원사업의 성과지표는 사회환경에 따라 차이가 있었는데, 저개발국가인 에티오피아의 자산형성지원사업 HABP의 성과지표는 식품보유, 가축소유, 생산적 자산의 가치, 소득원의 다양화로 구성되어 있다. 농축산업 중심인 에티오피아의 특성이 반영된 성과지표라 할 수 있다. 종합해보면, 자산형성지원사업의 성과지표들은 대부분 자산축적과정과 자산축적에 대한 직접적 결과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는 편이다.

<표Ⅱ-25> 해외 자산형성지원사업의 성과지표

프로그램	성과지표
미국 IDA	자산과 부채 - 자산, 부채 등 - 저축 패턴: 평균 저축액, 저축빈도 - 사용처(집 수리, 교육, 직업훈련, 집 구매, 은퇴) - 중단율, 경제적 웰빙, IDA의 비용과 혜택 시민적, 사회적, 심리적 성과
미국 The SEED for OK	재정적 효과: 저축액, 부동산외 자산액, 부동산외 부채, 심리사회적 효과: 우울, 낙관성, 양육태도, 가구내 교육자원이용수준, 미래지향성, 아동행동
캐나다 Learn\$ave	완료율, 저축액, 최대저축액달성비율, 최대저축액달성시간 48-54개월 동안 해지 및 투자 비율 생활비 유지 및 목표달성비율 재정관리교육과 사례관리의 효과 예산, 저축, 순자산, 곤란 등의 영향 교육, 근로지위, 창업 등의 영향 비용효과성
홍콩 HDA	고용률 또는 창업, 저축습관, 탈수급/부분수급
에티오피아 HABP	식품보유, 가축소유, 생산적 자산의 가치, 소득원의 다양화

국내 자산형성지원사업은 약 10년 정도의 역사를 갖고 있으며, 중앙정부나 광역시도 차원에서 성과 연구가 수행되어 왔다(최현수 외, 2010, 2011, 2012, 2013; 이순성 외, 2009, 2010; 2011; 서종녀, 2015, 2017; 최상미 외, 2018; 최조순 외, 2017). 국내 연구들은 해외와는 달리 단기적 성과에 집중하고 있고, 실제 참여자들의 삶의 변화보다는 사업 자체 관한 성과(예, 통장유지율, 근로지속률)의 비중이 높은 편이다. 보건복지부는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진행된 패널 연구를 통해 자산형성지원사업의 성과를 확인하였는데, 객관적 지표와 주관적 지표가 혼합적으로 구성되어 있다. 조사항목으로는 인식 및 태도(예, 저축에 관한 인식, 일에 대한 생각, 삶의 만족도), 교육 및 훈련, 취업알선 및 상담(예, 교육 및 취업서비스 경험), 사례관리(예, 사례관리자와의 상호작용 경험)로 구분하여 성과를 측정하고 있다.

서울시는 자산형성지원사업인 희망플러스통장 참여자를 대상으로 2012년과 2014년에 성과연구를 수행하였는데, 이때는 Sherraden(1991)의 성과 틀을 활용하여 자산형성, 적립금 외 지원 프로그램(저축과 소비에 대한 인식 변화), 빈곤의 대물림 방지(가족관계, 심리적지지, 사회활동 참여, 자립의지)를 성과로 측정하였다. 서울시는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청년대상 자산형성지원사업에 대한 성과를 평가하였는데, 논리모델을 활용하여 투입, 과정, 산출, 성과의 측면에서 성과를 측정하였다. 투입으로는 자원인력, 매칭비용이 포함되었고, 과정으로는 저축활동, 교육 및 프로그램 참가가 포함되었고, 산출로는 저축만기여부, 저축률이 측정되었다. 성과지표로는 근로유인률, 부채 경감, 자산 증가와 같은 정량지표와 저축습관·저축인식, 소비성향, 개인심리상태, 삶의 만족도와 같은 정성지표가 포함되었다. 가구관련 지표보다는 개인지표 중심으로 설계되었다는 특징을 보인다. 한편, 청년의 특징을 고려한 지표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는다는 한계가 있다.

청년희망키움통장 참여자와 미참여자를 대상으로 자산형성지원사업의 성과를 확인한 최상미 외(2018)연구는 객관적지표와 주관적지표를 균형적으로 포함시키고, 사업 관련 지표가 적고, 청년의 특성을 고려한 지표가 다수 포함되었다는

특징이 있다. 그리고 Page-Adams & Sherraden(1997)이 제시한 성과들을 활용하여 개인적 웰빙, 경제적 성과, 시민참여를 성과로 설정하였다.

<표Ⅱ-26> 국내 자산형성지원사업의 성과

	전체
보건복지부 희망키움통장	- 가구일반사항 - 경제활동상태 - 생활비 소득, 부채 및 이자, 재산 - 주거 - 생활여건 - 인식 및 태도 - 교육 및 훈련, 취업알선 및 상담 - 사례관리
보건복지부 청년희망키움통장	- 일반사항 - 개인적 웰빙 - 경제적 성과 - 시민행동
서울시 희망플러스통장	- 자산형성: 자산 및 부채 증감, 수입 및 지출 내역 변화, 소비 및 저축 유형 변화, - 적립금 외 지원 프로그램:저축과 소비에 대한 인식의 변화 - 빈곤의 대물림 방지 - 가족관계 - 심리적지지 - 사회활동 참여 - 자립의지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 투입: 자원인력, 매칭비용 - 과정: 저축활동, 교육 및 프로그램 참가 - 산출: 저축만기여부, 저축률 - 결과지표: 정량(근로유인률, 부채 경감, 자산 증가) - 정성(저축습관·저축인식, 소비성향, 개인심리상태, 삶의 만족도)
보건복지부 청년희망키움통장	- 개인적웰빙 - 경제적성과 - 시민참여

2) 해외 및 국내 자산형성지원사업의 성과

미국 IDA는 다양한 주에서 여러 프로그램이 수행되었는데, 전반적으로 저축액이 통제집단보다 높았고, 참여집단은 월평균 \$16.60을 더 저축하였고, 연평균 개인발달계좌저축액은 \$200이었으며, 연평균 전체계좌저축액은 \$558이었다 (Schreiner & Sherraden, 2007). 그러나 가입 후 1-4년간 전체 순자산은 증가하지 않았다. 집 소유 및 창업에 관하여는 연구별로 결과가 차이가 났는데, 긍정적·부정적 결과가 모두 나타났다. 참여자들의 고용률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업참여가 고등교육 시도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IDA 성과에 관한 연구들은 전반적으로 시민적/사회적/심리적 성과가 나타난다고 보고하였다. 미래에 대한 자신감, 자존감, 지역사회 참여, 가족관계 등이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Zielewski et al., 2009)

미국 The SEED for Oklahoma Kids의 성과를 살펴보면, 7-8년간 매칭금액을 제외하고, 평균 \$1,281(최대 \$34,700)을 모았고, 평균 수익은 \$569(최대 \$41,915)이었다. 다만, 통장 첫 개설 시 \$1,000로 시작하였다는 점을 고려하였을 때 성과가 있긴 하지만, 아주 높은 편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투자수익이 있는 경우 자산이 더 모아지는 결과를 확인하였다.

캐나다 Learn\$ave 프로그램은 완료율은 약 70% 수준이었으며, 저축액은 통제집단에 비하여 높게 나타났다. 생활비를 잘 관리하는 비율이 증가하였고, 교육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으로 변화하는 성과가 있었다. 그러나 재정관리교육과 사례관리의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홍콩 HDA는 참여자 모두가 저금습관을 향상시켰고, 21%는 전일제 일자리를 가졌고, 49%는 시간제 일자리를 얻었다. 즉, 70%가 고용 기회를 얻었다. 28%는 탈수급 또는 수급액이 감소하였으며, 58%는 창업을 하였다. 홍콩 HDA는 그 성과를 인정받아 HKSAR 정부의 아동발달계좌의 우수 사례로 선정되었고, 여러 단체에서 우수프로그램 상을 받았다.

에티오피아는 2009-2010 동안 운영해온 Household Asset Building

Program(HABP)의 성과를 평가하였는데, HABP 참여자들은 식품보장, 가축소유, 생산적 자산의 가치, 소득 다양화 등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에티오피아는 HABP와 Public Safety Net Program(PSNP)를 같이 운영하였는데, 이 두 프로그램에 모두 참여할 경우 식품보장, 가축소유, 생산적 자산의 가치의 영향력이 더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산형성지원사업 중 저축액 매칭을 통한 자산형성사업 외에도 신용회복을 돕는 micro credit 사업이 있는데, 방글라데시의 경우 micro credit 프로그램을 통해 가족지지, 임파워먼트, 피임비율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고(Schuler & Hashemi, 1994), 인도의 micro credit 프로그램을 통해서는 사회적 지위가 높아지고, 물질적 조건이 개선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4. 자산형성의 영향

앞서 3절에서는 자산형성지원사업의 성과와 효과에 대한 기존 연구에서의 발견을 논의하였다. 본 절에서는 자산형성지원사업의 효과에서 나아가 자산형성의 영향을 논의하고자 한다. 일련의 연구들은 자산형성(asset holding)의 영향을 탐구해왔는데, 자산형성은 통장개설(Sherraden, 1991; Beverly, Sherraden, et al., 2008; Sherraden & McBride, 2010), 집을 소유하게 되는 것(Krumm & Kelly, 1989; Page-Adams, 1995; Page-Adams & Vosler, 1995; Rohe & Stegman, 1994), 마이크로크레딧 사업을 통한 자산형성(Noponen, 1992; Schler & Hashemi, 1994), 저축을 통한 금융자산형성(Yadama & Sherraden, 1996; Pritchard, Myers, & Cassidy) 등을 의미하기도, 전체 자산(Robert & House, 1996; Yadama & Sherraden, 1996)을 의미하기도 한다.

그 결과, 자산형성은 심리정서적 안정(Kohn, Naoi, Schoenbach, Schooler, & Slomczynski, 1990; Page-Adams & Vosler, 1995; Yadama & Sherraden, 1996), 신체적 건강(Robert & House, 1996), 경제적 안정 및 관련 행동(Krumm & Kelly, 1989; Page-Adams & Vosler, 1995; Sherraden, 1991; Beverly, Sherraden, et al., 2008; Sherraden & McBride, 2010), 시민행동(Oskamp et al., 1991; Perkins et al., 1990; Rohe & Stegman, 1994), 여성의 지위(Noponen, 1992; Page-Adams, 1995; Schler & Hashemi, 1994), 아동의 삶의 질(Green & White, 1997; Hill & Dunca, 1987; Pritchard, Myers, & Cassidy), 개인적 삶의 질(Rohe & Stegman, 1994)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어왔다.

먼저 자산형성의 영향과 효과에 관심을 가진 학자들은 자산 형성이 개인에게 미치는 긍정적 영향을 일관되게 보고해왔는데 Kohn et al.,(1990)은 자산형성이 개인의 심리·정서적 안정(psychological well-being), Rohe & Stegman(1994)은 삶의 만족에 기여함을 증명하였다. 한편, Page-Adams & Vosler(1995)는 집을 소유하는 것이 우울 및 알콜 감소와 부적 영향을 미침을

검증하였다.

이처럼 집을 소유하는 것, 자산형성지원사업에의 참여, 통장개설, 마이크로크레딧 사업에의 참여를 통한 자산형성은 개인의 심리·정서적, 경제적, 사회적, 가구 내에서의 지위 등 다차원적 측면에서 긍정적 영향을 미치며, 그 영향은 자녀의 저축, 교육수준 등에도 영향을 미치는 대물림 영향 또한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Ⅱ-27> 자산형성이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선행 연구의 발견

정서적 측면	심리정서적 안정 (psychological well-being) (Kohn, Naoi, Schoenbach, Schooler, & Slomoczynski, 1990; Page-Adams & Vosler, 1995; Yadama & Sherraden, 1996) 삶의 만족 (life satisfaction) (Rohe & Stegman, 1994) 우울 감소 (depression)(Page-Adams & Vosler, 1995) 자기효능감 (self-efficacy), 신중함 (prudence) (Yadama & Sherraden, 1996)
신체적 건강	신체적 건강 (physical health) (Robert & House, 1996) 알콜 남용 감소 (alcoholism) (Page-Adams & Vosler, 1995)
경제적 측면	경제적 스트레스 (economic strain) 감소(Page-Adams & Vosler, 1995) 경제적 안정 (economic well-being) (Sherraden, Nair, Vasoo, Liang, & Sherraden, 1995; Sherraden, 1991) 경제적 사회화 (economic socialization) (Sherraden, 1991) 경제적 성과 (conomic outcome) (Sherraden, 1991) 경제적 행동 (economic behaviors) (Beverly, Sherraden, et al., 2008)
사회적 측면 (시민행동 등)	재활용 (Oskamp et al., 1991) 지역사회참여 (Perkins et al., 1990; Rohe & Stegman, 1994)
삶의 질	개인의 삶의 질 (personal well-being) (Rohe & Stegman, 1994)
가구 내에서의 여성의 지위	여성의 지위 향상 (Noponen, 1992) 가정 폭력 감소 (wife beating, violence) (Page-Adams, 1995; Rohe & Stegman, 1994)
아동의 삶의 질	아동의 학업 중단 감소 (drop out) (Green & White, 1997) 아동 교육에의 투자 (Hill & Dunca, 1987) 자녀의 저축 (Pritchard, Myers, & Cassidy)

위의 <표Ⅱ-27>에서 볼 수 있듯이 자산형성의 긍정적 효과에 대한 일관적 결과는 본 연구에서 검증하고자하는 자산형성지원사업의 성과를 예측할 수 있게 한다. 특히 본 연구에서 초점을 두는 청년희망키움통장의 경우 15-39세 청년의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통장사업으로 청년의 경우 생애주기상 경험하는 이벤트가 남은 생애에 걸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그 효과는 더욱 클 수 있음을 예상할 수 있다. Sherraden(1991)이 제안한 바와 같이, 젊은 세대의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것은 이들이 남은 생애에 빈곤에 빠질 수 있는 가능성을 줄이는 예방 효과와 함께 경제적 사회화(economic socialization), 경제적 행동(economic behaviors) 축진을 통해 탈빈곤과 경제적 안정과 같은 경제적 목적 성취에 기여하는 기제로서의 가능성을 가진다.

국내 연구에서 논의되어 온 자산형성 사업의 성과를 검토하면 다음 <표Ⅱ-28>과 같다. 먼저 이순성 외(2010-2013)가 차상위층 이상을 대상으로 한 서울시 자산형성지원사업인 서울 희망플러스 통장(2009-2011)에 대한 성과를 분석한 결과, 통장사업에의 참여를 통한 자산형성은 계획적 소비 인식, 소득계층 인식, 배우자 및 자녀와의 문제해결 방법 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침을 보고하였다. 유사하게 전국의 수급자 대상 자산형성지원사업인 희망키움통장 사업의 성과를 분석한 최현수 외(2010-2013)의 연구에 따르면, 희망키움통장 사업 참여자들은 사업 참여가 경제적 생활수준에 대한 인식, 저축액 마련, 저축 습관에 대한 전망 등 저축관련 인식 및 태도, 근로소득 증가를 위한 노력 등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하였다.

청년 대상 자산형성지원사업의 성과 또한 보고되어왔다. 먼저 서종녀 외(2017)는 서울시 거주 18-34세 중위소득 80%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한 자산형성지원사업인 희망두배 청년통장 사업의 성과를 분석한 결과, 사업 참여는 참여 청년의 금융자산, 근로 소득 증가, 주거 안정과 함께 주거관련 대출의 증가, 월평균 생활비의 증가, 미래의 상황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가져왔다고 보고하였다. 한편 최조순 외(2017)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18-34세 중위소득 100% 이하 근로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사업(2016-2017)의 성과를

분석한 결과, 청년통장사업에의 참여는 참여 청년의 경제적 스트레스 감소, 합리적, 계획적 소비와 저축, 소비에 대한 자기결정권, 자발적 소비 통제와 같은 경제적 역량 향상에 기여하였으며, 참여자들의 이직의사 감소에 기여하였음을 발견하였다. 최상미 외(2018) 또한 전국의 수급가구 근로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청년희망키움통장 참여 청년과 비참여 청년을 비교한 결과, 참여 청년은 비참여 청년에 비해 더 높은 상용근로, 근로소득과 총소득을 보이며, 참여 청년이 보다 높은 자아정체감을 가짐을 확인하였다.

<표Ⅱ-28> 자산형성지원사업의 성과에 대한 국내 연구 결과

연구자	자산형성지원사업의 성과
서종녀 외 (2017)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사업 성과 (18-34세, 200만원이하 소득, 중위소득 80%이하) - 자산형성에 긍정적 영향(금융자산, 근로소득 증가, 주거관련 대출의 증가로 부채의 부채액 증가), 소비(월평균 생활비)증가 - 미래의 상황에 대한 인식
이순성 외 (2010-2013)	서울 희망플러스통장(서울형 저소득층(차상위) 자산형성지원프로그램 (2009-2011)) - 계획적 소비 인식, 소득계층 인식, 미래경제상황에 대한 인식, 배우자 및 자녀와의 문제해결 방법, 희망플러스 통장사업에 대한 인식
최현수 외 (2010-2013)	희망키움통장 성과 - 경제적 생활수준에 대한 인식(1-9점척도), 저축관련 인식 및 태도(저축액 마련방법, 근로소득 증가를 위한 노력 정도, 저축 습관에 대한 전망
최조순 외 (2017)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사업 (2016-2017), 18-34세 근로청년, 중위소득 80->100% 이하) 성과 분석 (경기복지재단) - 소득, 저축, 자산 증가, but 부채도 증가 경제적 스트레스 감소, 경제적 역량(합리적, 계획적 소비와 저축) 소폭 향상, 자존감 변화없음 미래에 대한 희망 다소 증가, 금전성향(금전에 대한 맹신, 소비에 대한 자기결정권, 자발적 소비통제) 변화, 이직의사감소
최상미 외 (2018)	청년희망키움통장 참여자, 비참여자 비교 통해 참여 성과 탐색 (참여 1차년도) 참여자 집단은 비참여자 집단에 비해 더 높은 상용근로 참여율, 더 높은 근로소득과 총소득 더 높은 자아정체감 예상진로와 관련하여 상급학교 진학, 편입학, 창업희망 비율 높음 vs. 소비, 저축, 주거, 의료서비스 이용, 사회적 관계, 근로에 대한 생각, 우울, 삶에 대한 만족감 등 차이 없음

본 연구는 청년희망키움통장 사업 참여자에 대한 1차년도 패널 구축 연구로서 2020년 2차 패널, 2021년 3차 패널 구축을 통해 참여자들이 소정의 목돈 마련을 통해 경제적, 사회적, 정서적 측면에서 어떠한 변화와 경험을 하는 지 추적, 검증하는 기초 자료로서의 의미를 가진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에서 검증되어 온 자산형성의 성과를 파악하는 동시에 청년의 발달단계적, 생애주기상의 특성을 고려하여 이들이 목돈 마련을 통해 경험할 수 있는 변화들을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지표를 구성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구성된 지표는 다음 4장 1절에서 소개된다.

III

해외 사례 검토

1. 개인발달계좌
2. 아동발달계좌

III. 해외 사례 검토

Sherraden(1991)의 연구 이후 지난 20여년 간 자산형성지원제도에 대한 전 세계적 관심은 증대되어 왔다. 이는 기존의 소득보장정책이 갖는 주요한 한계들—근로욕 저하, 이미 축적된 자산의 불평등으로 인해 과세정책의 효과가 나타나기 힘들, 이전소득을 통한 빈곤을 저하에 성공하지 못함(Laurinavičius, 2012)—뿐 아니라, 대상자의 가능성과 역량에 초점을 두는 제도적 관점의 변화에서 기인한다. 즉, 오늘 날의 공공정책은 단순 재분배 보다는 개인의 능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돕는 적극적 정책의 성격을 필요로 한다는 것이다(Sherraden, 1991). 같은 맥락에서 자산형성지원제도의 목적은 개인이 자산을 축적하도록 장려하고, 이들의 지식·기술·역량을 발전시킴으로써 국가 경제와 사회의 성장에 기여하도록 하는 데 있다(Loke & Sherraden, 2008; Laurinavičius, 2012). 이에 1990년대 중반 이후 미국, 영국, 캐나다 등 영미권 국가들과 한국, 대만, 싱가포르, 홍콩 등 아시아 국가들을 중심으로 자산형성지원제도를 주요 사회정책의 하나로 도입, 시행하여 왔다.

자산형성지원제도의 유형은 연구자에 따라 2~4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기도 하나, 제도의 대상과 성격에 따라 (1)저소득층의 자산형성을 위한 개인발달계좌(Individual Development Account: IDA), (2)신생아 및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아동발달계좌(Child Development Account: CDA)으로 구분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최현수 외(2017)의 연구에서 각 유형의 특징으로 개인발달계좌는 잔여적이고 높은 목표효율성을, 아동발달계좌는 보편적이고 제도 수행에 장기적 기간이 소요됨을 밝힌 바 있다. Laurinavičius(2012)는 연구에서 개인발달계좌와 아동발달계좌 유형 외 (3)성인 개인에게 제공하는 1회성 보조금, (4)모든 성인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정기적 혜택을 포함하기도 하였다.

본 장에서는 대표적 자산형성지원제도인 개인발달계좌와 아동발달계좌에 한정하여 해외 사례를 검토하였다. 또한 본 연구의 대상집단이 희망키움통장사업

참여자로 생계, 의료수급가구의 가구원이자, 본인의 근로 및 사업소득의 합이 1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20% 이상인 만 15~39세 청년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유사한 연령기준을 가진 개인발달계좌 사례에 보다 초점을 두었다.

1. 개인발달계좌

Sherraden(1991)은 초기 개인발달계좌(Individual Development Accounts: IDA)를 보편적인 자산형성제도로 제안하였다. 즉,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되 저소득층에 대해 보다 많은 지원을 하도록 설계되었으며, 생애 주요 개발 및 사회적 보호를 목적으로 하였다. 그러나 실제로는 저소득층 성인을 목표로 하는 단기적 정책으로 구현되었다. 개인발달계좌의 대표적인 제도로 미국의 IDA, 영국 Help to Save, 캐나다 Learn\$ave, 대만 FDA를 중심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국가별 개인발달계좌의 구체적 사항은 <표 III-1>에 제시하였다.

1) 미국 IDAs(Individual Development Accounts)

미국의 IDAs는 저소득층이 정해진 기간 내 특정 목표를 위해 저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OCC, 2018). 일반적으로 목표는 주택 구입과 소규모 창업 지원, 교육비 등이다. 다른 나라와 구별되는 특징으로는 (1) 각 주별 및 프로그램별로 대상자격과 매칭율이 상이하다는 점이 있다. 예를 들어, 아리조나 주의 경우 연방빈곤선의 200%면서 직장에서 소득을 얻어야 한다. 만일 중간에 직장을 잃는 경우 6개월 간의 유예기간 동안 새로운 직업을 찾을 경우 IDAs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Disability Benefits 101 사이트, 2019). 또 다른 특징으로는 (2) 재원 마련에 있어 민간 부문의 주도 하에 시작되었으며(이순성 외, 2014) 공공 부문 및 민간 부문이 모두 참여한다는 점과 (3) IDAs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해 저소득층은 반드시 재정교육 및 상담 프로그램에 참여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프로그램의 내용에는 돈 관리, 부채 감소, 저축 계획 세우기, 투자 등이 포함된다.

- (지원대상) 주별로 상이하나, 연방빈곤선 및 중위소득기준과 특정 프로그램(예. TANF) 대상자 등 저소득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다.
- (전달체계) 연방정부 또는 주정부의 지원을 받는 프로그램이 다르다. 즉, 연방정부의 자금으로 운영되는 경우와 그 외의 자금으로 운영되는 경우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매칭율과 프로그램별로 상이하게 제공된다.
- (사용용도) 주택, 창업, 교육 비용으로 활용하도록 제한되어 있다.
- (추가지원 서비스)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하여야 하는 강제성을 지니고 있으며,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 탈락하는 경우도 있다. 교육은 강의 형태의 교육 외에도 1:1 상담이나 온라인 교육 등이 있다.

2) 영국 Help to Save

영국의 Help to Save는 이전의 Safe Gateway와 CTF를 폐지한 후 저소득 근로빈곤층을 지원하기 위한 저축계좌로, 2018년부터 시범적으로 운영되어 왔다. Help to Save는 일생동안 최대 4년의 기간 동안 적립이 가능하다(Gov UK 사이트, 2019). 1인 1계좌로 개인은 최대 월 1파운드에서 최대 50파운드를 적립할 수 있다. Help to Save의 특징적 요소는 (1) 단일기관이 관리·운영을 맡는다는 점이다. 공공과 민간 부문의 재정을 모두 활용하고 주정부를 통해 각기 다른 기준과 프로그램이 제공되는 미국이나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제공되는 캐나다 및 대만과도 차이를 보인다. (2) 저소득층의 근로 확대 및 더 나은 일자리로의 이동을 통한 제도적 의존성 약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영국은 캐머런 정부 시기 16~64세 근로층 대상 사회보장제도를 하나의 체계로 포괄하는 유니버설 크레딧(Universal Credit)을 도입하였다(이현주, 2015). 유니버설 크레딧의 배경에는 저소득층의 근로의욕을 높이기 위한 목적이 있으며, 그 안에 근로세공제(Working Credit)와 아동세공제(Child Tax Credit) 등이 포함된다. Help to Save가 근로세공제, 아동세공제 등 유니버설 크레딧의 대상자들을 주요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들은 안정된 일자리 확보·유지와 더불어 자산형성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급여에 의지하는 것 보다 일자리를 유지하

는 것이 더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이현주, 2015). (3) 사용용도에 제한이 없고 추가지원서비스도 제공하지 않는다.

- (지원대상) 각종 세금 크레딧(예: Working Tax Credit, Universal Credit)을 받는 근로빈곤층이나 가구소득이 특정 수준 이상인 가구에 해당한다.
- (전달체계) 국영저축은행 NS&I가 운영하며, 매칭율은 1(본인):0.5(정부)를 기준으로 한다. 처음 2년 후 계좌에 저금된 돈의 50%를 보너스로 받게 되며, 4년 후까지 계속 저금한 경우 역시 보너스를 받게 된다. 하지만 이 때의 보너스는 처음 2년까지의 최고 저금액(1년차-2년차)과 다음 2년까지의 최고 저금액(3년차-4년차) 간 차이의 50%를 보너스로 받는다. 만일 이들 최고 저금액 간 차이가 없다면 보너스를 받지 못한다.
- (사용용도) 사용용도에 제한은 없다.
- (추가지원 서비스) 다른 나라와 달리, 교육 등의 추가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

3) 캐나다 Learn\$ave

캐나다의 Learn\$ave는 저소득층 성인이 자신을 위한 교육 및 훈련을 위해 저축하도록 장려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Learn\$ave의 가장 큰 특징은 (1) IDA 제공방식이 2가지를 탐색하였다는 점이다. 즉, 재정적 보상을 서비스(재무관리교육 등)와 함께 제공하는 방식과 재정적 보상만 제공하는 방식으로 구분하였다. 또한 (2) 저축용도를 정하고 그에 따라 2개의 스트림(stream)으로 분류하였다. 첫 번째 스트림은 Education/training stream으로 교육 및 직업훈련 용도로 저축액을 사용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두 번째 stream으로 Micro enterprise stream은 이름 그대로 소규모 창업을 비롯한 교육과 직업훈련에 저축액을 사용할 수 있다. 이때 소규모 창업에 대한 참여자 수가 제한되어 있다. 이외에도 가구당 1명의 가구원만 참여하도록 하였으며, 추가적으로 사례관리를 제공받는다는 특징이 있다(Leckie et al., 2009).

- (지원대상) 소득과 자산, 연령 및 교육 관련 기준을 활용한다. 지역별 빈곤선과 금융자산, 주택가치를 활용한다. 연령 기준은 20세부터 65세까지의 근로연령이며, 주간 교육을 받는 Full time 학생은 참여할 수 없다(최현수 외, 2017).
- (전달체계) 캐나다 인적자원 및 기술개발부(HRSDC)가 운영하며, 프로젝트의 설계 및 구현을 위해 SEDI(Social and Enterprise Development Innovations)와 SRDC(Social Research and Demonstration Corporation)와 파트너십을 구축하였다. 파트너십을 통해 아이디어 개발, 지역사회 연계 등을 수행하려 하였다. 매칭율은 1:3으로 매칭율이 높은 편이다. 그러나 매칭을 받기 전 12개월 간 적어도 매월 10달러를 저금하도록 하는 조항을 두고 있다.
- (사용용도) stream별로 저축액의 사용처가 다르다. 다만 저축 후 48개월 내에 정해진 저축용도로 해당 저축액을 인출하여야 한다.
- (추가지원 서비스) 총 15시간의 금융교육을 제공하며, 예산관리와 목표설정을 합리적, 현실적으로 설계하는 방법을 포함한다. 또한 사례관리를 제공하는 데, 특히 저축 관련 요인들을 확인하고 관련 서비스를 제공한다.

4) 대만 TFDA(Taipei Family Development Accounts)

대만의 타이페이는 빈곤퇴치사업으로써 저소득 가구에 대해 저축계좌에 매칭액을 적용하는 TFDA 사업을 시범적으로 도입하였다. 총 3년 간 100개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이 사업은 참여자의 저축 목표액에 1:1로 매칭하여 주는 사업이었다(Cheng, 2004). TFDA 사업의 가장 큰 특징적인 점은 (1) 민간 부문의 재원과 공공 부문의 조직체계를 활용한 협력적 파트너십 관계이다. 민간 부문에서는 Polaris Securities Group라는 증권사가 프로그램 비용을 지불하는 스폰서 역할을 맡았다. 타이페이시 정부 내 사회서비스과 안의 사회보장분과에서 조직을 담당하였고, 타이페이시에 소속된 타이페이시은행(Taipei City Bank)가 은행 관련 업무를 수행하였다. 또한 (2) 연속적이고 의무적인 교육 서비스가

동반되었다. 지원대상자들은 매년 3주마다 1번씩 있는 경제 교육에 참여하여야 했으며, 신용, 부채, 창업 등에 대한 교육을 받도록 하였다. (3) 사용용도를 주택, 교육, 사업에 한정하였다(Cheng, 2004).

- (지원대상) 소비지출의 60% 이상 수입이 있고, 최저 수입이 미 달러 1,200 불 이상인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하였다.
- (전달체계) 타이페이시 정부 내 사회보장분과에서 조직을 담당하였으며, 내부적으로 2명의 풀타임 직원을 채용하였다. 매칭 비용은 민간영리기업 Polaris Securities Group에서 지원하였다.
- (사용용도) 첫 주택 마련과 중등교육 이후의 학자금 지출, 사업 투자금으로 제한하였다.
- (추가지원 서비스) 3주마다 1회의 경제교육에 의무적으로 참여하여야 하며, 3년 간 총 135시간의 교육을 실시한다. 교육의 내용에는 신용, 부채, 투자, 창업 등을 포함하였다.

종합하면, 국가별 개인발달계좌들은 근로빈곤층을 대상으로 하며 영국을 제외하고는 제한된 지역을 중심으로 수행되는 경우가 많았다. 주된 사용처는 국가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었으나 주로 교육 및 소규모 창업, 주택구입으로 제한되어 있거나 제한하지 않더라도 해당 사용 용도에 활용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추가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가들은 프로그램 참여자들의 금융 문해력(financial literacy)를 높이하고자 재정관리 교육을 위주로 하였다.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경우 대부분 강제성(의무적 참여)이 동반되었다.

<표III-1> 해외 자산형성지원사업 사례 - 개인발달계좌

	미국	영국	캐나다	대만
명칭	IDA	Help to Save	Learn\$ave	FDA
도입	1990년	2018년	2000년	2000년
실시지역	50개 주	전국	10개 지역	타이페이시
대상 자격	주별로 다름 (빈곤선, 중위소득 등)	Working Tax Credit을 받는 자, Child Tax Credit을 받는 자, Universal Credit을 받고 매달 가구소득이 £569.22 이상인 가구 등	지역별 빈곤선 이하의 연소득, 연소득 10% 미만 또는 \$3,000 미만의 금융자산, 주택 가치의 중위값 미만 가치, 20~65세 근로연령	소비지출의 60% 이상 수입, 미화 \$1,200 이상의 수입이 있는 저소득 가구
급여 (적립 한도)	연간 \$300 ~ \$2,000 총 4년 \$900 ~ \$4,000	최대 4년 최대 £2,400 (최소 £1 ~ 최대 £5)	월 \$250 3년 최대 \$1,500	NT\$2,000, NT\$3,000, NT\$4,000(택 1)
재원	연방정부 및 주정부 일반 예산, 민간부문 사적재원 등	정부지원금	정부지원금과 개인 저축	민간기업 Polaris Securities Group 1:1 매칭 펀드 지원
전달체계	주정부 운영	영국 국영저축은행(NS&I) 운영	캐나다 인적자원 및 기술개발부(HRSDC) 운영	-
사용용도	주택구입, 창업, 교육비로 제한	제한없음	교육 및 직업훈련과 창업지원으로 제한	첫 주택구입, 창업, 중등교육 이상 교육비로 제한
추가지원 서비스	재정교육 및 상담	없음	금융교육 15시간, 사례관리 제공	재정교육 3년(153시간)

*출처: 이순성 외(2014) 및 최현수 외(2017) 보고서와 미국(Individual Development Accounts, 2018),
영국(<https://www.gov.uk/get-help-savings-low-income/print>), 캐나다(Leckie et al., 2009), 대만(Cheng, 2001)의 각 자료에서 일부 인용 및 수정·보완함

2. 아동발달계좌

아동발달계좌는 보편성과 평생지속성이라는 특징을 가진다. Sherraden(1991)은 모든 신생아에 대해 자동으로 계좌를 개설하고 초기 예치금을 제공하도록 제안하였으며 저소득 아동은 유치원 입학, 고등학교 입학과 같은 특정 지점에 자동적으로 추가 입금을 받게 된다. 개설된 계좌는 평생 유지되며 고등교육, 주택구입, 사업 및 퇴직을 위한 자산 축적을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미국과 같은 일부 국가에서는 보편적 모델로 적용하기 보다 소득 기준을 적용하여 전체 아동이 아닌 일부 저소득층 및 중산층을 중심으로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아동발달계좌의 대표적 사례인 영국 Junior ISA, 싱가포르 PSEA, 그리고 미국 CSAs의 제도적 특징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1) 영국 Junior ISA(Junior Individual Savings Accounts)

Junior ISA는 아동을 위한 장기적 면세 혜택의 저축계좌이다. Junior ISA는 (1) 2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는 점에서 다른 나라의 아동발달계좌와 큰 차이를 보인다. 첫 번째 유형의 계좌는 현금(cash) Junior ISA로, 예를 들어 통장 저축액에 대한 면세 혜택 등을 부여 받는다. 두 번째 유형의 계좌는 채권과 주식(stocks and shares) Junior ISA로, 채권이나 주식 투자로 발생한 배당이나 자산 증가분에 대한 면세 혜택 등이 그 예이다. 동시에 개인에 따라 1가지 계좌만 선택할 수도 있고, 2가지 계좌를 모두 다 활용할 수도 있다. 다만 연간 저축액에는 제한이 있는데, 2019년부터 2020년까지의 연간 최고 저축액은 £4,368를 초과할 수 없다(GOV UK 사이트, 2019). 또한 (2) 연령 기준에 의한 계좌 만기를 따르며, 성인 ISA와 계속적으로 연결된다는 특징이 있다. 일단, 기간 기준이 아닌 연령 기준을 따르는 데, 예를 들어 영국의 Saving Gateway 프로그램은 저축 기간을 1년 6개월로 두고 있다. 반면, Junior ISA는 아동이 18세가 되면 자신의 계좌에서 돈을 인출할 수 있으며, 동시에 자동적으로 성인 ISA로 전환된다. 다만 아이가 불치병에 걸렸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18세 이전이라 하더라도 계좌의 돈을 인출할 수 있다.

- (지원대상) 18세 미만의 영국에 거주하는 아동이거나 영국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라면 Crown Servant(영국 군대, 외교서비스 또는 해외공무원 등)의 자녀 등이어야 한다. 또한 아동신탁기금(CTF, Child Trust Fund)과 동시에 활용할 수 없으므로, CTF의 저축액을 Junior ISA로 이체하여야 한다.
- (전달체계 및 급여) 영국 국세청(HMRC, HM Revenue & Customs)로부터 지원되며, 중도 인출이 필요한 경우에 국세청으로 연락한다.
- (사용용도) 18세 미만의 아동 저축액에 대한 면세혜택에 초점을 두고 있으므로, 사용용도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2) 싱가포르 PSEA(Post-Secondary Education Account)

싱가포르가 운영 중인 PSEA의 가장 큰 특징은 (1) 3개 연령 집단으로 구분하여 각 연령집단에 맞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저축계좌를 운영한다는 점이다. 출생부터 6세까지는 Baby Bonus, 6세부터 16세까지는 Edusave, 7세부터 20세까지는 PSEA 사업에 참여하도록 한다. Baby Bonus는 출산율의 증가, Edusave는 학령기 아동과 그 가정에 대한 지원, PSEA는 어린시절의 각 단계마다 아동의 인적 자본 발달 기회를 최대화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다(Loke & Sherraden, 2008). PSEA는 교육적 목적을 무엇보다 강조하고 있으며, 실제 PSEA 계정의 전반적인 운영 또한 교육부(Ministry of Education Singapore)에서 담당한다. (2) 사용용도를 허가된 기관(자치대학, 폴리테크닉, 직업훈련원 등)에 제한하고 있으며, 이외에 교육 관련 대출 상환용도로 제한하는 특징이 있다. 저축액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CPF(Central Provident Fund)로 이전된다(Ministry of Education Singapore, 2019).

- (지원대상) 싱가포르 CDA(아동발달계좌)를 가지고 있거나 CDA로 사용하지 않은 자금이 있는 싱가포르인이다. 2001년부터 2005년 사이에 태어난 아이의 경우 7세가 되었을 때, 2006년 또는 그 이후에 태어난 아이의 경우 13세가 되었을 때 PSEA 계좌가 자동적으로 생성된다. 또한 Edusave 계좌에 남은 돈이 있는 경우, 국가 서비스 주택, 의료 및 교육상 수혜자격이 있는 경

우 등도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 (전달체계 및 급여) 교육부에서 전반적인 내용을 운영한다. 아동의 연령에 따라 싱가포르 달러 \$200 ~ \$800이 한시적으로 지원되었다. 최근 싱가포르 교육부는 PSEA의 추가지불(top-up) 즉, 보상에 있어 연간 주택가치를 활용하고 있다. 2019년 기준 주택가치가 \$13,000 미만인 경우 \$500, \$13,000 이상인 경우 \$250을 지원한다. 또한 아동의 부모들도 PSEA에 저축할 수 있다.
- (사용용도) 사용용도는 고등교육 즉 대학 이후의 교육비 지원과 교육비 대출금 상환 용도로 제한된다.

3) 미국 CSAs(Child Savings Accounts)

미국은 전체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아동발달계좌는 없으며, 다양한 시범정책을 통해 CSAs 도입에 대한 이론적, 정책적 논의가 지속되어 왔다. 일반적으로 CSAs는 소득 또는 중산층 소득의 가구에 재정적 안정성 및 재정능력을 높이고, 교육적 성과를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Butrica, 2015). 미국 CSAs의 특징은 엄격한 사업 진행 및 도입을 위한 법안의 제시 및 다양한 시범사업이 시도되었다는 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법안들이 의회에서 통과되지 않았고, 주별로 상이한 기준과 사업들만 산발적으로 운영되어 오고 있다.

- SEED(Saving for Education, Entrepreneurship, and Downpayment) 사업은 총 12개주에서 시범적으로 실시되었으며, 계좌에 대한 보편적이고 자동적인 접근 기회(access)가 사업 성공의 중대한 요인이라는 점을 밝혀내었다(Cramer & Newville, 2009). 아동 저축계좌(savings accounts)에 최대 \$1,000의 초기 지원금을 받았으며(Mason et al. 2009), 저축액에 대한 매칭 인센티브 등이 추가로 지원되었다.
- 529 Colleague Savings Accounts는 아동들의 고등교육 즉, 대학 학자금 지불에 도움이 되도록 설계하였다. 모든 주에서 529 Colleague Savings Accounts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CSAs 사업의 잠재적 플랫폼으로써 기능할 가능성을

이 있으나, 실제로는 전체 학부모의 약 3% 정도만 계좌를 개설한 것으로 나타났다(Butrica, 2015).

- 이외에도 각 주차원에서 SEED OK(오克拉호마), Kindergarten to College San Francisco, Cuyahoga County(오하이오) College Savings Account Program 등이 수행되었다.

종합하면, 국가별 아동발달계좌들은 교육 중심적 지원과 초기 자산형성의 도움이라는 공통적인 목적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모든 아동에 대한 보편적 제공인지,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한 선별적 지원인지에 있어서는 국가별로 차이를 보였다. 지원의 유형으로 매칭 및 한시적 지원을 통한 보상적 금전 제공과 면세혜택으로 구분할 수 있었다. 보상적 금전 제공은 양육자로 하여금 교육비에 대한 부담감을 줄여주며, 면세혜택은 세금의 납부의무를 제한한다는 점에서 아동을 포함한 가구의 자산 증대에 도움을 주도록 하였다. 다만 검토한 사례들에서는 추가지원 서비스를 동반하고 있지 않았다.

IV

연구방법

1. 사업성과분석틀
2. 참여자 대상 1차 패널 조사 방법

IV. 연구 방법

1. 사업성과 분석틀

1) 일반적 현황 및 객관적 지표

(1) 일반적 현황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현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조사응답자의 성별, 출생년월, 학력, 장애유무 및 장애등급, 종교유무를 조사하였다.

조사대상자의 가구 현황으로는 가구주 여부, 혼인상태, 동거가족 수, 함께 생활하는 가족을 확인하였다.

조사대상자의 근로 현황은 자격증 보유, 근로형태와 직종분류, 근로시간형태, 근로지속가능성을 질문하였다.

(2) 경제적 상황 : 소득 · 저축 · 부채

조사대상자의 소득은 최근 3개월 동안의 평균 근로소득, 공적 이전소득, 사적 이전소득으로 구분하여 조사하였다.

조사대상자의 저축 역시 최근 3개월 동안의 평균 월 평균 금액을 측정하였다. 저축에는 예 · 적금(주택청약부금 포함), 개인연금(국민연금 제외), 저축성 보험(재테크 보험, 교육보험 등), 갯돈 불입금, 보장성 보험(생명보험, 건강보험, 상해보험 등), 종신보험, 적립식 펀드 등이 포함된다. 다만, 저축액에 청년희망키움통장 적립액은 포함하지 않는다.

부채는 조사대상자의 개인 부채로, 조사 시점 기준 이자를 포함한 총액을 조사하였다. 부채에는 은행 빚, 개인적으로 빌린 돈, 전세금이나 임대보증금으로 받은 돈, 미리 타고 앞으로 부어야 할 계 등이 포함된다. 다만, 카드할부로 물품을 구입하는 경우는 부채에 해당하지 않으며, 카드를 이용한 현금대출과 연체액은

포함한다.

부채와 관련하여 추가적으로 월 평균 상환액, 부채를 지게 된 이유, 부채에 대한 부담 정도를 적도록 하였다.

이외에도 가족에 대한 부양 부담 정도, 자신의 미래 경제 상황에 대한 전망 수준을 조사하였다. 이 두 가지 척도는 모두 11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3)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

조사대상자 가구가 현재 받고 있는 급여의 유형(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해산 및 장제급여, 자활급여)을 모두 조사하였다. 또한 조사대상자 가구가 해당 급여를 받은 전생애 동안의 기간이 총 몇 년 몇 개월인지를 응답하도록 하였다.

(4) 지출

조사대상자의 지출 수준은 최근 3개월 동안의 월 평균 총 생활비를 조사하였다. 또한 응답자가 월 평균 총 생활비에서 식료품비, 주거비, 광열수도비, 가구집기비, 피복신발비, 보건의료비, 교육비, 교양오락비, 교통통신비, 기타소비, 비소비에 각 얼마를 지출하였는지를 응답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생활비 비목구성은 보건복지부의 최저생계비 비목 구성과 동일하다.

조사대상자가 가장 부담이 되는 지출 항목 또한 작성하도록 하였다.

(5) 주거

주거와 관련하여서는 주택 유형, 주거 위치, 주택 점유 형태, 주택 금액, 주택 면적을 응답하도록 하였다. 주택 유형은 일반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세대 주택, 연립주택, 일반 아파트, 임대아파트, 비거주용건물 내 주택, 준주택(고시원 등) 등을 구분하여 조사하였다. 주거 위치는 지하층, 반지하층, 지상, 옥탑으로 구분하였다. 응답자가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점유형태는 자가, 전세, 월세, 무상, 기타로 구분하여 측정되었으며, 주택 금액은 주택의 총액(자가 및 전세, 전월세

모두 응답)과 월세(월 평균)를 조사하였다.

(6) 예상 진로

응답자가 생각하는 1년 뒤의 예상 진로에 대하여 1순위부터 3순위까지 조사하였으며, 본 문항의 보기에는 취업유지, 이직, 상급학교 진학, 편입학, 개인 사업 및 창업, 군입대, 특별한 진로 계획 없음, 기타가 있다.

(7) 사회활동 참여

사회참여는 종교활동, 여가활동, 친목모임, 정당·정치 관련 모임, 자선단체·자원봉사활동 단체, 기타 시민단체에서의 활동 수준을 측정하였다. 활동 수준은 지난 1년 간 해당 활동에 대한 참여 정도를 총 참여일수로 기입하도록 하였다.

<표IV-1> 일반적 현황 및 객관적 지표

	영역	내용
A1	일반현황 및 근로 현황	일반 현황: 성별, 출생년월, 학력, 장애유무 및 장애등급, 종교유무 가구 현황: 가구주 여부, 혼인상태, 동거가족 수, 함께 생활하는 가족 근로 현황: 근로형태, 직종분류, 근로시간형태, 근로지속 가능성
A2	경제적 상황: 소득, 저축, 부채	소득(월평균): 근로소득, 공적 이전소득, 사적이전소득 저축(월평균): 월평균 저축액 부채(총액): 개인 부채, 월 평균 상환액, 부채를 지게 된 이유, 개인 부채에 대한 부담 정도 가족부양부담 정도, 미래 상황에 대한 전망
A2	국민기초생활보 장제도 수급현황	수급여부: 현재 받고 있는 급여 유형, 수급기간(전생애)
A3	지출	총생활비, 식료품비, 주거비, 광열수도비, 가구집기비, 피복신발비, 보건의료비, 교육비, 교양오락비, 교통통신비, 기타소비, 비소비 가장 부담이 되는 지출항목(1-3순위)
A4	주거	주택유형, 주거위치, 주택점유형태, 주거비용(주택 총액, 월세), 주거면적
A5	예상 진로	예상진로(1-3순위)
B4_2	사회활동 참여	종교활동, 여가활동, 친목모임, 정당 및 정치 관련 모임, 자선단체 및 자원봉사활동 단체, 기타 시민단체에서의 연간 총 참여일수

2) 주관적 지표

(1) 심리·정서적 요인

조사대상자의 심리정서적 요인은 자아존중감, 행복지수, 투지(Grit), 회복탄력성(Resilience)과 같은 심리적 건강과 신체적 건강에 대한 인지로 구분할 수 있다.

자아존중감은 10개 문항(예. 나는 내가 다른 사람들처럼 가치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을 5점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본 조사에서 척도의 신뢰도(Cronbach's Alpha)는 .872로 높은 신뢰도를 보였다.

행복지수는 9개 문항을 7점 척도로 측정함. 3개의 문항은 삶의 각 측면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는지를 물었으며, 6개의 문항은 감정을 얼마나 자주 느꼈는지(예. 즐거운, 행복한 등)를 조사하였다.

투지(Grit)는 8개 문항을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투지는 성공과 성취를 이끌어 내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하는 투지나 용기를 의미하며(예. 나는 무엇이든 시작하면 끝까지 해낸다), 조사 결과 척도의 신뢰도인 Cronbach's Alpha 값이 .790으로 적정 수준의 신뢰도를 보였다.

회복탄력성(Resilience)은 2개 문항으로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신체적 건강은 조사대상자의 건강수준은 주관적 건강상태(문항: 귀하의 최근 건강상태에 대한 질문입니다.)를 11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표IV-2> 주관적 지표: 심리적 요인

	지표명	문항수	측정	출처
B1_1	자아존중감	10	5점 척도	Rosenberg, M. (1965). Society and the adolescent self-image.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B1_2	행복지수	9	7점 척도	서은국, 구재선, 이동귀, 정태연, & 최인철. (2010). 한국인의 행복 지수와 그의미. 한국심리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2010(1), 213-232.
B1_3	투지	8	5점 척도	Duckworth, A. L. & Quinn, P. D. (2009). Development and Valudation of the Short Grit Scale (Grit-S).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91(2): 166-174.
B1_4	회복탄력성	2	5점 척도	Kathryn M. Connor, M.D.,and Jonathan R.T. Davidson, M.D.(2003), DEVELOPMENT OF A NEW RESILIENCE SCALE:THE CONNOR-DAVIDSON RESILIENCE SCALE (CD-RISC).DEPRESSION AND ANXIETY 18:76-82.
A6	신체적 건강	1	11점 척도	주관적 건강상태

(2) 재무관리 관련 요인

재무관리 요인으로 저축인식, 경제적 여건, 재무관리 역량을 측정하였다. 값의 총합과 척도의 각 항목에 따른 빈도를 분석하였다.

저축인식은 저축에 대한 조사대상자의 생각과 가장 가까운 것을 체크하도록 하였으며, 6개 문항을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경제적 여건은 현재 경제적 상태를 묻는 7가지 문항을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재무관리역량은 재무와 관련하여 계획을 세우는지, 미리 지출을 준비하는지 등을 질문하며 총 7문항을 4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표IV-3> 주관적 지표: 재무관리 요인

	지표명	문항수	측정	출처
B2_1	저축인식	6	5점 척도	서중녀(2016). 서울시 근로빈곤청년 자산형성지원정책 현황분석: 희망두배 청년통장사업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행정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229-250.
B2_2	경제적 여건	7	5점 척도	Prawitz, A., Garman, E. T., Sorhaindo, B., O'Neill, B., Kim, J., & Drentea, P. (2006). InCharge financial distress/financial well-being scale: Development, administration, and score interpretation. 최조순, 현동길, 장동호, 성열서(2017).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사업 성과 분석. 경기복지재단.
B2_3	재무관리역량	7	5점 척도	Prawitz et al.(2006)과 Aldana & Liljenquist(1998)의 설문 문항을 활용.

(3) 진로 및 고용 관련 요인

진로행동은 4문항을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고용희망은 17문항을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본 문항은 4개의 하위요인(스스로의 가치와 역량에 대한 인지, 미래의 나의 모습에 대한 동기부여, 목적지향, 기술과 자원 사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총 17문항 가운데 번호 순서에 따라 1번부터 6번 문항까지를 스스로의 가치와 역량에 대한 인지로 계산하며, 7번부터 10번 문항까지를 미래의 나의 모습에 대한 동기부여로 계산한다. 11번부터 14번 문항까지는 목적지향 요인을 의미하며, 15번부터 17번 문항까지는 기술과 자원 사용에 해당한다. 고용희망 척도 전체 문항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값이 .949로 매우 높았다, 각 하위요인의 신뢰도는 스스로의 가치와 역량에 대한 인지가 .887, 미래의 나의 모습에 대한 동기부여가 .859, 목적지향이 .885, 기술과 자원활용이 .897로 각 요인별 신뢰도 또한 매우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고용장벽은 해당 문제(18개 문항; 예. 부상이나 질병과 같은 건강문제)에 대한 영향수준을 5점 척도(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음, 영향을 미치지 않는 편임, 보통, 영향을 미치는 편임, 매우 영향을 미침)로 측정하였다. 고용장벽은 4가지 하

위요인(인적자본과 자원 부족, 삶에 대한 통제력 부족, 가족 관련, 건강 관련)으로 구분할 수 있다 본 조사에서 척도의 신뢰도는 .881로 높았다. 인적자본과 자원부족은 .776, 삶에 대한 통제력 부족은 .806, 가족 관련은 .883, 건강 관련은 .776으로 각 요인의 신뢰도 또한 전반적으로 높았다.

<표IV-4> 주관적 지표: 진로 및 고용 관련 요인

	지표명	문항수	측정	출처
B3_1	진로행동	4	5점 척도	김봉환. (1997). 대학생의 진로결정수준과 진로행동준비의 발달 및 이차원적 유형화.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재구성
B3_2	고용희망	17	5점 척도	최상미. (2017). 정서적 자활 성과 지표 도입 연구: 한국형 고용 희망 척도 (Korean Employment Hope Scale: K-EHS) 개발과 타당도 검증. 사회복지연구, 48(2), 97-119.
B3_3	고용장벽	16	5점 척도	최상미. (2019). 근로 빈곤 청년이 인지하는 고용 관련 장벽: 청년 고용장벽 척도 개발과 타당도 검증. 한국사회복지조사연구, 62, 31-56.

(4) 사회적 역량 요인

사회적 자본을 20개 문항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사회적 자본은 4가지 하위요인(신뢰, 네트워크, 사회참여, 규범의식)으로 구분할 수 있다. 사회적 자본 척도 전체 문항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값이 .834로 높았다, 각 하위요인의 신뢰도는 신뢰가 .710, 네트워크가 .733, 사회참여가 .808, 규범의식이 .828로, 각 요인별 신뢰도는 높거나 적절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가족지지는 4문항을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가족지지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값이 .919로 나타났다.

우리 사회의 소득불평등에 대한 인식 수준(문항: 귀하는 우리 사회의 소득 불평등 수준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은 11점 척도를 활용하여 측정하였다.

<표IV-5> 주관적 지표: 사회적 요인

	지표명	문항수	측정	출처
B4_1	사회적 자본	20	5점 척도	이민홍, & 고정은. (2015). 사회자본이 노인문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행정학, 17(3), 85-110.
B4_3	가족지지	16	5점 척도	Zimet, G. D., Dahlem, N. W., Zimet, S. G., & Farley, G. K. (1988). The multidimensional scale of perceived social support.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52(1), 30-41. 신준섭, & 이영분. (1999). 사회적 지지가 실직자의 심리 사회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 사회복지학, 37, 241-269. 사회적지지 문항 중 가족지지 4문항만 사용함.
B4_4	소득 불평등 수준	1	11점 척도	우리 사회의 소득 불평등 수준에 대한 주관적 인지

3)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 관련 문항

(1)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 현황

청년희망키움통장 사업을 알게 된 경로를 가족의 권고, 광고를 보고, 지인·친구의 소개, 기타로 구분하여 확인하였다.

현재 참여하고 있는 청년희망키움통장 사업에 가입한 시기는 언제인지 연월을 답하도록 하였다.

매월 본인이 납입하는 월 평균 청년희망키움통장의 자유납입금액이 얼마인지를 조사하였다.

(2) 자산형성지원사업의 만족도, 애로사항 및 개선점, 희망 서비스의 수요

청년희망키움통장 사업에 대한 영역별 만족도(지원 금액의 수준, 사업 관련 정보제공, 행정적 절차, 부가 프로그램 및 서비스 제공, 전반적 만족도)를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청년희망키움통장 사업을 포기하려고 한 적이 있다면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 해당없음, 근로지속의 어려움, 행정적 불편함, 가족의 반대, 탈수급에 대한 두려움, 다른 통장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기타로 구분하여 조사하였다.

청년희망키움통장 사업의 어떤 점이 개선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지를 1순위부터 3순위까지 응답하도록 하였다. 저축금액 다양화, 탈수급 조건 완화·폐지 등 수급 조건 완화, 행정 절차의 편의성 강화, 가족 중복참여 허용, 부가서비스 및 프로그램 강화, 기타로 구분하였다.

청년희망키움통장 사업과 함께 제공받기를 희망하는 서비스나 프로그램에 대한 수요를 조사하였다. 해당 질문의 보기로는 가족상담 및 가족 교육, 문화여가, 후원금/물품, 심리상담, 양육교육, 의료지원, 직업교육 및 훈련, 자격증취득교육, 주거개선, 창업교육, 재무상담 및 재무컨설팅, 금융교육, 기타 등이 있다.

(3) 자산형성지원사업 만기 후 지원금 사용계획 및 사용비중

청년희망키움통장 사업 만기 후 지원금의 사용계획을 조사하였다. 해당 질문의 보기로는 교육비(본인 및 가족), 주택마련, 결혼 및 상제비, 미래생활 대비(저축), 사업(투자) 자금 마련(창업 포함), 자동차·가구·가전 등 내구재 구입비, 불의의 사고 및 질병 대비, 여행 및 여가생활, 부채 상환 등이 있다.

청년희망키움통장 사업 만기 후 지원금의 사용계획과 사용비중을 확인하였다.

<표IV-6>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 관련

	영역	내용
C1	사업 인지 경로	청년희망키움통장 사업을 알게 된 경로
C2	가입연월	청년희망키움통장 가입년월
C3	자유납입금액	월평균 청년희망키움통장 자유납입금액
C4	사업에 대한 만족도	지원금액, 사업 관련 정보 제공, 행정적 절차, 전반적인 만족도 (5점 척도)
C5	사업 포기 이유	사업을 포기하려고 한 적이 있는 경우 이유
C6	사업 개선점	사업의 개선점(1순위-3순위)
C7	제공받고 싶은 서비스, 프로그램	청년희망키움통장 사업과 함께 제공받고 싶은 서비스, 프로그램 (1순위-3순위)
C8	지원금 사용계획 및 사용 비중	자산형성지원사업 만기 후 금액에 대한 사용 계획(1-3순위), 사용 비중

2. 참여자 대상 1차 패널 조사 방법

1) 조사 설계

(1) 표본구성

본 연구는 청년희망키움통장 사업참여자를 모집단으로 선정하였다. 표집은 조사대상자는 한국자활복지개발원으로부터 사업참여자 리스트를 받아 무작위추출 중 체계적 표집방법을 활용하여 표본을 추출하였다. 2019년 현재 청년희망키움통장사업 참여자 중 2018년 가입한 4,106명 중 중도 해지한 354명을 제외한 3,752명을 모집단으로 하였으며, 이 중 체계적 표집을 통해 722 케이스를 표본으로 선정하였다.

(2) 조사방법

PC와 스마트폰 사용에 익숙한 대상자 특성을 고려하여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온라인 설문조사 플랫폼 Survey monkey를 활용하였다. 조사대상자들의 불편함을 줄이기 위해 연구진 및 청년 집단을 대상으로 5차례 이상의 파일럿 테스트를 수행하였다. 데이터 수집은 2019년 8월 25일에 시작하여 2019년 10월 1일까지 약 35일 동안 진행하였다.

(3) 조사원 교육 방법

조사원은 직접 조사가 아닌 패널조사에 대한 동의를 받기 위한 전화 안내를 위한 교육을 수행하였다. 이를 위해 참여자 모집 지침서를 작성하여 조사원 모두 1회 1시간 정도의 조사원 교육을 거쳤다.

조사원 교육의 내용은 연구에 대한 전반적 개요, 참여자 모집에 대한 개요, 참여자 모집 예시 및 예상 질문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조사원 교육의 마지막 내용을 설문지 및 동의서에 대한 파일럿 테스트를 통해 조사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작업을 수행하였다.

2) 연구 윤리

본 연구는 인간 대상 연구로 기관생명윤리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의 연구윤리 심의 대상이 된다. 본 연구의 계획서, 조사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방안 등에 대한 내용을 동국대학교 IRB 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 연구의 과학적·윤리적 타당성을 심의 받았다. 심의과정을 통해 연구 윤리를 고려하여 조사대상, 조사과정과 설문 문항이 구성되었음을 승인받았다(IRB 승인번호는 DUIRB-201908-02).

V

연구결과

1. 참여자 대상 1차 패널 조사 분석 개요
2. 참여자 대상 1차 패널 조사 분석 결과
3. 참여자 및 중도해지자 대상 집단심층면접 분석
결과
4. 요약 및 정리

V. 연구결과

1. 참여자 대상 1차 패널 조사 분석 개요

1) 분석 방법

(1) 기술통계 및 빈도분석

설문조사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 기술통계 및 빈도분석을 수행하였다. 결과 제시하는 명목형 변수는 빈도(n)와 비율(%)을 제시하였으며, 주관적 지표 등 연속형 변수는 평균(mean)과 표준편차(standard deviation), 최소값과 최대값을 제시하였다.

(2) 집단 비교

설문응답자 가운데 학력 구분(고등학교 졸업 이하, 대학(2년제) 졸업 이상), 근로시간형태 구분(전일제, 시간제), 연령대 구분(15-24세, 25-29세, 30세 이상), 가구주 구분(가구주, 가구원), 거주지역(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에 따른 응답의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카이제곱검정, 독립표본 t검정, 일원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2. 참여자 대상 1차 패널 조사 분석 결과

1) 조사대상자 전체 응답 결과

(1) 일반적 현황 및 가구현황

전체 조사 대상자의 37.3%(n=269)가 남성인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62.7%(n=453)가 여성이었다. 한편, 조사 대상의 평균 연령은 24.76세 (sd=4.24) 였으며, 거주지역은 중소도시 47.6%(n=343), 대도시 44.4%(n=320), 농어촌 8.0%(n=58) 순으로 나타났다.

<표 V-1> 조사대상의 일반적 현황: 조사대상자 전체

(n=722)

구분		전체: n(%)
성별	남성	269(37.3)
	여성	453(62.7)
거주지역 (n=722)	대도시	320(44.4)
	중소도시	343(47.6)
	농어촌	58(8.0)
학력 (졸업기준)	초등학교	2(0.3)
	중학교	33(4.6)
	고등학교	357(49.4)
	대학(2년제)	134(18.6)
	대학교(4년제)	184(25.5)
	대학원 이상	12(1.7)
장애	장애 없음	666(92.2)
	경증(4~6급)	9(1.2)
	중증(1~3급)	24(3.3)
	비등록장애인	23(3.2)
종교유무	있음	245(33.9)
	없음	477(66.1)
자격증 보유	자격증 없음	202(28.0)
	1개 있음	190(26.3)
	2개 있음	156(21.6)
	3개 이상	174(24.1)
구분	전체: m(sd)	min/max
연령	24.76(4.24)	18/40
주관적 건강상태	5.57(2.50)	0/10

조사 대상 대부분은 고등학교 졸업 이상(95.2%)의 학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장애가 없는 경우가 92.2%, 장애가 있는 경우(경증, 중증, 비등 록 장애인 포함)가 7.8%로 나타났다. 조사 대상 중 종교가 있는 사람의 비율은 33.9%, 자격증을 보유한 사람의 비율은 72.0%로 나타났다.

조사 대상 가운데 가구주는 43.6%(n=315)이었으며, 혼인상태는 미혼인 경우가 83.0%(n=599)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기혼이 8.3%(n=60), 이혼이 7.2%(n=62)로 나타났다.

조사 대상의 주관적 건강상태를 아주 건강이 좋지 않다(0점)부터 아주 건강하 다(10점)로 조사한 결과, 주관적 건강상태는 평균 5.57점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V-2> 조사 대상의 가구 현황: 조사대상자 전체

(n=722)

구분		전체: n(%)
가구주 여부	예	315(43.6)
	아니오	407(56.4)
혼인상태	미혼	599(83.0)
	기혼	60(8.3)
	별거	1(0.1)
	사별	2(0.3)
	이혼	52(7.2)
	사실혼(동거)	3(0.4)
	기타	5(0.7)
함께 생활하는 가족	독거	125(10.7)
	배우자	62(5.3)
	부	156(13.3)
	모	314(26.8)
	자녀	142(12.1)
	조부모	64(5.5)
	형제자매	279(23.8)
	친인척	28(2.4)
구분	전체: m(sd)	min/max
동거 가구원 수(명)	2.86(1.53)	1/10

조사 대상이 함께 생활하는 가족은 모 26.8%(n=314), 형제자매 23.8%(n=279), 자녀 12.1%(n=142), 부 13.3%(n=156) 순으로 나타났으며, 1인 가구(독거)는 조사 대상의 10.7%(n=125)로 조사되었다. 한편, 평균 동거 가구원 수는 2.86명(sd=1.53)으로 나타났다.

(2) 근로 현황 및 근로에 대한 생각과 태도

조사 대상의 근로형태는 상용근로자가 30.2%(n=218)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임시직근로자 30.1%(n=217), 일용직근로자 16.1%(n=116) 순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근로의 안정성을 기준으로 근로형태를 구분할 경우, 조사대상의 대부분이 안정적이지 않은 형태(46.2%)로 근로를 지속하고 있었다. 같은 맥락에서 조사 대상의 대부분은 시간제(63.7%)로 근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조사 대상이 인지하는 근로지속가능성은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조사 대상의 73.5%(n=531)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현재 근로지에서) 지속적으로 근로가 가능하다고 응답했다.

조사 대상의 직종의 경우 서비스종사자 40.7%(n=294),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 12.7%(n=921), 사무종사자 11.2%(n=81)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조사대상의 13.9%(n=100)가 실업자/비경제활동인구로 조사되었는데 이는 재학 중인 응답자가 현재 근로여부와 상관없이 비경제활동인구로 응답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표 V-3> 조사대상의 근로 현황: 조사대상자 전체

(n=722)

구분		전체: n(%)	구분		전체: n(%)
근로형태	상용근로자	218(30.2)	직종	관리자	10(1.4)
	임시직근로자	217(30.1)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	92(12.7)
	일용직근로자	116(16.1)		사무종사자	81(11.2)
	자활/공공근로	18(2.5)		서비스종사자	294(40.7)
	고용주/자영업자	24(3.3)		판매종사자	49(6.8)
	무급가족종사자	6(0.8)		농림어업숙련종사자	9(1.2)
	실업자	34(4.7)		기능원 및 관련기능종사자	12(1.7)
	비경제활동인구	89(12.3)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	25(3.5)
근로 시간형태	전일제	262(36.3)		단순노무종사자	50(6.9)
	시간제	460(63.7)		실업자/비경제활동 인구	100(13.9)
근로지속 가능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속적 근로 가능	531(73.5)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회사 사정에 따라 해고 가능	191(26.5)			

근로에 대한 생각과 태도는 고용희망과 고용장벽을 통해 확인하였다. 고용희망 수준을 5점 척도로 측정한 결과, 전체 평균값은 3.63으로 중간보다 약간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하위변인 가운데 ‘미래의 나에 모습에 대한 동기부여’와 ‘목적지향’이 각 3.69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기술과 자원 사용’이 3.62점, ‘스스로의 가치와 역량에 대한 인지’는 3.55점으로 나타났다. 하위변인 역시 모두 중간 이상의 수준을 보였다.

고용장벽 수준을 5점 척도로 측정하였을 때, 전체 평균은 2.76점으로 중간보다 약간 낮은 수준이었다. 하위변인에 따라 고용장벽의 수준은 차이가 컸는데, ‘인적자본 및 자원부족’이 3.26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건강 관련’이 2.75점, ‘가족 관련’이 2.55점, ‘삶에 대한 통제력 부족’이 2.43점이었다.

<표V-4> 근로에 대한 생각과 태도: 조사대상자 전체

(n=722)

구분		전체: m(sd)	min/max
고용 희망	전체(평균값)	3.63(0.68)	1/5
	스스로의 가치와 역량에 대한 인지	3.55(0.73)	1/5
	미래의 나의 모습에 대한 동기부여	3.69(0.77)	1/5
	목적지향	3.69(0.79)	1/5
	기술과 자원 사용	3.62(0.83)	1/5
고용 장벽	전체(평균값)	2.76(0.70)	1/5
	인적자본 및 자원 부족	3.26(0.79)	1/5
	삶에 대한 통제력 부족	2.43(0.87)	1/5
	가족 관련	2.55(1.04)	1/5
	건강 관련	2.75(1.14)	1/5

(3) 경제적 상황 및 경제적 상황에 대한 인식

① 소득·저축·부채

조사 대상의 지난 3개월 동안의 월평균 근로소득은 약 104만원 인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공적이전소득은 약 35만원, 사적이전소득은 약 20만원으로 조사되었다.

<표V-5> 지난 3개월 동안의 월평균 소득: 조사대상자 전체

(n=722, 단위:만원)

구분	전체: m(sd)	min/max
근로소득	103.93(67.40)	0/360
공적이전소득	35.26(56.52)	0/400
사적이전소득	19.83(51.63)	0/470

조사 대상의 월 저축액은 평균 약 21만원 인 것으로 조사되었고 조사 대상은 평균 약 606만원의 개인 부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대상의 평균 부채는 약 1,311만원 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응답자들은 부채의 상환을 위해 한 달에 평균 약 12만원을 지출하고 있었다.

<표 V-6> 조사대상의 자산 및 부채 현황: 조사대상자 전체

(n=722, 단위:만원)

구분	전체: m(sd)	min/max
저축	20.59(32.65)	0/200
개인 부채	605.71(1352.02)	0/13620
개인 부채에 따른 월평균 상환액	12.14(31.30)	0/306

한편, 월 저축액이 없는 응답자를 제외하였을 때 평균 월 저축액은 약 32만원 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조사 결과 개인 부채가 없다고 응답한 응답자를 제외하였을 때 조사 대상의 평균 부채는 약 1,311만원 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V-7> 조사대상의 자산 및 부채 현황(없음 제외): 조사대상자 전체

(n=722, 단위:만원)

구분	전체: m(sd)	min/max
저축(없음 제외)	32.41(36.00)	1/200
개인 부채(없음 제외)	1310.78(1742.24)	8/13620

주요 부채 이유를 조사한 결과 학자금 지출 18.7%, 생활비 15.5%, 가족을 경제적으로 돕느라 8.0% 부채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V-8> 조사대상의 주요 부채 이유: 조사대상자 전체

(n=722)

구분	전체: n(%)	구분	n(%)
학자금 지출	135(18.7)	사업자금 지출	13(1.8)
생활비가 많이 들어서	112(15.5)	결혼 자금	1(0.1)
가족을 경제적으로 돕느라	58(8.0)	기타	19(2.6)
주택보증금 마련	29(4.0)	해당없음(부채없음)	355(49.2)

② 수급현황

조사 대상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가구 수급기간은 평균 8.6년(103.31개월)이었다.

<표 V-9>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기간(가구): 조사대상자 전체

(n=722, 단위:개월)

구분	전체: m(sd)	min/max
가구 수급기간(개월)	103.31(93.66)	13/984

조사 대상이 수급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를 살펴본 결과, 생계급여 35.0%(n=501), 의료급여 31.4%(n=449), 주거급여 22.5%(n=322), 교육급여 8.2%(n=118) 순으로 수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V-10>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현황: 조사대상자 전체

(n=722)

구분		전체: n(%)
수급 급여 종류 (중복응답)	생계급여	501(35.0)
	의료급여	449(31.4)
	주거급여	322(22.5)
	교육급여	118(8.2)
	해산급여	8(0.6)
	자활급여	34(2.4)

③ 소비현황 - 생활비 지출

조사 대상의 월평균 총생활비 지출액은 약 92만원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세부 생활비 지출액으로는 생활비 약 29만원, 주거비 약 15만원, 광열수도비와 가구 집기비는 약 3만원, 피복신발비는 약 7만원, 보건의료비는 약 6만원, 교육비는 약 11만원, 교양오락비는 약 5만원, 교통통신비는 약 13만원, 기타소비(일상소모품)는 약 12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조사 대상들이 생활비 중 가장 많은 지출을 하는 것은 식료품비 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V-11> 조사대상의 월평균 생활비: 조사대상자 전체

(n=722, 단위:만원)

구분	전체: m(sd)	min/max
총생활비	91.72(57.91)	0/350
식료품비	28.97(23.50)	0/200
주거비	15.18(17.02)	0/150
광열수도비	3.47(5.46)	0/60
가구집기비	3.07(6.24)	0/60
피복신발비	7.20(8.86)	0/60
보건의료비	5.98(14.20)	0/200
교육비	11.45(35.12)	0/530
교양오락비	5.03(7.76)	0/100
교통통신비	12.55(14.01)	0/240
기타소비(일상소모품)	11.63(17.52)	0/180
비소비	3.69(11.05)	0/90

한편, 생활비 지출 중 가장 부담되는 항목을 조사한 결과 조사 대상의 대부분이 가장 지출액이 큰 식료품비(45.4%)를 부담스러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주거비 23.4%, 교통통신비 11.6% 순으로 나타났다.

<표 V-12> 조사대상의 부담지출순위: 조사대상자 전체

(n=722)

구분	전체: n(%)	구분	전체: n(%)
식료품비	328(45.4)	피복신발비	15(2.1)
주거비	169(23.4)	교양오락비	7(1.0)
교통통신비	84(11.6)	비소비	7(1.0)
교육비	52(7.2)	가구집기비	4(0.6)
기타소비	29(4.0)	광열수도비	1(0.1)
보건의료비	26(3.6)		

④ 경제적 부담과 상황에 대한 인지

경제적 부담을 살펴보기 위해 개인 부채에 대한 부담과 가족 부양 부담 정도를 0점(전혀 부담이 되지 않는다)에서 10점(매우 부담이 된다)으로 조사한 결과 개인 부채에 대한 부담은 평균 3.98점, 가족 부양 부담은 평균 4.96점으로 나타났다. 이는 조사 대상이 평균적으로 개인 부채 보다 가족 부양에 더 많은 부담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표 V-13> 개인 부채 부담, 가족 부양 부담 정도: 조사대상자 전체

(n=722)

구분	전체: m(sd)	min/max
부채부담정도	3.98(3.85)	0/10
가족부양부담정도	4.96(3.31)	0/10

한편, 자신의 미래 경제상황에 대한 전망을 0점(매우 비관적)에서 10점(매우 희망적)으로 조사한 결과 조사 대상은 자신의 미래 경제 상황을 보통 수준(4.46)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V-14> 자신의 미래경제상황에 대한 전망: 조사대상자 전체

(n=722)

구분	전체: m(sd)	min/max
자신의 미래 경제상황에 대한 전망	4.46(2.47)	0/10

경제적 상황에 대한 인식은 저축인식, 경제적 여건, 재무관리역량을 통해 측정하였다. 저축인식에 대한 각 문항은 보통이거나 보통 보다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저축은 매우 중요하다’라는 문항의 평균값이 4.22로 가장 높았다.

저축에 대한 인식은 높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경제적 여건은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적 여건의 문항 가운데 ‘자주 생활비 걱정을 한다’ 문항의 평균값은 4.07로 가장 높았다. 이외 문항들이 보통 보다 다소 높은 수준인 반면, ‘돈 문제로 인해 직장동료나 친구 등으로부터 상처를 받았다’가 2.52로 나타났다.

재무관리역량 중 ‘나의 자산현황을 잘 알고 있다’의 문항 평균값이 3.01로 보통 정도의 수준이었다. 이외 주거유지비나 비상금, 미래 지출을 위한 준비 등 실생활에 있어서의 재무관리 수준은 보통 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V-15> 경제적 상황에 대한 인식: 조사대상자 전체

(n=722)

구분		전체: m(sd)	min/ max
저축 인식	저축인식(총합)	21.39(3.56)	9/30
	저축은 매우 중요하다	4.22(0.78)	1/5
	어떠한 상황에서도 저축은 반드시 해야 한다	3.71(1.01)	1/5
	저축은 나의 미래를 변화시킬 수 있다	3.88(0.92)	1/5
	예상하지 못한 지출에 대비하여 저축을 하려고 노력한다	3.65(0.99)	1/5
	나는 저축을 할 만한 여유가 없다	3.72(1.07)	1/5
	현재 받고 있는 정부의 지원을 잃을까 걱정이 되어 저축을 하지 않는다	2.34(1.05)	1/5
경제 적 여건	경제적 여건(총합)	24.76(5.82)	7/35
	오늘 돈 문제로 인해 스트레스를 느낀다	3.93(1.02)	1/5
	나의 재정 상태에 대한 만족도가 낮다	3.89(0.98)	1/5
	지주 생활비 걱정을 한다	4.07(0.94)	1/5
	여윌돈이나 비상금이 없어 심리적 긴장감이 크다	3.79(1.07)	1/5
	공과금 및 세금 납부, 대출금 상환과 관련해 어려움이 크다	3.32(1.23)	1/5
	돈 문제로 인해 가정 내 갈등이 있다	3.24(1.25)	1/5
재무 관리 역량	돈 문제로 인해 직장동료나 친구 등으로부터 상처를 받았다	2.52(1.25)	1/5
	재무관리역량(총합)	17.51(3.54)	7/28
	매달 주거유지를 위한 충분한 돈을 가지고 있다	2.22(0.73)	1/4
	긴급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돈(약 100만원)이 준비되어 있다	2.04(0.92)	1/4
	소비나 저축에 대하여 계획을 세운다	2.74(0.73)	1/4
	계획소비나 저축을 하고 있다	2.57(0.74)	1/4
	수입이 증가하면서 저축도 늘린다	2.69(0.82)	1/4
	나의 자산현황을 잘 알고 있다	3.01(0.67)	1/4
	향후 5-10년 사이에 발생할 지출에 대해 미리 생각하고 준비하고 있다	2.23(0.83)	1/4

(4) 주거 상황

① 주거지 유형 및 점유형태

조사 대상의 주거유형을 살펴본 결과 임대아파트 거주 비율이 24.2%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다가구주택 18.6%, 연립주택 16.8%, 일반아파트 12.7%, 일반단독주택 11.9% 순으로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거위치의 경우 조사 대상의 대부분이 지상층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95.3%), 지하층(0.6%)과 옥탑(0.7%)에 거주하는 비율보다 반지층(3.5%)에 거주하는 비율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주거 점유형태는 조사 대상의 과반수가 월세(52.4%)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전세(26.3%), 기타(8.4%), 자가(7.3%) 순으로 나타났다. 이때, 기타 응답에는 지인의 집에 함께 사는 경우, 기숙사, 생활시설 등이 포함 되었다.

<표 V-16> 조사대상의 주거형태: 조사대상자 전체

(n=722)

구분		전체: n(%)	구분		전체: n(%)
주택 유형	일반단독주택	86(11.9)	주거위치	지하층	4(0.6)
	다가구주택	134(18.6)		반지층	25(3.5)
	다세대주택	64(8.9)		지상층	688(95.3)
	연립주택	121(16.8)		옥탑	5(0.7)
	일반아파트	92(12.7)	주거점유형태	자가	53(7.3)
	임대아파트	175(24.2)		전세	190(26.3)
	비거주용 건물	4(0.6)		월세	378(52.4)
	준주택	20(2.8)		무상	40(5.5)
	기타	26(3.6)		기타	61(8.4)

② 주거자산

주거 점유형태가 자가·전세·반전세·월세인 경우 평균 주택 금액(매매가, 보증금)은 약 2,122만원 인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월세·반전세인 경우 월세 금액은 평균 20만원 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조사 대상의 주택 면적은 평균 41.48 m^2 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V-17> 조사대상의 주거자산: 조사대상자 전체

(n=722, 단위:만원, m^2)

구분	전체: m(sd)	min/max
주택금액	2122.07(3782.23)	0/25000
월세금액	20.11(18.16)	0/100
주택면적	41.48(30.04)	0/257

(5) 진로에 대한 생각 및 진로행동

조사 대상의 예상 진로는 취업유지 53.3%, 이직 13.4%, 특별한 진로 계획 없

음 11.6% 순으로 조사되었다.

<표 V-18> 조사대상의 예상 진로: 조사대상자 전체

(n=722)

구분	전체: n(%)	구분	전체: n(%)
취업유지	385(53.3)	상급학교 진학	24(3.3)
이직	97(13.4)	군입대	20(2.8)
특별한 진로 계획 없음	84(11.6)	편입학	18(2.5)
개인사업 및 창업	50(6.9)	기타	44(6.1)

진로행동은 5점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평균값은 3.33으로 보통 보다 약간 높은 수준이었다.

<표 V-19> 진로행동: 조사대상자 전체

(n=722)

구분	전체: m(sd)	min/max
진로행동(척도값 평균)	3.33(0.86)	1/5

(6) 자아존중감 및 자신의 역량에 대한 평가

자아존중감 및 자신의 역량에 대한 평가는 자아존중감, 행복지수, 투지, 회복탄력성을 통해 살펴보았다. 자아존중감의 평균값은 3.22로 보통 정도의 수준으로 나타났다.

최종행복점수는 만족감과 긍정정서의 합에서 부정정서를 뺀 값으로 최소값이 -15, 최고값이 38로 나타났다. 최종행복점수는 12.90로 나타났다. 하위개념에서는 부정정서의 합이 14.76로 가장 높았으며, 긍정정서가 14.37로 부정정서와 거의 비슷한 수준이었다. 만족감은 13.28로 가장 낮았다.

투지는 3.21로 보통 정도의 수준이었다. 회복탄력성은 평균 4.96으로 보통 보다 약간 높은 수준이었다.

<표 V-20> 자아존중감 및 자신의 역량에 대한 평가: 조사대상자 전체

(n=722)

구분		전체: m(sd)	min/max
자아존중감(척도값 평균)		3.22(0.33)	1/5
행복지수	최종행복점수	12.90(8.46)	-15/38
	만족감	13.28(3.68)	3/21
	긍정정서	14.37(3.61)	3/21
	부정정서	14.76(3.30)	3/21
투지(척도값 평균)		3.21(0.63)	1/5
회복탄력성(총합)		4.96(1.72)	0/8

(7) 사회적 자본과 사회활동 참여

사회적 자본의 평균은 2.80으로 보통 보다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자본의 4가지 요인 가운데 ‘규범의식’이 3.97로 보통 보다 약간 높은 수준이었으며, ‘신뢰’는 3.03으로 보통 정도의 수준이었다. ‘네트워크’는 2.62로 낮은 수준이었고, ‘사회참여’가 1.81로 가장 낮았다.

가족지지는 5점 척도로 평균값은 3.27로 보통 보다 약간 높은 수준이었다.

<표 V-21> 사회적 자본과 가족지지: 조사대상자 전체

(n=722)

구분		전체: m(sd)	min/max
사회적 자본	전체(척도값 평균)	2.84(0.49)	1.1/5
	신뢰	3.24(0.66)	1/5
	네트워크	2.62(0.76)	1/5
	사회참여	1.81(0.74)	1/5
	규범의식	3.97(0.70)	1/5
	가족지지	3.27(1.02)	1/5

지난 1년 동안 사회참여 정도는 연간 총 참여일수를 통해 확인하였다. 가장 높은 참여도를 보인 사회활동은 ‘여가활동’이었으며 1년 동안 평균 28.9일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친목모임’이 18.41일이었으며, ‘종교활동’이 12.17일이었다. 자원봉사활동 단체 참여나 기타시민단체, 정당, 정치 관련 모임등은 각 2.11일, 0.48일, 0.26일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참여도가 매우 낮았다.

<표V-22> 지난 1년 동안 사회참여 정도: 조사대상자 전체

(n=722)

구분	전체: m(sd)	min/max
종교활동	12.17(36.57)	0/365
여가활동	28.90(60.32)	0/365
친목모임 (n=722)	18.41(28.57)	0/300
정당, 정치 관련 모임	0.26(2.38)	0/52
자선단체, 자원봉사활동 단체	2.11(7.32)	0/60
기타시민단체	0.48(3.78)	0/60

(8) 사회의 소득불평등 수준

사회의 소득불평등 수준은 11점 척도로 0을 매우 불평등하다, 11을 매우 평등하다로 측정하였다. 평균 점수가 3.25로 대체로 불평등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V-23> 사회의 소득불평등 인식: 조사대상자 전체

(n=722)

구분	전체: m(sd)	min/max
소득불평등 인식(척도값 평균)	3.25(2.19)	0/10

(9) 청년희망키움통장 사업 참여 및 사업에 대한 생각

사업 참여 경로는 ‘기타’라고 밝힌 응답자가 290명이었으며, 그 중 81.7%가 관할군구청, 읍면동주민센터, 공무원 연락 등 관공서를 통해 안내 받았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우편물과 메시지, 전화가 왔다고 적은 응답자들이 9.3%였는데,

연락의 주체가 빠져있었으나 응답내용을 통해 유추해 보면 이 역시 관공서로부터의 연락이었음을 유추해 볼 수 있다. 이외에도 직접 검색을 하였다는 응답자가 5.5%였으며, 사회복지사나 학교선생님, 직장상사로부터의 안내가 2.4%였다. ‘기타’ 이외에는 ‘가족의 권고’가 30.5%로 나타났으며, ‘광고를 보고’가 15.2%, ‘지인, 친구의 소개’가 14.1%로 확인되었다.

<표 V-24> 청년희망키움통장 사업 참여 경로: 조사대상자 전체

(n=722)

구분		전체: n(%)
가족의 권고		220(30.5)
광고를 보고		110(15.2)
지인, 친구의 소개		102(14.1)
기타	기타 전체	290(40.2)
	관공서를 통해	237(32.8)
	우편물, 메시지를 통해 연락 받음	27(3.7)
	직접 검색	16(2.2)
	사회복지사, 학교선생님, 직장에서 안내	7(1.0)
	그 외 기타(무응답, 기억안남)	3(0.4)

현재 매월 본인이 직접 납입하는 청년희망키움통장의 월 자유납입금액을 확인한 결과, 최소 0만원에서 최대 150만원을 납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적으로는 매달 약 5만원을 자유납입하였다.

<표 V-25> 청년희망키움통장 월 자유납입금액: 조사대상자 전체

(n=722, 단위:만원)

구분	전체: m(sd)	min/max
월 자유납입금액	5.1(12.2)	0/150

청년희망키움사업에서 가장 만족도가 높은 영역은 ‘지원 금액의 수준’으로 3.77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청년희망키움통장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가 3.63으로 보통 보다 약간 높은 수준의 만족을 보였다. 그리고 ‘사업에 참

여하고 유지하기 위한 행정적 절차'가 3.30, '사업에 관련된 소식이나 정보 제공'이 3.08로 보통 정도의 만족을 보였다.

<표 V-26> 청년희망키움통장 사업만족도: 조사대상자 전체

(n=722)

구분	전체: m(sd)	min/max
지원 금액(월 10만원)의 수준	3.77(0.93)	1/5
사업과 관련된 소식이나 정보 제공	3.08(0.95)	1/5
사업에 참여하고 유지하기 위한 행정적 절차	3.30(0.90)	1/5
청년희망키움통장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	3.63(0.91)	1/5

청년희망키움사업을 포기하려고 한 적이 있는지, 있다면 어떤 이유 때문인지를 확인한 결과, 응답자의 절반 이상(55.1%)에 해당하는 398명은 사업을 포기하려고 한 적이 없다고 응답하였다. 그 다음으로는 '근로지속의 어려움'이라고 밝힌 응답자가 21.3%였으며, '탈수급에 대한 두려움'도 15.1%를 차지하였다. 이외에는 '기타' 응답이 5.4%, '행정적 불편함'이 2.6%, '가족의 반대'가 0.3%, '다른 통장사업에 참여하기 위해'가 0.1%로 나타났다. '기타' 응답은 매우 다양하였으며, '급전이 필요해서', '관련 정보가 부족해서'가 공통적으로 나타났다.

<표 V-27> 청년희망키움통장 사업 포기 고려 이유: 조사대상자 전체

(n=722)

구분	전체: n(%)
해당없음(포기하려고 한 적 없음)	398(55.1)
근로지속의 어려움	154(21.3)
행정적 불편함	19(2.6)
가족의 반대	2(0.3)
탈수급에 대한 두려움	109(15.1)
다른 통장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1(0.1)
기타	39(5.4)

청년희망키움사업의 어떤 점이 개선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지를 분석한 결과, 1순위에서는 '탈수급 조건 완화, 폐지 등 수급 조건 완화'가 43.8%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저축금액 다양화'(25.1%), '가족 중복참여 허

용’(17.6%), ‘행정 절차의 편의성 강화’(6.8%), ‘부가 서비스 및 프로그램 강화’(3.7%), ‘기타’(3.0%) 순으로 나타났다. 다중응답 분석을 통해 순위별 개선점을 종합하면, ‘탈수급 조건 완화, 폐지 등 수급 조건 완화’와 ‘저축금액 다양화’, ‘가족의 중복참여 허용’에 대한 욕구가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V-28> 청년희망키움통장의 개선점: 조사대상자 전체

(n=722)

구분	전체: n(%)		
	1순위	2순위	3순위
저축금액 다양화	181(25.1)	120(16.6)	135(18.7)
탈수급 조건 완화, 폐지 등 수급 조건 완화	316(43.8)	167(23.1)	87(12.0)
행정 절차의 편의성 강화	49(6.8)	151(20.9)	135(18.7)
가족 중복참여 허용	127(17.6)	153(21.2)	98(13.6)
부가 서비스 및 프로그램 강화	27(3.7)	98(13.6)	171(23.7)
기타	22(3.0)	33(4.6)	96(13.3)

청년희망키움통장과 함께 제공받고 싶은 서비스나 프로그램을 측정한 결과, ‘후원금/물품’이 25.6%로 가장 많았고, ‘문화여가’가 14.3%, ‘주거개선’이 12.6%, ‘자격증취득교육’이 11.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도 ‘직업교육/훈련’이 7.6%, ‘가족상담/가족교육’이 6.2%, ‘의료지원’이 5.8%, ‘심리상담’이 5.4% 등이었다.

다중응답 분석을 통해 순위별 제공받고 싶은 서비스나 프로그램을 종합해 보면, ‘후원금/물품’과 ‘문화여가’, ‘자격증취득교육’, ‘주거개선’에 대한 욕구가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V-29> 청년희망키움통장 사업과 함께 받고 싶은 서비스 및 프로그램: 조사대상자 전체

(n=722)

구분	전체: n(%)		
	1순위	2순위	3순위
가족상담/가족교육	45(6.2)	18(2.5)	23(3.2)
문화여가	103(14.3)	111(15.4)	106(14.7)
후원금/물품	185(25.6)	104(14.4)	85(11.8)
심리상담	39(5.4)	49(6.8)	30(4.2)
양육교육	10(1.4)	19(2.6)	12(1.7)
의료지원	42(5.8)	72(10.0)	65(9.0)
직업교육/훈련	55(7.6)	57(7.9)	52(7.2)
자격증취득교육	80(11.1)	104(14.4)	87(12.0)
주거개선	91(12.6)	74(10.2)	89(12.3)
창업교육	20(2.8)	29(4.0)	37(5.1)
재무상담/재무컨설팅	25(3.5)	44(6.1)	52(7.2)
금융교육	18(2.5)	28(3.9)	50(6.9)
기타	9(1.2)	13(1.8)	34(4.7)

청년희망키움통장 사업 만기 시 지원금 사용계획으로 ‘주택마련’이 34.3%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미래생활 대비(저축)’이 21.6%, ‘교육비(본인 및 가족)’이 13.6%, ‘부채 상환’이 12.7%, ‘결혼, 상제비’가 5.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본 보고서에 제시하지는 않았으나, 지원금 사용계획 응답자 가운데 약 31%는 1순위 계획에 100%를 쓴다고 응답하였다. 다중응답 분석 결과도 다르지 않았으며, 순위별 지원금 사용계획을 종합해 보았을 때 ‘주택마련’, ‘미래생활 대비(저축)’, ‘교육비(본인 및 가족)’에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표 V-30> 청년희망키움통장 사업 지원금 수령시 사용 계획: 조사대상자 전체

(n=722)

구분	전체: n(%)		
	1순위	2순위	3순위
교육비(본인 및 가족)	98(13.6)	89(12.3)	75(10.4)
주택마련(전세금 포함)	248(34.3)	149(20.6)	74(10.2)
결혼, 상제비	41(5.7)	65(9.0)	45(6.2)
미래생활 대비(저축)	156(21.6)	163(22.6)	157(21.7)
사업(투자) 자금 마련(창업 포함)	41(5.7)	50(6.9)	28(3.9)
자동차, 가구, 가전 등 내구재 구입비	20(2.8)	43(6.0)	48(6.6)
불의의 사고 및 질병 대비	14(1.9)	60(8.3)	76(10.5)
여행 및 여가생활	6(0.8)	32(4.4)	90(12.5)
부채 상환	92(12.7)	57(7.9)	54(7.5)
특별한 목적이 없음	1(0.1)	6(0.8)	47(6.5)
기타	5(0.7)	8(1.1)	28(3.9)

2) 학력구분에 따른 집단 비교

(1) 일반적 현황 및 가구현황

학력에 따른 차이를 분석한 결과 대졸(2년제)이상의 학력을 가진 여성의 비율(67.6%)이 남성의 비율(32.4%)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거주지역의 경우 고졸이하는 중소도시 거주 비율이 51.4%로 나타났으나 대졸(2년제)이상은 대도시 거주 비율이 50.3%로 나타났고, 자격증 보유 여부의 경우 대졸(2년제)이상의 자격증 보유 비율이 고졸이하보다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V-31> 조사 대상의 일반현황: 학력 구분

(고졸이하 n=392, 대졸이상 n=330)

구분		학력구분: n(%)		$\chi^2(df)$
		고졸이하	대졸이상	
성별	남성	162(41.3)	107(32.4)	6.074(1)*
	여성	230(58.7)	223(67.6)	
거주지역 (n=722)	대도시	154(39.4)	166(50.3)	8.881(2)*
	중소도시	201(51.4)	142(43.0)	
	농어촌	36(9.2)	22(6.7)	
장애	장애 없음	356(90.8)	310(93.9)	4.388(3)
	경증(4~6급)	5(1.3)	4(1.2)	
	중증(1~3급)	18(4.6)	6(1.8)	
	비등록장애인	13(3.3)	10(3.0)	
종교 유무	있음	121(30.9)	124(37.6)	3.597(1)
	없음	271(69.1)	206(62.4)	
자격증 보유 여부	있음	261(66.6)	259(78.5)	12.598(1)***
	없음	131(33.4)	71(21.5)	

*p < .05, **p < .01, ***p < .001

주관적 건강상태는 고졸이하의 경우 5.48점, 대졸(2년제)이상의 경우 5.66점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V-32> 조사 대상의 주관적 건강상태: 학력 구분

(고졸이하 n=392, 대졸이상 n=330)

구분	학력구분: m(sd)		t - test
	고졸이하	대졸이상	
주관적 건강상태	5.48(2.51)	5.66(2.49)	-0.971

*p < .05, **p < .01, ***p < .001

가구주 여부의 경우 고졸이하의 가구주 비율이 대졸(2년제)이상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혼인상태 역시 고졸이하의 기혼 비율이 11.5%로 대졸(2년제)이상의 기혼 비율 4.5%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V-33> 조사 대상의 가구현황: 학력 구분

(고졸이하 n=392, 대졸이상 n=330)

구분		학력구분: n(%)		$\chi^2(df)$
		고졸이하	대졸이상	
가구주 여부	예	192(49.0)	123(37.3)	9.984(1)**
	아니오	200(51.0)	207(62.7)	
혼인상태	미혼	296(75.5)	303(91.8)	35.662(6)***
	기혼	45(11.5)	15(4.5)	
	별거	1(0.3)	0(0.0)	
	사별	2(0.5)	0(0.0)	
	이혼	41(10.5)	11(3.3)	
	사실혼(동거)	2(0.5)	1(0.3)	
	기타	5(1.3)	0(0)	
동거가족	독거	58(14.9)	67(20.7)	-
	배우자	46(11.8)	16(4.9)	
	부	93(23.9)	63(19.4)	
	모	152(39.1)	162(50.0)	
	자녀	106(27.2)	36(11.1)	
	조부모	39(10.0)	25(7.7)	
	형제자매	137(35.2)	142(43.8)	
	친인척	12(3.1)	16(4.9)	

*p < .05, **p < .01, ***p < .001

평균 동거 가구원 수는 고졸이하의 경우 2.95명, 대졸(2년제)이상의 경우 2.75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V-34> 조사 대상의 동거 가구원 수: 학력 구분

(고졸이하 n=392, 대졸이상 n=330, 단위:명)

구분	학력 구분: m(sd)		t - test
	고졸이하	대졸이상	
동거 가구원 수	2.95(1.51)	2.75(1.55)	1.685

*p < .05, **p < .01, ***p < .001

(2) 근로 현황 및 근로에 대한 생각과 태도

학력에 따른 근로형태를 살펴본 결과, 대졸(2년제)이상의 상용근로자, 임시직 근로자, 비경제활동인구의 비율이 고졸이하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대졸(2년제)이상의 근로형태는 임시직근로자 33.0%, 상용근로자 32.1%, 비경제활동인구 14.5% 순으로 나타났으며, 고졸이하의 근로형태는 상용근로자 28.6%, 임시직근로자 27.6%, 일용직근로자 20.7%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고졸이하의 경우 서비스종사자의 비율이 44.4%로 대졸(2년제)이상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졸(2년제)이상의 경우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사무종사자의 비율이 고졸이하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시간 형태를 살펴본 결과 고졸이하의 경우 시간제로 근무하는 비율이 68.1%로 대졸(2년제)이상의 시간제 근무 비율 58.5%보다 많았다.

직종과 근로시간형태에서 나타난 학력에 따른 차이를 종합해보면, 대졸(2년제)이상 집단이 고졸이하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지식을 필요로 하는 직종에 더 많이 종사하고 있었다.

<표 V-35> 조사 대상의 근로 현황: 학력 구분

(고졸이하 n=392, 대졸이상 n=330)

구분		학력 구분: n(%)		$\chi^2(df)$
		고졸이하	대졸이상	
근로형태	상용근로자	112(28.6)	106(32.1)	21.123(7)**
	임시직근로자	108(27.6)	109(33.0)	
	일용직근로자	81(20.7)	35(10.6)	
	자활/공공근로	13(3.3)	5(1.5)	
	고용주/자영업자	13(3.3)	11(3.3)	
	무급가족종사자	2(0.5)	4(1.2)	
	실업자	22(5.6)	12(3.6)	
	비경제활동인구	41(10.5)	48(14.5)	

직종	관리자	4(1.0)	6(1.8)	59,277(9)***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	27(6.9)	65(19.7)	
	사무종사자	32(8.2)	49(14.8)	
	서비스종사자	174(44.4)	120(36.4)	
	판매종사자	33(8.4)	16(4.8)	
	농림어업숙련종사자	4(1.0)	5(1.5)	
	기능원 및 관련기능종사자	8(2.0)	4(1.2)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	21(5.4)	4(1.2)	
	단순노무종사자	39(9.9)	11(3.3)	
	실업자/비경제활동인구	50(12.8)	50(15.2)	
근로시간 형태	전일제	125(31.9)	137(41.5)	7,183(1)**
	시간제	267(68.1)	193(58.5)	
근로 지속 가능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속적 근로 가능	282(71.9)	249(75.5)	1,138(1)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회사 사정에 따라 해고 가능	110(28.1)	81(24.5)	

*p < .05, **p < .01, ***p < .001

학력구분에 따라 고용희망은 대졸(2년제)이상인 경우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고용장벽은 고졸이하인 경우 더 높은 수준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고용희망의 모든 항목에서 학력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희망 및 고용희망의 하위변인 전체에서 고졸이하인 경우가 대졸(2년제)이상보다 낮은 수준을 보였다. 고졸이하인 경우 대부분 보통 정도의 고용희망 수준을 보였으며, 대졸(2년제)이상인 경우엔 보통 보다 약간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장 큰 차이를 보인 하위변인은 ‘목적지향’이었으며, 그 다음으로 ‘미래의 나의 모습에 대한 동기부여’, ‘스스로의 가치와 역량에 대한 인지’, ‘기술과 자원 사용’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고용장벽은 하위변인에 따라 통계적 유의도가 다르게 나타났으며, 전반적으로 고졸이하인 경우 고용장벽 수준을 더 높게 인식하였다. 하위변인 가운데, ‘삶에 대한 통제력 부족’과 ‘건강 관련’ 고용장벽만이 학력구분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졸이하인 경우 ‘삶에 대한 통제력 부족’과 ‘건강 관련’ 고용장벽의 수준이 보통 보다 약간 낮은 수준이었으며, 대졸(2년제)이상인

경우 그 보다 더 낮았다.

<표 V-36> 근로에 대한 생각과 태도: 학력 구분

(고졸이하 n=392, 대졸이상 n=330)

구분		학력 구분: m(sd)		t - test
		고졸이하	대졸이상	
고용 희망	전체	3.52(0.71)	3.76(0.61)	-4.974***
	스스로의 가치와 역량에 대한 인지	3.46(0.76)	3.65(0.68)	-3.509***
	미래의 나의 모습에 대한 동기부여	3.58(0.80)	3.83(0.71)	-4.480***
	목적지향	3.53(0.82)	3.88(0.69)	-6.179***
	기술과 자원 사용	3.53(0.86)	3.73(0.78)	-3.409**
고용 장벽	전체	2.82(0.68)	2.68(0.71)	2.761**
	인적자본 및 자원 부족	3.26(0.81)	3.25(0.76)	0.158
	삶에 대한 통제력 부족	2.55(0.85)	2.29(0.88)	4.127***
	가족 관련	2.61(1.02)	2.48(1.07)	1.646
	건강 관련	2.85(1.12)	2.65(1.16)	2.361*

*p < .05, **p < .01, ***p < .001

(3) 경제적 상황 및 경제적 상황에 대한 인식

① 소득·저축·부채

고졸이하의 근로소득은 약 102만원, 공적이전소득은 약 38만원, 사적이전소득은 약 21만원 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대졸(2년제)이상의 경우 근로소득 약 107만원, 공적이전소득 약 32만원, 사적이전소득 약 19만원을 얻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V-37> 지난 3개월 동안의 월평균 소득: 학력 구분

(고졸이하 n=392, 대졸이상 n=330, 단위:만원)

구분	학력 구분: m(sd)		t - test
	고졸이하	대졸이상	
근로소득	102.14(69.25)	106.06(65.19)	-0.778
공적이전소득	38.25(59.17)	31.72(53.07)	1.547
사적이전소득	20.85(52.48)	18.62(50.65)	0.577

*p < .05, **p < .01, ***p < .001

월평균 저축액은 고졸이하의 경우 약 20만원, 대졸(2년제)이상의 경우 약 22

만원 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개인 부채의 경우 고졸이하가 약 508만원, 대졸(2년제)이상이 약 723만원의 부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 되어 대졸(2년제)이상의 개인부채액이 고졸이하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 부채에 따른 월평균 상환액은 고졸이하의 경우 약 13만원인 것으로 조사 되었으며, 대졸(2년제)이상의 경우 약 11만원 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V-38> 조사 대상의 저축 및 부채 현황: 학력 구분

(고졸이하 n=392, 대졸이상 n=330, 단위:만원)

구분	학력 구분: m(sd)		t - test
	고졸이하	대졸이상	
저축	19.67(33.42)	21.68(31.73)	-0.822
개인 부채	508.10(1307.48)	723.41(1396.90)	-2.082*
개인 부채에 따른 월평균 상환액	13.03(35.50)	11.09(25.46)	0.830

*p < .05, **p < .01, ***p < .001

한편, 저축액과 부채가 없는 조사 대상을 제외한 평균값을 살펴본 결과 고졸이하와 대졸(2년제)이상 모두 월평균 약 32만원을 저축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고졸이하의 개인부채는 약 1,341만원 대졸(2년제)이상의 개인부채는 약 1,285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V-39> 조사 대상의 저축 및 부채 현황(없음 제외): 학력 구분

(고졸이하 n=392, 대졸이상 n=330, 단위:만원)

구분	학력 구분: m(sd)		t - test
	고졸이하	대졸이상	
저축(없음 제외)	32.40(37.80)	32.42(34.03)	-0.006
개인 부채(없음 제외)	1341.80(1846.03)	1285.61(1658.19)	0.285

*p < .05, **p < .01, ***p < .001

조사 대상의 주요 부채 이유를 살펴본 결과, 대졸(2년제)이상의 경우 학자금에 의한 부채 발생(31.5%)이 고졸이하 보다(7.9%)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V-40> 조사 대상의 주요 부채 이유: 학력 구분

(고졸이하 n=392, 대졸이상 n=330)

구분	학력 구분: n(%)		$\chi^2(df)$
	고졸이하	대졸(2년제)이상	
가족을 경제적으로 돕느라	34(8.7)	24(7.3)	73.682(7)***
생활비가 많이 들어서	59(15.1)	53(16.1)	
학자금 지출	31(7.9)	104(31.5)	
결혼자금	0(0.0)	1(0.3)	
사업자금 지출	10(2.6)	3(0.9)	
주택보증금 마련	20(5.1)	9(2.7)	
해당없음(부채없음)	225(57.4)	130(39.4)	
기타	13(3.3)	6(1.8)	

*p < .05, **p < .01, ***p < .001

② 수급현황

학력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현황을 살펴본 결과 고졸이하의 가구 수급기간은 평균 8.26년(99.22개월)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졸(2년제)이상의 가구 수급기간은 평균 9.01년(108.17개월)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V-4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기간(가구): 학력 구분

(고졸이하 n=392, 대졸이상 n=330, 단위:개월)

구분	학력 구분: m(sd)		t - test
	고졸이하	대졸이상	
가구 수급기간(개월)	99.22(103.77)	108.17(79.91)	-1.280

*p < .05, **p < .01, ***p < .001

수급급여의 종류를 보면 고졸이하의 경우 생계급여 70.9%, 의료급여 61.0%, 주거급여 46.2%, 교육급여 18.6%를 수급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대졸(2년제)이상의 경우 생계급여 67.6%, 의료급여 63.6%, 주거급여 42.7%, 교육급여 13.6%를 수급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V-4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현황: 학력 구분

(고졸이하 n=392, 대졸이상 n=330)

구분		학력 구분: n(%)	
		고졸이하	대졸이상
수급 급여 종류 (중복응답)	생계급여	278(70.9)	223(67.6)
	의료급여	239(61.0)	210(63.6)
	주거급여	181(46.2)	141(42.7)
	교육급여	73(18.6)	45(13.6)
	해산급여	4(1.0)	4(1.2)
	자활급여	19(4.8)	15(4.5)

③ 소비현황

고졸이하의 총생활비는 약 94만원, 대졸(2년제)이상의 총생활비는 약 83만원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생활비의 세부 항목을 살펴보면, 고졸이하의 경우 식료품비 지출이 약 29만원, 주거비 약 16만원, 광열수도비 약 4만원, 가구집기비 약 3만원, 피복신발비 약 7만원, 보건의료비 약 7만원, 교육비 약 9만원, 교양오락비 약 5만원, 교통통신비 약 12만원, 기타생활비 약 12만원으로 나타났다.

한편, 대졸(2년제)이상의 경우 식료품비 약 30만원, 주거비 약 15만원, 광열수도비 약 3만원, 가구집기비 약 3만원, 피복신발비 약 7만원, 보건의료비 약 5만원, 교육비 약 15만원, 교양오락비 약 6만원, 교통통신비 약 14만원, 기타생활비 약 12만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V-43> 조사 대상의 월평균 생활비: 학력 구분

(고졸이하 n=392, 대졸이상 n=330, 단위:만원)

구분	학력 구분: m(sd)		t - test
	고졸이하	대졸이상	
총생활비	93.59(61.45)	89.49(53.36)	0.930
식료품비	28.60(22.25)	29.39(24.90)	-0.446
주거비	15.50(16.10)	14.79(18.08)	0.543
광열수도비	3.71(6.03)	3.19(4.68)	1.225
가구집기비	3.26(6.73)	2.85(5.59)	0.829
피복신발비	7.35(9.16)	7.01(8.48)	0.480
보건의료비	6.56(16.79)	5.30(10.34)	1.171
교육비	8.95(16.95)	14.51(48.78)	-1.850
교양오락비	4.55(6.58)	5.61(8.95)	-1.698
교통통신비	11.57(10.47)	13.74(17.28)	-2.034*
기타생활비	11.57(17.45)	11.69(17.62)	-0.081
비소비	3.59(10.38)	3.82(11.80)	-0.235

*p < .05, **p < .01, ***p < .001

④ 경제적 부담과 상황에 대한 인지

개인 부채에 대한 부담과 가족 부양 부담 정도를 살펴본 결과, 개인부채에 대한 부담 수준은 대졸(2년제)이상(4.55점)이 고졸이하(3.49점)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도로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가족 부양 부담정도는 고졸이하가 4.92점, 대졸(2년제)이상이 5.01점으로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V-44> 개인 부채 및 가족 부양 부담 정도: 학력 구분

(고졸이하 n=392, 대졸이상 n=330)

구분	학력 구분: m(sd)		t - test
	고졸이하	대졸이상	
부채부담정도	3.49(3.74)	4.55(3.91)	-3.725***
가족부양부담정도	4.92(3.33)	5.01(3.29)	-0.367

*p < .05, **p < .01, ***p < .001

자신의 미래에 경제상황에 대한전망은 고졸이하가 4.31점, 대졸(2년제)이상이 4.64점으로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V-45> 미래 경제상황에 대한 전망: 학력 구분

(고졸이하 n=392, 대졸이상 n=330)

구분	학력 구분: m(sd)		t - test
	고졸이하	대졸이상	
자신의 미래 경제상황에 대한 전망	4.31(2.51)	4.64(2.41)	-1.781

*p < .05, **p < .01, ***p < .001

학력구분에 따라 경제적 상황에 대한 인식이 차이가 있는지를 저축인식, 경제적 여건, 재무관리역량으로 구분하여 확인하였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집단 간 차이를 보인 문항은 저축인식에서 '예상하지 못한 지출에 대비하여 저축을 하려고 노력한다'와 경제적 여건에서 '나의 재정 상태에 대한 만족도가 낮다'와 '돈 문제로 인해 직장동료나 친구 등으로부터 상처를 받았다', 재무관리역량에서 '매달 주거유지를 위한 충분한 돈을 가지고 있다'였다.

위의 각 항목에서 실제 저축을 하거나 충분한 돈을 가지고 있다고 응답한 집단은 대졸(2년제)이상 집단이었으며, 재정 상태에 대한 만족도가 더 낮은 집단 역시 대졸(2년제)이상 집단이었다. 반면, 돈 문제로 인해 주위 사람들로부터 상처를 받았다고 응답한 집단은 고졸이하에서 더 높게 나타났다.

<표 V-46> 경제적 상황에 대한 인식: 학력 구분

(고졸이하 n=392, 대졸이상 n=330)

구분		학력 구분:m(sd)		t - test
		고졸이하	대졸이상	
저축 인식	저축인식(총합)	21.27(3.41)	21.54(3.72)	-1.016
	저축은 매우 중요하다	4.18(0.76)	4.28(0.79)	-1.631
	어떠한 상황에서도 저축은 반드시 해야 한다	3.65(0.99)	3.78(1.03)	-1.768
	저축은 나의 미래를 변화시킬 수 있다	3.93(0.88)	3.81(0.96)	1.753
	예상하지 못한 지출에 대비하여 저축을 하려고 노력한다	3.58(0.96)	3.73(1.02)	-1.976*
	나는 저축을 할 만한 여유가 없다	3.70(1.08)	3.75(1.06)	-0.612
	현재 받고 있는 정부의 지원을 잃을까 걱정이 되어 저축을 하지 않는다	2.38(1.04)	2.31(1.06)	0.879
경제적 여건	경제적 여건(총합)	24.63(5.92)	24.92(5.70)	-0.667
	오늘 돈 문제로 인해 스트레스를 느낀다	3.92(1.03)	3.95(1.02)	-0.354
	나의 재정 상태에 대한 만족도가 낮다	3.78(1.01)	4.01(0.91)	-3.106**
	자주 생활비 걱정을 한다	4.02(0.98)	4.13(0.88)	-1.561
	여윌돈이나 비상금이 없어 심리적 긴장감이 크다	3.81(1.08)	3.78(1.05)	0.343
	공과금 및 세금 납부, 대출금 상환과 관련해 어려움이 크다	3.26(1.24)	3.40(1.21)	-1.529
	돈 문제로 인해 가정 내 갈등이 있다	3.24(1.24)	3.24(1.26)	-0.028
재무 관리 역량	돈 문제로 인해 직장동료나 친구 등으로부터 상처를 받았다	2.60(1.27)	2.42(1.22)	1.976*
	재무관리역량(총합)	17.33(3.70)	17.72(3.34)	-1.473
	매달 주거유지를 위한 충분한 돈을 가지고 있다	2.17(0.73)	2.29(0.72)	-2.152*
	긴급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돈(약 100만원)이 준비되어 있다	2.04(0.93)	2.04(0.92)	-0.023
	소비나 저축에 대하여 계획을 세운다	2.69(0.76)	2.79(0.70)	-1.879
	계획소비나 저축을 하고 있다	2.56(0.74)	2.58(0.75)	-0.362
	수입이 증가하면서 저축도 늘린다	2.65(0.84)	2.75(0.80)	-1.635
	나의 자산현황을 잘 알고 있다	2.99(0.70)	3.04(0.64)	-0.878
	향후 5-10년 사이에 발생할 지출에 대해 미리 생각하고 준비하고 있다	2.23(0.84)	2.23(0.83)	-0.060

*p < .05, **p < .01, ***p < .001

(4) 주거 상황

① 주거지 유형 및 점유형태

고졸 이하의 거주 주택 유형은 임대아파트(25.3%), 다가구주택(18.4%), 연립주택(15.3%), 일반단독주택(13.3%), 일반아파트(11.7%) 순으로 나타났으며 대졸(2년제)이상의 거주 주택 유형은 임대아파트(23.0%), 다가구주택

(18.8%), 연립주택(18.5%), 일반아파트(13.9%) 순으로 나타났다.

주거위치의 경우 고졸이하와 대졸(2년제)이상 모두 대부분이 지상층(고졸이하 94.6%), 대졸(2년제)이상 96.1%)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거점유형태의 경우 고졸이하의 월세(54.8%), 전세(23.0%), 기타(8.9%), 자가(7.7%) 순으로 대졸(2년제)이상의 경우 월세(49.4%), 전세(30.3%), 기타(7.9%) 순으로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V-47> 조사 대상의 주거형태: 학력 구분

(고졸이하 n=392, 대졸이상 n=330)

구분		학력 구분: n(%)		$\chi^2(df)$
		고졸이하	대졸이상	
주택 유형	일반단독주택	52(13.3)	34(10.3)	6.686(8)
	다가구주택	72(18.4)	62(18.8)	
	다세대주택	39(9.9)	25(7.6)	
	연립주택	60(15.3)	61(18.5)	
	일반아파트	46(11.7)	46(13.9)	
	임대아파트	99(25.3)	76(23.0)	
	비거주용 건물	3(0.8)	1(0.3)	
	준주택	9(2.3)	11(3.3)	
주거위치	기타	12(3.1)	14(4.2)	4.991(3)
	지하층	3(0.8)	1(0.3)	
	반지층	13(3.3)	12(3.6)	
	지상층	371(94.6)	317(96.1)	
	옥탑	5(1.3)	0(0.0)	
주거점유형태	자가	30(7.7)	23(7.0)	5.045(4)
	전세	90(23.0)	100(30.3)	
	월세	215(54.8)	163(49.4)	
	무상	22(5.6)	18(5.5)	
	기타	35(8.9)	26(7.9)	

*p < .05, **p < .01, ***p < .001

② 주거자산

학력에 따른 주택 금액은 대졸(2년제)이상이 약 2,539만원, 고졸이하가 1,772만원인 것으로 나타나 대졸(2년제)이상의 주택 금액이 고졸이하보다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차이는 조사 대상이 사회초년생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대졸(2년제)이상의 경우 대도시 거주 비율이 높은 것과 관련하여 해석

할 수 있다.

월세 금액의 경우 고졸이하는 약 20만원, 대졸(2년제)이상은 약 21만원을 지출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조사 대상의 주택면적은 고졸이하의 경우 $41.12m^2$, 대졸(2년제)이상의 경우 $41.89m^2$ 로 나타났다.

<표 V-48> 조사 대상의 주거자산: 학력 구분

(고졸이하 n=392, 대졸이상 n=330, 단위:만원, m^2)

구분	학력 구분: m(sd)		t - test
	고졸이하	대졸이상	
주택금액	1772.44(3332.67)	2538.89(4224.54)	-2.577*
월세금액	19.66(16.89)	20.67(19.66)	-0.643
주택면적	41.12(30.60)	41.89(29.42)	-0.338

*p < .05, **p < .01, ***p < .001

(5) 진로에 대한 생각 및 진로행동

예상 진로는 고졸이하의 경우 취업유지(55.9%), 특별한 진로 계획 없음(11.2%), 이직(9.4%), 개인 사업 및 창업(8.7%) 순으로 나타났으나 대졸(2년제) 이상의 경우 취업유지(50.3%), 이직(18.2%), 특별한 진로 계획 없음(12.1%), 기타(6.7%) 순으로 나타났다.

학력에 따른 차이를 분석한 결과 이직과 개인 사업 및 창업에서 고졸이하와 대졸(2년제)이상의 차이가 두드러졌는데, 고졸이하의 경우 이직을 희망하는 비율이 9.4%였던 반면 대졸(2년제)이상의 경우 이직을 희망하는 비율이 18.2%로 약 2배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반면, 개인 사업 및 창업을 희망하는 경우 대졸(2년제) 이상이 4.8%, 고졸이하가 8.7%로 고졸이하가 대졸(2년제)이상보다 개인 사업 및 창업을 희망하는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V-49> 조사 대상의 예상 진로: 학력 구분

(고졸이하 n=392, 대졸이상 n=330)

구분	학력 구분: n(%)		$\chi^2(df)$
	고졸이하	대졸이상	
취업유지	219(55.9)	166(50.3)	21.678(7)**
이직	37(9.4)	60(18.2)	
상급학교 진학	12(3.1)	12(3.6)	
편입학	8(2.0)	10(3.0)	
개인 사업 및 창업	34(8.7)	16(4.8)	
군입대	16(4.1)	4(1.2)	
특별한 진로 계획 없음	44(11.2)	40(12.1)	
기타	22(5.6)	22(6.7)	

*p < .05, **p < .01, ***p < .001

진로행동은 학력구분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졸(2년제)이상은 보통 보다 약간 높은 진로행동 수준(3.50)으로 고졸이하(3.18) 보다 더 높았다.

<표V-50> 진로행동: 학력 구분

(고졸이하 n=392, 대졸이상 n=330)

구분	학력 구분: m(sd)		t - test
	고졸이하	대졸이상	
진로행동(척도값 평균)	3.18(0.91)	3.50(0.75)	-5.224***

*p < .05, **p < .01, ***p < .001

(6) 자아존중감 및 자신의 역량에 대한 평가

자아존중감 및 자신의 역량에 대한 평가에서는 행복지수와 회복탄력성에서만 집단 간 차이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자아존중감과 투지는 집단 간 거의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행복지수에서 최종행복점수는 대졸(2년제)이상이 평균 13.58로 조사대상자 전체 평균(12.90)과 고졸이하 평균(12.32) 보다 높아, 대졸(2년제) 이상의 행복 수준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행복지수의 하위개념인 만족감과 긍정정서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대졸(2년제)이상이 더 높았던 반면, 부정정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회복탄력성에서는 통계적인 차이가 있었는데, 대졸(2년제)이상인 경우가 5.16으로 전체 조사대상자 평균(4.97) 및 고졸이하 평균(4.79) 보다 높은 수준이었다. 최대값이 8임을 고려할 때 대졸이상은 약간 높은 수준의 회복탄력성을 가지고 있으며, 고졸이하는 보통 수준의 회복탄력성을 보였다.

<표 V-51> 자아존중감 및 자신의 역량에 대한 평가: 학력 구분

(고졸이하 n=392, 대졸이상 n=330)

구분		학력 구분: m(sd)		t - test
		고졸이하	대졸이상	
자아존중감(척도값 평균)		3.20(0.34)	3.24(0.31)	-1.944
행복지수	최종행복점수	12.32(8.39)	13.58(8.49)	-2.004*
	만족감	12.96(3.67)	13.67(3.66)	-2.586*
	긍정정서	14.05(3.71)	14.76(3.45)	-2.654**
	부정정서	14.69(3.20)	14.84(3.42)	-0.633
투지(척도값 평균)		3.20(0.63)	3.23(0.63)	-0.579
회복탄력성(총합)		4.79(1.76)	5.16(1.65)	-2.888**

*p < .05, **p < .01, ***p < .001

(7) 사회적 자본과 사회활동 참여

사회적 자본 전체 평균 및 4가지 요인에서 모두 대졸(2년제)이상이 고졸이하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자본 전체 평균은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대졸(2년제)이상이 2.91로 보통 정도, 고졸이하는 2.78로 보통에 약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요인별로는 신뢰와 규범의식에서 집단 간 통계적 유의미성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대졸(2년제)이상인 경우 보통 보다 약간 높은 수준의 신뢰와 높은 규범의식 수준을 보였다. 반면 고졸이하는 신뢰가 보통 정도의 신뢰와 보통 보다 약간 높은 규범의식을 지닌 것으로 나타났다.

<표V-52> 사회적 자본과 가족지지: 학력 구분

(고졸이하 n=392, 대졸이상 n=330)

구분		학력 구분: m(sd)		t - test
		고졸이하	대졸이상	
사회적 자본	전체(척도값 평균)	2.78(0.50)	2.91(0.46)	-3.669***
	신뢰	3.16(0.67)	3.33(0.64)	-3.327**
	네트워크	2.59(0.79)	2.66(0.73)	-1.229
	사회참여	1.76(0.73)	1.86(0.74)	-1.734
	규범의식	3.87(0.72)	4.09(0.66)	-4.190***
가족지지		3.27(1.03)	3.28(1.01)	-0.063

*p < .05, **p < .01, ***p < .001

지난 1년동안 사회참여 정도를 확인한 결과, 정당, 정치 관련 모임을 제외한 모든 사회참여는 대졸(2년제)이상이 고졸이하 보다 높았다. 특히, 여가활동과 친목모임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여가활동은 대졸(2년제)이상이 37.70일, 고졸이하가 21.48일로 약 16일 정도의 차이를 나타내었다.

<표V-53> 지난 1년 동안 사회참여 정도: 학력 구분

(고졸이하 n=392, 대졸이상 n=330)

구분		학력 구분: m(sd)		t - test
		고졸이하	대졸이상	
종교활동		9.72(35.43)	15.09(37.74)	-1.959
여가활동		21.48(47.21)	37.70(71.99)	-3.506***
친목모임		15.96(30.14)	21.33(26.33)	-2.525*
정당, 정치 관련 모임		0.30(2.96)	0.23(1.40)	0.386
자선단체, 자원봉사활동 단체		1.87(6.95)	2.40(7.75)	-0.963
기타시민단체		0.42(3.05)	0.56(4.49)	-0.515

*p < .05, **p < .01, ***p < .001

(8) 사회의 소득불평등 수준

사회의 소득불평등 수준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대졸(2년제)이상이 고졸이하에 비해 사회의 소득불평등 수준이 더 높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V-54> 사회의 소득불평등 인식: 학력 구분

(고졸이하 n=392, 대졸이상 n=330)

구분	학력 구분: m(sd)		t - test
	고졸이하	대졸이상	
소득불평등 인식 (척도값 평균)	3.31(2.18)	3.18(2.21)	0.790

*p < .05, **p < .01, ***p < .001

(9)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 및 사업에 대한 생각

청년희망키움통장 사업 참여 경로는 학력구분에 따른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고졸이하와 대졸(2년제)이상 집단 모두 기타가 가장 높았다.

<표V-55> 청년희망키움통장 사업 참여 경로: 학력 구분

(고졸이하 n=392, 대졸이상 n=330)

구분		학력 구분:n(%)		$\chi^2(df)$
		고졸이하	대졸이상	
사업 참여 경로	가족의 권고	122(31.1)	98(29.7)	3.515(3)
	광고를 보고	51(13.0)	59(17.9)	
	지인, 친구의 소개	59(15.1)	43(13.0)	
	기타	160(40.8)	130(39.4)	

청년희망키움통장 월 자유납입금액은 학력구분에 따른 집단 간 차이가 없었으며, 두 집단 모두 약 5만원 정도 납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V-56> 청년희망키움통장 월 자유납입금액: 학력 구분

(고졸이하 n=392, 대졸이상 n=330, 단위:만원)

구분	학력 구분: m(sd)		t - test
	고졸이하	대졸이상	
월 자유납입금액	4.90(10.76)	5.39(13.70)	-0.542

*p < .05, **p < .01, ***p < .001

청년희망키움통장 사업만족도는 고졸이하와 대졸(2년제)이상 집단 모두에서 '사업과 관련된 소식이나 정보 제공'과 '사업에 참여하고 유지하기 위한 행정적

절차’는 보통 정도의 수준이었다. ‘지원 금액의 수준’과 ‘청년희망키움통장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는 보통 보다 약간 높은 수준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전반적으로 대출(2년제)이상 집단의 평균이 미미한 차이로 높았다.

<표V-57> 청년희망키움통장 사업만족도: 학력 구분

(고졸이하 n=392, 대출이상 n=330)

구분	학력 구분: m(sd)		t - test
	고졸이하	대출이상	
지원 금액(월 10만원)의 수준	3.73(0.94)	3.80(0.92)	-0.981
사업과 관련된 소식이나 정보 제공	3.13(0.92)	3.02(0.99)	1.572
사업에 참여하고 유지하기 위한 행정적 절차	3.29(0.88)	3.32(0.93)	-0.526
청년희망키움통장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	3.62(0.91)	3.65(0.91)	-0.457

*p < .05, **p < .01, ***p < .001

청년희망키움통장 사업은 포기하려고 한 적이 없다고 응답한 경우가 두 집단에서 모두 절반 이상으로 나타났다. 포기하려고 한 적이 있는 경우 ‘근로지속의 어려움’이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탈수급에 대한 두려움’ 등의 비중이 높았다.

<표V-58> 청년희망키움통장 사업 포기 고려 이유: 학력 구분

(고졸이하 n=392, 대출이상 n=330)

구분	학력 구분:n(%)		$\chi^2(df)$
	고졸이하	대출이상	
해당없음(포기하려고 한 적 없음)	220(56.1)	178(53.9)	8.625(6)
근로지속의 어려움	76(19.4)	78(23.6)	
행정적 불편함	10(2.6)	9(2.7)	
가족의 반대	2(0.5)	0(0.0)	
탈수급에 대한 두려움	67(17.1)	42(12.7)	
다른 통장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0(0.0)	1(0.3)	
기타	17(4.3)	22(6.7)	

*p < .05, **p < .01, ***p < .001

청년희망키움통장 사업의 개선점은 두 집단 모두 ‘수급 조건 완화’가 40% 이상이었고, ‘저축금액 다양화’, ‘가족의 중복참여 허용’ 등의 순이었다.

<표V-59> 청년희망키움통장 사업 개선점: 학력구분

(고졸이하 n=392, 대졸이상 n=330)

구분		학력구분:n(%)		$\chi^2(df)$
		고졸이하	대졸이상	
1 순 위	저축금액 다양화	111(28.3)	70(21.2)	6.941(5)
	탈수급 조건 완화, 폐지 등 수급 조건 완화	162(41.3)	154(46.7)	
	행정 절차의 편의성 강화	28(7.1)	21(6.4)	
	가족 중복참여 허용	62(15.8)	65(19.7)	
	부가 서비스 및 프로그램 강화	16(4.1)	11(3.3)	
	기타	13(3.3)	9(2.7)	

*p < .05, **p < .01, ***p < .001

청년희망키움통장 사업과 함께 받고 싶은 서비스로는 두 집단 모두 ‘후원금/물품’의 비율이 20%대로 가장 높았고, ‘문화여가’, ‘주거개선’ 등으로 나타났다.

<표V-60> 청년희망키움통장 사업과 함께 받고 싶은 서비스 및 프로그램 : 학력구분

(고졸이하 n=392, 대졸이상 n=330)

구분		학력구분:n(%)		$\chi^2(df)$
		고졸이하	대졸이상	
1순위	가족상담/가족교육	26(6.6)	19(5.8)	15.304(12)
	문화여가	50(12.8)	53(16.1)	
	후원금/물품	110(28.1)	75(22.7)	
	심리상담	24(6.1)	15(4.5)	
	양육교육	8(2.0)	2(0.6)	
	의료지원	25(6.4)	17(5.2)	
	직업교육/훈련	28(7.1)	27(8.2)	
	자격증취득교육	38(9.7)	42(12.7)	
	주거개선	47(12.0)	44(13.3)	
	창업교육	14(3.6)	6(1.8)	
	재무상담/재무컨설팅	10(2.6)	15(4.5)	
	금융교육	7(1.8)	11(3.3)	
기타	5(1.3)	4(1.2)		

*p < .05, **p < .01, ***p < .001

청년희망키움통장 사업 지원금 사용 계획은 학력구분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마련(전세금 포함)’을 선택한 경우가 두 집단 모두 34% 정도로 비율이 가장 높았다. 그 다음으로 ‘미래생활 대비(저축)’, ‘교육비(본인 및 가족)’

, ‘부채 상환’ 등이었으며, 고졸이하는 ‘교육비’가, 대졸(2년제)이상은 ‘부채 상환’의 비율이 더 높았다.

<표 V-61> 청년희망키움통장 사업 지원금 수령시 사용 계획: 학력구분

(고졸이하 n=392, 대졸이상 n=330)

구분		학력구분:n(%)		$\chi^2(df)$
		고졸이하	대졸이상	
1순위	교육비(본인 및 가족)	58(14.8)	40(12.1)	27.732(10)**
	주택마련(전세금 포함)	135(34.4)	113(34.2)	
	결혼, 상제비	26(6.6)	15(4.5)	
	미래생활 대비(저축)	84(21.4)	72(21.8)	
	사업(투자) 자금 마련(창업 포함)	26(6.6)	15(4.5)	
	자동차, 가구, 가전 등 내구재 구입비	14(3.6)	6(1.8)	
	불의의 사고 및 질병 대비	11(2.8)	3(0.9)	
	여행 및 여가생활	4(1.0)	2(0.6)	
	부채 상환	30(7.7)	62(18.8)	
	특별한 목적이 없음	1(0.3)	0(0.0)	
	기타	3(0.8)	2(0.6)	

*p < .05, **p < .01, ***p < .001

3) 근로시간 구분에 따른 집단 비교

(1) 일반적 현황 및 가구현황

근로시간에 따른 차이를 분석한 결과 전일제로 근로하는 비율은 남성 43.9%, 여성 56.1%, 시간제로 근로하는 비율은 남성 33.5%, 여성 66.5%로 나타났다. 즉, 전일제인 경우 남성의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시간제인 경우 여성의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 성별에 따른 근로시간에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전일제와 시간제 모두 15세-24세의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거주지역은 전일제의 경우 대도시가 47.5%, 시간제의 경우 중소도시가 48.7%로 가장 많았다.

전일제의 경우 대학(2년제)졸업자의 비율이 21.8%, 대학교(4년제)졸업자의 비율이 28.2%, 대학원 이상의 비율이 2.3%로 나타난 반면, 시간제의 경우 대학(2년제)졸업자의 비율이 16.7%, 대학교(4년제)의 비율이 16.7%, 대학원 이상의 비율이 1.3%로 나타나 전일제의 평균 학력이 시간제 보다 높았다.

종교가 있는 사람의 비율은 전일제와 시간제에서 각각 31.3%, 35.4%로 나타났다으며, 자격증을 보유한 비율은 전일제에서 81.7%, 시간제에서 66.5%로 나타나 전일제에서 자격증을 보유한 비율이 시간제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V-62> 조사 대상의 일반현황: 근로시간 구분

(전일제 n=262, 시간제 n=460)

구분		근로시간 구분: n(%)		$\chi^2(df)$
		전일제	시간제	
성별	남성	115(43.9)	154(33.5)	7.746(1)**
	여성	147(56.1)	306(66.5)	
연령	15세-24세	140(53.4)	276(60.0)	3.049(2)
	25세-29세	83(31.7)	122(26.5)	
	30세 이상	39(14.9)	62(13.5)	
거주지역 (n=722)	대도시	124(47.5)	196(42.6)	1.908(2)
	중소도시	119(45.6)	224(48.7)	
	농어촌	18(6.9)	40(8.7)	
학력	초등학교	0(0.0)	2(0.4)	11.635(5)*
	중학교	6(2.3)	27(5.9)	
	고등학교	119(45.4)	238(51.7)	
	대학(2년제)	57(21.8)	77(16.7)	
	대학교(4년제)	74(28.2)	110(23.9)	
	대학원 이상	6(2.3)	6(1.3)	
장애	장애 없음	243(92.7)	423(92.0)	6.552(3)
	경증(4~6급)	3(1.1)	6(1.3)	
	중증(1~3급)	4(1.5)	20(4.3)	
	비등록장애인	12(4.6)	11(2.4)	
종교 유무	있음	82(31.3)	163(35.4)	1.274(1)
	없음	180(68.7)	297(64.6)	
자격증 보유 여부	있음	214(81.7)	306(66.5)	19.033(1)***
	없음	48(18.3)	154(33.5)	

*p < .05, **p < .01, ***p < .001

주관적 건강상태는 전일제의 경우 5.52점, 시간제인 경우 5.59점으로 나타났다.

<표V-63> 조사 대상의 주관적 건강상태: 근로시간 구분

(전일제 n=262, 시간제 n=460)

구분	근로시간 구분: m(sd)		t - test
	전일제	시간제	
주관적 건강상태	5.52(2.53)	5.59(2.49)	-0.342

*p < .05, **p < .01, ***p < .001

(2) 가구 현황

가구주인 사람은 전일제에서 45.0%, 시간제에서 42.8%로 나타났다. 혼인상태의 경우 전일제에서 기혼의 비율이 13.0%로 나타나 전일제인 경우 시간제 보다 기혼자가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된 반면, 시간제의 경우 이혼이 8.5%로 나타나 전일제(5.0%)에 비해 이혼 경험이 있는 사람이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동거 가족은 전일제의 경우 모 41.6%, 형제자매 37.7%, 자녀 23.0% 순으로 나타났으나 시간제의 경우 모 45.4%, 형제자매 39.9%, 부 22.4% 순으로 나타났다.

<표V-64> 조사 대상의 가구현황: 근로시간 구분

(전일제 n=262, 시간제 n=460)

구분		근로시간 구분: n(%)		$\chi^2(df)$
		전일제	시간제	
가구주 여부	예	118(45.0)	197(42.8)	0.332(1)
	아니오	144(55.0)	263(57.2)	
혼인상태	미혼	214(81.7)	385(83.7)	18.293(6)**
	기혼	34(13.0)	26(5.7)	
	별거	0(0.0)	1(0.2)	
	사별	0(0.0)	2(0.4)	
	이혼	13(5.0)	39(8.5)	
	사실혼(동거)	1(0.4)	2(0.4)	
	기타	0(0.0)	5(1.1)	
동거가족	독거	51(19.8)	74(16.2)	—
	배우자	35(13.6)	27(5.9)	
	부	54(21.0)	102(22.4)	
	모	107(41.6)	207(45.4)	
	자녀	59(23.0)	83(18.2)	
	조부모	14(5.4)	50(11.0)	
	형제자매	97(37.7)	182(39.9)	
	친인척	9(3.5)	19(4.2)	

*p < .05, **p < .01, ***p < .001

한편, 전일제인 경우 평균 2.94명, 시간제인 경우 2.81명의 가구원과 함께 사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V-65> 조사 대상의 동거 가구원 수: 근로시간 구분

(전일제 n=262, 시간제 n=460, 단위:명)

구분	근로시간 구분: m(sd)		t - test
	전일제	시간제	
동거 가구원 수	2.94(1.71)	2.81(1.41)	1.059

*p < .05, **p < .01, ***p < .001

(2) 근로 현황 및 근로에 대한 생각과 태도

근로시간에 따른 근로형태를 살펴본 결과, 전일제의 경우 과반수가 상용근로자(51.9%)인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시간제의 경우 임시직근로자(38.9%)와 일용직근로자(20.9%)의 비율이 전일제 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직종의 경우 전일제는 서비스종사자 26.7%,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 21.0%, 사무종사자 18.7%이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시간제는 서비스종사자 48.7%,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 8.0%, 판매종사자 7.8% 순으로 종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전일제의 경우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 사무종사자의 비율이 시간제 보다 높은 반면 시간제의 경우 서비스종사자의 비율이 전일제 보다 높았다.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속적으로 근로 가능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전일제의 경우 81.7%, 시간제의 68.9%로 나타나 전일제가 시간제의 경우보다 근로지속 가능성이 높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표 V-66> 조사 대상의 근로 현황: 근로시간 구분

(전일제 n=262, 시간제 n=460)

구분		근로시간 구분: n(%)		$\chi^2(df)$
		전일제	시간제	
근로형태	상용근로자	136(51.9)	82(17.8)	127.328(7)***
	임시직근로자	38(14.5)	179(38.9)	
	일용직근로자	20(7.6)	96(20.9)	
	자활/공공근로	6(2.3)	12(2.6)	
	고용주/자영업자	15(5.7)	9(2.0)	
	무급가족종사자	3(1.1)	3(0.7)	
	실업자	17(6.5)	17(3.7)	
	비경제활동인구	27(10.3)	62(13.5)	
직종	관리자	5(1.9)	5(1.1)	87.606(9)***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	55(21.0)	37(8.0)	
	사무종사자	49(18.7)	32(7.0)	
	서비스종사자	70(26.7)	224(48.7)	
	판매종사자	13(5.0)	36(7.8)	
	농림어업숙련종사자	8(3.1)	1(0.2)	
	기능원 및 관련기능종사자	9(3.4)	3(0.7)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	10(3.8)	15(3.3)	
	단순노무종사자	14(5.3)	36(7.8)	
	실업자/비경제활동인구	29(11.1)	71(15.4)	
근로 지속 가능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속적 근로 가능	214(81.7)	317(68.9)	13.983(1)***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회사 사정에 따라 해고 가능	48(18.3)	143(31.1)	

*p < .05, **p < .01, ***p < .001

근로시간 구분에 따른 고용희망과 고용장벽을 확인한 결과, 일부 하위변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전일제인 경우 고용희망 전체 평균이 보통보다 높은 수준으로, 보통 수준인 시간제 보다 약간 높았다. 하위변인 가운데 ‘기술과 자원 활용’의 집단 간 차이가 가장 컸으며, 이 역시 시간제는 보통 정도의 수준, 전일제는 보통 보다 약간 높은 수준이었다. 이외에도 ‘미래의 나의 모습에

대한 동기부여'와 '목적지향'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 모두 전일제인 경우 시간제에 비해 더 높은 고용희망 수준을 보였다.

한편 고용장벽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는 나타나지 않았으나, 전반적으로 비슷하거나 시간제인 청년들이 인식하는 고용장벽 수준이 미미하게 더 높았다.

<표 V-67> 근로에 대한 생각과 태도: 근로시간 구분

(전일제 n=262, 시간제 n=460)

구분		근로시간 구분: m(sd)		t - test
		전일제	시간제	
고용 희망	전체	3.70(0.66)	3.59(0.68)	-2.103*
	스스로의 가치와 역량에 대한 인지	3.56(0.73)	3.54(0.73)	-0.341
	미래의 나의 모습에 대한 동기부여	3.78(0.75)	3.65(0.78)	-2.200*
	목적지향	3.78(0.74)	3.64(0.81)	-2.397*
	기술과 자원 사용	3.76(0.75)	3.54(0.86)	-3.526***
고용 장벽	전체	2.73(0.74)	2.78(0.67)	0.831
	인적자본 및 자원 부족	3.18(0.80)	3.30(0.77)	1.842
	삶에 대한 대한 통제력 부족	2.45(0.90)	2.42(0.86)	-0.427
	가족 관련	2.50(1.13)	2.58(0.99)	1.011
	건강 관련	2.76(1.18)	2.75(1.11)	-0.096

*p < .05, **p < .01, ***p < .001

(3) 경제적 상황 및 경제적 상황에 대한 인식

① 소득·저축·부채

지난 3개월 동안의 월평균 소득은 전일제의 경우 약 136만원, 시간제의 경우 약 86만원으로 조사되어 전일제의 근로소득이 시간제와 비교하였을 때 약 50만원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공적이전소득은 전일제 약 38만원, 시간제 약 34만원으로 조사되었으며, 사적이전소득은 전일제 약 25만원, 시간제 약 17만원으로 전일제의 사적이전소득이 시간제보다 약 8만원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V-68> 지난 3개월 동안의 월평균 소득: 근로시간 구분

(전일제 n=262, 시간제 n=460, 단위:만원)

구분	근로시간 구분: m(sd)		t - test
	전일제	시간제	
근로소득	135.82(70.44)	85.69(58.29)	9.764***
공적이전소득	38.09(64.62)	33.65(51.36)	0.953
사적이전소득	25.37(62.18)	16.66(44.27)	1.997*

*p < .05, **p < .01, ***p < .001

저축의 경우 전일제는 월평균 약 29만원, 시간제는 약 16만원을 저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전일제가 시간제보다 약 13만원 정도 더 많은 금액을 저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개인 부채의 경우 전일제는 평균 약 826만원, 시간제의 경우 약 481만원의 부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개인 부채액이 전일제가 더 높은 만큼 월평균 상환액 역시 전일제는 약 17만원, 시간제는 약 9만원을 개인 부채 상환을 위해 지출하고 있었다.

<표 V-69> 조사 대상의 저축 및 부채 현황: 근로시간 구분

(전일제 n=262, 시간제 n=460, 단위:만원)

구분	근로시간 구분: m(sd)		t - test
	전일제	시간제	
저축	29.18(37.63)	15.69(28.34)	5.044***
개인 부채	825.75(1625.49)	481.13(1152.77)	2.946**
개인 부채에 따른 월평균 상환액	17.46(38.64)	9.12(25.77)	3.114**

*p < .05, **p < .01, ***p < .001

저축과 개인부채가 없다고 응답한 조사 대상의 응답을 제외한 평균값을 살펴본 결과, 전일제의 경우 월평균 약 40만원, 시간제의 경우 약 27만원을 저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 부채의 경우 전일제는 약 1,587만원, 시간제는 약 1,121만원의 부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V-70> 조사 대상의 저축 및 부채 현황(없음 제외): 근로시간 구분

(전일제 n=262, 시간제 n=460, 단위:만원)

구분	근로시간 구분: m(sd)		t - test
	전일제	시간제	
저축(없음 제외)	39.61(38.86)	27.17(32.86)	3.607***
개인 부채(없음 제외)	1587.48(1969.77)	1120.92(1544.16)	2.359*

*p < .05, **p < .01, ***p < .001

즉, 저축과 개인 부채 그리고 개인부채에 대한 상환액 모두 전일제가 시간제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 부채 발생의 주요 이유를 알아보기 위해 조사를 진행한 결과, 전일제의 경우 학자금 지출에 의한 부채가 22.1%로 시간제 16.7%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는데, 이는 평균 학력이 전일제가 시간제보다 높은 것과 연관된다.

한편, 시간제의 경우 가족의 경제적 지원에 의한 부채 발생의 비율이 8.7%로 전일제 6.9%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업자금 지출과 주택보증금 마련에 의한 부채는 각각 전일제(사업자금 지출 3.4%, 주택보증금 마련 4.2%)가 시간제(사업자금 지출 0.9%, 주택보증금 마련 3.9%)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V-71> 조사 대상의 주요 부채 이유: 근로시간 구분

(전일제 n=262, 시간제 n=460)

구분	근로시간 구분: n(%)		$\chi^2(df)$
	전일제	시간제	
가족을 경제적으로 돕느라	18(6.9)	40(8.7)	16.063(7)*
생활비가 많이 들어서	41(15.6)	71(15.4)	
학자금 지출	58(22.1)	77(16.7)	
결혼자금	1(0.4)	0(0.0)	
사업자금 지출	9(3.4)	4(0.9)	
주택보증금 마련	11(4.2)	18(3.9)	
해당없음(부채없음)	114(43.5)	241(52.4)	
기타	10(3.8)	9(2.0)	

*p < .05, **p < .01, ***p < .001

② 수급현황

전일제와 시간제의 가구수급기간은 각각 전일제 8.04년(96.57개월), 시간제 8.93년(107.15개월)로 나타났다.

<표V-7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기간(가구): 근로시간 구분

(전일제 n=262, 시간제 n=460, 단위:개월)

구분	근로시간 구분: m(sd)		t - test
	전일제	시간제	
가구 수급기간(개월)	96.57(86.61)	107.15(97.34)	-1.460

*p < .05, **p < .01, ***p < .001

수급 급여의 종류는 전일제는 생계급여 61.1%, 의료급여 57.6%, 주거급여 38.5%, 교육급여 15.3%로 시간제는 생계급여 74.1%, 의료급여 64.8%, 주거급여 48.0%, 교육급여 17.0%로 나타났다.

<표V-73>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현황: 가구주 구분

(전일제 n=262, 시간제 n=460)

구분		근로시간 구분: n(%)	
		전일제	시간제
수급 급여 종류 (중복응답)	생계급여	160(61.1)	341(74.1)
	의료급여	151(57.6)	298(64.8)
	주거급여	101(38.5)	221(48.0)
	교육급여	40(15.3)	78(17.0)
	해산급여	6(2.3)	2(0.4)
	자활급여	17(6.5)	17(3.7)

③ 소비현황 - 생활비 지출

전일제와 시간제의 총생활비는 각각 약 105만원, 84만원으로 나타나, 전일제의 총생활비 지출이 시간제인 경우의 총생활비 지출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 생활비 지출항목을 살펴보면 전일제는 식료품비에 약 34만원, 주거비에 약 17만원, 피복신발비에 약 9만원, 보건의료비에 약 8만원, 교양오락비에 약 6만원, 기타생활비에 약 14만원, 비소비에 약 5만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

며 시간제는 식료품비에 약 26만원, 주거비에 약 14만원, 피복신발비에 약 6만원, 보건의료비에 약 5만원, 교양오락비에 약 5만원, 교통통신비에 약 12만원, 기타생활비에 약 10만원, 비소비에 약 3만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전일제의 경우 총생활비 뿐아니라 식료품비, 주거비, 피복신발비, 보건의료비, 교양오락비, 교통통신비, 기타생활비, 비소비의 항목에서 시간제보다 많은 비용을 지출하고 있었다.

<표 V-74> 조사 대상의 월평균 생활비: 근로시간 구분

(전일제 n=262, 시간제 n=460, 단위:만원)

구분	근로시간 구분: m(sd)		t - test
	전일제	시간제	
총생활비	105.22(60.89)	84.21(54.82)	4.591***
식료품비	34.08(27.60)	26.05(20.27)	4.104***
주거비	17.35(18.34)	13.97(16.14)	2.512*
광열수도비	3.50(4.41)	3.46(5.96)	0.090
가구집기비	3.70(6.30)	2.73(6.18)	1.875
피복신발비	8.74(9.87)	6.34(8.12)	3.351**
보건의료비	8.01(16.95)	4.84(12.27)	2.518*
교육비	11.16(27.38)	11.61(38.75)	-0.156
교양오락비	5.92(9.04)	4.53(6.88)	2.147*
교통통신비	14.11(18.64)	11.68(10.48)	2.196*
기타생활비	14.40(21.36)	10.09(14.77)	2.679**
비소비	5.37(13.24)	2.78(9.55)	2.326*

*p < .05, **p < .01, ***p < .001

각 생활비 항목 중 조사 대상의 부담지출 순위를 조사한 결과 상대적으로 식료품비와 주거비에는 전일제와 시간제 모두 동일하게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피복신발비, 교육비, 교통통신비의 경우 시간제가 전일제 보다 보건의료비의 경우 전일제가 시간제보다 더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V-75> 조사 대상의 부담지출 순위: 근로시간 구분

(전일제 n=262, 시간제 n=460)

구분	근로시간 구분: n(%)		$\chi^2(df)$
	전일제	시간제	
식료품비	129(49.2)	199(43.3)	17.792(10)
주거비	63(24.0)	106(23.0)	
광열수도비	0(0.0)	1(0.2)	
가구집기비	3(1.1)	1(0.2)	
피복신발비	2(0.8)	13(2.8)	
보건의료비	13(5.0)	13(2.8)	
교육비	13(5.0)	39(8.5)	
교양오락비	3(1.1)	4(0.9)	
교통통신비	25(9.5)	59(12.8)	
기타소비(일상소모품)	7(2.7)	22(4.8)	
비소비	4(1.5)	3(0.7)	

*p < .05, **p < .01, ***p < .001

④ 경제적 부담과 상황에 대한 인지

개인부채에 대한 부담정도와 가족부양부담 정도를 살펴본 결과 전일제의 경우 개인부채에 대한 부담이 4.31점, 시간제의 경우 개인부채에 대한 부담이 3.79점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가족부양부담정도 역시 전일제 5.28점, 시간제 4.78점으로 전일제가 시간제 보다 더 높았다.

<표 V-76> 개인 부채 및 가족 부양 부담 정도: 근로시간 구분

(전일제 n=262, 시간제 n=460)

구분	근로시간 구분: m(sd)		t - test
	전일제	시간제	
부채부담정도	4.31(3.91)	3.79(3.81)	1.727
가족부양부담정도	5.28(3.37)	4.78(3.26)	1.958

*p < .05, **p < .01, ***p < .001

자신의 미래 경제상황에 대한 전망은 근로시간에 따른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는데, 전일제의 경우 자신의 미래 상황에 대한 전망을 4.76점으로 응답한 반면 시간제의 경우 4.29점으로 응답했다. 즉, 전일제가 시간제보다 자신의 미래 상황에 대해 더 긍정적으로 전망하고 있었다.

<표 V-77> 미래 경제상황에 대한 전망: 근로시간 구분

(전일제 n=262, 시간제 n=460)

구분	근로시간 구분: m(sd)		t - test
	전일제	시간제	
자신의 미래 경제상황에 대한 전망	4.76(2.49)	4.29(2.44)	2.453**

*p < .05, **p < .01, ***p < .001

근로시간 형태에 따라 저축인식을 확인한 결과, ‘나는 저축을 할 만한 여유가 없다’는 변인에 있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시간제인 청년일수록 여유가 없다고 응답하였다. 이외의 저축인식 항목에서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를 발견하기는 어려웠으나, 전반적인 경향성을 볼 때 저축의 중요성과 관련된 항목은 전일제의 점수가 더 높았으며, 실제 여유가 없거나 저축을 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항목은 시간제의 점수가 더 높았다.

경제적 여건은 ‘자주 생활비 걱정을 한다’는 하위변인에 대해서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시간제인 경우 해당 걱정의 정도가 더 높았다. 또한 이외의 모든 항목에서 경제적 여건 수준이 상대적으로 좋지 않은 집단은 시간제였다.

재무관리역량은 ‘긴급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돈이 준비되어 있다’와 ‘매달 주거유지를 위한 충분한 돈을 가지고 있다’, ‘수입이 증가하면 저축도 늘린다’의 문항에서만 통계적 유의성이 확인되었다. 각 응답 모두 전일제인 경우가 시간제인 경우 보다 높은 점수를 보였다. 따라서 재무관리역량의 수준이 시간제보다 전일제인 경우 더 높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더 높은 전일제 집단에서도 실제 점수가 보통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사업참여자들의 재무관리역량 수준이 전반적으로 낮은 편이라고 볼 수 있다.

<표 V-78> 경제적 상황에 대한 인식: 근로시간 구분

(전일제 n=262, 시간제 n=460)

구분		근로시간 구분: m(sd)		t - test
		전일제	시간제	
저축 인식	저축인식(총합)	21.82(3.67)	21.15(3.47)	2.437*
	저축은 매우 중요하다	4.27(0.76)	4.20(0.79)	-1.117
	어떠한 상황에서도 저축은 반드시 해야 한다	3.76(1.00)	3.67(1.02)	-1.143
	저축은 나의 미래를 변화시킬 수 있다	3.92(0.87)	3.86(0.95)	-0.833
	예상하지 못한 지출에 대비하여 저축을 하려고 노력한다	3.68(0.98)	3.63(1.00)	-0.640
	나는 저축을 할 만한 여유가 없다	3.55(1.11)	3.81(1.04)	3.149**
	현재 받고 있는 정부의 지원을 잃을까 걱정이 되어 저축을 하지 않는다	2.25(1.00)	2.40(1.07)	1.806
경제적 여건	경제적 여건(총합)	24.30(5.71)	25.02(5.87)	-1.591
	오늘 돈 문제로 인해 스트레스를 느낀다	3.85(1.01)	3.97(1.03)	1.504
	나의 재정 상태에 대한 만족도가 낮다	3.82(0.91)	3.92(1.01)	1.341
	자주 생활비 걱정을 한다	3.97(0.91)	4.13(0.95)	2.214*
	여윌돈이나 비상금이 없어 심리적 긴장감이 크다	3.73(1.04)	3.83(1.08)	1.229
	공과금 및 세금 납부, 대출금 상환과 관련해 어려움이 크다	3.31(1.22)	3.33(1.23)	0.184
	돈 문제로 인해 가정 내 갈등이 있다	3.17(1.22)	3.28(1.27)	1.124
재무 관리 역량	돈 문제로 인해 직장동료나 친구 등으로부터 상처를 받았다	2.45(1.27)	2.55(1.24)	1.113
	재무관리역량(총합)	18.02(3.59)	17.21(3.48)	2.973**
	매달 주거유지를 위한 충분한 돈을 가지고 있다	2.32(0.75)	2.17(0.71)	-2.648**
	긴급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돈(약 100만원)이 준비되어 있다	2.22(0.95)	1.94(0.89)	-3.845***
	소비나 저축에 대하여 계획을 세운다	2.79(0.72)	2.71(0.74)	-1.404
	계획소비나 저축을 하고 있다	2.62(0.72)	2.54(0.76)	-1.376
	수입이 증가하면서 저축도 늘린다	2.77(0.82)	2.65(0.82)	-1.996*
	나의 자산현황을 잘 알고 있다	3.05(0.62)	2.99(0.70)	-1.238
	향후 5-10년 사이에 발생할 지출에 대해 미리 생각하고 준비하고 있다	2.25(0.84)	2.22(0.83)	-0.502

*p < .05, **p < .01, ***p < .001

(4) 주거 상황

① 주거지 유형 및 점유형태

주택유형은 전일제와 시간제 모두 임대아파트(전일제 23.3%, 시간제 24.8%), 다가구주택(전일제 19.8%, 시간제 17.8%), 연립주택(전일제 15.6%,

시간제 17.4%)순으로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거위치는 전일제와 시간제 모두 대부분이 지상층(전일제 96.6%, 시간제 94.6%)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거점유형태는 과반수가 월세(전일제 53.4%, 시간제 51.7%)로 거주하고 있었다.

<표 V-79> 조사 대상의 주거형태: 근로시간 구분

(전일제 n=262, 시간제 n=460)

구분		근로시간 구분:n(%)		$\chi^2(df)$
		전일제	시간제	
주택 유형	일반단독주택	26(9.9)	60(13.0)	6.184(8)
	다가구주택	52(19.8)	82(17.8)	
	다세대주택	21(8.0)	43(9.3)	
	연립주택	41(15.6)	80(17.4)	
	일반아파트	37(14.1)	55(12.0)	
	임대아파트	61(23.3)	114(24.8)	
	비거주용 건물	2(0.8)	2(0.4)	
	준주택	10(3.8)	10(2.2)	
	기타	12(4.6)	14(3.0)	
주거위치	지하층	2(0.8)	2(0.4)	2.602(3)
	반지층	6(2.3)	19(4.1)	
	지상층	253(96.6)	435(94.6)	
	옥탑	1(0.4)	4(0.9)	
주거점유형태	자가	21(8.0)	32(7.0)	1.156(4)
	전세	67(25.6)	123(26.7)	
	월세	140(53.4)	238(51.7)	
	무상	15(5.7)	25(5.4)	
	기타	19(7.3)	42(9.1)	

*p < .05, **p < .01, ***p < .001

② 주거자산

주거자산 금액을 살펴본 결과 전일제의 평균 주택금액은 약 2,268만원, 시간제의 평균 주택금액은 약 2,038만원으로 나타났으며, 월세는 전일제와 시간제 모두 약 20만원을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주택면적은 전일제의 경우 $42.17m^2$, 시간제의 경우 $41.08m^2$ 이었다.

<표 V-80> 조사 대상의 주거자산: 근로시간 구분

(전일제 n=262, 시간제 n=460, 단위:만원, m^2)

구분	근로시간 구분: m(sd)		t - test
	전일제	시간제	
주택금액	2268.23(4195.97)	2038.40(3526.08)	0.758
월세금액	20.06(17.85)	20.14(18.37)	-0.046
주택면적	42.17(27.88)	41.08(31.22)	0.464

*p < .05, **p < .01, ***p < .001

(5) 진로에 대한 생각 및 진로행동

조사 대상의 예상진로는 근로시간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전일제의 경우 자신의 예상 진로를 취업유지 58.8%, 이직 16.0%, 개인사업 및 창업 7.6% 순으로 응답한 것과 비교하여 시간제는 취업유지 50.2%, 이직 12.0%, 특별한진로계획 없음 14.3% 순으로 응답했다.

즉, 전일제의 경우 시간제와 비교하였을 때 진로 계획을 갖고 있는 비율이 더 높았다.

<표 V-81> 조사대상의 예상 진로: 근로시간 구분

(전일제 n=262, 시간제 n=460)

구분	근로시간 구분:n(%)		$\chi^2(df)$
	전일제	시간제	
취업유지	154(58.8)	231(50.2)	17.909(7)*
이직	42(16.0)	55(12.0)	
상급학교 진학	6(2.3)	18(3.9)	
편입학	6(2.3)	12(2.6)	
개인 사업 및 창업	20(7.6)	30(6.5)	
군입대	6(2.3)	14(3.0)	
특별한 진로 계획 없음	18(6.9)	66(14.3)	
기타	10(3.8)	34(7.4)	

*p < .05, **p < .01, ***p < .001

진로행동은 집단 간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전일제가 약간 더 높은 수준이었다. 두 집단 모두 보통 수준 보다 약간 높은 수준의 진로행동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V-82> 진로행동: 근로시간 구분

(전일제 n=262, 시간제 n=460)

구분	근로시간 구분: m(sd)		t - test
	전일제	시간제	
진로행동(척도값 평균)	3.41(0.84)	3.28(0.87)	-1.950

*p < .05, **p < .01, ***p < .001

(6) 자아존중감 및 자신의 역량에 대한 평가

근로시간 구분에 따라 자아존중감 및 자신의 역량에 대한 평가는 유의한 집단 간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전일제인 경우가 시간제인 경우 보다 역량 수준이 높거나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표 V-83> 자아존중감 및 자신의 역량에 대한 평가: 근로시간 구분

(전일제 n=262, 시간제 n=460)

구분		근로시간 구분: m(sd)		t - test
		전일제	시간제	
자아존중감(척도값 평균)		3.23(0.30)	3.21(0.34)	-0.826
행복지수	최종행복점수	13.44(8.16)	12.59(8.61)	-1.305
	만족감	13.51(3.55)	13.15(3.74)	-1.263
	긍정정서	14.51(3.49)	14.30(3.67)	-0.773
	부정정서	14.58(3.31)	14.86(3.30)	1.090
투지(척도값 평균)		3.26(0.65)	3.18(0.62)	-1.637
회복탄력성(총합)		5.08(1.66)	4.89(1.75)	-1.407

*p < .05, **p < .01, ***p < .001

(7) 사회적 자본과 사회활동 참여

사회적 자본과 가족지지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 매우 미미한 수준에서 집단 간 차이를 보였으며, 신뢰와 네트워크 및 전체 사회적 자본의 평균값은 전일제가 더 높았다. 반면 사회참여와 규범의식은 시간제인 경우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집단과 관계 없이 전반적으로 사회적 자본의 수준이 보통 보다 낮은 수준으로 확인되어 사업 참여자들의 사회적 자본 수준이 낮은 경향성을 가짐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가족지지는 집단 차이 없이 모두 보통 정도의 지지 수준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V-84> 사회적 자본과 가족지지: 근로시간 구분

(전일제 n=262, 시간제 n=460)

구분		근로시간 구분: m(sd)		t - test
		전일제	시간제	
사회적 자본	전체(척도값 평균)	2.83(0.48)	2.84(0.49)	0.269
	신뢰	3.28(0.66)	3.21(0.66)	-1.448
	네트워크	2.63(0.71)	2.61(0.78)	-0.346
	사회참여	1.77(0.73)	1.83(0.74)	1.036
	규범의식	3.94(0.69)	3.99(0.71)	0.910
가족지지		3.37(1.01)	3.22(1.03)	-1.841

*p < .05, **p < .01, ***p < .001

지난 1년 간의 사회참여 정도를 참여일수로 확인한 결과 일부 활동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종교활동’의 경우 시간제가 전일제 보다 약 6일 정도 많은 참여일수를 보였다. 또한 ‘자선단체, 자원봉사활동 단체’의 활동 역시 시간제가 전일제 보다 많이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친목모임’은 전일제인 경우가 시간제 보다 참여일수가 많았다.

<표 V-85> 지난 1년 동안 사회참여 정도: 근로시간 구분

(전일제 n=262, 시간제 n=460)

구분		근로시간 구분: m(sd)		t - test
		전일제	시간제	
종교활동		8.64(20.86)	14.18(42.92)	2.330*
여가활동		28.23(61.39)	29.28(59.77)	0.225
친목모임		21.52(33.33)	16.63(25.33)	-2.058*
정당, 정치 관련 모임		0.29(3.31)	0.25(1.63)	-0.218
자선단체, 자원봉사활동 단체		1.42(5.69)	2.51(8.09)	2.115*
기타시민단체		0.47(3.56)	0.49(3.90)	0.062

*p < .05, **p < .01, ***p < .001

(8) 사회의 소득불평등 수준

사회의 소득불평등 수준에 대한 인식은 시간제와 전일제 모두 대체로 불평등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집단 간 차이는 미미한 수준이었다.

<표 V-86> 사회의 소득불평등 인식: 근로시간 구분

(전일제 n=262, 시간제 n=460)

구분	근로시간 구분: m(sd)		t - test
	전일제	시간제	
소득불평등 인식 (척도값 평균)	3.15(2.25)	3.31(2.16)	0.990

*p < .05, **p < .01, ***p < .001

(9)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 및 사업에 대한 생각

청년희망키움통장 월 자유납입금액에 있어서 근로 시간 형태별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표 V-87> 청년희망키움통장 월 자유납입금액: 근로시간 구분

(전일제 n=262, 시간제 n=460, 단위:만원)

구분	근로시간 구분: m(sd)		t - test
	전일제	시간제	
월 자유납입금액	4.95(10.30)	5.22(13.15)	0.285

*p < .05, **p < .01, ***p < .001

청년희망키움통장 사업만족도는 전반적으로 시간제인 경우가 미미한 수준에서 더 높았다. 근로시간 구분과 관계없이 ‘지원금액의 수준’과 ‘청년희망키움통장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는 보통 보다 약간 높은 정도의 만족을 보였으며, ‘사업과 관련되 소식이나 정보 제공’과 ‘행정적 절차’에 대한 만족은 그보다 다소 낮은 보통 정도의 수준으로 나타났다.

<표 V-88> 청년희망키움통장 사업만족도: 근로시간 구분

(전일제 n=262, 시간제 n=460)

구분	근로시간 구분: m(sd)		t - test
	전일제	시간제	
지원 금액(월 10만원)의 수준	3.77(0.88)	3.76(0.96)	-0.197
사업과 관련된 소식이나 정보 제공	3.00(0.89)	3.12(0.99)	1.726
사업에 참여하고 유지하기 위한 행정적 절차	3.24(0.86)	3.34(0.93)	1.500
청년희망키움통장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	3.61(0.87)	3.65(0.94)	0.549

*p < .05, **p < .01, ***p < .001

청년희망키움통장 사업 포기를 고려한 경우가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절반 이상이었으며, 특히 전일제인 경우 전체의 60% 이상이 포기를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포기를 고려한 경우, ‘근로지속의 어려움’과 ‘탈수급에 대한 두려움’ 등의 순이었다. 특히, 시간제의 경우 포기를 고려한 비율이 전일제 보다 약간 높게 나타나 근로와 관련된 불안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볼 수 있다.

<표 V-89> 청년희망키움통장 사업 포기 고려 이유: 근로시간 구분

(전일제 n=262, 시간제 n=460)

구분	근로시간 구분:n(%)		$\chi^2(df)$
	전일제	시간제	
해당없음(포기하려고 한 적 없음)	158(60.3)	240(52.2)	7.754(6)
근로지속의 어려움	53(20.2)	101(22.0)	
행정적 불편함	6(2.3)	13(2.8)	
가족의 반대	1(0.4)	1(0.2)	
탈수급에 대한 두려움	31(11.8)	78(17.0)	
다른 통장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1(0.4)	0(0.0)	
기타	12(4.6)	27(5.9)	

*p < .05, **p < .01, ***p < .001

청년희망키움통장 사업의 개선점은 근로시간 형태에 따라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탈수급 조건 완화, 폐지 등 수급 조건 완화’와 ‘저축금액 다양화’, ‘가족의 중복참여 허용’ 등의 개선점을 가장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표 V-90> 청년희망키움통장 사업 개선점: 근로시간 구분

(전일제 n=262, 시간제 n=460)

구분		근로시간 구분:n(%)		$\chi^2(df)$
		전일제	시간제	
1순위	저축금액 다양화	66(25.2)	115(25.0)	1.336(5)
	탈수급 조건 완화, 폐지 등 수급 조건 완화	113(43.1)	203(44.1)	
	행정 절차의 편의성 강화	19(7.3)	30(6.5)	
	가족 중복참여 허용	49(18.7)	78(17.0)	
	부가 서비스 및 프로그램 강화	9(3.4)	18(3.9)	
	기타	6(2.3)	16(3.5)	

*p < .05, **p < .01, ***p < .001

청년희망키움통장 사업과 함께 받고 싶은 서비스 및 프로그램은 근로시간 형태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다른 것으로 확인되었다. 시간제의 경우 ‘후원금/물품’, ‘문화여가’, ‘주거개선’, ‘자격증취득교육’ 등의 순으로 서비스 욕구가 높았으며, 전일제의 경우 ‘후원금/물품’, ‘주거개선’, ‘문화여가’, ‘자격증취득교육’ 등의 순이었다. 두 집단 모두에서 서비스 욕구가 높은 서비스 및 프로그램은 ‘후원금/물품’과 ‘주거개선’, ‘문화여가’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V-91> 청년희망키움통장 사업과 함께 받고 싶은 서비스 및 프로그램: 근로시간 구분

(전일제 n=262, 시간제 n=460)

구분		근로시간 구분:n(%)		$\chi^2(df)$
		전일제	시간제	
1순위	가족상담/가족교육	20(7.6)	25(5.4)	21.473(12)*
	문화여가	28(10.7)	75(16.3)	
	후원금/물품	68(26.0)	117(25.4)	
	심리상담	13(5.0)	26(5.7)	
	양육교육	7(2.7)	3(0.7)	
	의료지원	17(6.5)	25(5.4)	
	직업교육/훈련	16(6.1)	39(8.5)	
	자격증취득교육	25(9.5)	55(12.0)	
	주거개선	32(12.2)	59(12.8)	
	창업교육	7(2.7)	13(2.8)	
	재무상담/재무컨설팅	13(5.0)	12(2.6)	
	금융교육	11(4.2)	7(1.5)	
	기타	5(1.9)	4(0.9)	

*p < .05, **p < .01, ***p < .001

청년희망키움통장 사업 지원금 수령 시 사용계획으로는 ‘주택마련’의 비중이 두 집단 모두에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미래생활 대비’, ‘교육비(본인 및 가족)’과 ‘부채 상환’ 등으로 전반적으로 중요도가 높은 사용계획은 유사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V-92> 청년희망키움통장 사업 지원금 수령시 사용 계획: 근로시간 구분

(전일제 n=262, 시간제 n=460)

구분		근로시간 구분:n(%)		$\chi^2(df)$
		전일제	시간제	
1순위	교육비(본인 및 가족)	28(10.7)	70(15.2)	13.502(10)
	주택마련(전세금 포함)	103(39.3)	145(31.5)	
	결혼, 상제비	17(6.5)	24(5.2)	
	미래생활 대비(저축)	52(19.8)	104(22.6)	
	사업(투자) 자금 마련(창업 포함)	16(6.1)	25(5.4)	
	자동차, 가구, 가전 등 내구재 구입비	10(3.8)	10(2.2)	
	불의의 사고 및 질병 대비	3(1.1)	11(2.4)	
	여행 및 여가생활	1(0.4)	5(1.1)	
	부채 상환	30(11.5)	62(13.5)	
	특별한 목적이 없음	1(0.4)	0(0.0)	
	기타	1(0.4)	4(0.9)	

*p < .05, **p < .01, ***p < .001

4) 연령대 구분에 따른 집단 비교

(1) 일반적 현황 및 가구현황

15세-24세의 경우 남성의 비율은 32.0%, 여성의 비율은 68.0%로 나타났으며, 25세-29세의 경우 남성의 비율은 48.3%, 여성의 비율은 51.7%로 나타났다. 한편, 30세 이상의 경우 남성의 비율은 36.6%, 여성의 비율은 63.4%로 나타났다. 연령 집단을 비교해보았을 때, 25세-29세의 남성 비율이 다른 연령대에 비하여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에 따른 거주지역을 살펴본 결과 25세-29세의 경우 대도시 거주 비율이 51.0%로 가장 높았으며 15세-24세, 30세 이상의 경우 중소도시의 거주비율이 각각 46.6%, 57.4%로 가장 높았다.

경증(4~6급), 중증(1~3급), 비등록장애인을 포함하여 장애와 종교를 가진 비율은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많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V-93> 조사 대상의 일반현황: 연령대 구분

(15-24세 n=416, 25-29세 n=205, 30세이상 n=101)

구분		연령대 구분: n(%)			$\chi^2(df)$
		15세-24세	25세-29세	30세 이상	
성별	남성	133(32.0)	99(48.3)	37(36.6)	15.669(2)***
	여성	283(68.0)	106(51.7)	64(63.4)	
거주지역 (n=722)	대도시	185(44.5)	104(51.0)	31(30.7)	14.349(4)**
	중소도시	194(46.6)	91(44.6)	58(57.4)	
	농어촌	37(8.9)	9(4.4)	12(11.9)	
학력	초등학교	0(0.0)	0(0.0)	2(2.0)	78.599(10)***
	중학교	7(1.7)	10(4.9)	16(15.8)	
	고등학교	232(55.8)	79(38.5)	46(45.5)	
	대학(2년제)	72(17.3)	41(20.0)	21(20.8)	
	대학교(4년제)	103(24.8)	66(32.2)	15(14.9)	
	대학원 이상	2(0.5)	9(4.4)	1(1.0)	
장애	장애 없음	391(94.0)	190(92.7)	85(84.2)	20.449(6)**
	경증(4~6급)	1(0.2)	3(1.5)	5(5.0)	
	중증(1~3급)	12(2.9)	5(2.4)	7(6.9)	
	비등록장애인	12(2.9)	7(3.4)	4(4.0)	
종교 유무	있음	131(31.5)	69(33.7)	45(44.6)	6.197(2)*
	없음	285(68.5)	136(66.3)	56(55.4)	
자격증 보유 여부	있음	295(70.9)	155(75.6)	70(69.3)	1.933(2)
	없음	121(29.1)	50(24.4)	31(30.7)	

*p < .05, **p < .01, ***p < .001

주관적 건강상태는 15세-24세의 경우 5.66점, 25세-29세의 경우 5.65점, 30세 이상의 경우 5.00점으로 조사되었다.

<표 V-94> 조사 대상의 주관적 건강상태: 연령대 구분

(15-24세 n=416, 25-29세 n=205, 30세이상 n=101)

구분	연령대 구분: m(sd)			F (Scheffe)
	15세-24세(A)	25세-29세(B)	30세 이상(C)	
주관적 건강상태	5.66(2.61)	5.65(2.37)	5.00(2.26)	3.015

*p < .05, **p < .01, ***p < .001

(2) 가구 현황

가구주인 경우와 기혼, 이혼 비율 역시 연령대가 높을수록 많아지는 것으로 나타나 30세 이상의 경우 가구주인 사람의 비율은 82.2%, 기혼 비율은 36.6%, 이혼 비율은 34.7%로 나타났다.

한편, 연령대별 동거가족에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15세-24세의 경우 모 50.6%, 형제자매 47.9%, 부 27.6% 순으로 나타났으나 25세-29세의 경우 모 45.3%, 형제자매 37.9%, 독거 19.7% 순으로, 30세 이상의 경우 자녀 82.2%, 배우자 38.6%, 모 14.9% 순으로 나타났다.

<표 V-95> 조사 대상의 가구현황: 연령대 구분

(15-24세 n=416, 25-29세 n=205, 30세이상 n=101)

구분		연령대 구분: n(%)			$\chi^2(df)$
		15세-24세	25세-29세	30세 이상	
가구주 여부	예	148(35.6)	84(41.0)	83(82.2)	72.581(2)***
	아니오	268(64.4)	121(59.0)	18(17.8)	
혼인상태	미혼	399(95.9)	175(85.4)	25(24.8)	311.161(12)***
	기혼	9(2.2)	14(6.8)	37(36.6)	
	별거	1(0.2)	0(0.0)	0(0.0)	
	사별	0(0.0)	0(0.0)	2(2.0)	
	이혼	3(0.7)	14(6.8)	35(34.7)	
	사실혼(동거)	1(0.2)	1(0.5)	1(1.0)	
	기타	3(0.7)	1(0.5)	1(1.0)	

동거가족	독거	77(18.8)	40(19.7)	8(7.9)	—
	배우자	10(2.4)	13(6.4)	39(38.6)	
	부	113(27.6)	38(18.7)	5(5.0)	
	모	207(50.6)	92(45.3)	15(14.9)	
	자녀	20(4.9)	39(19.2)	83(82.2)	
	조부모	53(13.0)	10(4.9)	1(1.0)	
	형제자매	196(47.9)	77(37.9)	6(5.9)	
	친인척	21(5.1)	6(3.0)	1(1.0)	

*p < .05, **p < .01, ***p < .001

동거 가구원 수는 15세-24세인 경우 2.87명, 25세-29세인 경우 2.61명, 30세 이상인 경우 3.32명으로 나타나 30세 이상의 동거 가구원 수가 다른 집단에 비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V-96> 조사 대상의 동거 가구원 수: 연령대 구분

(15-24세 n=416, 25-29세 n=205, 30세이상 n=101, 단위:명)

구분	연령대 구분: m(sd)			F (Scheffe)
	15세-24세(A)	25세-29세(B)	30세 이상(C)	
동거 가구원 수	2.87(1.61)	2.61(1.32)	3.32(1.46)	7.304** (C>A,B)

*p < .05, **p < .01, ***p < .001

(2) 근로 현황 및 근로에 대한 생각과 태도

연령에 따른 근로형태에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25세-29세의 경우 다른 집단에 비해 상용근로자의 비율(34.6%)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15세-24세의 경우 다른 집단에 비해 임시직근로자의 비율(31.5%)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30세 이상의 경우 일용직근로자의 비율(26.7%)과 고용주/자영업자의 비율(12.9%)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직종의 경우 모든 연령대에서 서비스종사자의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으나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 사무종사자의 비율은 25세-29세가 다른 연령 집단에 비해, 판매종사자와 단순노무종사자의 비율은 30세 이상이 다른 연령 집단에 비해, 실업자/비경제활동인구의 비율은 15세-24세가 다른 연령 집단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15세-24세의 전일제 근로비율은 33.7%, 25세-29세는 40.5%, 30세 이상은 38.6%로 나타났다.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속적으로 근로 가능하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은 15세-24세가 다른 연령집단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회사 사정에 따라 해고 가능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30세 이상이 다른 연령집단에 비해 높았다.

<표 V-97> 조사 대상의 근로 현황: 연령대 구분

(15-24세 n=416, 25-29세 n=205, 30세이상 n=101)

구분		연령대 구분: n(%)			$\chi^2(df)$
		15세-24세	25세-29세	30세 이상	
근로형태	상용근로자	126(30.3)	71(34.6)	21(20.8)	79.651(14)***
	임시직근로자	131(31.5)	58(28.3)	28(27.7)	
	일용직근로자	52(12.5)	37(18.0)	27(26.7)	
	자활/공공근로	11(2.6)	2(1.0)	5(5.0)	
	고용주/자영업자	7(1.7)	4(2.0)	13(12.9)	
	무급가족종사자	1(0.2)	2(1.0)	3(3.0)	
	실업자	19(4.6)	13(6.3)	2(2.0)	
	비경제활동인구	69(16.6)	18(8.8)	2(2.0)	
직종	관리자	5(1.2)	3(1.5)	2(2.0)	56.655(18)***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	47(11.3)	34(16.6)	11(10.9)	
	사무종사자	40(9.6)	30(14.6)	11(10.9)	
	서비스종사자	180(43.3)	77(37.6)	37(36.6)	
	판매종사자	25(6.0)	11(5.4)	13(12.9)	
	농림어업숙련종사자	4(1.0)	2(1.0)	3(3.0)	
	기능원 및 관련기능종사자	4(1.0)	6(2.9)	2(2.0)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	18(4.3)	4(2.0)	3(3.0)	
	단순노무종사자	17(4.1)	17(8.3)	16(15.8)	
	실업자/비경제활동인구	76(18.3)	21(10.2)	3(3.0)	
근로시간 형태	전일제	140(33.7)	83(40.5)	39(38.6)	3.049(2)
	시간제	276(66.3)	122(59.5)	62(61.4)	
근로 지속 가능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속적 근로 가능	323(77.6)	142(69.3)	66(65.3)	9.009(2)*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회사 사정에 따라 해고 가능	93(22.4)	63(30.7)	35(34.7)	

*p < .05, **p < .01, ***p < .001

연령대에 따라 근로에 대한 생각과 태도에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였으며, 고용희망 및 고용장벽의 전체 평균값 및 일부 하위변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고용희망은 연령대에 따른 3개 집단 간 평균에 차이가 있었다. 사후분석 결과 25-29세 집단과 30세 이상 집단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25-29세 집단의 고용희망이 30세 이상 보다 높았다.

가장 통계적 유의가 높은 하위변인은 ‘목적지향’이었으며, 15-24세 집단과 30세 이상 집단, 25-29세 집단과 30세 이상 집단이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모두 연령이 낮은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목적지향’의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5-24세 집단과 25-29세 집단은 보통 보다 높은 목적지향을 보인 반면, 30세 이상 집단은 보통 정도의 목적 지향을 나타내었다.

이외에도 ‘미래의 나의 모습에 대한 동기부여’는 25-29세 집단과 30세 이상 집단에서 차이가 있었고, 해당 값 역시 연령이 상대적으로 낮은 집단이 보통 보다 약간 높은 수준의 동기부여를 보이고 있었다.

고용장벽은 연령대가 높은 집단일수록 점수가 높아, 나이가 많은 사업참여자일수록 고용장벽을 높게 여기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통계적 유의도를 보인 하위변인 가운데 ‘건강 관련’ 고용장벽은 15-24세 집단과 30세 이상 집단 간 평균값의 차이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30세 이상 집단에서 건강 관련 고용장벽의 값이 상대적으로 컸다.

<표V-98> 근로에 대한 생각과 태도: 연령대 구분

(15-24세 n=416, 25-29세 n=205, 30세이상 n=101)

구분		연령대 구분: m(sd)			F (Scheffe)
		15-24세 (A)	25-29세 (B)	30세 이상 (C)	
고용 희망	전체	3.63(0.69)	3.71(0.63)	3.48(0.69)	3.936* (B>C)
	스스로의 가치와 역량에 대한 인지	3.53(0.70)	3.62(0.68)	3.47(0.74)	1.748
	미래의 나의 모습에 대한 동기부여	3.70(0.77)	3.77(0.76)	3.50(0.79)	4.382* (B>C)
	목적지향	3.71(0.78)	3.76(0.77)	3.46(0.80)	5.491** (A,B>C)
	기술과 자원 사용	3.61(0.85)	3.72(0.75)	3.49(0.86)	2.709
고용 장벽	전체	2.70(0.69)	2.82(0.71)	2.86(0.67)	3.138*
	인적자본 및 자원 부족	3.23(0.79)	3.28(0.80)	3.29(0.75)	0.417
	삶에 대한 대한 통제력 부족	2.39(0.85)	2.49(0.91)	2.49(0.87)	1.192
	가족 관련	2.46(1.03)	2.67(1.10)	2.67(0.95)	3.579*
	건강 관련	2.66(1.16)	2.80(1.13)	3.05(1.02)	5.260** (C>A)

*p < .05, **p < .01, ***p < .001

(3) 경제적 상황 및 경제적 상황에 대한 인식

① 소득·저축·부채

근로소득은 15세-24세의 경우 약 100만원, 25세-29세의 경우 약 115만원, 30세 이상의 경우 약 97만원인 것으로 나타나, 25세-29세 집단이 15세-24세 집단과 비교하여 더 많은 근로소득을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공적이전소득은 15세-24세가 약 30만원, 25세-29세가 약 38만원, 30세 이상이 약 52만원으로 30세 이상이 15세-24세 집단에 비해 더 많은 공적이전소득을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V-99> 지난 3개월 동안의 월평균 소득: 연령대 구분

(15-24세 n=416, 25-29세 n=205, 30세이상 n=101, 단위:만원)

구분	연령대 구분: m(sd)			F (Scheffe)
	15세-24세(A)	25세-29세(B)	30세 이상(C)	
근로소득	100.01(68.93)	115.21(69.32)	97.30(53.58)	4.084* (B>A)
공적이전소득	30.01(49.11)	37.87(64.86)	51.50(63.54)	6.271** (C>A)
사적이전소득	18.58(52.83)	19.60(51.77)	25.44(46.20)	0.719

*p < .05, **p < .01, ***p < .001

저축액은 15세-24세의 경우 약 20만원, 25세-29세의 경우 약 21만원, 30세 이상의 경우 약 19만원으로 나타났다. 개인 부채의 경우 연령에 따른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15세-24세의 경우 약 289만원, 25세-29세의 경우 약 822만원, 30세 이상의 경우 약 1,556만원의 부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연령이 높을수록 부채액 역시 높았다.

개인 부채에 따른 월상환액은 15세-24세의 경우 약 9만원, 25세-29세의 경우 약 33만원, 30세 이상의 경우 약 32만원 인 것으로 나타나 30세 이상의 월상환액이 15세-24세의 월상환액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도로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V-100> 조사 대상의 저축 및 부채 현황: 연령대 구분

(15-24세 n=416, 25-29세 n=205, 30세이상 n=101, 단위:만원)

구분	연령대 구분: m(sd)			F (Scheffe)
	15세-24세(A)	25세-29세(B)	30세 이상(C)	
저축	20.45(31.94)	21.43(32.97)	19.48(35.11)	0.130
개인 부채	288.96(812.38)	821.82(1292.05)	1556.14(2433.99)	40.436*** (C>B>A)
개인 부채에 따른 월평균 상환액	8.79(31.90)	13.97(31.16)	22.22(26.56)	8.115*** (C>A)

*p < .05, **p < .01, ***p < .001

한편, 저축액과 개인부채가 없다고 응답한 조사 대상의 응답을 제외한 저축액

은 15세-24세의 경우 약 32만원, 25세-29세의 경우 약 33만원, 30세 이상의 경우 약 32만원인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개인 부채는 15세-24세 약 813만원, 25세-29세 약 1,412만원, 30세 이상 약 2,272만원 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V-101> 조사 대상의 저축 및 부채 현황(없음 제외): 연령대 구분

(15-24세 n=416, 25-29세 n=205, 30세이상 n=101, 단위:만원)

구분	연령대 구분: m(sd)			F (Scheffe)
	15세-24세(A)	25세-29세(B)	30세 이상(C)	
저축(없음 제외)	32.39(35.08)	32.78(35.95)	31.73(40.33)	0.018
개인 부채 (없음 제외)	812.70(1198.29)	1412.04(1427.68)	2272.46(2653.55)	17.282*** (C>B>A)

*p < .05, **p < .01, ***p < .001

개인 부채에 대한 주요 이유를 조사한 결과, 30세 이상의 경우 가족의 경제적 지원, 생활비, 주택보증금 마련을 이유로 부채가 발생한 경우가 다른 연령집단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25세-29세의 경우 다른 연령집단에 비해 학자금 지출에 의해 부채가 발생한 경우가 다른 연령집단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V-102> 조사 대상의 주요 부채 이유: 연령대 구분

(15-24세 n=416, 25-29세 n=205, 30세이상 n=101)

구분	연령대 구분: n(%)			$\chi^2(df)$
	15세-24세	25세-29세	30세 이상	
가족을 경제적으로 돕느라	26(6.3)	20(9.8)	12(11.9)	117.350(14)***
생활비가 많이 들어서	44(10.6)	32(15.6)	36(35.6)	
학자금 지출	69(16.6)	58(28.3)	8(7.9)	
결혼자금	0(0.0)	1(0.5)	0(0.0)	
사업자금 지출	4(1.0)	6(2.9)	3(3.0)	
주택보증금 마련	9(2.2)	8(3.9)	12(11.9)	
해당없음(부채없음)	257(61.8)	73(35.6)	25(24.8)	
기타	7(1.7)	7(3.4)	5(5.0)	

*p < .05, **p < .01, ***p < .001

② 수급현황

가구 수급기간은 15세-24세인 경우 9.15년(109.87개월), 25세-29세 8.89

년(106.65개월), 30세 이상 5.79년(69.52개월)으로 나타나 30세 이상의 가구 수급기간이 다른 연령 집단에 비해 짧았다.

<표 V-103>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기간(가구): 연령대 구분

(15-24세 n=416, 25-29세 n=205, 30세이상 n=101, 단위:개월)

구분	연령대 구분: m(sd)			F (Scheffe)
	15세-24세(A)	25세-29세(B)	30세 이상(C)	
가구 수급기간(개월)	109.87(102.09)	106.65(88.60)	69.52(51.31)	7.867*** (A,B>C)

*p < .05, **p < .01, ***p < .001

각 연령집단 별 수급급여 종류는 15세-24세의 경우 생계급여 72.4%, 의료급여 59.9%, 주거급여 39.7%, 교육급여 11.8%를 수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5세-29세의 경우 생계급여 62.4%, 의료급여 60.4%, 주거급여 48.3%, 교육급여 14.1%를 수급하고 있는 것으로, 30세 이상의 경우 생계급여 71.3%, 의료급여 75.2%, 주거급여 57.4%, 교육급여 39.6%를 수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V-104>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현황: 연령대 구분

(15-24세 n=416, 25-29세 n=205, 30세이상 n=101)

구분		연령대 구분: n(%)		
		15세-24세	25세-29세	30세 이상
수급 급여 종류 (중복응답)	생계급여	301(72.4)	128(62.4)	72(71.3)
	의료급여	249(59.9)	124(60.5)	76(75.2)
	주거급여	165(39.7)	99(48.3)	58(57.4)
	교육급여	49(11.8)	29(14.1)	40(39.6)
	해산급여	5(1.2)	2(1.0)	1(1.0)
	자활급여	17(4.1)	9(4.4)	8(7.9)

③ 소비현황 - 생활비 지출

총생활비는 15세-24세 약 85만원, 25세-29세 약 94만원, 30세 이상 약 117만원으로 나타나 30세 이상의 생활비 지출이 다른 연령집단에 비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 생활비를 항목별로 살펴볼 경우 15세-24세는 식료품비를 약 26만원, 25세-29세는 약 31만원, 30세 이상은 약 39만원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주거비는 15세-24세 약 13만원, 25세-29세 약 16만원, 30세 이상 약 22만원, 가구집기비는 15세-24세와 25세-29세는 약 3만원, 30세 이상은 약 5만원을 지출하고 있는 거스로 조사되었다. 피복신발비는 15세-24세 약 7만원, 25세-29세 약 6만원, 30세 이상 약 10만원을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교양오락비는 15세-24세 약 5만원, 25세-29세 약 6만원, 30세 이상 약 3만원을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해보면, 가정의 생계를 위한 생활비 항목(식료품비, 주거비, 가구집기비, 피복신발비)의 경우 30세 이상이 다른 연령집단에 비해 많은 금액을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교양오락비의 경우 25세-29세가 다른 연령 집단에 비해 많은 금액을 지출하고 있었다.

<표V-105> 조사 대상의 월평균 생활비: 연령대 구분

(15-24세 n=416, 25-29세 n=205, 30세이상 n=101, 단위:만원)

구분	연령대 구분: m(sd)			F (Scheffe)
	15세-24세(A)	25세-29세(B)	30세 이상(C)	
총생활비	85.18(55.78)	93.79(50.95)	116.65(73.26)	11.127*** (C>A,B)
식료품비	25.57(17.83)	31.16(27.27)	38.64(31.63)	14.091*** (C>A,B)
주거비	13.00(15.81)	16.23(17.21)	21.77(19.43)	11.371*** (C>A,B)
광열수도비	3.21(5.69)	3.52(4.79)	4.48(5.73)	1.960
가구집기비	2.73(6.32)	2.74(4.47)	5.25(8.26)	6.063** (C>A,B)
피복신발비	6.90(8.97)	6.48(7.13)	9.85(10.84)	4.927** (C>A,B)
보건의료비	5.40(12.42)	6.13(17.40)	8.07(14.06)	1.323
교육비	9.52(32.79)	12.08(42.19)	18.25(28.07)	2.316
교양오락비	4.90(6.64)	6.11(10.58)	3.43(5.07)	3.349* (B>C)
교통통신비	11.77(10.17)	13.50(19.73)	14.03(14.09)	1.600
기타생활비	10.38(14.32)	13.05(19.55)	14.54(25.03)	2.587
비소비	3.68(11.28)	3.72(10.28)	3.70(11.85)	0.001

*p < .05, **p < .01, ***p < .001

조사 대상의 부담지출 순위는 15세-24세의 경우 식료품비 42.3%, 주거비 22.4%, 교통통신비 14.2% 순으로 나타났으며, 25세-29세의 경우 식료품비 48.3%, 주거비 27.3%, 교통통신비 8.8% 순으로 나타났다. 30세 이상의 경우 식료품비 52.5%, 주거비 19.8%, 교육비 8.9% 순으로 나타났다.

<표 V-106> 조사대상의 부담지출 순위: 연령대 구분

(15-24세 n=416, 25-29세 n=205, 30세이상 n=101)

구분	연령대 구분: n(%)			$\chi^2(df)$
	15세-24세	25세-29세	30세 이상	
식료품비	176(42.3)	99(48.3)	53(52.5)	17.891(20)
주거비	93(22.4)	56(27.3)	20(19.8)	
광열수도비	1(0.2)	0(0.0)	0(0.0)	
가구집기비	3(0.7)	1(0.5)	0(0.0)	
피복신발비	9(2.2)	3(1.5)	3(3.0)	
보건의료비	19(4.6)	5(2.4)	2(2.0)	
교육비	30(7.2)	13(6.3)	9(8.9)	
교양오락비	4(1.0)	2(1.0)	1(1.0)	
교통통신비	59(14.2)	18(8.8)	7(6.9)	
기타소비(일상소모품)	19(4.6)	6(2.9)	4(4.0)	
비소비	3(0.7)	2(1.0)	2(2.0)	

*p < .05, **p < .01, ***p < .001

④ 경제적 부담과 상황에 대한 인지

개인 부채 부담 정도는 15세-24세가 3.06점, 25세-29세가 4.84점, 30세 이상이 6.01점으로 나타나 연령이 높아질수록 개인 부채에 대해서도 더 많은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가족 부양 부담정도 역시 15세-24세 4.41점, 25세-29세 5.31점, 30세 이상 6.51점으로 나타나 연령이 높아질수록 가족 부양에 더 많은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V-107> 개인 부채 및 가족 부양 부담 정도: 연령대 구분

(15-24세 n=416, 25-29세 n=205, 30세이상 n=101, 단위:만원)

구분	연령대 구분: m(sd)			F (Scheffe)
	15세-24세(A)	25세-29세(B)	30세 이상(C)	
부채부담정도	3.06(3.60)	4.84(3.85)	6.01(3.70)	33.832*** (C>B>A)
가족부양부담정도	4.41(3.29)	5.31(3.31)	6.51(2.78)	18.899*** (C>B>A)

*p < .05, **p < .01, ***p < .001

자신의 미래 경제상황에 대한 전망은 15세-24세 4.42점, 25세-29세 4.66점, 30세 이상 4.20점으로 나타났다.

<표 V-108> 미래 경제상황에 대한 전망: 연령대 구분

(15-24세 n=416, 25-29세 n=205, 30세이상 n=101, 단위:만원)

구분	연령대 구분: m(sd)			F (Scheffe)
	15세-24세(A)	25세-29세(B)	30세 이상(C)	
자신의 미래 경제상황에 대한 전망	4.42(2.46)	4.66(2.48)	4.20(2.46)	1.282

*p < .05, **p < .01, ***p < .001

경제적 상황에 대한 인식은 문항에 따라 연령대별 평균값의 편차가 크지 않았다. 저축인식에서 ‘나는 저축을 할 만한 여유가 없다’에 대해 연령대가 높은 집단일수록 보통 보다 높은 수준의 점수를 보여, 연령대가 높을수록 저축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음에도 실제 저축이 어려운 결과를 보였다.

경제적 여건은 대체로 연령대가 높을수록 돈 문제와 관련한 어려움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는데, 이는 연령대별로 기대되는 가정 내 역할의 차이가 있기 때문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경제적 여건의 총합을 확인한 결과, 15-24세와 30세이상 집단 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이는 상대적으로 연령이 높은 30세 이상 집단은 가정 내 주된 부양자로 경제적 부담과 스트레스가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특히 대출금 상환, 공과금, 세금 등의 생활비 부담이나

여윳돈, 비상금 등에 대한 점수가 보통 수준 보다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재무관리역량의 총합 역시 연령별 차이를 보였으며, 전반적으로 30세 이상의 재무관리역량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종합하면, 경제적 부담은 가장 높은 집단임에도 실질적인 재무적 역량은 낮아 경제적 취약성이 높은 집단이라고 볼 수 있다.

<표V-109> 경제적 상황에 대한 인식: 연령대 구분

(15-24세 n=416, 25-29세 n=205, 30세이상 n=101)

구분		연령대 구분: m(sd)			F (Scheffe)
		15-24세 (A)	25-29세 (B)	30세 이상(C)	
저축인식	저축인식(총합)	21.51 (3.59)	21.30 (3.57)	21.11 (3.41)	0.612
	저축은 매우 중요하다	4.24 (0.77)	4.20 (0.78)	4.21 (0.82)	0.150
	어떠한 상황에서도 저축은 반드시 해야 한다	3.70 (1.03)	3.68 (1.03)	3.80 (0.87)	0.548
	저축은 나의 미래를 변화시킬 수 있다	3.91 (0.91)	3.80 (0.93)	3.92 (0.93)	1.037
	예상하지 못한 지출에 대비하여 저축을 하려고 노력한다	3.68 (1.01)	3.67 (0.97)	3.47 (0.94)	2.029
	나는 저축을 할 만한 여유가 없다	3.62 (1.07)	3.79 (1.11)	3.98 (0.93)	5.284** (C>A)
	현재 받고 있는 정부의 지원을 잃을까 걱정이 되어 저축을 하지 않는다	2.39 (1.05)	2.26 (1.06)	2.31 (1.00)	1.219
경제적여건	경제적 여건(총합)	24.09 (5.86)	25.11 (5.82)	26.78 (5.14)	9.429*** (C>A)
	오늘 돈 문제로 인해 스트레스를 느낀다	3.92 (1.04)	3.93 (1.00)	3.97 (0.98)	0.096
	나의 재정 상태에 대한 만족도가 낮다	3.83 (0.99)	3.91 (0.98)	4.06 (0.88)	2.298
	자주 생활비 걱정을 한다	4.03 (0.96)	4.08 (0.95)	4.21 (0.84)	1.497
	여윳돈이나 비상금이 없어 심리적 긴장감이 크다	3.69 (1.11)	3.84 (1.04)	4.14 (0.84)	7.667** (C>A)
	공과금 및 세금 납부, 대출금 상환과 관련해 어려움이 크다	3.10 (1.26)	3.51 (1.19)	3.88 (0.88)	21.182*** (C>B>A)
	돈 문제로 인해 가정 내 갈등이 있다	3.17 (1.24)	3.28 (1.32)	3.47 (1.13)	2.432
	돈 문제로 인해 직장동료나 친구 등으로부터 상처를 받았다	2.36 (1.21)	2.57 (1.26)	3.06 (1.25)	13.451*** (C>A)

재무 관리 역량	재무관리역량(총합)	17.73 (3.51)	17.57 (3.51)	16.48 (3.58)	5.194** (A,B>C)
	매달 주거유지를 위한 충분한 돈을 가지고 있다	2.31 (0.74)	2.24 (0.71)	1.85 (0.61)	16.510*** (A,B>C)
	긴급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돈(약 100만원)이 준비되어 있다	2.05 (0.93)	2.08 (0.94)	1.95 (0.85)	0.657
	소비나 저축에 대하여 계획을 세운다	2.77 (0.73)	2.73 (0.72)	2.62 (0.79)	1.566
	계획소비나 저축을 하고 있다	2.60 (0.74)	2.57 (0.74)	2.43 (0.82)	2.325
	수입이 증가하면서 저축도 늘린다	2.74 (0.82)	2.71 (0.80)	2.47 (0.87)	4.646* (A,B>C)
	나의 자산현황을 잘 알고 있다	3.00 (0.65)	3.06 (0.67)	2.95 (0.77)	1.068
	향후 5-10년 사이에 발생할 지출에 대해 미리 생각하고 준비하고 있다	2.26 (0.83)	2.18 (0.86)	2.21 (0.77)	0.830

*p < .05, **p < .01, ***p < .001

(4) 주거 상황

① 주거지 유형 및 점유형태

연령에 따른 주택 유형에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15세-24세의 경우 일반단독주택(13.2%)과 연립주택(18.0%), 준주택(3.4%)에 거주하는 비율이 다른 연령집단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25세-29세의 경우 임대아파트(31.7%)에 거주하는 비율이 다른 연령집단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30세 이상의 경우 일반아파트에 거주하는 비율(22.8%)이 다른 연령집단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거위치의 경우 모든 연령층의 조사 대상 대부분이 지상층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거점유 형태의 경우 월세(15세-24세: 50.0%, 25세-29세: 54.1%, 30세 이상:58.4%)가 과반수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V-110> 조사 대상의 주거형태: 연령대 구분

(15-24세 n=416, 25-29세 n=205, 30세이상 n=101)

구분		연령대 구분: n(%)			$\chi^2(df)$
		15세-24세	25세-29세	30세 이상	
주택 유형	일반단독주택	55(13.2)	18(8.8)	13(12.9)	29.581(16)*
	다가구주택	79(19.0)	38(18.5)	17(16.8)	
	다세대주택	39(9.4)	15(7.3)	10(9.9)	
	연립주택	75(18.0)	34(16.6)	12(11.9)	
	일반아파트	49(11.8)	20(9.8)	23(22.8)	
	임대아파트	90(21.6)	65(31.7)	20(19.8)	
	비거주용 건물	1(0.2)	1(0.5)	2(2.0)	
	준주택	14(3.4)	6(2.9)	0(0.0)	
	기타	14(3.4)	8(3.9)	4(4.0)	
주거위치	지하층	1(0.2)	2(1.0)	1(1.0)	6.645(6)
	반지층	16(3.8)	8(3.9)	1(1.0)	
	지상층	397(95.4)	194(94.6)	97(96.0)	
	옥탑	2(0.5)	1(0.5)	2(2.0)	
주거점유형태	자가	37(8.9)	10(4.9)	6(5.9)	10.974(8)
	전세	110(26.4)	56(27.3)	24(23.8)	
	월세	208(50.0)	111(54.1)	59(58.4)	
	무상	19(4.6)	13(6.3)	8(7.9)	
	기타	42(10.1)	15(7.3)	4(4.0)	

*p < .05, **p < .01, ***p < .001

② 주거자산

평균 주택금액은 15세-24세의 경우 약 1,922만원, 25세-29세의 경우 2,530만원, 30세 이상의 경우 2,128만원으로 나타났으며 평균 월세금액은 15세-24세 19만원, 25세-29세 20만원, 30세 이상 23만원으로 나타났다.

평균 주택면적은 15세-24세 $40.31m^2$, 25세-29세는 $42.20m^2$, 30세 이상은 $44.76m^2$ 이었다.

<표V-111> 조사 대상의 주거자산: 연령대 구분

(15-24세 n=416, 25-29세 n=205, 30세이상 n=101, 단위:만원, m^2)

구분	연령대 구분: m(sd)			F
	15세-24세	25세-29세	30세 이상	
주택금액	1922.08(3496.90)	2529.91(4273.25)	2127.60(3843.67)	1.662
월세금액	19.12(18.47)	20.80(17.94)	22.65(17.29)	1.386
주택면적	40.31(30.79)	42.20(29.95)	44.76(26.98)	0.963

*p < .05, **p < .01, ***p < .001

(5) 진로에 대한 생각 및 진로행동

연령 집단별 예상 진로를 살펴본 결과 15세-24세의 경우 상급학교 진학, 편입학 등의 학업 관련 비율이 다른 연령집단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25세-29세의 경우 취업유지, 이직과 같은 근로와 관련한 비율이 다른 연령집단에 비해 높았다. 한편, 30세 이상의 경우 상대적으로 개인 사업 및 창업의 비율이 다른 연령집단에 비해 높았다.

<표V-112> 조사 대상의 예상 진로: 연령대 구분

(15-24세 n=416, 25-29세 n=205, 30세이상 n=101)

구분	연령대 구분: n(%)			$\chi^2(df)$
	15세-24세	25세-29세	30세 이상	
취업유지	212(51.0)	119(58.0)	54(53.5)	65.142(14)***
이직	48(11.5)	37(18.0)	12(11.9)	
상급학교 진학	20(4.8)	4(2.0)	0(0.0)	
편입학	17(4.1)	1(0.5)	0(0.0)	
개인 사업 및 창업	17(4.1)	14(6.8)	19(18.8)	
군입대	16(3.8)	4(2.0)	0(0.0)	
특별한 진로 계획 없음	58(13.9)	12(5.9)	14(13.9)	
기타	28(6.7)	14(6.8)	2(2.0)	

*p < .05, **p < .01, ***p < .001

진로행동은 15-24세 집단과 30세 이상 집단 간, 25-29세 집단과 30세 이상 집단 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모두 연령이 상대적으로 어린 집단의 진로행동값이 더 높았다.

<표 V-113> 진로행동 : 연령대 구분

(15-24세 n=416, 25-29세 n=205, 30세이상 n=101)

구분	연령대 구분: m(sd)			F (Scheffe)
	15-24세(A)	25-29세(B)	30세이상(C)	
진로행동(척도값 평균)	3.37(0.84)	3.35(0.85)	3.08(0.91)	4.940** (A,B>C)

*p < .05, **p < .01, ***p < .001

(6) 자아존중감 및 자신의 역량에 대한 평가

자아존중감과 투지, 회복탄력성의 통계적 유의는 나타나지 않았다. 최종행복 점수와 긍정정서는 15-24세 집단과 30세 이상 집단 간, 만족감은 15-24세 집단과 30세 이상 집단 간, 25-29세 집단과 30세 이상 집단 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연령이 어린 집단일수록 행복감과 만족감, 긍정정서의 점수가 더 높았다.

<표 V-114> 자아존중감 및 자신의 역량에 대한 평가: 연령대 구분

(15-24세 n=416, 25-29세 n=205, 30세이상 n=101)

구분		연령대 구분: m(sd)			F (Scheffe)
		15-24세(A)	25-29세(B)	30세이상(C)	
자아존중감(척도값 평균)		3.22(0.32)	3.24(0.34)	3.19(0.33)	0.701
행복지수	최종행복점수	13.52(8.45)	12.74(8.40)	10.64(8.25)	4.816** (A>C)
	만족감	13.57(3.68)	13.38(3.54)	11.92(3.68)	8.412*** (A,B>C)
	긍정정서	14.69(3.56)	14.24(3.75)	13.34(3.32)	6.023** (A>C)
	부정정서	14.74(3.31)	14.87(3.33)	14.61(3.22)	0.230
투지(척도값 평균)		3.18(0.65)	3.27(0.61)	3.24(0.59)	1.470
회복탄력성(총합)		4.92(1.78)	4.97(1.65)	5.10(1.62)	0.469

*p < .05, **p < .01, ***p < .001

(7) 사회적 자본과 사회활동 참여

사회적 자본에서는 네트워크와 규범의식에서 통계적인 차이를 보였다. 네트워크는 15-24세 집단과 25-29세 집단 간, 규범의식은 15-24세 집단과 30세 이상 집단 간, 25-29세 집단과 30세 이상 집단 간 통계적 차이가 나타났다. 네트워크와 규범의식 모두 연령이 더 어린 집단에서 높았다.

<표 V-115> 사회적 자본과 가족지지 : 연령대 구분

(15-24세 n=416, 25-29세 n=205, 30세이상 n=101)

구분		연령대 구분: m(sd)			F (Scheffe)
		15-24세 (A)	25-29세 (B)	30세이상 (C)	
사회적 자본	전체(척도값 평균)	2.87(0.50)	2.80(0.43)	2.77(0.52)	2.930
	신뢰	3.26(0.68)	3.24(0.65)	3.15(0.61)	1.041
	네트워크	2.68(0.78)	2.51(0.71)	2.58(0.75)	3.716* (A>B)
	사회참여	1.83(0.75)	1.72(0.69)	1.91(0.75)	2.667
	규범의식	4.01(0.67)	4.02(0.71)	3.68(0.73)	10.143*** (B,A>C)
가족지지		3.26(1.06)	3.25(1.00)	3.38(0.87)	0.600

*p < .05, **p < .01, ***p < .001

지난 1년 동안의 사회참여 정도를 확인한 결과, 여가활동과 친목모임, 정당(정치) 관련 모임에서 집단 간 차이가 나타났다. 여가활동과 친목모임 모두 15-24세 집단과 30세 이상 집단 간, 25-29세 집단과 30세 이상 집단 간 차이가 나타났으며, 연령이 어릴수록 여가활동과 친목모임의 참가율이 높았다. 정당(정치) 관련 모임은 25-29세와 30세 이상 집단 간의 차이가 나타났으며 30세 이상의 참여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V-116> 지난 1년 동안 사회참여 정도 : 연령대 구분

(15-24세 n=416, 25-29세 n=205, 30세이상 n=101)

구분	연령대 구분: m(sd)			F (Scheffe)
	15-24세(A)	25-29세(B)	30세이상(C)	
종교활동	12.40(40.21)	9.73(27.60)	16.19(36.73)	1.076
여가활동	31.77(61.99)	31.05(66.97)	12.68(28.77)	4.290* (A,B>C)
친목모임	21.20(29.77)	17.99(29.35)	7.75(17.40)	9.242*** (A,B>C)
정당, 정치 관련 모임	0.21(1.49)	0.10(1.01)	0.82(5.40)	3.387* (C>B)
자선단체, 자원봉사활동 단체	2.31(7.73)	1.59(6.34)	2.34(7.48)	0.723
기타시민단체	0.56(4.14)	0.05(0.40)	1.07(5.54)	2.630

*p < .05, **p < .01, ***p < .001

(8) 사회의 소득불평등 수준

소득불평등 수준에 대한 인식은 15-24세 집단과 30세 이상 집단 간에 차이가 있었다. 즉, 연령이 어릴수록 사회의 소득불평등 인식이 더 높았다. 그러나 연령대와 관계 없이 전반적으로 사회의 소득불평등 수준이 높았다.

<표V-117> 사회의 소득불평등 인식 : 연령대 구분

(15-24세 n=416, 25-29세 n=205, 30세이상 n=101)

구분	연령대 구분: m(sd)			F (Scheffe)
	15-24세(A)	25-29세(B)	30세이상(C)	
소득불평등 인식 (척도값 평균)	3.14(2.12)	3.23(2.20)	3.75(2.41)	3.185* (C>A)

*p < .05, **p < .01, ***p < .001

(9)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 및 사업에 대한 생각

청년희망키움통장 월 자유납입금액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으나, 연령대가 높을수록 납입액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표 V-118> 청년희망키움통장 월 자유납입금액 : 연령대 구분

(15-24세 n=416, 25-29세 n=205, 30세이상 n=101, 단위:만원)

구분	연령대 구분: m(sd)			F
	15-24세	25-29세	30세이상	
월 자유납입금액	5.34(11.88)	5.05(10.99)	4.40(15.44)	0.248

*p < .05, **p < .01, ***p < .001

희망키움통장에 대한 사업만족도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으며, 전반적으로 보통에서 보통 보다 약간 높은 수준의 만족을 보였다. 또한 상대적으로 연령이 낮은 집단에서 만족도가 더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V-119> 청년희망키움통장 사업만족도 : 연령대 구분

(15-24세 n=416, 25-29세 n=205, 30세이상 n=101)

구분	연령대 구분: m(sd)			F
	15-24세	25-29세	30세이상	
지원 금액(월 10만원)의 수준	3.79(0.96)	3.77(0.85)	3.66(0.98)	0.734
사업과 관련된 소식이나 정보 제공	3.15(0.99)	2.98(0.90)	3.01(0.91)	2.524
사업에 참여하고 유지하기 위한 행정적 절차	3.33(0.92)	3.29(0.89)	3.21(0.88)	0.798
청년희망키움통장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	3.67(0.92)	3.62(0.85)	3.50(0.98)	1.533

*p < .05, **p < .01, ***p < .001

희망키움통장 사업 포기를 고려한 적이 없다는 응답이 절반 이상이었으며, 포기하려고 한 적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지속의 어려움’과 ‘탈수급에 대한 두려움’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이 낮은 집단일수록 ‘근로지속의 어려움’을, 상대적으로 연령이 높은 집단에서는 ‘탈수급에 대한 부담’이 더 컸다.

<표 V-120> 청년희망키움통장 사업 포기 고려 이유 : 연령대 구분

(15-24세 n=416, 25-29세 n=205, 30세이상 n=101)

구분	연령대 구분: n(%)			$\chi^2(df)$
	15-24세	25-29세	30세이상	
해당없음(포기하려고 한 적 없음)	235(56.5)	111(54.1)	52(51.5)	13.673(12)
근로지속의 어려움	87(20.9)	50(24.4)	17(16.8)	
행정적 불편함	10(2.4)	5(2.4)	4(4.0)	
가족의 반대	2(0.5)	0(0.0)	0(0.0)	
탈수급에 대한 두려움	61(14.7)	27(13.2)	21(20.8)	
다른 통장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0(0.0)	0(0.0)	1(1.0)	
기타	21(5.0)	12(5.9)	6(5.9)	

*p < .05, **p < .01, ***p < .001

사업의 개선점은 모든 집단에서 ‘탈수급 조건 완화, 폐지 등 수급 조건 완화’라고 응답한 사람이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저축금액 다양화’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15-24세나 25-29세 집단은 ‘가족 중복참여 허용’에 대한 개선점도 약 20% 정도의 비율을 보였으나, 30세 이상 집단에서는 ‘탈수급 조건완화’와 ‘저축금액 다양화’ 응답 비율이 전체의 80%를 차지하여 이 2가지에 대한 개선 욕구가 가장 높았다.

<표 V-121> 청년희망키움통장 사업 개선점 : 연령대 구분

(15-24세 n=416, 25-29세 n=205, 30세이상 n=101)

구분		연령대 구분: n(%)			$\chi^2(df)$
		15-24세	25-29세	30세이상	
1순위	저축금액 다양화	98(23.6)	52(25.4)	31(30.7)	16.879(10)
	탈수급 조건 완화, 폐지 등 수급 조건 완화	181(43.5)	85(41.5)	50(49.5)	
	행정 절차의 편의성 강화	27(6.5)	15(7.3)	7(6.9)	
	가족 중복참여 허용	80(19.2)	39(19.0)	8(7.9)	
	부가 서비스 및 프로그램 강화	21(5.0)	4(2.0)	2(2.0)	
	기타	9(2.2)	10(4.9)	3(3.0)	

*p < .05, **p < .01, ***p < .001

카이제곱 검정 결과, 청년희망키움통장 사업과 함께 받고 싶은 서비스 및 프로그램은 연령대와 관련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후원금/물품’에 대한 지원 욕

구가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15-24세 집단은 ‘문화여가’를, 25-29세 집단과 30세 이상 집단은 ‘주거개선’ 욕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다른 연령대와 달리 30세 이상 집단에서는 ‘가족상담/가족교육’ 욕구도 비교적 높았다.

<표 V-122> 청년희망키움통장 사업과 함께 받고 싶은 서비스 및 프로그램 : 연령대 구분

(15-24세 n=416, 25-29세 n=205, 30세이상 n=101)

구분		연령대 구분: n(%)			$\chi^2(df)$
		15-24세	25-29세	30세이상	
1순위	가족상담/가족교육	22(5.3)	11(5.4)	12(11.9)	46.639(24)**
	문화여가	65(15.6)	27(13.2)	11(10.9)	
	후원금/물품	108(26.0)	54(26.3)	23(22.8)	
	심리상담	23(5.5)	11(5.4)	5(5.0)	
	양육교육	0(0.0)	4(2.0)	6(5.9)	
	의료지원	24(5.8)	10(4.9)	8(7.9)	
	직업교육/훈련	35(8.4)	17(8.3)	3(3.0)	
	자격증취득교육	52(12.5)	19(9.3)	9(8.9)	
	주거개선	47(11.3)	31(15.1)	13(12.9)	
	창업교육	16(3.8)	2(1.0)	2(2.0)	
	재무상담/재무컨설팅	11(2.6)	11(5.4)	3(3.0)	
	금융교육	8(1.9)	6(2.9)	4(4.0)	
	기타	5(1.2)	2(1.0)	2(2.0)	

*p < .05, **p < .01, ***p < .001

지원금 수령시 사용 계획 역시 연령대와 관련이 있음이 확인되었다. 15-24세 집단은 주로 ‘주택마련’과 ‘미래생활 대비’, ‘교육비’ 활용에, 25-29세 집단은 ‘주택마련’, ‘미래생활 대비’, ‘부채상환’에, 30세 이상 집단은 ‘주택마련’과 ‘부채상환’, ‘교육비 활용’을 예정하고 있었다.

<표 V-123> 청년희망키움통장 사업 지원금 수령시 사용 계획 : 연령대 구분

(15-24세 n=416, 25-29세 n=205, 30세이상 n=101)

구분		연령대 구분: n(%)			$\chi^2(df)$
		15-24세	25-29세	30세이상	
1순위	교육비(본인 및 가족)	52(12.5)	25(12.2)	21(20.8)	43.585(20)**
	주택마련(전세금 포함)	141(33.9)	67(32.7)	40(39.6)	
	결혼, 상제비	26(6.3)	15(7.3)	0(0.0)	
	미래생활 대비(저축)	105(25.2)	42(20.5)	9(8.9)	
	사업(투자) 자금 마련(창업 포함)	24(5.8)	10(4.9)	7(6.9)	
	자동차, 가구, 가전 등 내구재 구입비	15(3.6)	4(2.0)	1(1.0)	
	불의의 사고 및 질병 대비	8(1.9)	2(1.0)	4(4.0)	
	여행 및 여가생활	5(1.2)	1(0.5)	0(0.0)	
	부채 상환	37(8.9)	37(18.0)	18(17.8)	
	특별한 목적이 없음	1(0.2)	0(0.0)	0(0.0)	
	기타	2(0.5)	2(1.0)	1(1.0)	

*p < .05, **p < .01, ***p < .001

5) 가구주 구분에 따른 집단 비교

(1) 일반적 현황 및 가구현황

가구주인 경우 남성이 38.1%, 여성이 61.9%로 조사되었으며, 거주지역은 중소도시 51.4%, 대도시 40.3%, 농어촌 8.3%로 조사되었다.

가구주의 경우 대학(2년제, 4년제) 졸업 비율이 38.1%로 조사된 반면, 가구주가 아닌 경우 대학 졸업 비율이 48.7%로 나타났다. 특히 대학교(4년제)졸업자 중 가구주의 비율이 20.3%, 가구주가 아닌 비율이 29.5%로 나타났다. 즉, 가구주의 경우가 가구주가 아닌 경우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학력이 낮았다.

한편, 가구주의 경우 경증(4~6급), 중증(1~3급), 비등록장애인을 포함한 장애 비율이 11.1%로 조사된 반면 가구주가 아닌 경우 5.1%가 장애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중증(1~3급), 비등록장애인의 비율 가구주인 경우가 가구주가 아닌 경우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종교가 있는 비율은 가구주인 경우는 33.7%, 가구주가 아닌 경우는 34.2%로 조사되었으며, 자격증이 있는 비율은 가구주인 경우 74.0%, 가구주가 아닌 경우 70.5%로 조사되었다.

<표 V-124> 조사 대상의 일반현황: 가구주 구분

(가구주 n=315, 가구원 n=407)

구분		가구주 구분: n(%)		$\chi^2(df)$
		가구주	가구원	
성별	남성	120(38.1)	149(36.6)	0.168(1)
	여성	195(61.9)	258(63.4)	
거주지역 (n=722)	대도시	127(40.3)	193(47.5)	3.862(2)
	중소도시	162(51.4)	181(44.6)	
	농어촌	26(8.3)	32(7.9)	
학력	초등학교	2(0.6)	0(0.0)	33.558(5)***
	중학교	28(8.9)	5(1.2)	
	고등학교	162(51.4)	195(47.9)	
	대학(2년제)	56(17.8)	78(19.2)	
	대학교(4년제)	64(20.3)	120(29.5)	
	대학원 이상	3(1.0)	9(2.2)	

장애	장애 없음	280(88.9)	386(94.8)	10.863(3)*
	경증(4~6급)	5(1.6)	4(1.0)	
	중증(1~3급)	13(4.1)	11(2.7)	
	비등록장애인	17(5.4)	6(1.5)	
종교 유무	있음	106(33.7)	139(34.2)	0.020(1)
	없음	209(66.3)	268(65.8)	
자격증 보유 여부	있음	233(74.0)	287(70.5)	1.050(1)
	없음	82(26.0)	120(29.5)	

*p < .05, **p < .01, ***p < .001

주관적 건강상태는 가구주가 5.31점, 가구주가 아닌 경우 5.76점으로 나타나 가구주가 아닌 경우 주관적 건강상태가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V-125> 조사 대상의 주관적 건강상태: 가구주 구분

(가구주 n=315, 가구원 n=407)

구분	가구주 구분: m(sd)		t - test
	가구주	가구원	
주관적 건강상태	5.31(2.50)	5.76(2.50)	-2.378**

*p < .05, **p < .01, ***p < .001

혼인 상태의 경우 가구주의 15.2%가 기혼과 이혼으로 조사된 반면 가구주가 아닌 경우 기혼의 비율은 2.9%, 이혼의 비율은 1.0%로 조사되어 가구주인 경우 기혼과 이혼의 비율이 가구주가 아닌 경우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가구주의 경우 자녀와 함께 거주하는 비율이 37.9%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가구주가 아닌 경우 모와 함께 거주하는 비율이 63.4%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V-126> 조사 대상의 가구현황: 가구주 구분

(가구주 n=315, 가구원 n=407)

구분		가구주 구분: n(%)		$\chi^2(df)$
		가구주	가구원	
혼인상태	미혼	213(67.6)	386(94.8)	104.977(6)***
	기혼	48(15.2)	12(2.9)	
	별거	1(0.3)	0(0.0)	
	사별	2(0.6)	0(0.0)	
	이혼	48(15.2)	4(1.0)	
	사실혼(동거)	0(0.0)	3(0.7)	
	기타	3(1.0)	2(0.5)	
동거가족	독거	83(26.4)	42(10.5)	—
	배우자	48(15.3)	14(3.5)	
	부	38(12.1)	118(29.6)	
	모	61(19.4)	253(63.4)	
	자녀	119(37.9)	23(5.8)	
	조부모	19(6.1)	45(11.3)	
	형제자매	79(25.2)	200(50.1)	
	친인척	6(1.9)	22(5.5)	

*p < .05, **p < .01, ***p < .001

동거 가구원 수는 가구주인 경우 평균 2.61명, 가구주가 아닌 경우 평균 3.05명으로 조사되어 가구주가 아닌 경우 동거 가구원 수가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V-127> 조사 대상의 동거 가구원 수: 가구주 구분

(가구주 n=315, 가구원 n=407, 단위:명)

구분	가구주 구분: m(sd)		t - test
	가구주	가구원	
동거 가구원 수	2.61(1.48)	3.05(1.54)	-3.847***

*p < .05, **p < .01, ***p < .001

(2) 근로 현황 및 근로에 대한 생각과 태도

근로형태에서 가구주와 가구주가 아닌 경우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가구주인 경우 상용근로자의 비율이 31.7%로 가장 높았던 반면, 가구주가 아닌 경우는 임시직근로자의 비율이 31.4%로 가장 높았다.

직종의 경우 가구주와 가구주가 아닌 경우 모두 서비스종사자의 비율(가구주

40.6%, 가구원 40.8%)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다음으로 사무종사자(가구주 12.1%, 가구원 10.6%)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실업자/비경제활동의 비율은 가구주가 아닌 경우가 17.0%, 가구주인 경우가 9.8%이었다.

근로시간 형태는 가구주와 가구주가 아닌 경우 모두 시간제 근로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가구주 62.5%, 가구원 64.6%), 근로 지속 가능성의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속적으로 근로 가능하다고 응답한 응답이 가구주인 경우 71.1%, 가구주가 아닌 경우 75.4%이었다.

<표V-128> 조사 대상의 근로 현황: 가구주 구분

(가구주 n=315, 가구원 n=407)

구분		가구주 구분: n(%)		$\chi^2(df)$
		가구주	가구원	
근로형태	상용근로자	100(31.7)	118(29.0)	24.082(7)**
	임시직근로자	89(28.3)	128(31.4)	
	일용직근로자	59(18.7)	57(14.0)	
	자활/공공근로	11(3.5)	7(1.7)	
	고용주/자영업자	17(5.4)	7(1.7)	
	무급가족종사자	3(1.0)	3(0.7)	
	실업자	12(3.8)	22(5.4)	
	비경제활동인구	24(7.6)	65(16.0)	
직종	관리자	5(1.6)	5(1.2)	16.484(9)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	37(11.7)	55(13.5)	
	사무종사자	38(12.1)	43(10.6)	
	서비스종사자	128(40.6)	166(40.8)	
	판매종사자	26(8.3)	23(5.7)	
	농림어업숙련종사자	3(1.0)	6(1.5)	
	기능원 및 관련기능종사자	5(1.6)	7(1.7)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	11(3.5)	14(3.4)	
	단순노무종사자	31(9.8)	19(4.7)	
	실업자/비경제활동인구	31(9.8)	69(17.0)	
근로시간 형태	전일제	118(37.5)	144(35.4)	0.332(1)
	시간제	197(62.5)	263(64.6)	
근로 지속 가능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속적 근로 가능	224(71.1)	307(75.4)	1.702(1)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회사 사정에 따라 해고 가능	91(28.9)	100(24.6)	

*p < .05, **p < .01, ***p < .001

고용희망은 전반적으로 가구원이 가구주보다 더 높았고, 가구원과 가구주 모두 보통 보다 높은 특히 ‘목적지향’과 ‘미래의 나의 모습에 대한 동기부여’ 모두 가구원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고용장벽에 대한 인식 수준은 전반적으로 가구주가 더 높게 나타났다. 특히, ‘가족 관련’과 ‘건강 관련’ 고용장벽이 유의하게 더 높았다.

<표 V-129> 근로에 대한 생각과 태도: 가구주 구분

(가구원 n=407, 가구주 n=315)

구분		가구주 구분: m(sd)		t - test
		가구주	가구원	
고용 희망	전체	3.57(0.70)	3.67(0.65)	2.010*
	스스로의 가치와 역량에 대한 인지	3.52(0.74)	3.57(0.72)	0.942
	미래의 나의 모습에 대한 동기부여	3.62(0.79)	3.75(0.76)	2.230*
	목적지향	3.60(0.81)	3.76(0.76)	2.806**
	기술과 자원 사용	3.57(0.85)	3.66(0.81)	1.341
고용 장벽	전체	2.84(0.74)	2.69(0.66)	-2.915**
	인적자본 및 자원 부족	3.30(0.79)	3.22(0.78)	-1.298
	삶에 대한 통제력 부족	2.47(0.91)	2.40(0.84)	-1.171
	가족 관련	2.72(1.09)	2.42(0.99)	-3.810***
	건강 관련	2.89(1.16)	2.65(1.11)	-2.811**

*p < .05, **p < .01, ***p < .001

(3) 경제적 상황 및 경제적 상황에 대한 인식

① 소득·저축·부채

3개월 동안의 월평균 근로소득은 가구주 약 110만원, 가구주가 아닌 경우 약 100만원으로 조사되어, 가구주인 경우 소득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공적이전소득은 가구주인 경우 약 41만원, 가구주가 아닌 경우 약 31만원으로 나타나 가구주의 공적이전소득이 가구주가 아닌 경우보다 더 높았다.

<표 V-130> 지난 3개월 동안의 월평균 소득: 가구주 구분

(가구주 n=315, 가구원 n=407, 단위:만원)

구분	가구주 구분: m(sd)		t - test
	가구주	가구원	
근로소득	109.62(64.93)	99.51(69.02)	2.015*
공적이전소득	40.71(54.79)	31.02(57.53)	2.290*
사적이전소득	23.05(51.11)	17.33(51.96)	1.475

*p < .05, **p < .01, ***p < .001

평균 월 저축액은 가구주 약 20만원, 가구주가 아닌 경우 약 21만원으로 조사되었으며, 개인 부채는 가구주 약 768만원, 가구주가 아닌 경우 약 481만원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개인부채에 따른 월평균 상환액의 경우 가구주가 약 16만원, 가구주가 아닌 경우 약 9만원으로 조사되어 가구주인 경우가 가구주가 아닌 경우보다 더 많은 금액을 부채를 상환하기 위해 지출하고 있었다.

<표 V-131> 조사 대상의 저축 및 부채 현황: 가구주 구분

(가구주 n=315, 가구원 n=407, 단위:만원)

구분	가구주 구분: m(sd)		t - test
	가구주	가구원	
저축	19.90(33.10)	21.12(32.34)	-0.499
개인 부채	768.32(1683.91)	481.56(1014.05)	-0.275
개인 부채에 따른 월평균 상환액	15.83(35.50)	9.30(27.33)	2.597*

*p < .05, **p < .01, ***p < .001

한편, 저축액과 개인 부채가 없다고 응답한 응답자의 응답을 제외한 저축과 개인부채의 평균값을 살펴보았을 때 가구주인 경우는 저축액이 약 32만원, 가구주가 아닌 경우 저축액은 약 33만원으로 비슷한 수준이었으나 개인부채는 가구주인 경우 약 1,563만원, 가구주가 아닌 경우 약 1,095만원 인 것으로 나타나 가구주의 개인 부채가 가구주가 아닌 경우보다 약 468만원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V-132> 조사 대상의 저축 및 부채 현황(없음 제외): 가구주 구분

(가구주 n=315, 가구원 n=407, 단위:만원)

구분	가구주 구분: m(sd)		t - test
	가구주	가구원	
저축(없음 제외)	31.88(37.08)	32.81(35.23)	-0.275
개인 부채(없음 제외)	1562.95(2130.24)	1095.49(1292.46)	2.313*

*p < .05, **p < .01, ***p < .001

조사 대상의 주요 부채 이유를 살펴본 결과, 가구주인 경우 생활비에 의한 부채가 19.7%, 가구주가 아닌 경우 12.3%로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구주가 아닌 경우 학자금 지출에 의한 부채가 22.9%, 가구주인 경우 13.3%로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가구주인 경우는 주로 생활비에 의해 가구주가 아닌 경우는 학자금 지출에 의해 개인 부채가 발생하는 모습을 보였다.

<표V-133> 조사 대상의 주요 부채 이유: 가구주 구분

(가구주 n=315, 가구원 n=407)

구분	가구주 구분: n(%)		$\chi^2(df)$
	가구주	가구원	
가족을 경제적으로 돕느라	30(9.5)	28(6.9)	36.010(7)***
생활비가 많이 들어서	62(19.7)	50(12.3)	
학자금 지출	42(13.3)	93(22.9)	
결혼자금	0(0.0)	1(0.2)	
사업자금 지출	6(1.9)	7(1.7)	
주택보증금 마련	23(7.3)	6(1.5)	
해당없음(부채없음)	141(44.8)	214(52.6)	
기타	11(3.5)	8(2.0)	

*p < .05, **p < .01, ***p < .001

② 수급현황

가구 수급기간은 가구주인 경우 약 7.8년(93.04개월), 가구주가 아닌 경우 약 9.3년(111.26개월)로 나타나 가구주가 아닌 경우 수급기간이 더 길었다.

<표 V-134>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기간(가구): 가구주 구분

(가구주 n=315, 가구원 n=407, 단위:개월)

구분	가구주 구분: m(sd)		t - test
	가구주	가구원	
가구 수급기간(개월)	93.04(87.21)	111.26(97.73)	-2.641**

*p < .05, **p < .01, ***p < .001

한편, 가구주인 경우 생계급여 74.3%, 의료급여 64.4%, 주거급여 53.0%, 교육급여 19.7%를 수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구주가 아닌 경우 생계급여 65.6%, 의료급여 60.4%, 주거급여 38.1%, 교육급여 13.8%를 수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V-135>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현황: 가구주 구분

(가구주 n=315, 가구원 n=407)

구분		가구주 구분: n(%)	
		가구주	가구원
수급 급여 종류 (중복응답)	생계급여	234(74.3)	267(65.6)
	의료급여	203(64.4)	246(60.4)
	주거급여	167(53.0)	155(38.1)
	교육급여	62(19.7)	56(13.8)
	해산급여	5(1.6)	3(0.7)
	자활급여	12(3.8)	22(5.4)

③ 소비현황 - 생활비 지출

가구주의 총생활비는 약 106만원, 가구주가 아닌 경우 총생활비는 약 81만원으로 나타나, 가구주인 경우 가구주가 아닌 경우에 비해 더 많은 생활비를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 생활비 항목을 살펴보면, 가구주의 경우 식료품비로 약 32만원, 주거비로 약 20만원, 광열수도비로 약 4만원, 가구집기비로 약 4만원, 피복신발비로 약 8만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가구주가 아닌 경우 식료품비로 약 26만원, 주거비 약 11만원, 광열수도비 약 3만원, 가구집기비 약 2만원, 피복신발비

약 6만원을 지출했다. 즉, 가구주인 조사 대상이 가구주가 아닌 경우보다 생활 유지를 위한 비용을 더 많이 지출하고 있었다.

한편, 보건의료비로 가구주와 가구주아닌 경우 모두 약 6만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교육비로는 가구주인 경우 약 12만원, 가구주가 아닌 경우 약 11만원, 교양오락비로 가구주인 경우 약 4만원, 가구주가 아닌 경우 약 5만원, 교통통신비로 가구주인 경우 약 13만원, 가구주가 아닌 경우 약 12만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V-136> 조사 대상의 월평균 생활비: 가구주 구분

(가구주 n=315, 가구원 n=407, 단위:만원)

구분	가구주 구분: m(sd)		t - test
	가구주	가구원	
총생활비	105.63(62.62)	80.98(51.56)	5.477***
식료품비	32.33(26.08)	26.39(20.98)	3.286**
주거비	19.80(17.58)	11.45(15.62)	6.597***
광열수도비	4.30(6.01)	2.83(4.90)	3.444**
가구집기비	4.25(7.34)	2.17(5.07)	4.026***
피복신발비	8.41(9.75)	6.25(7.97)	3.031**
보건의료비	6.34(11.28)	5.69(16.11)	0.581
교육비	12.23(21.75)	10.83(42.95)	0.501
교양오락비	4.48(6.31)	5.45(8.67)	-1.546
교통통신비	12.78(12.16)	12.39(15.28)	0.362
기타생활비	12.63(20.91)	10.89(14.50)	1.165
비소비	3.87(12.79)	3.57(9.71)	0.296

*p < .05, **p < .01, ***p < .001

세부 생활비에 대한 부담 지출 순위를 조사한 결과, 가구주와 가구주가 아닌 경우 모두 1순위로 식료품비, 2순위로 주거비, 3순위로 교통통신비를 부담스러워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주거비를 부담 지출로 응답한 가구주의 비율은 28.6%이었던 것에 반해 가구주가 아닌 경우는 19.4%로 나타나 가구주인 경우가 가구주가 아닌 경우에 비해 주거비에 더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가구주가 아닌 경우 교통통신비를 부담 지출로 응답한 비율이 15.5%이었던 것과 비교하여 가구주의

6.7%가 교통통신비를 부담 지출로 응답하여 가구주가 아닌 경우가 가구주인 경우보다 더 교통통신비의 지출에 더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V-137> 조사 대상의 부담지출 순위: 가구주 구분

(가구주 n=315, 가구원 n=407)

구분	가구주 구분: n(%)		$\chi^2(df)$
	가구주	가구원	
식료품비	143(45.4)	185(45.5)	23.260(10)*
주거비	90(28.6)	79(19.4)	
광열수도비	1(0.3)	0(0.0)	
가구집기비	2(0.6)	2(0.5)	
피복신발비	8(2.5)	7(1.7)	
보건의료비	8(2.5)	18(4.4)	
교육비	24(7.6)	28(6.9)	
교양오락비	4(1.3)	3(0.7)	
교통통신비	21(6.7)	63(15.5)	
기타소비(일상소모품)	12(3.8)	17(4.2)	
비소비	2(0.6)	5(1.2)	

*p < .05, **p < .01, ***p < .001

④ 경제적 부담과 상황에 대한 인지

가구주와 가구주가 아닌 집단을 대상으로 개인 부채의 부담정도와 가족 부양 부담 정도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개인 부채의 부담에 대하여 집단 간 차이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가구주인 경우 개인 부채 부담정도를 4.43점으로 응답한 것과 비교하여 가구주가 아닌 경우 개인 부채 부담정도를 3.63점으로 응답하여 가구주인 경우 가구주가 아닌 경우보다 개인 부채에 대해 더 많은 부담을 느끼고 있었다.

한편, 가족 부양 부담 정도는 가구주 5.19점, 가구주가 아닌 경우 4.78점으로 응답했다.

<표V-138> 개인 부채 및 가족 부양 부담 정도: 가구주 구분

(가구주 n=315, 가구원 n=407)

구분	가구주 구분: m(sd)		t - test
	가구주	가구원	
부채부담정도	4.43(3.88)	3.63(3.80)	2.800**
가족부양부담정도	5.19(3.37)	4.78(3.25)	1.650

*p < .05, **p < .01, ***p < .001

자신의 미래 경제상황에 대한 전망을 조사한 결과 가구주인 경우는 자신의 미래 경제상황을 평균 4.21점으로 응답한 반면, 가구주가 아닌 경우는 4.65점으로 응답했다. 즉, 가구주가 아닌 경우가 가구주인 경우보다 미래 경제 상황에 대해서 더 희망적으로 전망하고 있었다.

<표V-139> 미래 경제상황에 대한 전망: 가구주 구분

(가구주 n=315, 가구원 n=407)

구분	가구주 구분: m(sd)		t - test
	가구주	가구원	
자신의 미래 경제상황에 대한 전망	4.21(2.45)	4.65(2.47)	-2.425*

*p < .05, **p < .01, ***p < .001

저축인식은 가구주와 가구원의 차이가 거의 나타나지 않았으며, 전반적으로 보통 보다 높은 수준의 저축인식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현재 받고 있는 정부의 지원을 잃을까 걱정이 되어 저축을 하지 않는다’ 문항만 집단 간 차이를 보였으며, 가구원의 점수가 가구주 보다 더 높았다. 경제적 여건은 가구주가 가구원 보다 더 높아 경제적 부담 및 스트레스가 더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돈 문제로 인한 스트레스나 공과금 및 대출금 상황, 돈 문제로 인한 상처 모두 가구주의 경제적 여건이 가구원 보다 더 나쁘다고 할 수 있다. 재무관리역량은 집단 간 거의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매달 주거유지를 위한 충분한 돈을 가지고 있다’는 가구원이 가구주 보다 더 높았다.

<표V-140> 경제적 상황에 대한 인식: 가구주 구분

(가구주 n=315, 가구원 n=407)

구분		가구주 구분: m(sd)		t - test
		가구주	가구원	
저축 인식	저축인식(총합)	21.31(3.59)	21.46(3.53)	-0.535
	저축은 매우 중요하다	4.19(0.81)	4.25(0.75)	1.128
	어떠한 상황에서도 저축은 반드시 해야 한다	3.71(1.03)	3.70(1.00)	-0.185
	저축은 나의 미래를 변화시킬 수 있다	3.88(0.95)	3.88(0.90)	0.049
	예상하지 못한 지출에 대비하여 저축을 하려고 노력한다	3.57(1.03)	3.71(0.95)	1.839
	나는 저축을 할 만한 여유가 없다	3.79(1.09)	3.67(1.06)	-1.512
	현재 받고 있는 정부의 지원을 잃을까 걱정이 되어 저축을 하지 않는다	2.25(1.07)	2.42(1.03)	2.164*
경제적 여건	경제적 여건(총합)	25.33(5.72)	24.31(5.87)	2.345*
	오늘 돈 문제로 인해 스트레스를 느낀다	4.03(0.96)	3.85(1.07)	-2.449*
	나의 재정 상태에 대한 만족도가 낮다	3.90(0.99)	3.87(0.96)	-0.401
	지주 생활비 걱정을 한다	4.11(0.95)	4.03(0.93)	-1.169
	여윌돈이나 비상금이 없어 심리적 긴장감이 크다	3.88(1.07)	3.73(1.06)	-1.833
	공과금 및 세금 납부, 대출금 상환과 관련해 어려움이 크다	3.52(1.16)	3.17(1.25)	-3.891***
	돈 문제로 인해 가정 내 갈등이 있다	3.26(1.26)	3.23(1.24)	-0.305
돈 문제로 인해 직장동료나 친구 등으로부터 상처를 받았다	2.63(1.29)	2.43(1.22)	-2.086*	
재무 관리 역량	재무관리역량(총합)	17.46(3.78)	17.54(3.35)	-0.311
	매달 주거유지를 위한 충분한 돈을 가지고 있다	2.15(0.76)	2.29(0.70)	2.549*
	긴급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돈(약 100만원)이 준비되어 있다	1.98(0.93)	2.09(0.91)	1.474
	소비나 저축에 대하여 계획을 세운다	2.76(0.77)	2.72(0.71)	-0.647
	계획소비나 저축을 하고 있다	2.56(0.78)	2.57(0.72)	0.189
	수입이 증가하면서 저축도 늘린다	2.67(0.90)	2.71(0.76)	0.766
	나의 자산현황을 잘 알고 있다	3.05(0.71)	2.99(0.64)	-1.238
	향후 5-10년 사이에 발생할 지출에 대해 미리 생각하고 준비하고 있다	2.30(0.87)	2.18(0.80)	-1.890

*p < .05, **p < .01, ***p < .001

(4) 주거 상황

① 주거지 유형 및 점유형태

주택 유형은 가구주 다가구주택 24.8%, 임대아파트 23.8%, 연립주택 13.3% 순으로 나타났으며, 가구주가 아닌 경우 임대아파트 24.6%, 다가구주택 13.8%, 연립주택 19.4%, 다가구주택 13.8% 순으로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가구주와 가구주가 아닌 경우의 차이를 살펴볼 경우 가구주인 경우가 가구주가 아닌 경우보다 다가구주택의 거주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상대적으로 가구주가 아닌 경우 다세대 주택의 거주비율이 10.1%로 가구주 7.3%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거위치의 경우 가구주와 가구주가 아닌 경우 모두 대부분이 지상층(가구주: 94.9%, 가구주가 아닌 경우 95.6%)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거점유형태는 두 집단 모두 월세(가구주 54.3%, 가구주가 아닌 경우 50.9%)에 거주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다.

<표 V-141> 조사 대상의 주거형태: 가구주 구분

(가구주 n=315, 가구원 n=407)

구분		가구주 구분: n(%)		$\chi^2(df)$
		가구주	가구원	
주택 유형	일반단독주택	39(12.4)	47(11.5)	19.380(8)*
	다가구주택	78(24.8)	56(13.8)	
	다세대주택	23(7.3)	41(10.1)	
	연립주택	42(13.3)	79(19.4)	
	일반아파트	39(12.4)	53(13.0)	
	임대아파트	75(23.8)	100(24.6)	
	비거주용 건물	1(0.3)	3(0.7)	
	준주택	6(1.9)	14(3.4)	
	기타	12(3.8)	14(3.4)	
주거위치	지하층	3(1.0)	1(0.2)	4.890(3)
	반지층	9(2.9)	16(3.9)	
	지상층	299(94.9)	389(95.6)	
	옥탑	4(1.3)	1(0.2)	
주거점유형태	자가	18(5.7)	35(8.6)	2.677(4)
	전세	84(26.7)	106(26.0)	
	월세	171(54.3)	207(50.9)	
	무상	16(5.1)	24(5.9)	
	기타	26(8.3)	35(8.6)	

*p < .05, **p < .01, ***p < .001

② 주거자산

주택금액은 가구주 약 2,049만원, 가구주가 아닌 경우 약 2,176만원으로 조사되었으며, 월세금액은 가구주 약 21만원, 가구주가 아닌 경우 약 19만원으로 조

사 되었다. 한편, 주택면적은 가구주의 경우 평균 $39.12m^2$, 가구주가 아닌 경우 평균 $43.33m^2$ 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V-142> 조사 대상의 주거자산: 가구주 구분

(가구주 n=315, 가구원 n=407, 단위:만원, m^2)

구분	가구주 구분: m(sd)		t - test
	가구주	가구원	
주택금액	2049.45(3436.61)	2175.08(4019.35)	-0.425
월세금액	21.38(17.38)	19.12(18.72)	1.472
주택면적	39.12(29.04)	43.33(30.72)	-1.873

*p < .05, **p < .01, ***p < .001

(5) 진로에 대한 생각 및 진로행동

조사 대상의 예상 진로를 살펴본 결과 가구주인 경우 자신의 예상 진로를 취업 유지 49.8%, 이직 15.6%, 특별한 진로 계획 없음 13.3%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구주가 아닌 경우 자신의 예상 진로를 취업유지 56.0%, 이직 11.8%, 특별한 진로 계획 없음 10.3%순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상 진로와 관련하여 가구주가 아닌 경우가 가구주인 경우보다 취업유지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상대적으로 가구주인 경우 가구주가 아닌 경우보다 이직, 개인 사업 및 창업의 비율이 더 높았다.

<표 V-143> 조사 대상의 예상 진로: 가구주 구분

(가구주 n=315, 가구원 n=407)

구분	가구주 구분: n(%)		$\chi^2(df)$
	가구주	가구원	
취업유지	157(49.8)	228(56.0)	14.493(7)*
이직	49(15.6)	48(11.8)	
상급학교 진학	8(2.5)	16(3.9)	
편입학	5(1.6)	13(3.2)	
개인 사업 및 창업	30(9.5)	20(4.9)	
군입대	6(1.9)	14(3.4)	
특별한 진로 계획 없음	42(13.3)	42(10.3)	
기타	18(5.7)	26(6.4)	

*p < .05, **p < .01, ***p < .001

진로행동은 가구원이 평균 3.40으로, 가구주(3.22) 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V-144> 진로행동: 가구주 구분

(가구주 n=315, 가구원 n=407)

구분	가구주 구분: m(sd)		t - test
	가구주	가구원	
진로행동(척도값 평균)	3.22(0.88)	3.40(0.83)	2.807**

*p < .05, **p < .01, ***p < .001

(6) 자아존중감 및 자신의 역량에 대한 평가

자아존중감은 가구주와 가구원 간 차이가 거의 없었으며, 보통 정도의 자아존중감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행복지수는 긍정적 정서에서 가구주와 가구원 집단 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가구원이 가구주 보다 더 높은 수준의 행복감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투지는 가구주와 가구원 모두 보통 정도의 수준이었으며, 회복탄력성은 보통 보다 약간 높은 수준이었다.

<표 V-145> 자아존중감 및 자신의 역량에 대한 평가: 가구주 구분

(가구주 n=315, 가구원 n=407)

구분		가구주 구분: m(sd)		t - test
		가구주	가구원	
자아존중감(척도값 평균)		3.19(0.34)	3.24(0.32)	1.641
행복지수	최종행복점수	11.66(8.64)	13.86(8.20)	3.480**
	만족감	12.56(3.63)	13.84(3.62)	4.722***
	긍정정서	13.72(3.66)	14.88(3.49)	4.312***
	부정정서	14.62(3.27)	14.86(3.33)	0.992
투지(척도값 평균)		3.24(0.63)	3.19(0.63)	-1.021
회복탄력성(총합)		4.94(1.70)	4.97(1.74)	0.282

*p < .05, **p < .01, ***p < .001

(7) 사회적 자본과 사회활동 참여

사회적 자본과 가족지지는 집단 간 차이를 보였으며, 가구주 보다 가구원이 더 높은 사회적 자본 수준과 가족지지 수준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자본 가운데 특히 네트워크와 사회참여의 수준이 보통 보다 더 낮았으며 특히 사회참여는 가구주 여부와 관계없이 매우 낮은 수준이었다. 반면, 상대적으로 규범의식은 보통 보다 높았다.

가족지지는 가구주가 3.10으로 보통 정도, 가구원은 3.41로 보통 보다 약간 높은 수준이었다.

<표 V-146> 사회적 자본과 가족지지: 가구주 구분

(가구주 n=315, 가구원 n=407)

구분		가구주 구분: m(sd)		t - test
		가구주	가구원	
사회적 자본	전체(척도값 평균)	2.76(0.48)	2.89(0.48)	3.652***
	신뢰	3.16(0.68)	3.30(0.64)	2.791**
	네트워크	2.55(0.75)	2.67(0.76)	2.242*
	사회참여	1.77(0.74)	1.84(0.73)	1.310
	규범의식	3.85(0.73)	4.06(0.66)	3.893***
가족지지		3.10(1.05)	3.41(0.98)	4.089***

*p < .05, **p < .01, ***p < .001

지난 1년 동안 사회참여 정도는 가구주 보다 가구원이 전반적으로 높았으며, 특히 여가활동은 가구원이 약 11일 정도, 친목모임은 9일 정도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정당 및 정치 관련 모임과 기타시민단체는 가구주의 참여율이 더 높았다.

<표 V-147> 지난 1년 동안 사회참여 정도: 가구주 구분

(가구주 n=315, 가구원 n=407)

구분	가구주 구분: m(sd)		t - test
	가구주	가구원	
종교활동	11.74(38.51)	12.51(35.04)	0.281
여가활동	22.50(50.19)	33.85(66.76)	2.608**
친목모임	13.11(22.74)	22.52(31.81)	4.628***
정당, 정치 관련 모임	0.41(3.35)	0.15(1.16)	-1.276
자선단체, 자원봉사활동 단체	1.81(6.18)	2.34(8.10)	0.995
기타시민단체	0.64(4.37)	0.36(3.25)	-0.999

*p < .05, **p < .01, ***p < .001

(8) 사회의 소득불평등 수준

사회의 소득불평등 수준은 가구주와 가구원 간 큰 차이가 없었으며, 3점 정도로 대체로 불평등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V-148> 사회의 소득불평등 인식: 가구주 구분

(가구주 n=315, 가구원 n=407)

구분	가구주 구분: m(sd)		t - test
	가구주	가구원	
소득불평등 인식 (척도값 평균)	3.14(2.16)	3.34(2.21)	1.212

*p < .05, **p < .01, ***p < .001

(9)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 및 사업에 대한 생각

청년희망키움통장 월 자유납입액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으나, 가구주가 가구원 보다 더 많은 금액을 저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V-149> 청년희망키움통장 월 자유납입금액: 가구주 구분

(가구주 n=315, 가구원 n=407, 단위:만원)

구분	가구주 구분: m(sd)		t - test
	가구주	가구원	
월 자유납입금액	5.70(14.13)	4.68(10.44)	-1.105

*p < .05, **p < .01, ***p < .001

청년희망키움통장 사업만족도는 가구원의 만족도가 가구주 보다 더 높았고, 특히 ‘청년희망키움통장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가구주 구분과 관계없이 전체적으로 보통에서 보통 보다 약간 높은 수준이었다.

<표 V-150> 청년희망키움통장 사업만족도: 가구주 구분

(가구주 n=315, 가구원 n=407)

구분	가구주 구분: m(sd)		t - test
	가구주	가구원	
지원 금액(월 10만원)의 수준	3.75(0.96)	3.78(0.91)	0.504
사업과 관련된 소식이나 정보 제공	3.01(0.96)	3.14(0.95)	1.799
사업에 참여하고 유지하기 위한 행정적 절차	3.23(0.93)	3.36(0.88)	1.924
청년희망키움통장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	3.55(0.96)	3.70(0.87)	2.223*

*p < .05, **p < .01, ***p < .001

청년희망키움통장 사업을 포기하려고 한 경험은 가구주 변수와 관련이 없었으며, 그만 두려는 이유 역시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포기하려고 한 적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절반 이상이었으며, ‘근로지속의 어려움’과 ‘탈수급에 대한 두려움’ 등이 포기하려는 주된 이유로 나타났다.

<표V-151> 청년희망키움통장 사업 포기 고려 이유: 가구주 구분

(가구주 n=315, 가구원 n=407)

구분	가구주 구분: n(%)		$\chi^2(df)$
	가구주	가구원	
해당없음(포기하려고 한 적 없음)	174(55.2)	224(55.0)	8.701(6)
근로지속의 어려움	63(20.0)	91(22.4)	
행정적 불편함	6(1.9)	13(3.2)	
가족의 반대	0(0.0)	2(0.5)	
탈수급에 대한 두려움	57(18.1)	52(12.8)	
다른 통장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1(0.3)	0(0.0)	
기타	14(4.4)	25(6.1)	

*p < .05, **p < .01, ***p < .001

사업의 개선점은 가구주인지와 관계없이 동일하게 ‘수급 조건 완화’가 가장 많았으며, ‘저축금액 다양화’, ‘가족 중복참여 허용’ 등의 순이었다.

<표V-152> 청년희망키움통장 사업 개선점: 가구주 구분

(가구주 n=315, 가구원 n=407)

구분		가구주 구분: n(%)		$\chi^2(df)$
		가구주	가구원	
1순위	저축금액 다양화	83(26.3)	98(24.1)	4.895(5)
	탈수급 조건 완화, 폐지 등 수급 조건 완화	147(46.7)	169(41.5)	
	행정 절차의 편의성 강화	19(6.0)	30(7.4)	
	가족 중복참여 허용	48(15.2)	79(19.4)	
	부가 서비스 및 프로그램 강화	9(2.9)	18(4.4)	
	기타	9(2.9)	13(3.2)	

*p < .05, **p < .01, ***p < .001

청년희망키움통장 사업과 함께 받고 싶은 서비스는 가구주 변수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련이 있었으며, ‘후원금/물품’, ‘문화여가’, ‘주거개선’ 등이었다.

<표 V-153> 청년희망키움통장 사업과 함께 받고 싶은 서비스 및 프로그램 : 가구주 구분

(가구주 n=315, 가구원 n=407)

구분		가구주 구분: n(%)		$\chi^2(df)$
		가구주	가구원	
1순위	가족상담/가족교육	24(7.6)	21(5.2)	27.355(12)**
	문화여가	40(12.7)	63(15.5)	
	후원금/물품	91(28.9)	94(23.1)	
	심리상담	20(6.3)	19(4.7)	
	양육교육	9(2.9)	1(0.2)	
	의료지원	20(6.3)	22(5.4)	
	직업교육/훈련	19(6.0)	36(8.8)	
	자격증취득교육	26(8.3)	54(13.3)	
	주거개선	36(11.4)	55(13.5)	
	창업교육	8(2.5)	12(2.9)	
	재무상담/재무컨설팅	8(2.5)	17(4.2)	
	금융교육	7(2.2)	11(2.7)	
기타	7(2.2)	2(0.5)		

*p < .05, **p < .01, ***p < .001

청년희망키움통장 사업 지원금 수령 시 사용 계획은 가구주 여부와 관계없이 ‘주택마련’과 ‘미래생활 대비’, ‘교육비’, ‘부채상환’ 순이었다.

<표 V-154> 청년희망키움통장 사업 지원금 수령시 사용 계획 : 가구주 구분

(가구주 n=315, 가구원 n=407)

구분		가구주 구분: n(%)		$\chi^2(df)$
		가구주	가구원	
1순위	교육비(본인 및 가족)	50(15.9)	48(11.8)	15.580(10)
	주택마련(전세금 포함)	120(38.1)	128(31.4)	
	결혼, 상제비	15(4.8)	26(6.4)	
	미래생활 대비(저축)	51(16.2)	105(25.8)	
	사업(투자) 자금 마련(창업 포함)	20(6.3)	21(5.2)	
	자동차, 가구, 가전 등 내구재 구입비	8(2.5)	12(2.9)	
	불의의 사고 및 질병 대비	8(2.5)	6(1.5)	
	여행 및 여가생활	2(0.6)	4(1.0)	
	부채 상환	39(12.4)	53(13.0)	
	특별한 목적이 없음	0(0.0)	1(0.2)	
	기타	2(0.6)	3(0.7)	

*p < .05, **p < .01, ***p < .001

6) 거주 지역 구분에 따른 집단 비교

(1) 일반적 현황 및 가구현황

거주 지역에 따른 차이를 분석한 결과 거주지역에 따른 연령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대도시의 경우 중소도시와 농어촌과 비교하였을 때 25-29세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농어촌의 경우 상대적으로 15세-24세와 30세 이상의 비율이 대도시와 중소도시보다 높았다.

<표 V-155> 조사 대상의 일반현황: 거주 지역 구분

(대도시 n=320, 중소도시 n=343, 군 n=58)

구분		거주 지역 구분: n(%)			$\chi^2(df)$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성별	남성	114(35.6)	131(38.2)	24(41.4)	0.913(2)
	여성	206(64.4)	212(61.8)	34(58.6)	
연령	15세-24세	185(57.8)	194(56.6)	37(63.8)	14.349(4)**
	25세-29세	104(32.5)	91(26.5)	9(15.5)	
	30세 이상	31(9.7)	58(16.9)	12(20.7)	
학력	초등학교	1(0.3)	1(0.3)	0(0.0)	13.851(10)
	중학교	8(2.5)	21(6.1)	4(6.9)	
	고등학교	145(45.3)	179(52.2)	32(55.2)	
	대학(2년제)	66(20.6)	57(16.6)	11(19.0)	
	대학교(4년제)	94(29.4)	79(23.0)	11(19.0)	
	대학원 이상	6(1.9)	6(1.7)	0(0.0)	
장애	장애 없음	294(91.9)	319(93.0)	52(89.7)	4.745(6)
	경증(4~6급)	4(1.3)	3(0.9)	2(3.4)	
	중증(1~3급)	9(2.8)	13(3.8)	2(3.4)	
	비등록장애인	13(4.1)	8(2.3)	2(3.4)	
종교 유무	있음	113(35.3)	111(32.4)	21(36.2)	0.782(2)
	없음	207(64.7)	232(67.6)	37(63.8)	
자격증 보유 여부	있음	230(71.9)	246(71.7)	44(75.9)	0.441(2)
	없음	90(28.1)	97(28.3)	14(24.1)	

*p < .05, **p < .01, ***p < .001

주관적 건강상태는 대도시의 경우 5.71점, 중소도시의 경우 5.38점, 농어촌의 경우 5.84점으로 나타났다.

<표V-156> 조사 응답자 일반현황: 거주 지역 구분

(대도시 n=320, 중소도시 n=343, 군 n=58)

구분	거주 지역 구분: m(sd)			F (Scheffe)
	대도시(A)	중소도시(B)	농어촌(C)	
주관적 건강상태	5.71(2.44)	5.38(2.52)	5.84(2.70)	1.788

*p < .05, **p < .01, ***p < .001

가구주의 비율은 대도시 39.7%, 중소도시 47.2%, 농어촌 44.8%로 나타났다.

혼인상태는 전 지역에서 미혼의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동거가족은 대도시의 경우 모 48.9%, 형제자매 43.5%, 부 23.7% 순으로 나타났으며, 중소도시의 경우 모 39.5%, 형제자매 35.1%, 자녀 23.0% 순으로, 농어촌의 경우 모 44.6%, 형제자매 39.3%, 자녀 28.6% 순으로 나타났다.

<표V-157> 조사 대상의 가구현황: 거주 지역 구분

(대도시 n=320, 중소도시 n=343, 군 n=58)

구분		거주 지역 구분: n(%)			$\chi^2(df)$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가구주 여부	예	127(39.7)	162(47.2)	26(44.8)	3.862(2)
	아니오	193(60.3)	181(52.8)	32(55.2)	
혼인상태	미혼	280(87.5)	274(79.9)	45(77.6)	20.819(12)
	기혼	21(6.6)	28(8.2)	10(17.2)	
	별거	0(0.0)	1(0.3)	0(0.0)	
	사별	1(0.3)	1(0.3)	0(0.0)	
	이혼	16(5.0)	34(9.9)	2(3.4)	
	사실혼(동거)	0(0.0)	2(0.6)	1(1.7)	
	기타	2(0.6)	3(0.9)	0(0.0)	
동거가족 (중복응답)	독거	55(17.4)	62(18.3)	8(14.3)	—
	배우자	19(6.0)	31(9.1)	11(19.6)	
	부	75(23.7)	68(20.1)	13(23.2)	
	모	155(48.9)	134(39.5)	25(44.6)	
	자녀	47(14.8)	78(23.0)	16(28.6)	
	조부모	23(7.3)	32(9.4)	9(16.1)	
	형제자매	138(43.5)	119(35.1)	22(39.3)	
	친인척	11(3.5)	16(4.7)	1(1.8)	

*p < .05, **p < .01, ***p < .001

동거 가구원 수는 대도시의 경우 2.74명, 중소도시의 경우 2.86명, 농어촌의 3.52명으로 나타나 농어촌에 거주하는 경우가 대도시 및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경우보다 동거 가구원수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V-158> 조사 대상의 동거 가구원 수: 거주 지역 구분

(대도시 n=320, 중소도시 n=343, 군 n=58, 단위:명)

구분	거주 지역 구분: m(sd)			F (Scheffe)
	대도시(A)	중소도시(B)	농어촌(C)	
동거 가구원 수	2.74(1.37)	2.86(1.57)	3.52(1.89)	6.444** (C>A,B)

*p < .05, **p < .01, ***p < .001

(2) 근로 현황 및 근로에 대한 생각과 태도

거주 지역에 따른 근로형태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도시의 경우 상용근로자(35.9%)와 임시직근로자(34.1%)의 비율이 중소도시(상용근로자 25.1%, 임시직근로자 27.7%), 농어촌(상용근로자 27.6%, 임시직근로자 22.4%)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농어촌의 비율이 19.0%로 대도시(13.4%), 중소도시(18.1%)와 비교하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비경제활동인구의 비율 역시 농어촌이 20.7%로 대도시(8.1%)와 중소도시(14.9%)에 비교하여 높았다.

직종은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모두에서 서비스종사자의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 비율의 경우 대도시가 18.1%로 중소도시(8.2%), 농어촌(10.3%)에 비하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근로형태와 마찬가지로 실업자/비경제활동인구의 비율은 농어촌이 22.4%로 대도시(9.4%), 중소도시(16.6%)보다 높았다.

전일제 근로자는 대도시의 경우 38.8%, 중소도시의 경우 34.7%, 농어촌의 경우 31.0%로 나타났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속적으로 근로가능하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은 대도시 71.6%, 중소도시 74.3%, 농어촌 79.3%로 나타났다.

<표 V-159> 조사 대상의 근로 현황: 거주 지역 구분

(대도시 n=320, 중소도시 n=343, 군 n=58)

구분		거주 지역 구분: n(%)			$\chi^2(df)$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근로형태	상용근로자	115(35.9)	86(25.1)	16(27.6)	31.986(14)**
	임시직근로자	109(34.1)	95(27.7)	13(22.4)	
	일용직근로자	43(13.4)	62(18.1)	11(19.0)	
	자활/공공근로	5(1.6)	10(2.9)	3(5.2)	
	고용주/자영업자	8(2.5)	14(4.1)	2(3.4)	
	무급가족종사자	1(0.3)	5(1.5)	0(0.0)	
	실업자	13(4.1)	20(5.8)	1(1.7)	
	비경제활동인구	26(8.1)	51(14.9)	12(20.7)	
직종	관리자	3(0.9)	7(2.0)	0(0.0)	42.651(18)**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	58(18.1)	28(8.2)	6(10.3)	
	사무종사자	39(12.2)	38(11.1)	4(6.9)	
	서비스종사자	140(43.8)	133(38.8)	20(34.5)	
	판매종사자	21(6.6)	26(7.6)	2(3.4)	
	농림어업숙련종사자	1(0.3)	6(1.7)	2(3.4)	
	기능원 및 관련기능종사자	6(1.9)	5(1.5)	1(1.7)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	8(2.5)	14(4.1)	3(5.2)	
	단순노무종사자	14(4.4)	29(8.5)	7(12.1)	
	실업자/비경제활동인구	30(9.4)	57(16.6)	13(22.4)	
근로시간 형태	전일제	124(38.8)	119(34.7)	18(31.0)	1.908(2)
	시간제	196(61.3)	224(65.3)	40(69.0)	
근로 지속 가능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속적 근로 가능	229(71.6)	255(74.3)	46(79.3)	1.748(2)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회사 사정에 따라 해고 가능	91(28.4)	88(25.7)	12(20.7)	

*p < .05, **p < .01, ***p < .001

고용희망은 중소도시가 전반적으로 가장 높았으며, 보통 보다 높은 수준의 고용희망을 보였다. 고용희망이 전반적으로 가장 낮은 지역은 농어촌이었다.

고용장벽은 대도시에 거주하는 대상자들이 가장 높게 인식하고 있었으며, 농어촌의 고용장벽이 전반적으로 가장 낮았다. 고용장벽의 수준은 보통 보다 다소 낮은 수준이었다. 그러나 고용희망이나 고용장벽 모두 지역단 집단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표V-160> 근로에 대한 생각과 태도: 거주 지역 구분

(대도시 n=320, 중소도시 n=343, 군 n=58)

구분		거주 지역 구분: m(sd)			F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고용 희망	전체	3.62 (0.67)	3.65 (0.69)	3.59 (0.63)	0.221
	스스로의 가치와 역량에 대한 인지	3.52 (0.70)	3.58 (0.76)	3.56 (0.70)	0.576
	미래의 나의 모습에 대한 동기부여	3.70 (0.77)	3.69 (0.79)	3.69 (0.66)	0.006
	목적지향	3.69 (0.78)	3.70 (0.80)	3.62 (0.73)	0.299
	기술과 자원 사용	3.62 (0.83)	3.64 (0.83)	3.51 (0.78)	0.664
고용 장벽	전체	2.78 (0.71)	2.77 (0.68)	2.54 (0.72)	3.147
	인적자본 및 자원 부족	3.24 (0.80)	3.31 (0.76)	3.07 (0.81)	2.396
	삶에 대한 대한 통제력 부족	2.47 (0.88)	2.42 (0.87)	2.23 (0.85)	1.967
	가족 관련	2.58 (1.04)	2.56 (1.06)	2.32 (1.01)	1.577
	건강 관련	2.81 (1.12)	2.76 (1.16)	2.42 (1.12)	2.851

*p < .05, **p < .01, ***p < .001

(3) 경제적 상황 및 경제적 상황에 대한 인식

① 소득·저축·부채

근로소득은 거주 지역별로 각각 대도시 약 109만원, 중소도시 약 97만원, 농어촌 약 111만원 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적이전소득의 경우 거주 지역에 따른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대도시 거주자의 경우 약 29만원, 중소도시의 경우 약 40만원, 농어촌의 경우 약 40만원으로 나타나 중소도시 거주 조사 대상의 공적이전소득이 대도시 거주자의 공적이전소득 보다 높았다.

한편, 사적이전소득의 경우 대도시 약 16만원, 중소도시 약 22만원, 농어촌 약 25만원으로 나타났다.

<표V-161> 지난 3개월 동안의 월평균 소득: 거주 지역 구분

(대도시 n=320, 중소도시 n=343, 군 n=58, 단위:만원)

구분	거주 지역 구분: m(sd)			F (Dunnett)
	대도시(A)	중소도시(B)	농어촌(C)	
근로소득	109.24(63.31)	97.47(70.49)	111.47(67.62)	2.944
공적이전소득	29.16(50.73)	39.73(60.73)	39.55(55.10)	3.143* (B>A)
사적이전소득	15.98(48.12)	22.00(53.93)	25.21(50.97)	1.517

*p < .05, **p < .01, ***p < .001

월평균 저축액은 대도시 약 23만원, 중소도시 약 17만원, 농어촌 약 23만원으로 조사되었으며, 개인부채는 대도시 약 621만원, 중소도시 약 600만원, 농어촌 약 470만원으로 나타났다. 개인부채에 따른 월평균 상환액은 대도시 약 12만원, 중소도시 약 13만원, 농어촌 약 11만원으로 나타났다.

<표V-162> 조사대상의 저축 및 부채 현황: 거주 지역 구분

(대도시 n=320, 중소도시 n=343, 군 n=58, 단위:만원)

구분	거주 지역 구분: m(sd)			F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저축	22.92(33.56)	17.41(30.20)	23.36(32.32)	2.748
개인 부채	621.20(1431.19)	600.38(1330.48)	469.83(804.78)	0.291
개인 부채에 따른 월평균 상환액	11.78(31.05)	12.61(32.90)	10.74(21.76)	0.117

*p < .05, **p < .01, ***p < .001

저축액과 개인부채가 없다고 응답한 조사 대상의 응답을 제외하고 저축액과 개인부채를 살펴본 결과 대도시의 경우 월평균 약 34만원, 중소도시의 경우 약 29만원, 농어촌의 경우 약 37만원을 저축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개인 부채는 대도시의 경우 약 1,354만원, 중소도시 약 1,296만원, 농어촌 약 1,015만원으로 조사되었다.

<표V-163> 조사대상의 저축 및 부채 현황(없음 제외): 거주 지역 구분

(대도시 n=320, 중소도시 n=343, 군 n=58, 단위:만원)

구분	거주 지역 구분: m(sd)			F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저축(없음 제외)	34.28(36.00)	28.91(34.40)	36.62(33.99)	1.567
개인 부채 (없음 제외)	1354.12(1866.24)	1295.55(1710.80)	1014.84(924.20)	0.405

*p < .05, **p < .01, ***p < .001

거주 지역별 주요 부채이유를 분석한 결과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모두 학자금지출, 생활비, 가족의 경제적 지원이 주요 부채 이유 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V-164> 조사대상의 주요 부채 이유: 거주 지역 구분

(대도시 n=320, 중소도시 n=343, 군 n=58)

구분	거주 지역 구분:n(%)			$\chi^2(df)$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가족을 경제적으로 돕느라	29(9.1)	23(6.7)	6(10.3)	12.084(14)
생활비가 많이 들어서	38(11.9)	65(19.0)	9(15.5)	
학자금 지출	66(20.6)	59(17.2)	10(17.2)	
결혼자금	1(0.3)	0(0.0)	0(0.0)	
사업자금 지출	5(1.6)	6(1.7)	1(1.7)	
주택보증금 마련	14(4.4)	14(4.1)	1(1.7)	
해당없음(부채없음)	158(49.4)	169(49.3)	28(48.3)	
기타	9(2.8)	7(2.0)	3(5.2)	

*p < .05, **p < .01, ***p < .001

② 수급현황

가구 수급기간은 대도시 8.98년(107.77개월), 중소도시 8.05년(96.70개월), 농어촌 9.94년(11.924개월)으로 나타났다.

<표V-165>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기간(가구): 거주 지역 구분

(대도시 n=320, 중소도시 n=343, 군 n=58, 단위:개월)

구분	거주 지역 구분: m(sd)			F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가구 수급기간(개월)	107.77(110.14)	96.70(74.01)	119.24(97.23)	2.060

*p < .05, **p < .01, ***p < .001

한편, 지역별 수급 급여 종류는 대도시의 경우 생계급여 64.4%, 의료급여 63.4%, 주거급여 43.8%, 교육급여 12.5%를 수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중소도시의 경우 생계급여 73.8%, 의료급여 60.3%, 주거급여 46.4%, 교육급여 20.1%를 수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어촌의 경우 생계급여 72.4%, 의료급여 65.5%, 주거급여 39.7%, 교육급여 15.5%를 수급하고 있었다.

<표 V-166>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현황: 거주 지역 구분

(대도시 n=320, 중소도시 n=343, 군 n=58)

구분		거주 지역 구분:n(%)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수급 급여 종류 (중복응답)	생계급여	206(64.4)	253(73.8)	42(72.4)
	의료급여	203(63.4)	207(60.3)	38(65.5)
	주거급여	140(43.8)	159(46.4)	23(39.7)
	교육급여	40(12.5)	69(20.1)	9(15.5)
	해산급여	3(0.9)	5(1.5)	0(0.0)
	자활급여	17(5.3)	13(3.8)	4(6.9)

③ 소비현황 - 생활비 지출

총생활비는 대도시 약 90만원, 중소도시 약 93만원, 농어촌 약 92만원으로 나타났다.

세부 생활비 지출 금액을 살펴보면 대도시의 경우 식료품비 약 29만원, 주거비 약 14만원, 광열수도비 약 3만원, 가구집기비 약 3만원, 피복신발비 약 7만원, 보건의료비 약 5만원, 교육비 약 8만원, 교양오락비 약 5만원, 교통통신비 약 12만원을 지출하고 있었으며, 중소도시의 경우 식료품비 약 29만원, 주거비 약 16만원, 광열수도비 약 4만원, 가구집기비 약 3만원, 피복신발비 약 7만원, 보건의료비 약 7만원, 교육비 약 13만원, 교양오락비 약 5만원, 교통통신비 약 13만원을 지출하고 있었다. 한편, 농어촌의 경우 식료품비 약 30만원, 주거비 약 17만원, 광열수도비 약 3만원, 가구집기비 약 3만원, 피복신발비 약 8만원, 보건의료비 약 5만원, 교육비 약 22만원, 교양오락비 약 3만원, 교통통신비 약 12만원을 지출하고 있다.

세부 생활비 항목 중 교육비의 경우 지역에 따른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농어촌 지역 거주자가 지출하는 교육비의 금액이 중소도시, 대도시에 비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V-167> 조사 대상의 월평균 생활비: 거주 지역 구분

(대도시 n=320, 중소도시 n=343, 군 n=58, 단위:만원)

구분	거주 지역 구분: m(sd)			F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총생활비	89.84(55.31)	93.25(60.50)	91.61(56.40)	0.270
식료품비	28.71(21.01)	28.96(25.62)	29.72(23.44)	0.047
주거비	13.57(15.28)	16.21(18.68)	17.18(14.76)	2.371
광열수도비	3.41(4.99)	3.55(6.05)	3.38(4.15)	0.056
가구집기비	2.81(4.93)	3.33(7.47)	2.98(4.15)	0.506
피복신발비	7.29(8.73)	7.00(9.01)	7.85(8.73)	0.238
보건의료비	5.18(10.25)	6.87(17.72)	4.93(7.12)	1.220
교육비	7.78(14.89)	12.92(39.73)	22.15(66.44)	4.361*
교양오락비	5.60(8.96)	4.79(6.87)	3.41(5.04)	1.977
교통통신비	11.88(9.99)	13.35(17.27)	11.51(10.85)	1.041
기타생활비	11.88(18.09)	11.81(17.67)	9.16(12.88)	0.553
비소비	4.32(12.31)	3.48(10.47)	1.35(4.82)	1.326

*p < .05, **p < .01, ***p < .001

생활비 항목별 부담 지출 순위를 살펴본 결과 지역의 구분 없이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거주자 모두 식료품비, 주거비, 교통통신비의 지출을 부담스러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V-168> 조사대상의 부담지출 순위: 거주 지역 구분

(대도시 n=320, 중소도시 n=343, 군 n=58)

구분	거주 지역 구분: n(%)			$\chi^2(df)$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식료품비	145(45.3)	155(45.2)	28(48.3)	8.520(20)
주거비	73(22.8)	82(23.9)	13(22.4)	
광열수도비	1(0.3)	0(0.0)	0(0.0)	
가구집기비	2(0.6)	1(0.3)	1(1.7)	
피복신발비	9(2.8)	5(1.5)	1(1.7)	
보건의료비	13(4.1)	12(3.5)	1(1.7)	
교육비	24(7.5)	24(7.0)	4(6.9)	
교양오락비	3(0.9)	4(1.2)	0(0.0)	
교통통신비	33(10.3)	44(12.8)	7(12.1)	
기타소비(일상소모품)	14(4.4)	12(3.5)	3(5.2)	
비소비	3(0.9)	4(1.2)	0(0.0)	

*p < .05, **p < .01, ***p < .001

개인부채 부담정도는 대도시 3.96점, 중소도시 4.01점, 농어촌 3.79점으로 나타났다으며, 가족부양부담 정도는 대도시 5.02점, 중소도시 4.99점, 농어촌 4.36점으로 나타났다.

<표 V-169> 개인 부채 및 가족 부양 부담 정도: 거주 지역 구분

(대도시 n=320, 중소도시 n=343, 군 n=58)

구분	거주 지역 구분: m(sd)			F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부채부담정도	3.96(3.80)	4.01(3.91)	3.79(3.78)	0.080
가족부양부담정도	5.02(3.28)	4.99(3.40)	4.36(2.86)	1.011

*p < .05, **p < .01, ***p < .001

자신의 미래 경제상황에 대한 전망은 대도시 4.45점, 중소도시 4.42점, 농어촌 4.79점으로 나타났다.

<표 V-170> 미래 경제상황에 대한 전망: 거주 지역 구분

(대도시 n=320, 중소도시 n=343, 군 n=58)

구분	거주 지역 구분: m(sd)			F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자신의 미래 경제상황에 대한 전망	4.45(2.42)	4.42(2.52)	4.79(2.38)	0.576

*p < .05, **p < .01, ***p < .001

저축인식은 문항에 따라 다르지만 전반적으로 대도시의 점수가 가장 높았으며, 일부 문항에서(저축은 반드시 해야한다, 나의 미래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농어촌이 가장 높았다. 저축인식은 모두 보통 보다 다소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경제적 여건은 농어촌에 거주할수록 더 낮은 경제적 스트레스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도시규모가 커져 중소도시, 대도시로 거주하는 대상자일수록 경제적 취약성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재무관리역량은 거의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재무관리역량의 각 문항들은 모두 보통 수준 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V-171> 경제적 상황에 대한 인식: 거주 지역 구분

(대도시 n=320, 중소도시 n=343, 군 n=58)

구분		거주 지역 구분: m(sd)			F (Dunnett)
		대도시 (A)	중소 도시(B)	농어촌 (C)	
저축 인식	저축인식 총합	21.58 (2.81)	21.50 (3.19)	21.36 (3.12)	0.147
	저축은 매우 중요하다	4.28 (0.74)	4.18 (0.81)	4.21 (0.77)	1.322
	어떠한 상황에서도 저축은 반드시 해야 한다	3.70 (1.03)	3.69 (1.01)	3.83 (0.90)	0.448
	저축은 나의 미래를 변화시킬 수 있다	3.87 (0.91)	3.87 (0.94)	3.98 (0.92)	0.397
	예상하지 못한 지출에 대비하여 저축을 하려고 노력한다	3.69 (0.95)	3.63 (1.01)	3.57 (1.04)	0.518
	나는 저축을 할 만한 여유가 없다	3.70 (1.06)	3.78 (1.10)	3.43 (0.94)	2.813
	현재 받고 있는 정부의 지원을 잃을까 걱정이 되어 저축을 하지 않는다	2.34 (0.99)	2.34 (1.11)	2.34 (1.04)	0.000
경제 적 여건	경제적 여건 총합	24.82 (5.67)	24.91 (5.91)	23.34 (5.91)	1.850
	오늘 돈 문제로 인해 스트레스를 느낀다	3.98 (0.98)	3.92 (1.05)	3.67 (1.08)	2.254
	나의 재정 상태에 대한 만족도가 낮다	3.92 (1.02)	3.90 (0.96)	3.62 (0.97)	2.328
	자주 생활비 걱정을 한다	4.10 (0.93)	4.06 (0.93)	3.90 (1.02)	1.155
	여윌돈이나 비상금이 없어 심리적 긴장감이 크다	3.81 (1.06)	3.83 (1.06)	3.52 (1.10)	2.125
	공과금 및 세금 납부, 대출금 상환과 관련해 어려움이 크다	3.32 (1.21)	3.36 (1.25)	3.16 (1.20)	0.672
	돈 문제로 인해 가정 내 갈등이 있다	3.19 (1.26)	3.32 (1.27)	2.98 (1.03)	2.226
	돈 문제로 인해 직장동료나 친구 등으로부터 상처를 받았다	2.51 (1.22)	2.52 (1.29)	2.50 (1.19)	0.011
재무 관리 역량	재무관리역량 총합	17.66 (3.50)	17.38 (3.56)	17.57 (3.56)	0.517
	매달 주거유지를 위한 충분한 돈을 가지고 있다	2.25 (0.73)	2.18 (0.72)	2.34 (0.74)	1.526
	긴급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돈(약 100만원)이 준비되어 있다	2.08 (0.93)	2.01 (0.82)	2.03 (0.82)	0.358
	소비나 저축에 대하여 계획을 세운다	2.73 (0.74)	2.73 (0.74)	2.81 (0.69)	0.309
	계획소비나 저축을 하고 있다	2.59 (0.72)	2.54 (0.76)	2.60 (0.72)	0.461
	수입이 증가하면서 저축도 늘린다	2.78 (0.83)	2.65 (0.83)	2.52 (0.71)	3.339* (A>C)
	나의 자산현황을 잘 알고 있다	3.03 (0.65)	3.02 (0.68)	2.88 (0.68)	1.239
	향후 5-10년 사이에 발생할 지출에 대해 미리 생각하고 준비하고 있다	2.20 (0.85)	2.24 (0.82)	2.38 (0.81)	1.109

*p < .05, **p < .01, ***p < .001

(4) 주거 상황

① 주거지 유형 및 점유형태

주택유형은 거주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어촌의 경우 상대적으로 일반단독주택 거주자의 비율(22.4%)이 대도시(5.9%), 중소도시(15.7%)에 비교하여 높았으며, 중소도시의 경우 다가구주택 거주자의 비율(19.5%)이 대도시(17.8%), 농어촌(17.2%)에 비교하여 높았음. 한편, 대도시의 경우 연립주택 거주자의 비율(22.2%)이 중소도시(12.0%), 농어촌(15.5%)에 비교하여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V-172> 조사 대상의 주거형태: 거주 지역 구분

(대도시 n=320, 중소도시 n=343, 군 n=58)

구분		거주 지역 구분:n(%)			$\chi^2(df)$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주택 유형	일반단독주택	19(5.9)	54(15.7)	13(22.4)	39.840(16)**
	다가구주택	57(17.8)	67(19.5)	10(17.2)	
	다세대주택	26(8.1)	32(9.3)	6(10.3)	
	연립주택	71(22.2)	41(12.0)	9(15.5)	
	일반아파트	42(13.1)	48(14.0)	2(3.4)	
	임대아파트	81(25.3)	80(23.3)	14(24.1)	
	비거주용 건물	3(0.9)	0(0.0)	1(1.7)	
	준주택	9(2.8)	9(2.6)	2(3.4)	
	기타	12(3.8)	12(3.5)	1(1.7)	
주거위치	지하층	2(0.6)	1(0.3)	1(1.7)	5.568(6)
	반지층	13(4.1)	9(2.6)	3(5.2)	
	지상층	302(94.4)	332(96.8)	53(91.4)	
	옥탑	3(0.9)	1(0.3)	1(1.7)	
주거점유형태	자가	18(5.6)	30(8.7)	5(8.6)	12.295(8)
	전세	96(30.0)	88(25.7)	6(10.3)	
	월세	164(51.3)	175(51.0)	38(65.5)	
	무상	17(5.3)	20(5.8)	3(5.2)	
	기타	25(7.8)	30(8.7)	6(10.3)	

*p < .05, **p < .01, ***p < .001

② 주거자산

주택금액은 대도시 약 2,432만원, 중소도시 약 2,087만원, 농어촌 약 605만원

으로 나타나 대도시와 중소도시 거주자의 주택금액이 농어촌과 비교하였을 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월세금액은 대도시 약 20만원, 중소도시 약 19만원, 농어촌 약 23만원으로 나타났으며 주택면적은 대도시 $41.28m^2$, 중소도시 $41.89m^2$, 농어촌 $40.18m^2$ 으로 나타났다.

<표 V-173> 조사 대상의 주거자산: 거주 지역 구분

(대도시 n=320, 중소도시 n=343, 군 n=58, 단위:만원, m^2)

구분	거주 지역 구분: m(sd)			F (Scheffe)
	대도시(A)	중소도시(B)	농어촌(C)	
주택금액	2432.35(3749.66)	2087.45(4021.71)	604.75(1466.98)	5.350** (A,B>C)
월세금액	20.42(18.32)	19.19(17.31)	22.88(21.31)	0.977
주택면적	41.28(26.62)	41.89(30.75)	40.18(42.32)	0.091

*p < .05, **p < .01, ***p < .001

(5) 진로에 대한 생각 및 진로행동

조사 대상의 예상진로는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모두 취업유지를 희망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음. 하지만 2순위의 경우 대도시와 중소도시는 이직을 희망하는 대상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농어촌은 특별한 진로 계획이 없는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V-174> 조사 대상의 예상 진로: 거주 지역 구분

(대도시 n=320, 중소도시 n=343, 군 n=58)

구분	거주 지역 구분: n(%)			$\chi^2(df)$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취업유지	167(52.2)	195(56.9)	22(37.9)	20.519(14)
이직	55(17.2)	34(9.9)	8(13.8)	
상급학교 진학	9(2.8)	11(3.2)	4(6.9)	
편입학	10(3.1)	6(1.7)	2(3.4)	
개인 사업 및 창업	17(5.3)	28(8.2)	5(8.6)	
군입대	9(2.8)	8(2.3)	3(5.2)	
특별한 진로 계획 없음	37(11.6)	37(10.8)	10(17.2)	
기타	16(5.0)	24(7.0)	4(6.9)	

*p < .05, **p < .01, ***p < .001

진로행동은 지역별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모두 3점 내외로 보통 정도 수준으로 나타났다.

<표 V-175> 진로행동: 거주 지역 구분

(대도시 n=320, 중소도시 n=343, 군 n=58)

구분	거주 지역 구분: m(sd)			F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진로행동(척도값 평균)	3.36(0.84)	3.32(0.87)	3.23(0.81)	0.584

*p < .05, **p < .01, ***p < .001

(6) 자아존중감 및 자신의 역량에 대한 평가

자아존중감은 지역별로 3.14점에서 3.23점 사이로, 전반적으로 보통 정도의 수준이었다. 행복지수는 농어촌이 가장 높았고, 대도시, 중소도시의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통계적 차이가 있었던 문항은 부정정서로 농어촌과 대도시 간, 농어촌과 중소도시 간 차이를 보였다. 부정정서가 가장 낮았던 지역은 농어촌이었으며, 대도시의 부정정서가 가장 높았다. 투지는 3점 내외로 보통 정도의 수준이었으며, 회복 탄력성은 보통 보다 약간 높은 수준이었다. 종합하면, 농어촌일수록 자기역량에 대한 평가가 긍정적이었으며, 대도시에 거주할수록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V-176> 자아존중감 및 자신의 역량에 대한 평가: 거주 지역 구분

(대도시 n=320, 중소도시 n=343, 군 n=58)

구분		거주 지역 구분: m(sd)			F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자아존중감(척도값 평균)		3.22(0.30)	3.23(0.34)	3.14(0.37)	2.214
행복지수	최종합복점수	13.04(8.31)	12.42(8.59)	15.00(8.33)	2.390
	만족감	13.36(3.54)	13.13(3.78)	13.83(3.79)	1.003
	긍정정서	14.55(3.37)	14.15(3.80)	14.78(3.61)	1.441
	부정정서	14.87(3.18)	14.85(3.32)	13.60(3.70)	3.907*
투지(척도값 평균)		3.18(0.64)	3.22(0.62)	3.33(0.61)	1.458
회복탄력성(총합)		4.92(1.68)	4.98(1.75)	5.07(1.76)	0.223

*p < .05, **p < .01, ***p < .001

(7) 사회적 자본과 사회활동 참여

사회적 자본과 가족지지의 지역별 차이는 확인할 수 없었다. 다만, 지역 구분과 관계없이 사회적 자본의 수준은 보통 보다 약간 낮았으며, 농어촌 지역의 사회적 자본이 2.98로 대도시와 중소도시 보다 미미하게 높았다. 통계적 차이가 나타난 문항은 사회적 자본의 ‘사회참여’로, 농어촌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중소도시, 대도시 순으로 나타났다. 대도시와 농어촌 간, 중소도시와 농어촌 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집단 간 차이를 보였다.

<표V-177> 사회적 자본과 가족지지: 거주 지역 구분

(대도시 n=320, 중소도시 n=343, 군 n=58)

구분		거주 지역 구분: m(sd)			F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사회적 자본	전체(척도값 평균)	2.81(0.47)	2.84(0.48)	2.98(0.59)	2.952
	신뢰	3.26(0.64)	3.20(0.68)	3.32(0.65)	0.996
	네트워크	2.56(0.73)	2.65(0.77)	2.79(0.84)	2.700
	사회참여	1.76(0.73)	1.81(0.71)	2.07(0.87)	4.528*
	규범의식	3.97(0.68)	3.97(0.73)	3.99(0.65)	0.025
가족지지		3.28(1.04)	3.23(1.01)	3.44(0.98)	1.083

*p < .05, **p < .01, ***p < .001

지난 1년 동안 사회참여 정도는 농어촌이 16.24일로 대도시(11.73일)나 중소도시(11.93일)에 비해 참여수준이 더 높았다. 반면 여가활동은 대도시(30.65)

와 중소도시(29.71일)가 농어촌(14.86일)에 비해 더 많은 참여도를 보였다. 친목모임 또한 대도시와 중소도시가 농어촌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V-178> 지난 1년 동안 사회참여 정도: 거주 지역 구분

(대도시 n=320, 중소도시 n=343, 군 n=58)

구분	거주 지역 구분: m(sd)			F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종교활동	11.73(31.96)	11.93(37.90)	16.24(50.60)	0.388
여가활동	30.65(60.76)	29.71(64.12)	14.86(21.46)	1.738
친목모임	19.08(25.67)	19.29(32.52)	9.83(14.22)	2.880
정당, 정치 관련 모임	0.18(1.28)	0.30(3.09)	0.50(2.26)	0.525
자선단체, 자원봉사활동 단체	1.72(6.51)	2.45(8.02)	2.31(7.34)	0.844
기타시민단체	0.53(4.51)	0.43(3.17)	0.60(2.54)	0.084

*p < .05, **p < .01, ***p < .001

(8) 사회의 소득불평등 수준

사회의 소득 불평등 수준에 대한 인식은 지역 구분별로 그 차이가 크지 않았다. 0점에 가까울수록 매우 불평등하다고 측정하였기 때문에, 대도시에 거주할수록 더 불평등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V-179> 사회의 소득불평등 인식: 거주 지역 구분

(대도시 n=320, 중소도시 n=343, 군 n=58)

구분	거주 지역 구분: m(sd)			F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소득불평등 인식 (척도값 평균)	3.21(2.15)	3.25(2.16)	3.50(2.60)	0.430

*p < .05, **p < .01, ***p < .001

(9)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 및 사업에 대한 생각

청년희망키움통장 월 자유납입금액은 농어촌 지역이 3.41만원으로 가장 낮았고, 중소도시가 5.49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표 V-180> 청년희망키움통장 월 자유납입금액: 거주 지역 구분

(대도시 n=320, 중소도시 n=343, 군 n=58, 단위: 만원)

구분	거주 지역 구분: m(sd)			F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월 자유납입금액	5.06(11.80)	5.49(13.18)	3.41(7.33)	0.733

*p < .05, **p < .01, ***p < .001

청년희망키움통장에 대한 사업 만족도는 전반적으로 농어촌 지역이 가장 높았으며, 중소도시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가장 점수가 낮았던 ‘사업과 관련된 소식이나 정보 제공’도 보통 정도의 수준이었으며, 모든 지역에서 보통 보다 약간 높은 수준의 만족도를 보였다.

<표 V-181> 청년희망키움통장 사업만족도: 거주 지역 구분

(대도시 n=320, 중소도시 n=343, 군 n=58)

구분	거주 지역 구분: m(sd)			F (Dunnett)
	대도시(A)	중소도시(B)	농어촌(C)	
지원 금액(월 10만원)의 수준	3.78(0.93)	3.73(0.94)	3.86(0.89)	0.580
사업과 관련된 소식이나 정보 제공	3.10(0.97)	3.02(0.94)	3.34(0.95)	3.032* (C>B)
사업에 참여하고 유지하기 위한 행정적 절차	3.36(0.88)	3.22(0.92)	3.47(0.90)	2.968
청년희망키움통장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	3.71(0.86)	3.53(0.95)	3.83(0.90)	4.772** (A>B)

*p < .05, **p < .01, ***p < .001

청년희망키움통장 사업을 포기하려고 한 적이 없다고 응답한 경우는 대도시에서 가장 높았다. 포기하려고 한 적이 있는 경우, ‘근로지속의 어려움’과 ‘탈수급에 대한 두려움’이 다른 요인에 비해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표V-182> 청년희망키움통장 사업 포기 고려 이유: 거주 지역 구분

(대도시 n=320, 중소도시 n=343, 군 n=58)

구분	거주 지역 구분: n(%)			$\chi^2(df)$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해당없음(포기하려고 한 적 없음)	183(57.2)	182(53.1)	32(55.2)	11.663
근로지속의 어려움	70(21.9)	75(21.9)	9(15.5)	
행정적 불편함	4(1.3)	11(3.2)	4(6.9)	
가족의 반대	1(0.3)	1(0.3)	0(0.0)	
탈수급에 대한 두려움	48(15.0)	52(15.2)	9(15.5)	
다른 통장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1(0.3)	0(0.0)	0(0.0)	
기타	13(4.1)	22(6.4)	4(6.9)	

*p < .05, **p < .01, ***p < .001

청년희망키움통장 사업의 개선점은 지역 구분에 따라 그 중요도가 다르지 않았으며, ‘수급 조건 완화’, ‘저축금액 다양화’, ‘가족 중복참여 허용’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V-183> 청년희망키움통장 사업 개선점: 거주 지역 구분

(대도시 n=320, 중소도시 n=343, 군 n=58)

구분		거주 지역 구분: n(%)			$\chi^2(df)$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1순위	저축금액 다양화	70(21.9)	92(26.8)	19(32.8)	19.274*
	탈수급 조건 완화, 폐지 등 수급 조건 완화	148(46.3)	147(42.9)	21(36.2)	
	행정 절차의 편의성 강화	14(4.4)	32(9.3)	3(5.2)	
	가족 중복참여 허용	70(21.9)	46(13.4)	10(17.2)	
	부가 서비스 및 프로그램 강화	10(3.1)	15(4.4)	2(3.4)	
	기타	8(2.5)	11(3.2)	3(5.2)	

*p < .05, **p < .01, ***p < .001

청년희망키움통장 사업과 함께 받고 싶은 서비스 및 프로그램은 ‘후원금/물품’이 가장 많았다. 이외에 지역 구분에 관계없이 주로 ‘주거개선’과 ‘문화여가’에 대한 욕구가 높았다.

<표V-184> 청년희망키움통장 사업과 함께 받고 싶은 서비스 및 프로그램: 거주 지역 구분

(대도시 n=320, 중소도시 n=343, 군 n=58)

구분		거주 지역 구분: n(%)			$\chi^2(df)$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1순위	가족상담/가족교육	11(3.4)	30(8.7)	4(6.9)	32.366
	문화여가	43(13.4)	53(15.5)	7(12.1)	
	후원금/물품	86(26.9)	82(23.9)	17(29.3)	
	심리상담	11(3.4)	26(7.6)	2(3.4)	
	양육교육	4(1.3)	6(1.7)	0(0.0)	
	의료지원	21(6.6)	18(5.2)	3(5.2)	
	직업교육/훈련	28(8.8)	23(6.7)	4(6.9)	
	자격증취득교육	34(10.6)	39(11.4)	7(12.1)	
	주거개선	44(13.8)	41(12.0)	6(10.3)	
	창업교육	12(3.8)	7(2.0)	1(1.7)	
	채무상담/채무컨설팅	17(5.3)	5(1.5)	2(3.4)	
	금융교육	6(1.9)	9(2.6)	3(5.2)	
	기타	3(0.9)	4(1.2)	2(3.4)	

*p < .05, **p < .01, ***p < .001

지원금 수령 시 사용계획으로는 모든 집단에서 ‘주택마련’이 가장 많았다. 대도시는 ‘미래생활 대비’와 ‘부채 상환’이, 중소도시는 ‘미래생활 대비’와 ‘교육비’가, 농어촌은 ‘교육비’와 ‘미래생활 대비’가 주요한 사용계획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V-185> 청년희망키움통장 사업 지원금 수령시 사용 계획: 거주 지역 구분

(대도시 n=320, 중소도시 n=343, 군 n=58)

구분		거주 지역 구분: n(%)			$\chi^2(df)$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1순위	교육비(본인 및 가족)	35(10.9)	50(14.6)	13(22.4)	20.205
	주택마련(전세금 포함)	118(36.9)	112(32.7)	18(31.0)	
	결혼, 상제비	16(5.0)	20(5.8)	5(8.6)	
	미래생활 대비(저축)	75(23.4)	72(21.0)	9(15.5)	
	사업(투자) 자금 마련(창업 포함)	17(5.3)	21(6.1)	3(5.2)	
	자동차, 가구, 가전 등 내구재 구입비	8(2.5)	8(2.3)	4(6.9)	
	불의의 사고 및 질병 대비	4(1.3)	9(2.6)	1(1.7)	
	여행 및 여가생활	2(0.6)	4(1.2)	0(0.0)	
	부채 상환	44(13.8)	42(12.2)	5(8.6)	
	특별한 목적이 없음	0(0.0)	1(0.3)	0(0.0)	
	기타	1(0.3)	4(1.2)	0(0.0)	

*p < .05, **p < .01, ***p < .001

3. 참여자 및 중도해지자 대상 집단심층면접 분석 결과

1) 청년희망키움통장 참여자 집단심층면접

(1) 연구방법

청년희망키움통장 참여자 4명을 대상으로 1시간 30분 가량 집단심층면접을 실시하였다. 참여자 중 1명은 남성, 3명이 여성이었다. 연령은 20대 초반 1명, 20대 중후반 2명, 30대 1명으로 구성되었으며, 거주 지역은 3명은 서울, 1명은 충청북도였다. 집단심층면접의 주요 질문은 ‘현재 삶에서의 어려움’, ‘통장사업 참여 이후 생활의 변화’, ‘통장사업 만기 후 기대하는 변화’, ‘통장사업에 대해 바라는 점’ 등으로 구성되었다. 녹음 후 전사한 후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은 질적 연구의 일반 원칙에 따라 코딩, 범주화, 의미도출의 방식으로 수행하였다.

<표 V-186> 사업참여자(유지자) 집단심층면접 참여자의 특성

참여자	성별	연령	거주지역
참여자 A	여	22	서울시 강북구
참여자 B	여	27	서울시 노원구
참여자 C	남	25	서울시 은평구
참여자 D	여	35	충청북도 청주시

(2) 연구결과

사업 참여자에 대한 집단심층면접 분석을 통해 도출된 범주들을 정리하면 <표 V-187>과 같다.

<표 V-187> 통장사업 참여자 집단심층면접을 통해 도출된 범주

소범주		중범주	대범주
가족의 빚을 같이 갚아나가면서 느끼는 부담감	가족의 빚	경제적 어려움	현재 삶에서의 어려움
현재 먹고 사는 문제에 급급하여 미래를 준비하지 못하고 있다는 두려움과 조바심	생활비 부담		
가족의 상황상 수급을 유지해야 하는데, 20대가 되면서 강화되는 수급 심사와 탈수급에 대한 압박으로 수치심을 경험함	매년 수급권 심사 때마다 경험하는 수치심	탈수급에 대한 압박과 수치심	
한부모로서 육아를 병행하면서 일자리가 제한적이며, 일자리를 구하더라도 금방 이직하게 됨. 아이돌봄서비스를 유용하게 활용하고 있으나 구직 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후 심사 기간과 배정 기간이 있어 사각 지대 발생	육아 때문에 일자리를 구하고 유지하기 어려움	일과 육아 병행의 어려움	
탈수급에 대한 의지를 다지게 되며, 탈수급을 준비하게 됨	탈수급의 준비와 계기	경제적 측면의 변화	통장 사업 참여 이후 생활의 변화
수급을 유지하기 위해 소득을 조절해야만 했던 과거와 달리, 통장참여를 계기로 탈수급을 결정하고 적극적으로 경제활동을 하게 됨	적극적 경제활동과 자립의 계기		
과거에는 쉽지 않았던 나에 대한 투자(학원비)를 하게 됨	나에 대한 투자		
아이 학원비와 학자금을 위한 저축	아이 교육비를 위한 준비		
군대 다녀와서 취업을 준비하는 기간 동안 취업 준비를 위해 사용할 자금이 있다는 생각에 여유를 가지게 됨; 많지는 않지만 목돈을 가지게 된다는 생각에 든든한 느낌	안정감과 여유를 느낌	심리정서적 측면의 변화	
미래를 준비, 계획하게 되면서 희망을 가지게 됨	미래에 대한 전망과 희망		
통장사업 참여와 함께 탈수급을 결정하면서 매년 수급 심사시 경험한 수치심과 탈수급 압박으로부터 벗어남	탈수급압박으로부터의 해방		
조금 더 나은 집으로 이사가기 위해 사용할 계획 부모로부터 독립을 위한 보증금으로 사용할 계획		주거비	만기시 지원금 활용계획
군대 다녀와서 취업준비 자금으로 사용할 계획		취업준비비	
동생 지원		가족지원	만기시 지원금 활용계획
자녀 학비		자녀학비	
인터넷 뱅킹 시스템 구축			
사업 홍보와 안내의 체계화 제공과 상담			
부가 서비스로 청년 대상 재무교육 필요			
사업 중단 기간 만큼 사업 기간 연장			
탈수급 시 의료비 및 학자금 지원			

주1) 2019년 9월 사업 지침 개정 시 인터넷 뱅킹 시스템 구축 반영됨

① 현재 삶에서의 어려움

가. 경제적 어려움

○ 가족의 빚과 나의 빚

참여자 중 일부는 부모 혹은 자신이 가진 빚이 경제적 어려움과 부담을 야기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한 참여자는 고등학교 졸업과 함께 일하면서 부모의 빚을 함께 갚고 있었으며, 집을 얻기 위한 임대료 마련을 위해 빚을 지고 갚는데 어려움을 경험하는 친구의 사례를 이야기하기도 하였다.

“빚의 계기가 주거문제 때문이었어요. 그 문제대해서 어떻게 해결할 거냐, ‘무조건 벌어서 언젠가 갚겠지... 10년이든, 20년이든...’

집 때문에 진 빚인데 친구는 많이 힘들어하고 우울해하고. 취업이 잘 안되는 부분이 있어서 많이 안타까워요. (참여자 A, 여성, 22)”

○ 생활비 부담

청년들은 취업, 진학, 선취업 후진학 등 다양한 진로를 선택했지만 대부분 진로와 적성에 대한 고민이나 고려보다는 안정적인 직장에서의 취업, 미래의 소득이나 벌이를 걱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변 친구들은 다양한데,,, 취업을 했거나, 재수를 하거나, 대학을 갔거나, 선취업 후 진학하는 친구들도 있고 그런데 다들 일단 먹고사는 문제를 걱정하는 것 같아요. 취업한 친구들은 미래의 소득이나 벌이를 걱정하고 있고, 대학 다니는 친구들은 말 그대로 진로와 적성에 대한 고려보다는 당장 취업에 대한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참여자 C, 남 25)”

나. 일과 육아 병행의 어려움

아이를 혼자 키우고 있는 청년 수급자의 경우, 육아 때문에 일자리가 제한적이며 일자리를 구하더라도 금방 그만두고 이직을 하게 되어 재정적 안정을 가지기 힘든 상황을 이야기하였다. 정부에서 제공하는 육아돌봄지원서비스인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으며, 매우 유용하나 구직 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후 심사기간과 배정기간이 소요되어 구직을 하는 과정과 심사 기간 중에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에 알게 된 친구들은 시설에서 알게 된 분들이라서 다 혼자 애를 키우고 있거든요. 그 사람들은 되게 자주 일을 그만두고, 아기가 한번 아프면, 법적으로 정해져 있어도, 출근했을 때 ‘애기 아파서 쉴게요’ 이러면, 당연히 눈치주고.. 이러다보면 일을 하기 힘들어지는 시기가 와서 그만두고 반복하시더라고요 (참여자 D, 여성, 35)”

“제 경우도 시설에서 나와서 2달 생활해보니까, 아이를 맡길 곳이 없어요. 어린이집 시간, 셔틀시간, 일하는 시간이 맞아야하는데 이제 안 맞아요. 그래서 계속 직장엔 취직 못하다가, 지금은 나라에서 하는 자활사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도 눈치를 주면서.. (참여자 D, 여성, 35)”

다. 주거 관련 어려움

청년희망키움통장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수급가구 청년들은 주거와 관련한 어려움을 토로하였다. 주거가 안정되지 않음으로써 기반이 흔들리고, 주거비 지출이 저소득 가구의 가계에 부담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거문제가 제일 컸거든요. 일자리는 무슨일이든 할 수 있는데, 주거문제가 가장 심각했던 게 지금은 SH 주택을 지원받아서 살고 있지만 임대주택 정책이 있다는 것을 알기 전까지는 집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어요. 엄마 혼자 일해서 할머니까지 가족을 먹여 살리는데 집 때문에 위기가 여러번 왔던 것 같아요.

다행히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학교에서 선생님이 제 가정 형편을 알게 되시면서 지원을 받게 되었어요. 엄마는 지금도 저한테 집 얘기를 많이 하세요 ‘돈을 이정도 모아서, 꼭 니 집이 있어야 한다 (참여자 A, 여성 22)’

“주거급여 같은 경우에는 다달이 월세비용이 나오잖아요. 그건 받으면 무조건 월세로 들어가는 돈이에요. 근데 저랑 둘째가 나이가 많고 점점 나이가 차가고, 탈수급 권유를 계속 받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가 제가 서른, 동생이 스물여덟까지는 주거 문제를 안정화하자고 계획하고 있어요. 안정되게 살 수 있는 집을 가려면 돈이 많이 들다보니 부담이 많이 되죠. 월세를 살면 예비금액없이 살아가는 입장에서 한 달 월세가 밀리면 연달아 문제가 생기죠 (참여자 B, 여성 27)”

“SH 같은 임대주택은 왜냐면 아버지 돌아가시고 가장 큰 문제가 주거문제였거든요. SH 알기 전에서 아는 분 집에 얻어서 살고, 그러다가 알게 되서 넘어갔거든요. 어머니한테 보증금 얼마고 얼마냐 여쭙보니까 훨씬 저렴하더라구요. (참여자 C, 남성 25)”

라. 매년 수급 심사에서 경험하는 수치심과 탈수급에 대한 부담

참여자들은 청년 수급자로써 매년 이루어지는 수급권에 대한 심사로부터 정서적으로 수치심과 탈수급에 대한 부담감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급권을 가질 경우 대학 진학 시 많은 혜택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본인 혹은 동생이 대학 진학을 생각하는 경우 수급권을 유지한다. 그러나 동생 등 가구원의 학비 부담 때문에 수급권을 유지해야 하는 상황에서, 매년 주민자치센터 담당자가 탈수급을 권하고 하는 일을 심사하는 과정은 수급 청년들에게 부담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수급권을 가지면 대학진학할 때 혜택이 많아요. 저같은 경우는 가족들이 처음부터 수급을 받았던 게 아니라서. 근데 저는 딱 걸쳐있어서 개월수가 안되서 대학을 못갔죠. 그랬던 건데 그 못간 순간부터 그 스트레스와 외압을 받았어요. 연초에 지자체 동사무소에서 저한테는 언례행사인 거예요. 독학사로 공부를 하고

있는데, 말 그대로 독학사여서 저는 증빙할 수가 없어요. 그들이 원하는 증빙을 제출할 수가 없는데 지자체에서는 원하거든요. ‘독서실이라도 가지 않냐, 그런 독서실이라도 끊어서 갖고 와.’ 근데 저는 영수증이 없거든요. 근데 그렇게 말하면 그거에 대해서 의문을 가져요. 빌고 빌어서 결국에는 할 수 있는 게 합격증으로 탈수급 하겠다. 근데 동사무소에서든 공무원들이 자주 바뀌어요. 저는 매년 그걸 자주 설명해야 되는거죠 공부하는 입장에서 엄청 스트레스를 받는거죠. 애기하는 건 괜찮은데 그걸 항상 설득해야만 유지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탈수급에 대한 압력, 부담을 많이 가졌던 것 같아요 (참여자 B, 여성 27)”

마. 불안한 미래와 탈수급에 대한 두려움

아직 진로를 결정하지 못한 청년의 경우 불안한 미래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발견되었다.

“저는 군대에 장교로 가게 되어 있어요. 그 때 강제로 탈수급이 되는데 다녀와서 무슨 일을 해야할지 고민이 되고 불안하기도 해요. 금융권에 가고 싶은데 군대에서 돌아오고 바로 취업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따로 경제적 기반도 없어서 청년희망키움통장에서 나온 돈이랑 군대에서 모은 돈으로 취업준비를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요 (참여자 C, 남성 25)”

② 청년희망키움통장 사업 참여 이후의 삶의 변화 및 종료 후 기대하는 삶의 변화

가. 경제적 측면의 변화

참여자들은 대부분 참여 중인 현재 시점에서 체감하는 변화는 없으나, 향후 경제적 측면에서 삶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발견되었다.

○ 아이에 대한 투자와 가족 지원

아이가 있는 경우, 아이 학원비와 학자금으로 사용하려고 하는 모습이 발견되었으며, 특별한 목적 없이 본인의 취업준비비 혹은 가족을 지원하는데 활용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기도 하였다.

“나중에 아기 학자금에 보태려 해요...(참여자 D, 여성 35)”

“전 특별한 계획은 없고 놔두었다가 취업준비비로 쓰거나, 투자자금 혹은 가정에 보탬이 되는데 쓸 것 같아요. (참여자 C, 남성 25)”

○ 나를 위한 투자와 독립을 위한 종자돈

또한 통장사업으로 모아진 목돈이 내가 독립하여 자리잡을 수 있는 종자돈, 마중물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수행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다.

“미용은 교육에 돈이 많이 들어요. 근데 만약 이 돈이 없었다면 저는 주저했을 거예요. 저는 날 위해 투자해도 국가에서 날 위해서 나중에 나에게 주기 때문에 내가 먼저 투자해도 된다는 안정감이 있어요.

투자가 시기가 중요한데 필요할 때 덕분에 저에게 투자할 수 있었어요. 이게 큰 변화라고 생각해요. 지금 조금 힘들고 무리가 되더라도, 나에게 투자할 수 있는 것이요 (참여자 B, 여성 27)”

“저는 따로 경제적 기반도 없어서 군대에서 나와서 취업준비를 하는 동안, 청년희망키움통장에서 나온 돈이랑 군대에서 모은 돈으로 취업준비를 해야하지 않을까 생각해요 (참여자 C, 남성 25)”

○ 적극적인 경제 활동과 자립의 계기

청년희망키움통장 사업 참여자들은 통장사업참여가 탈수급을 결정하는 계기가 되고, 탈수급에 대한 결정과 함께 사업 참여를 통해 적극적으로 경제 활동을 하고 자립의 미래를 계획하게 되었음을 이야기하였다.

“돈을 벌다보니까 통장에 돈들어오는 게 그렇게 좋더라고요. 왜냐면 주거랑 돈 때문에 많이 불편하게 살아왔어요. 근데 수급을 유지하려고 생각했을 때는 소득을 수급 유지할 수 있을 정도로 맞추는 것이 저 같은 경우 힘들었어요. 지금 즐거운 게 있다면 돈을 걱정없이 벌고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참여자 A, 여성 22)”

나. 정서적 측면에서의 변화

청년희망키움통장 사업 참여자들은 현재 직접적으로 변화를 느끼지는 않으나 탈수급 준비를 함께 해나가면서 점차 상황이 나아지고 있다고 인지하고 있었다. 더하여 탈수급 시점에서 크지는 않지만 통장사업에의 참여를 통해 정서적으로 안정감과 미래에 대한 전망과 희망을 가지게 됨을 발견할 수 있었다.

○ 미래에 대한 전망과 희망이 생김

청년희망키움통장 사업 참여자들은 적극적으로 근로를 계획하거나 참여하면서 미래를 생각하며 희망을 가지게 되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통장사업에 참여하고 탈수급을 결정하면서 돈을 많이 벌진 못해도 그래도 사용할 부분들에 눈치치안보고 쓸 수 있게 되고, 동생을 지원해 줄 수 있고, 부모님을 챙길 수 있게 되었어요. 예전엔 누릴 수 없었던 것들이예요. 이렇게 일을 하면서 미래도 그려볼 수 있게 되었어요 (참여자 B, 여성 27)”

“탈수급 여부를 생각할 때는 고민이 많이 되었거든요. 지금은 탈수급을 결정하고 준비하니 오히려 미래에 대한 것만 더 그리고 있고 더 여유롭게 흘러가고 있

어요 (참여자 C, 남성 25)”

”지금 운 좋게 보수가 괜찮은 일자리에 취업하게 되고 그 돈으로 돈이 쌓이고 그 적립금, 장려금이 쌓이다 보니까 들뜨게 되고, 좋은 쪽으로 들뜨게 되고요, 옛날에는 잘 될까 했었는데 지금은 잘 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참여자 A, 여성 22)”

○ 안정감

청년희망키움통장 사업 참여자들은 또한 통장사업에의 참여가 현재의 삶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키고 있지는 않으나 목돈이 마련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안정감을 준다고 이야기하였다.

“그 돈으로 주거문제를 잘 해결하고 싶은 거니까. 그것에 대해 만족감이 높고 일이 힘들어도 힘들 때마다 통장 보면서 안심이 돼요 (참여자 A, 여성 22)”

“3년 후에 받을 그 돈이 제 삶을 변화시킨다거나, 대단한 일이 일어난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어떤 자극이나 힘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통장하면서 직업이 많이 바뀌었어요. 탈수급 뒤에는 저는 기술직을 하고 있으니까 기술직에 맞는 사업장을 내는 것을 목표로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금액이 저에게 큰 변화를 주지 못하지만, 그래도 그 금액만큼 세이브가 되니까 안정감도 있어요 (참여자 B, 여성 27)”

○ 탈수급

청년희망키움통장 사업은 탈수급과 관련하여 청년 참여자들에게 탈수급의 합법적 연장 수단이자 지원 제도이자 탈수급의 계기가 되고 있었다. 또한 탈수급을 구체화, 현실화해 나가면서 삶이 안정화되고 있었다.

“이십대 초반 때부터 지속적으로 지자체에서는 탈수급을 원하고, 가정 형편으로는 그게 힘들고, 그래서 그걸 미루고 싶은데 저는 그 미룰 수 있는 방편으로 통장사업을 선택했던 거고요. 그 안에도 뭔가 요구들이 있지만, 그래도 이 사업을 하고 있어서 이전보다 배려 받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요 (참여자 B, 여성 27)”

③ 청년희망키움통장 사업 관련 제언

가. 인터넷 뱅킹 시스템 구축

동기부여와 접근편의성을 위해 인터넷 뱅킹으로 확인가능할 수 있도록 온라인 뱅킹 시스템 구축

“제가 불편했던 것은, 청년세대에게 제일 중요한게 편리함이거든요? 근데 온라인, 편리함이 중요한데. 세대가 바뀌고 있는데도 그런 부분이 안되는 게 당황스러웠죠. 제가 동의서를 작성할 때 직접 통장을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는 못 들은 거 같거든요? 많이 궁금한거죠.. 온라인으로 안돼냐. 이유라도 알려주면 좋을 텐데....(참여자 C, 남성 25)”

나. 보다 자세한 정보 제공과 상담

사업과 관련한 구체적 정보 제공과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체계 구축 필요

“주민자치센터 담당자도 사업내용을 자세히 몰라 안내 받기가 힘들어요... 상담을 어디서 받아야 하는지... 관련 부서로 연락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러하는데 잘 모르시더라구요 (참여자 A, 여성 22)”

다. 추가 서비스 : 청년 대상 재무교육 필요

“처음에는 버는 대로 다 썼어요. 이걸 안되겠다 했는데 마침 자활센터에서 재무교육이 있었어요. 부모교육, 경제교육이 한 두번 들어가는데 무조건 적금하고 나머지를 써라, 적금하고 그렇게 써서 돈을 모았어요. 지금은 무조건 적금하고 나머지 쓰고 있거든요. 젊은이들에게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 좋은 팁도 교육하고 그런 것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참여자 D, 여성 35)”

라. 탈수급 관련

수급 가구 청년들은 탈수급 필요성은 공감하나, 탈수급 시 의료비 부담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이 큰 것으로 나타남. 관련하여 탈수급 시 의료급여는 유지하거나 실비 보험으로 연결할 필요 제안

“탈수급 시 걱정되는 것이,,,저는 저희 집이 탈수급 하려는데 엄마가 나이가 있으셔서 의료비가 걱정돼요. 그래서 탈수급을 준비하면서 엄마 의료실비보험부터 들었어요. 의료급여가 탈수급해도 유지되면 탈수급을 결정하기가 훨씬 쉬울 것 같아요 (참여자 A, 여성 22)”

마. 휴지기 연장

현재는 이직 등으로 근로를 하지 않는 기간을 6개월까지 인정하나, 이러한 휴지 기간 동안은 적립이 이루어지지 않아 종료시 수급액이 줄어드는 형태임. 이러한 휴지기를 2년에서 줄이기보다 2년에서 연장될 수 있도록 하여 수급액이 차감되지 않고 쌓일 수 있는 방식으로 변경되기를 바램

2) 중도해지자 집단심층면접

(1) 연구방법

중도해지자 3명을 대상으로 1시간 30분 가량 집단심층면접을 실시하였다. 참여자 중 2명은 남성이었고, 1명이 여성이었다. 참여자는 모두 20대였으며, 거주 지역은 3명 모두 경기도였다. 집단심층면접의 주요 질문은 ‘현재 삶에서의 어려움’, ‘통장사업 중도해지 이유’ ‘통장사업에 대해 바라는 점’ 등으로 구성되었다. 녹음 후 전사한 후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은 질적 연구의 일반 원칙에 따라 코딩, 범주화, 의미도출의 방식으로 수행하였다.

<표 V-188> 중도해지자 집단심층면접 참여자의 특성

참여자	성별	연령	거주지역
중도해지자 A	여	28	경기도 광명시
중도해지자 B	남	27	경기도 안양시
중도해지자 C	남	25	경기도 남양주시

(2) 연구결과

사업 중도해지자에 대한 집단심층면접 분석을 통해 도출된 범주들을 정리하면 <표 V-189>와 같다.

<표 V-189> 중도해지자 집단심층면접을 통해 도출된 범주

소범주	중범주	대범주
장애로 인해 일자리를 구하기 매우 어려움	구직의 어려움	현재 삶에서의 어려움
최저임금으로 일자리가 감소한 듯하고, 좋은 일자리가 부족함.		
각자의 적성과 목표에 맞는 일자리 알선 또는 일자리 탐색 프로그램이 부족함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들로 인해 힘이 듦	심리정서적 어려움	
LH, SH 등 공공임대 관련 정보를 얻고 싶음	주거 정보가 부족함	
생활비를 지출하기 위하여	생활비 부족	중도 해지 이유
안정적인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불안정한 일자리로 근로를 유지하기 어려워서	근로중단	
공무원 준비로 근로유지를 못해서		
탈수급을 하게 되어 비자발적으로 해지하게 됨	탈수급	
탈수급 이후 지원제도 또는 세대분리 정보 등이 있으면 불안없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을 것 같음	다양한 정보 제공	통장사업에 바라는 점
행정절차가 길고 복잡한 부분들을 개선했으면 함	행정절차의 효율화	

① 현재 삶에서의 어려움

가. 구직의 어려움

장애인 참여자는 장애로 인해 일자리를 구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호소하였다. 또한 최저임금으로 일자리가 감소하여 일자리가 찾기가 어렵다는 참여자도 있었다. 또한, 한 참여자는 각자의 적성과 목표에 맞는 일자리 알선 또는 일자리 탐색 프로그램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저는 청각장애가 있어요. 후천적으로 제가 장애도 있고, 다른 뇌병변 장애가 있다보니까 장애공단이라던가, 장애인일자리센터라던가 시청구청에서 일자리를 알선 받아도, 일자리가 그렇게 구하기 쉽지가 않더라구요. 받더라도, 계약직이 되다보니까 힘든 편이에요”(중도해지자 A)

“내 돈 나가는 거니까 이태원 앞에는 처음에 다 알바부터 시작하거든요. 집세를 당장 내야하니까. 친구들도 그렇고, 안양에 사는 친구들도 그렇고. 저는 약간 돈없는 사람들끼리 싸우는 느낌인데.. 진짜 싸워 될 사람이랑 싸우지 않고 자기들끼리 조금이라도 더 가져가려고 하는 거 같은데. 요즘 자영업자들도 어렵잖아요. 그래서 주휴수당을 안 쓸 수 있는 시간만 쓰다던지. 3시간만 쓴다던지. 그렇게 인건비를 많이 줄이죠. 그리고 전보다 요즘에는 제가 들었을 때는 추세가 직원으로 해서 풀타임으로 돌리는.. 그걸 한 두명만 쓰는 거예요. 여러 명을 안 쓰고, 그랬을 때 좀 어려워지는 부분이 있죠.”(중도해지자 B)

“저는 특수한 상황을 제외하고. 저는 국한적이긴 하지만, 제 주변은 자기가 원하는 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자기 방향을 찾아가려는 친구들이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그런 거 같고...”(중도해지자 B)

“실제로 어려운 건 맞는 거 같아요. 원하는 부류가 비슷한 게 많으니까, 물리는 데 물리고 안 물리는 데는 안 물리니까, 그 차이가 심하니까요. 균형이 안 맞는 거 같아요.”(중도해지자 C)

나. 심리정서적 어려움

참여자들은 심리정서적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는데, 장애인 참여자는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들로 인하여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고, 비장애인 참여자들은 팍팍한 삶과 가정환경으로 인하여 심리적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다. 그에 반하여 정신건강서비스는 많이 부족하다고 지적하였다. 심리적 낙인감을 최소화하면서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길 희망하기도 하였다.

“비장애인으로 살고 싶다. 네... 사람에 대한 인식이 변했으면 좋겠다. 장애인 인식개선. 아무리 교육을 받아도 큰 효과가 없는 것 같더라구요. 직장을 다닌 지 8개월, 9개월 차인데 그때 3개월 동안 입사하고 나서 힘들었거든요. 장애에 대한 제가 입사하기 전에 그 사람이 제가 있어야 할 자리도 장애를 갖고 계셨는데, 경증이었는 데도 그 직원한테 태도와 저한테 대하는 태도가 너무 차이가 나서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녹음 언니한테 들려주고 그랬는데...”(중도해지자 A)

“되게 스트레스 관리는 국한적인데, 주변 사람들을 보면 스트레스관리 뿐만 아니라 다양한.. 멘탈이슈를 겪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런 것들이 좀 자기 안에 폐쇄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상담이라고 떨어뜨려 놓으면 거기 직접 가야되잖아요. 딱 벽이 세워져 있잖아요. 거부감이 들 수 있으니까. 그런 게 공유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중도해지자 B)

다. 주거정보가 부족함

참여자들은 주거를 독립하여 편안하게 지내고 싶으나, LH, SH 등 공공임대 관련 정보가 불충분하여 이러한 혜택을 받기 어렵다고 하였다. 주거제도가 있다는 것은 알고 있으나 구체적인 정보가 없어서 이용이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정보가 크지 않고 모르는 사람이 훨씬 많죠.”(중도해지자 C)

② 중도 해지 이유

가. 생활비 부족

한 참여자는 이사 등 생활비가 부족해서 통장을 해지했다고 하였다. 자유납입금을 지출해야 할 때 중도해지를 고민하고 결정하게 되는 것이었다.

“저는 이사 때문에. 2월에 해지했었거든요. 그 때 돈을 조금 벌기는 했는데 부족해서 이사비용이 비싸다보니까, 그래서 해지한거구요. (일은 계속 하시구요?) (중도해지자 A)

나. 근로중단

청년희망키움통장 참여를 중도에 해지한 이유로 두 참여자는 근로중단을 꼽았다. 계약직 일자리와 같은 불안정한 일자리를 주로 갖기 때문에 3년 동안 근로

중단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았다. 또한 구직준비로 인하여 근로를 중단할 수 밖에 없는 상황도 있었다.

“지금은 계약직으로.. (다시 또 가입하실 계획은 있으신가요?) 계획은 있는데, 근로를 유지하는 게 힘들어요.”(중도해지자 A)

“저는 작년에 공부하느라 돈쌓인게 없었거든요. 그래서 해지를 하고, 저번주에 다시 가입을 했어요. 시청에서 다시 연락을 주셨어요. 저는 한번 하고 나면 다시 못하는 줄 알고 끝인줄 알았는데.. 저는 쌓인게 별로 없는데, 다시 하면 할 수 있다 하셔서.. 그러면 좋아요 해달라고 했죠.”(중도해지자 C)

다. 탈수급

세대분리가 가능한 나이가 되면서 탈수급을 하게 되어 비자발적으로 해지게 되는 경우도 있었다. 탈수급한 저소득층이라는 이유로 해지를 하게 되면서 목돈 마련의 기회가 박탈되었고, 이러한 제도가 계층 이동을 막고 있다고 느끼기도 하였다.

“제가 사업을 해지한 이유가 있는데, 저는 탈수급을 했거든요, 어릴 때 부터 한부모가정이라서 수급을 받았는데. 저는 엄마랑 살고, 사실 저도 모르는 사이에 수급자가 되어있었죠. 그러다가 만 25살이 되면서 사업해지하고, 저는 제꺼를 하려고 하는데.. 그런데 수급자일 때는 그게 제약이 많더라구요. 내가 뭘 한다는 게, 사회에서. 제가 불만이라기보다는 하나의 실링을 만든다고 생각하는데. 못 올라가게 하는 실링처럼. 만약에 올라가면 어? 너 부담될걸? 하는. 이런인식을 주게 만드는.”(중도해지자 B)

③ 통장사업에 바라는 점

가. 다양한 정보제공

참여자들은 탈수급 이후에 여러 지원이 중단되는 점에 대해 꽤 우려하고 있었

다. 탈수급 이후에 이용할 수 있는 제도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해 주어서 탈수급을 두려워하지 않게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나타내었다.

“엄마 얘기하면, 저한테 엄마도 의료비 지원받아야 돼.. 너 이거 감당못해 이러니까. 방법은 있더라구요. 제가 탈수급해도 엄마가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도 있고, 다행히 구청에서 그렇게 안내를 해주셔가지고 감사하게. 그런 방법들을 절차를 단계들을 확실히 알려주고 해주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정보도 명료하게 알려주고, 네.. 그런것에 대한 정보를 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중도해지자 B)

나. 행정절차의 효율화

참여자들은 해지방법이 복잡하고 길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은행과 관공서를 각각 직접 방문해야 하는 게 불편한데, 지정은행이 1곳이라는 점이 불편함을 더 하게 하였다. 또한 해지에 소요되는 기간이 길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지정은행을 확대하거나 온라인 해지가 가능하도록 행정절차를 효율화할 것을 제안하였다.

“가입할 때도, 조건이 맞아야 되잖아요. 해지도 반대로, 직접 방문해서 해지신청서를 작성하고, 은행에서 방문해서 해지해야 하는 게 있는데 이게 좀 편했으면 좋겠어요. 해지가 불편했어요. 해지할 때 은행에서 서류작성하고 해지하는 게 낫지 않을까. 간편하게 해지할 수 있도록. 받은 서류를 공공기관에서 다 쓴 다음에 해지하는 게, 괜히 힘들게 돈이 필요하면 해야되잖아요, 신청을 하고 기간을 기다려야 하는게 불편했어요. 저는 1주일에서 보름정도 기다렸거든요.”(중도해지자 A)

“은행이 확대되면 좋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하나은행이 없으면 만들어야 되니까.”(중도해지자 C)

4. 요약 및 정리

1) 참여자 대상 1차 패넬 조사 분석 결과 요약

조사대상자는 평균 24.7세로, 1인~4인 가구가 다수를 차지하였다. 학력은 고등학교 졸업과 대학교 졸업 순으로 많았다. 상용근로자와 임시근로자 비율이 높았고 절반 이상이 시간제 근로자였으며 서비스종사자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월평균 근로소득은 약 104만원이었으며, 월평균 총 생활비는 근로소득의 약 88%로 고정비성 항목에 대한 지출이 컸다. 월평균 저축액은 근로소득의 약 20%정도이며, 인당 총 부채액이 약 606만원인 것에 비해 월평균 상환액 약 12만원으로 낮은 수준이었다. 부채에 대한 부담은 3.98점이었으며, 가족 부양에 대한 부담은 4.96점이었다. 조사 대상의 약 25%는 임대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으며, 과반수 이상이 월세로 거주하고 있어 주택의 주거비 부담은 높은 반면 추후 자산으로서의 가치는 낮았다. 저축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나, 경제적 스트레스는 높고 실제 재무관리역량은 낮은 수준으로, 저축행위로의 연결성이 약하였다. 자아존중감이나 행복, 투지 등은 중간 이상의 수준이었으나 부정정서를 경험한 빈도가 다소 높았고, 사회적 자본은 보통 보다 낮은 수준이었다. 청년희망키움통장 사업에 대한 만족도는 보통 보다 약간 높았지만, 조사대상자의 약 45%가 근로지속의 어려움과 탈수급에 대한 두려움으로 사업 포기를 고려한 적이 있었다. 사업의 개선점으로는 수급 조건 완화, 저축금액 다양화, 가족의 중복참여 허용을, 함께 받고 싶은 서비스로는 후원금/물품, 문화여가, 주거개선, 자격증취득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았다.

학력수준별로는 대졸(2년제)이상 집단이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의 비율과 전일제 근로 비율, 고용희망이 높았고 고용장벽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예상 진로로 대졸이상 집단은 주로 이직을 희망한 반면, 고졸이하 집단은 개인사업 및 창업을 희망하는 비율이 높았다. 주관적 지표인 진로행동, 행복지수 및 긍정정서, 회복탄력성, 사회적 자본 모두 대졸이상 집단이 유의하게 더 높았으며, 특정 사회활동의 참여도도 더 높았다. 종합하면, 고졸이하 집단은 상대적으로 낮은 고용지위

와 재무적 역량을 지님과 동시에 자신에 대한 긍정적 정서는 낮으며, 주변의 지지체계 또한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근로시간 구분별로는 시간제 집단의 평균 학력이 전일제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고, 임시직 및 일용직 비율은 높았으며 서비스직 종사자가 거의 절반 수준이었다. 실제 저축액 또한 전일제 집단이 약 29만원이었던 것과 비교하여 시간제 집단은 약 16만원으로 절반 미만이었으며, 부채에 대한 상환액도 적었다. 같은 맥락에서 자신의 미래상황에 대한 전망과 저축인식, 재무역량 등의 수준에서 전일제와 비교하였을 때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도로 낮은 것으로 나타나 불안정한 근로지위와 그에 따른 급여 수준 등이 높은 경제적 취약성과 연결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연령대별로는 가정 내 주된 생계부양자에 해당하는 30세이상 집단이 경험하는 어려움이 특징적으로 나타났다. 30세이상 집단의 약 60%가 중학교 및 고등학교 졸업자였으며, 일용직과 고용주/자영업자 비율이 높고, 본인의사와 무관하게 회사사정에 따라 해고가능하다고 응답한 비율 또한 높았다. 평균 개인 부채 역시 다른 연령대보다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총생활비도 가장 많이 쓰는 반면, 저축액은 가장 적었다. 객관적으로 드러난 상황 외에 주관적 지표 전반의 점수도 가장 낮았다. 특히 개인부채부담과 가족부양부담, 고용장벽은 가장 높았고, 진로행동, 행복지수, 고용희망은 가장 낮았다. 30세이상 집단은 가족상담/가족교육 욕구가 비교적 높았다.

가구주별로는 가구주의 근로 특성(서비스직, 시간제 비율 높음)이 가구원과 유사한 경향성을 보임에도 불구하고, 부양부담이 가구원에 비해 월등히 높았다. 가구원의 주요 부채 이유가 학자금 지출인데 반해, 가구주는 생활비 부담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돈 문제로 인한 스트레스 및 공과금과 대출금 상환과 같은 경제적 여건이 더 나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진로행동, 행복지수와 긍정정서와 사회적 자본, 사회활동 수준도 가구주가 더 낮았다. 즉, 금전문제로 인한 현실적 스트레스를 더 많이 경험하고 있음에도 개인적, 주변의 지지체계는 오히려 부족한 상황이었다.

거주지역별로는 농어촌 집단에서는 근로 현황 및 소득 부분에서 대도시와 중 소도시에서는 심리정서 및 사회적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취약성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농어촌의 경우 일용직근로자 및 시간제 근로자 비율이 가장 많았다. 한편, 농어촌일수록 자기역량에 대한 평가가 긍정적이었으며, 대도시일수록 부정적이었다. 사회적 자본의 수준 또한 농어촌이 미미하게 높았다.

2) 참여자 및 중도해지자 대상 집단심층면접 분석 결과 요약

청년들의 삶과 계획, 청년희망키움통장 관련 경험을 이해하기 위하여 청년희망키움통장 참여자 1집단(5명)과 중도해지자 1집단(3명)을 대상으로 집단심층면접을 실시하였다. 구체적으로는 ‘현재 삶에서의 어려움’, ‘통장사업 참여 이후 생활의 변화’, ‘중도해지 이유’ ‘통장사업에 대해 바라는 점’ 등에 대하여 질문하였다.

사업참여 및 중도해지 청년들은 경제적 어려움, 심리정서적 어려움, 일가정균형의 어려움, 구직 어려움, 주거 어려움, 수급심사 때 겪는 수치심과 탈수급 부담, 불안한 미래와 탈수급에 대한 두려움과 등과 같은 삶의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다.

청년희망키움통장 사업 참여자들은 사업 종료 후 가족과 자신을 위한 경제적 지원과 적극적 경제활동을 통한 자립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였고, 사업 참여 이후 정서적 안정감과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지게 되었으며, 탈수급을 기대하고 있었다. 한편, 중도해지자들의 청년희망키움통장 중도해지 이유는 생활비 충당, 근로 중단, 탈수급으로 확인되었다.

통장사업에 바라는 점으로는 사업과 탈수급 이후의 지원 제도 등에 대한 다양한 정보 제공, 온라인 신청 및 이용, 청년대상 재무교육, 휴지기 연장, 신청 및 해지 절차 간소화 등과 같은 행정절차의 효율화를 제시하였다.

VI

결론 및 제언

1. 청년희망키움통장 사업 관련 결론
2. 청년희망키움통장 사업 관련 제언
3. 자산형성지원사업 등 청년 대상 지원 제도에
대한 전반적 제언

VI. 결론 및 제언

1. 청년희망키움통장 사업 관련 결론

본 연구는 2018년에 청년희망키움통장 사업에 가입한 참여자 722명을 대상으로 다음과 같이 청년희망키움통장 참여자의 신체적 및 심리·정서적 건강, 경제적 상황, 주거 상황, 근로 및 진로 상황, 사회적 역량 정도를 객관적 지표와 주관적 지표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먼저 조사 대상은 과반수가 20대 초반으로 평균 24.7세였으며, 대체로 1인가구와 4인 가구로 나타났다. 학력은 고등학교 졸업이 49.4%로 과반수, 다음으로 4년제 대졸이 25.5%, 2년제 대졸이 18.6%를 차지하였다. 패널 중 70% 이상이 하나 이상의 자격증을 가지고 있었으며, 24.1%는 3개 이상의 자격증을 21.6%는 2개의 자격증을, 26.3%는 1개의 자격증을 가지고 있었다.

다음으로 신체적 건강 정도에 대한 주관적 인지 정도를 0-10점으로 조사한 결과 평균 5.57점, 즉 중간값 정도인 보통 수준으로 나타나 대부분이 20대인 연령대를 고려할 때 자신을 건강하지 않은 것으로 인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뒤의 근로와 고용에 있어서 건강을 장벽으로 인지하는 정도가 보통 정도로 나타난 결과와도 맥을 같이 한다. 심리·정서적 건강과 관련하여 자아존중감, 행복지수, 끈기/투지, 회복탄력성을 조사하였다. 먼저 조사대상자들의 자아존중감, 끈기/투지, 회복탄력성 수준은 중간 이상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반면 행복은 보통 수준(12점)을 조금 넘었으나 긍정적 정서(즐거움, 편안함, 행복함) 이상으로 부정적 정서(짜증, 부정적임, 무기력감)를 느낀 빈도가 높았다.

다음으로 참여자의 경제적 상황은 소득, 저축, 부채, 지출 현황 등 객관적 지표와 함께 저축에 대한 인식, 경제적 여건에 대한 인식, 재무관리 역량과 같은 주관적 지표를 통해 파악하였다. 먼저 근로소득은 103.9만원, 공적이전소득 35.3만원, 사적이전소득 19.8만원으로 나타났다. 월평균 저축액은 20.6만원이며 조사

대상의 63%에 해당하는 현재 저축을 하고 있는 458명의 평균 저축액은 32.4만원으로 조사되었으며, 청년희망키움통장사업 자유납입금액은 월평균 5만원으로 나타났다. 총 개인 부채액은 605만원, 부채를 가지고 있는 317명 참여자(조사 대상의 46%)의 일인당 평균 부채액은 1,310만원, 월평균 상환액은 12만원으로 조사되었다. 부채이유로는 학자금(40%), 생활비(30%), 가족 지원(16%), 주거비(8%) 순이었다. 지출과 관련하여 총생활비는 월평균 91.7만원으로 월평균소득 103.9만원 대비 88.3%를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생활비 품목 별로는 식료품비 28.9만원, 주거비 15.2만원, 교통통신비 12.6만원, 교육비 11.5만원 순으로 지출하고 있었다. 응답자들은 가장 부담이 되는 지출로 과반수에 가까운 응답자들은 가장 부담이 되는 지출로 과반수에 가까운 45.4%가 식료품비를 들었으며, 이어서 주거비 23.4%, 교통통신비 11.6%, 교육비 7.2%를 들어, 반드시 지출해야하는 고정비 성의 항목에 지출 부담을 높게 느끼는 것으로 해석 할 수 있다.

경제적 상황과 관련하여 저축에 대한 인식, 경제적 여건에 대한 인식, 재무관리 역량과 같은 주관적 지표를 통해 파악하였다. 그 결과, 저축의 중요성을 높게 인식하고 있었으나, 자주 생활비 걱정을 하고 돈 문제로 스트레스를 느끼는 등 경제적 여건은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소비와 저축 관련 준비와 계획을 하고 있는 비율은 낮은 것으로 나타나, 조사 대상은 전반적으로 저축의 필요성과 중요성은 인지하고 있으나 경제적 여건과 경제적 행위에 대한 접근성이 낮아 ‘저축’이나 ‘계획적 재무 관리’ 행위로의 연결은 낮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다음으로 고용 상황과 관련하여 상용직(30.2%), 임시직(30.1%), 일용직 근로자(16.1%) 순으로 나타나 고용 지위만을 두고 봤을 때도 조사 대상의 2/3는 불안정한 고용 지위의 비율은 것으로 나타나 불안정한 고용 지위가 탈수급의 장벽임을 추정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근로 시간 형태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났다. 응답자의 1/3만이 전일제 근로에 종사하고 2/3는 시간제 근로에 종사하고 있었다. 근로 직종은 가장 많은 40.7%가 서비스직에, 그 외에 전문가 및 관련 12.7%, 사무직 11.2%, 단순 노무 종사자 6.9%, 판매직 종사자 6.8% 순으로 나

타났다.

주거 상황과 관련하여서는 거주주택 유형, 주택 점유 형태, 주거 자산 현황을 조사하였다. 먼저 거주주택 유형은 임대아파트 거주자가 24.2%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다가구 주택 18.6%, 연립주택 16.8%, 일반아파트 12.7%, 일반단독주택 11.9% 순으로 나타났다. 주택점유형태는 가장 많은 과반수 이상(52.4%)이 월세 형태로 거주하고 있었으며, 다음으로 26.3%, 자가 7.3%, 무상 5.5%이었다. 월세거주자 423명은 월평균 27만원을 월세로 지출하며, 평균 주택 면적은 46.3m²(약 14평)이었다. 즉 저소득 근로 청년인 청년희망키움통장 사업자들은 절반 정도는 월세 부담을 가지고 있으며 평균 14평 정도의 면적에 주거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음으로 고용 및 근로에 대한 생각을 조사한 결과, 스스로의 가치와 역량에 대한 인지, 미래의 나의 모습에 대한 동기부여, 목적지향, 기술과 자원 활용의 하위 차원으로 구성된 고용희망 수준은 보통(3점)보다 다소 높은 3.63점으로 나타났다으며, 차원별 격차는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인적자본과 자원 부족, 음주, 화, 금전 지출, 인터넷 사용 등 통제력 부족, 가족 관련 장벽, 건강 관련 장벽의 하위 차원으로 구성된 고용장벽 수준은 보통 정도인 2.76점으로 나타났다. 차원별로 통제력 부족 관련 장벽은 상대적으로 낮은 2.43점인 반면 인적자본 및 자원 부족을 장벽으로 인식하는 수준은 3.26점으로 상대적으로 높았다.

사회적 역량 및 사회참여 정도와 관련하여, 사회적 자본 수준은 보통에 다소 못 미치는 수준(2.84점, 최소1-최대5점)으로 나타났으며 하위 차원 중 규범의식(3.97점)과 신뢰(3.24점)수준은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사회참여(1.81점)는 낮았다. 가족 지지는 보통을 조금 넘는 수준(3.27점)으로 나타났다. 지난 일년간 사회활동 유형별 참여일수를 조사한 결과 문화여가활동, 친목모임, 종교활동 순으로 활동 정도가 높았으며, 자원봉사, 사회참여, 정치참여 활동 참여가 상대적으로 낮았다.

정리하면 생계급여 수급가구의 저소득근로 청년인 청년희망키움통장 사업 참

여자는 임시직, 일용직, 시간제 근로 등 불안정한 고용 지위를 접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는 다시 낮은 소득으로 생활비 지출 부담과 부채를 야기하며 경제적 어려움을 초래함을 추정할 수 있다. 또한 부정적 정서 경험 빈도가 높으며, 20대 청년이 대부분을 차지함에도 자신을 건강하지 않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높은 특성, 부채를 가지고 있는 비율이 높은 점, 월세 비율이 높고 주거 상황이 열악한 비율이 높은 점 등은 향후 청년 대상의 지원 체계 구축에 함의를 제공한다.

본 연구에서 수행한 2019년 청년희망키움통장 참여자 조사는 3년으로 계획되어 있는 패널 조사의 1차년도 연구로서, 참여자의 변화와 이를 통한 사업의 성과를 분석할 수는 없다. 다만 선행연구로부터 근로 및 고용 상황, 경제적 상황, 심리정서적 건강, 저축, 경제적 여건, 재무관리 역량, 근로 및 고용, 사회적 역량 등에 대한 주관적 인식에 있어서의 긍정적 변화를 기대한다. 그 성과가 장기간에 걸쳐 나타날 것으로 생각되는 청년 대상 자산형성지원사업인 청년희망키움통장 사업의 성과는 횡단적 접근으로 파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본 연구는 참여자의 신체적 및 심리·정서적 건강, 경제적 상황, 주거 상황, 근로 및 고용 상황, 사회적 역량 정도의 변화를 3년에 걸쳐 추적함으로써, 장기적 성과를 파악하기 위한 기준점의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의 경우 청년의 생애사에 걸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더 높은 편익을 가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가능하다면 5년, 10년의 장기간에 걸쳐 추적조사가 이루어질 것을 제안한다.

2. 청년희망키움통장 사업 관련 제언

본 연구는 문헌검토, 설문조사 및 면접조사를 통해 발견된 청년희망키움통장 사업 및 성과와 관련한 제언 사항을 사업 대상, 사업 내용 및 부가서비스, 전달체계, 청년 대상 지원 제도에 대한 전반적 제언을 중심으로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1) 청년희망키움통장 사업 유지 및 확대

(1) 청년희망키움통장 사업 지속 필요

청년의 삶이 어려운 상황에서 청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세대 간 또는 세대 내 이동성을 높이는 것이다. 계층 이동이 원활할 때 청년은 삶의 희망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저소득 청년을 대상으로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청년희망키움통장 사업은 가족 자원의 불평등을 완화함으로써 청년들에게 계층 이동의 사다리로서의 가능성을 가진다.

실제로 집단심층면접 결과, 청년들은 이 사업을 통해 경제적·정서적 안정감 및 미래에 대한 희망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로부터 본 사업은 청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충족시켜주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으며, 따라서 향후에도 더 많은 청년들이 이러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사업을 지속, 확대해나갈 필요가 있다.

(2) 청년희망키움통장 사업 수혜 조건인 탈수급 조건 완화 필요

청년희망키움통장 사업은 2018년 대비 참여 및 유지 조건 완화되었으나 여전히 탈수급이라는 강력한 수급 조건이 존재한다. 청년희망키움통장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2019년 현재 첫째, 만 15~39세의 청년이면서, 둘째, 기준중위소득 30% 이하의 생계급여 수급 청년이어야하며(1인 가구 제한없음), 셋째, 0~50만원 자유납입이 가능하나 의무납입액은 없다. 2018년 청년희망키움통장

사업 참여 대상인 만 15~34세의 근로사업소득이 월 334,421원 이상인 일하는 생계수급 청년이었음을 고려할 때, 대상 연령이 만 15~34세에서 15~39세로 확대되었고 월평균 최소 334,421만원 이상의 근로사업소득을 가져야한다는 기준도 철폐되었다. 이는 사업 참여 및 유지 기준이 완화되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청년희망키움통장 사업에 참여하여 궁극적으로 3년 이후에 수혜를 위해서는 탈수급이라는 조건을 만족시켜야만한다. 즉 청년희망키움통장 사업 참여와 유지 기준은 2018년에 비해 2019년 완화되었으나 여전히 참여자들은 3년 뒤 반드시 탈수급을 해야한다는 강력한 조건을 가짐으로써, 탈수급을 위한 준비가 되지 않은 생계급여 근로 청년들이 가입하는 데에는 어려움을 가진다. 이는 어쩌면 탈수급의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다시 말해 근로 역량이 더 낮은 대상자들을 자산형성참여를 통한 목돈 마련으로부터 배제시킬 수 있다. 이에 보다 보편적 사업으로 대상자의 참여를 독려하고 탈수급에서 나아가 전인적 역량강화를 사업의 목적으로 확대하기 위해서는 탈수급 기준을 국가자격증 취득, 학위 취득 등으로 완화해나갈 필요가 있다.

(3) 청년희망키움통장 사업 중도해지 방지 방안 모색 필요

2019년 현재 청년 희망키움통장사업 가입자 4,106명 중 약 9% 인 354명이 중도 해지를 하였으며, 현재 유지자 중에서도 과반수에 가까운 45%가 근로 지속의 어려움 및 탈수급에 대한 두려움 등으로 해지를 생각해봤다고 응답하였다. 이에 청년희망키움통장이 저소득 근로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자립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사업 가입자를 확대하는 것과 동시에 중도해지를 제고하고 방지하는 방안에 대한 고민 또한 필요하다.

저소득 청년들의 중도해지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다. 먼저, 생활비 충당을 목적으로 중도해지 하지 않도록 소액대출제도를 연계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둘째, 참여자 중 2/3 정도가 임시직, 일시직 일자리에 종사하고 있으며 이직이 쉽지 않은 사회경제적 상황을 고려하여 현재

최대 휴지기로 설정되어 있는 6개월을 12개월로 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다. 휴지기 확대와 함께 구직준비 및 구직활동에 대한 증빙서류 제출 조건을 병행할 수 있다. 또한 저소득근로 청년의 자산형성과 목돈마련을 독려하기 위해 사업 참여 기간을 휴지기만큼 연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 청년희망키움통장 사업 내용 관련 제언

(1) 부가서비스로 재무(금융)교육 및 재무컨설팅 제공 필요

저소득 근로청년의 탈수급, 나아가 성공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재무역량 강화를 위한 재무교육이 함께 제공될 필요가 있다. 실제로 사업 참여자의 재무관리 역량을 조사한 결과, 전반적인 수준이 보통수준에 미치지 못하였으며, 소비와 저축에 대해 계획을 세우고 장기적으로 지출에 대비하는 정도와 비율이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 재무교육 제공의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청년희망키움통장의 경우 현재 참여나 지원금 수급을 위해 어떠한 부가적 프로그램이나 서비스 이수를 요구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중위소득 80% 이하의 서울시 거주 만 18~34세 이하 근로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서울시 희망두배청년 통장사업은 연 1회 저축 목적에 따른 금융교육, 재무컨설팅, 사례관리, 문화생활 지원 등의 부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미국, 캐나다, 싱가포르, 대만 등에서 실시하고 있는 해외의 개인발달계좌의 경우에도 대부분 의무적으로 참여해야하는 재정교육을 제공하고 있으며, 대체로 돈 관리, 부채 감소, 저축 계획, 투자 등을 내용으로 한다.

청년희망키움통장의 경우 중위소득 30% 이하 가구의 경제적으로 보다 열악한 청년을 대상으로 함으로써 부가서비스 욕구가 높을 수 있다. 실제로 본 연구의 조사 결과, 지원금 수령시 사용 계획으로 가장 많은 34.3%가 주택 마련에 활용하겠다고 응답하였다. 그러나 수령 금액 만으로는 주택 구입이나 전세비로 활용하는 데 부족할 수 있다. 따라서 현실적 계획을 기반으로 합리적으로 수령금을

계획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참여자들이 재무계획을 세워보고 이에 대한 컨설팅을 받을 수 있는 재무컨설팅의 필요성 또한 제안한다. 재무교육 및 컨설팅을 포함하여 문화체험, 주거개선, 커뮤니티활동 프로그램에 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등 다양한 부가 서비스 및 프로그램 제공을 고민할 필요성이 있다.

(2) 사이버 교육 및 전화와 온라인 상담 활용

교육 방식으로는 사업 참여자들이 모두 근로 중인 청년임을 고려하여 상호작용이 필요하지 않은 교육의 경우에는 사이버 교육을 적극적으로 활용 할 것을 제안한다. 또한 시간을 내기 힘든 근로 청년의 상황과 본인의 상황을 타인에게 털어놓는 것을 어려워하는 청년 세대의 성향을 고려하여 재무 상담이나 컨설팅의 경우에도 전화 상담이나 온라인 채팅 상담 등 접근성을 고려한 현실적인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

(3) 저축의 목적에 따른 맞춤형 프로그램 및 서비스 제공

미국, 캐나다, 싱가포르, 대만 등에서 실시하고 있는 해외 개인발달계좌는 대체로 적립금 사용 용도를 주택 구입, 창업, 교육비, 취업훈련비용으로 제한하고 있다. 본 조사 결과, 청년희망키움통장 사업 참여자의 경우에도 지원금 수령 시 사용 계획은 주택 마련, 미래생활을 위한 대비(저축), 교육비(본인 및 가족), 부채상환 등으로 유사하게 나타났다.

이에 캐나다 사례처럼 저축의 주된 목적에 따라 집단을 구분하여 재무교육과 컨설팅 등 부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을 고민해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주택 마련을 계획하는 경우 임대주택이나 행복주택, 주택청약 등, 교육비나 취업훈련비용으로의 사용을 계획하는 경우에는 취창업교육, 취업알선, 창업 등과 관련된 정보 제공과 연계를 집중적으로 제공하는 것이다. 이는 부가 서비스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높여 궁극적으로 재정적 자립과 안정을 성취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3) 청년희망키움통장 사업 전달체계 관련 제언

(1) 통합적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청년희망키움통장 사업 참여자에 대한 설문 조사 및 사업 참여자와 중도해지자에 대한 면접 조사를 통해 생계급여 수급 저소득 근로 청년들이 소득, 근로 및 고용, 주거, 지출, 부채, 신체적 건강 및 정신건강 등 다양한 영역에서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청년희망키움통장이 이들에게 삶의 희망이 되고 있으며 사업 참여를 통해 탈수급의 의지와 계기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청년희망키움통장 만기 시 평균 수혜액은 1,500만원 정도로 청년들의 정서적, 경제적, 신체적, 사회적 측면에서의 다차원적 욕구를 충족시키기에는 한계가 있다. 앞서 2장 1절에서 살펴보았듯이 중앙정부에서만도 160개의 청년 대상 지원 사업이 존재한다. 이에 청년희망키움통장을 포함하여 다양한 청년 지원 제도와 서비스가 통합적으로 제공될 수 있는 통합적 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할 필요성을 제안한다. 또한 청년희망키움통장 사업에서는 참여자, 중도해지자, 성공적 완료자를 이러한 서비스 전달체계와 연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2) 행정 절차의 간소화를 통한 효율화와 지정은행의 확대를 통한 접근성 강화

본 연구의 조사에 따르면, 청년희망키움통장 사업 참여자의 절반 정도가 중도 해지를 생각하였다. 중도 해지를 고려한 이유로는 근로지속의 어려움, 탈수급에 대한 두려움에 이어 세 번째로 행정적 불편함을 들었다. 또한 청년희망키움통장 사업 관련 개선점으로 1순위로는 6.8%, 2순위로는 20.9%, 3순위로는 18.7%가 행정 절차의 불편함을 들어 참여자의 상당수가 행정적 불편함을 경험, 인지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실제로 청년희망키움통장 사업 가입을 위해서는 주민센터와 은행을 모두 방문해야 한다. 또한 청년희망키움통장 사업의 경우 매월 근로에 근거하여 근로소득

공제금과 근로소득장려금을 지급하는 구조로서 고용지위가 불안정하고 수입이 불규칙한 상당수의 참여자들은 소득이 변경될 때마다 주민자치센터에 직접 가서 사업자 등록과 연락처를 변경해야 해서 매우 번거로우며 근로에 장애가 되고 있다. 이에 사업자 등록을 전산화하거나 이직 시 자동으로 등록이 되는 방향으로 사업자 등록 절차를 전산화, 간편화할 필요성을 제안한다.

(3) 청년희망키움통장 사업 정보 제공 체계 구축

본 연구에서 실시한 면접조사에 따르면, 사업에 참여하면서 통장에 지원금이 들어오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는 있으나 후속 안내는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참여자들이 사업 참여 여부 및 조건과 내용 등을 잘 모르고 있는 이유가 되고 있다.

이에 분기별로 문자나 전화 등을 활용하여 사업 참여 기간, 지원금 수급 시점, 수급 조건, 지침 변경에 대한 안내, 사용 가능 항목 등에 대한 안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이는 한편으로는 참여자들의 근로와 탈수급에의 동기 부여를 지속하고 강화할 수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참여자들이 수급 후 지원금 사용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4) 주민자치센터 담당 공무원의 사업 숙지

본 연구에서 수행한 면접조사에 참여한 청년희망키움통장 사업 참여자들의 다수가 사업 참여시에도 주민자치센터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사업 안내를 받지 못하였으며, 사업 참여를 위해 사업에 대한 추가 설명을 듣거나 사업 참여 이후 궁금한 점에 대한 설명을 해당 주민자치센터 담당 공무원에게 요구했으나 사업에 대해 잘 모르고 있어 설명을 듣지 못했던 경험을 진술하였다.

이는 한편으로는 주민자치센터의 사회복지공무원의 업무와 추가배치, 통장사

업의 급격한 증가로 인한 숙지의 어려움 등의 문제와 관련되어 논의되어야 할 문제이기도 하나, 주민자치센터의 사회복지공무원이 수행해야 할 업무로서 사업 참여를 원하거나 참여자들이 요청할 때 사업과 관련하여 설명이 가능할 정도의 숙지가 필요하다.

(5) 사업 이후 탈수급한 청년 대상으로 궁극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체계 구축

저소득 근로 청년의 탈수급과 성공적 자립이라는 본 사업의 궁극적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2021년 본 사업의 성공적 종료와 함께 탈수급을 성취할 청년들의 탈수급 이후의 삶을 지원하기 위한 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관련하여 차상위층을 위한 지원제도 및 청년 대상의 보편적 지원제도에 대한 정보제공 등과 같은 세부사업들이 추가될 필요성을 제안한다.

3. 자산형성지원사업 등 청년 대상 지원 제도에 대한 전반적 제언

1) 이용자의 욕구를 반영한 지속적 사업 개선

청년희망키움통장은 중앙 정부가 실시하고 있는 청년 대상의 대표적인 자산형성지원사업으로 2018년 도입된 이래 가구당 1명 가입 제한 철폐, 온라인 बैं킹화, 자유납입금에 대한 추가매칭금 지급 등 이용자들의 제안을 받아들여 지속적으로 사업을 개선하고 있다. 이처럼 지속적으로 현재 행정적 절차, 수급기준, 부가서비스 등과 관련하여 제안되고 있는 가입 청년들의 불편과 불만 사항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사업 내용을 개선해나갈 필요가 있을 것이다.

2) 탈수급이 어려운 계층 및 차상위층까지 포괄하도록 청년 대상 자산형성지원사업의 보편화

중앙 정부가 실시하고 있는 청년 대상의 대표적인 자산형성지원사업인 청년희망키움통장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빈곤하다고 할 수 있는 생계급여 수급 청년을 대상으로 하나, 탈수급을 수혜 기준으로 함으로써 탈수급이 어려운 청년은 수급 대상에서 배제하고 있다. 이에 탈수급이 어려운 계층과 보다 수혜 대상을 확대하여 주거급여 및 교육급여 수급 청년, 차상위층까지 포괄하도록 청년 대상 자산형성지원사업을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

3) 자산형성지원사업을 가능한 한 출생 시부터 적용하도록 아동까지 확대

현재 우리나라의 자산형성지원사업은 중앙 정부가 성인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희망키움통장과 내일키움통장,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내일채움공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인이룸통장 등이 있다. 또한 지

방자치단체의 사업으로 앞서 2장 2절에서 살펴보았듯이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 전라남도 등에서 나름의 기준을 가지고 대체로 저소득 근로 청년을 대상으로 청년통장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자산형성지원사업은 일차적으로 빈곤탈피 및 빈곤예방의 효과를 가지며, 나아가 빈곤의 대물림 완화, 심리·정서적 안정, 신체적 건강 향상 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검증되어왔다. 또한 영국, 미국, 싱가포르 등에서는 출생 시부터 18세까지 아동을 대상으로 자산형성지원사업을 시행함으로써 교육격차 완화, 생애 전반의 빈곤 경험 경감 등의 효과를 가지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도 청년 대상에서 나아가 출생 시부터 적용되도록 아동까지 자산형성지원사업을 확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4) 청년 대상 지원 제도와 연계

전통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청년은 복지의 대상이 아니었으나, 최근 높은 실업률, 불안정한 고용 지위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과 함께 정서적, 사회적 측면에서 다차원적 어려움을 경험하면서 청년 대상의 지원 제도들이 확대되어왔다.

청년 대상 지원 제도들은 앞서 2장 1절에서 살펴보았듯이 교육훈련, 특정전문분야취업지원, 중소기업취업지원, 해외취업지원 등 취업지원과 창업지원, 생활비 지원 및 금융혜택, 주거지원, 학자금 지원, 건강 지원 등의 영역에 걸쳐 160개의 사업이 시행 중이며 이 중 다수의 사업은 취창업지원이다. 청년 대상 지원사업은 보건복지부 외에도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행정자치부 등 다양한 부처가 참여함으로써 사업간 연계와 조정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에 청년 대상 지원 사업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업간 연계와 조정을 통해 포괄적이면서도 통합적인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한편으로는 청년구직활동지원 등 현금 지원과 자산형성지원사업 그리고 취창업지원 등의 사회서비스가 체계적으로 연계되어 제공되어야 하며, 다른 한편

으로는 일부 사업의 경우 중복 가입 및 이용(예. 전문분야 취업지원-청년희망키움통장), 연계 이용(예. 청년구직활동지원금-청년내일채움공제) 등을 독려함으로써 사업 간 시너지 효과를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5) 지자체 통장사업과의 연계

현재 고실업률의 지속, 불안정한 고용 지위, 저임금 서비스 일자리 중심의 일자리 확대 등으로 청년층의 새로운 사회적 취약 계층으로 떠오름에 따라, 중앙정부 및 다양한 지자체에서 청년 대상의 자산형성지원사업을 신설, 확대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2015년 서울시 희망두배청년통장, 2016년 경기도일하는청년통장에 이어 현재 부산시, 대전시, 광주시, 인천시,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충청남도, 충청북도, 제주도 등에서 대체로 저소득 근로 청년을 대상으로 청년 대상 자산형성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중앙정부에서는 2018년 청년희망키움통장과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을 시작하였으며, 2020년 청년저축계좌 시행을 계획하고 있다.

앞서 본 연구의 2장 1절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개별 사업은 유사하면서도 세부적으로는 상이한 내용을 가진다. 이에 비록 중복 가입이 불가하지만 유사한 사업이 중복적으로 존재함으로써 행정상의 비효율과 혼란을 야기하는 측면이 있다. 자산형성지원사업은 서비스가 아닌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현금성 사업으로 사업의 성격상 중앙 정부의 사업으로 운영하는 것이 적절하다. 이에 중앙부처의 통장사업과 지자체 통장사업간의 연계와 조정을 거쳐 장기적으로는 중앙 부처의 사업으로 통일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참고 문헌

- 경기도, 경기복지재단. 2019년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모집 공고 <https://ggwf.gg.go.kr/archives/43071>
- 경상남도. 2018. 경남청년상생공제시행지침
- 경상북도. 2019. 경북 청년 근로자 사랑채움사업 참여 모집 공고
- 고용노동부. 2019. 2019년 청년내일 채움공제 시행지침
- 광주광역시. 2019. 2019 청년13(일+삶)통장」 참여자 모집공고
- 금융위원회, 2017, 청년·대학생 금융 실태조사 결과 관련, 2017.11.3. 보도자료
- 김기현, 2017, 청년 정책의 현황 진단과 개선방향, 보건복지포럼, 54-67.
- 김기현·하형석·신인철, 2016, 청년 사회경제 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김기현·이윤주·유설화·배진우, 2017, 청년 사회경제 실태 및 정책방안연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김영란·장혜경·이윤석, 2017, 가족계층에 따른 청년자녀세대의 성인기 이행 및 정책대응 방안 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김종욱, 2018, 청년 졸업자 주요 고용지표 현황, 월간 노동리뷰, 4:85-88.
- 김형주·임지연·유설화·배진우, 2018, 청년 사회경제 실태 및 정책방안연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대전시. 2019. 2019년 청년희망통장 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
- 보건복지부. 2019. 2019 자활사업안내Ⅱ 희망 내일 통장사업 안내
- 보건복지부. 2019. 청년희망키움통장 지침개정 사항
- 부산시. 2019. 2019년 청년희망날개통장 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
- 서울시. 서울시복지재단. 희망두배 청년통장 사업개요
- 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 2017, 이행기청년 금융지원 모형 개발 연구. <https://account.welfare.seoul.kr/youth/section/introduction.action>
- 서종녀. 2017 희망두배 청년통장 사업성과 연구. 서울특별시·서울복지재단
- 이순성 김미현 조효주 한가영. 2009, 2010, 2011. 저소득층 자산형성 프로그램 성과측정 연구. 서울특별시서울복지재단
- 이순성 서용희 김기재. 2012, 저소득층 자산형성 지원 사업의 장기적 성과 분석을 위한 기초 연구 성과지표, 서울시복지재단.
- 이윤주·김기현·하형석·손원빈, 2017, 청년정책 추진 체계 발전방안 연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이현주. (2015). 영국 사회부조의 최근 동향 유니버셜크레딧의 도입과 그 배경. 보건복지포럼, 226, 105-117.
- 전라남도 2018. 2018년 청년 희망 디딤돌 통장 사업 운영지침.
- 제주특별자치도. 2018. 2018년도 「제주일자리 재형 저축」 지원 사업 공고

중앙선데이, 빚 59조 짊어진 청년은 실신세대..100만원 꾸려다 5000만원 수렁에, 2018.11.03.자 기사
조준용·김경화·김화주·이은자·박송아·유안나. 2018. 자산형성지원사업의 성과 분석 및 평가 방향 연구, 보건복지
부.

청년저축계좌 근로복지공단 대표 공식 블로그 <https://comwel2009.blog.me/221650875349>

충청남도 경제진흥원(충청남도 일자리종합센터). 2019. 충남 열혈청년 패키지 사업안내

충청북도. 2019. 충북행복결혼공제사업 세부지침

최상미 김아래미 박성준 유송이. 2018.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자 패널구축 기초연구.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최조순 현동길 장동호 성열서. 2017.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사업 성과 분석. 경기도·경기복지재단

최현수 한창근 최준영. 2010-2012. 탈 수급 축진을 위한 희망키움통장 참여가구 모니터링 및 평가 연구(1,2,3차).
보건복지부·보건사회연구원.

최현수 오미애 한창근 최준영 김성아. 2013. 2013년 희망키움통장의 성과 및 향후 발전과제. 보건복지부·한국보
건사회연구원

통계청, 2019, 2019년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결과, 2019.7.16. 보도자료

최하예·황성수, 2018, 우리나라 청년정책의 정책수단 유형분석 연구, 한국정책과학학회보, 22(3):75-99.

최현수, 오미애, 서광국, 한창근, 김예슬, 진지수. 2017. 생애주기별 자산형성 지원체계 구축방안. 한국보건사회
연구원.

Beverly, S., Sherraden, M., Cramer, R., Williams Shanks, T., Nam, Y., & Zhan, M. (2008). Determinant
s of asset holdings. Asset building and low-income families, 89-151.

Beverly, S. G., Clancy, M. M., Huang, J., & Sherraden, M. (2015). The SEED for Oklahoma Kids
Child Development Account experiment: Accounts, assets, earnings, and savings (CSD Research
Brief No. 15-29). St. Louis, MO: Washington University, Center for Social Development.

Berhane, G., J. Hoddinott, N. Kumar, and A. Seyoum Taffesse. 2011. The Impact of Ethiopia's
Productive Safety Nets and Household Asset Building

Butrica, B. A. (2015). A Review of Children's Savings Accounts. Urban Institute.

Cheng, L. C. (2001). Asset-Based Welfare: Taipei Family Development Accounts.

Cheng, L. C. (2004). Developing Family Development Accounts in Taipei: Policy innovation from
income to assets. LSE STICERD Research Paper No. CASE083.

Cramer, R., & Newville, D. (2009). Children's Savings Accounts. Washington, DC: New America
Foundation.

- Green, R. K., & White, M. J. (1997). Measuring the benefits of home owning: Effects on children. *Journal of Urban Economics*, 41, 441-461.
- Hill, M. S., & Duncan, G. J. (1987). Parental family income and the socioeconomic attainment of children. *Social Science Research*, 16, 39-73.
- Kohn, M. L., Naoi, A., Schoenbach, C., Schooler, C., & Slomczynski, K. M. (1990). Position in the class structure and psychological functioning in the United States, Japan, and Poland.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95, 964-1008.
- McBride, A., Lombe, M., & Beverly, S. (2003). Effects of individual development account programs: Perception of participants. *Social Development Issues*, 23(1/2), 59-73.
- Laurinavičius, A. (2012). Asset-based policy: a new measure to reduce poverty and inequality in Baltic States. *Ad Alta: Journal of Interdisciplinary Research*, 2(02), 57-60.
- Leckie, N., Hui, T. S. W., Tatttrie, D., Robson, J., & Voyer, J. P. (2009). Learning to save, saving to learn. Toronto: Social Research and Demonstration Corporation. Retrieved February, 16, 2010.
- Leckie, N., Hui, T. S., Tatttrie, D., Robson, J., & Voyer, J. 2010. LearnSave individual development accounts project: Final report. Social Research and Demonstration Corporation.
- Loke, V., & Sherraden, M. (2009). Building assets from birth: A global comparison of child development account policies. *International Journal of Social Welfare*, 18(2), 119-129.
- Marks, E. 2014. SEED for Oklahoma Kids: The impact evaluation. RTI.
- Mason, L. R. (2009). SEED account monitoring research: Participants, savings, and accumulation.
- Noponen, H. (1992). Loans to the working poor: A longitudinal study of credit, gender and the household economy. *International Journal of Urban and Regional Research*, 16, 234-251.
- OCC(Office of the Comptroller of the Currency). (2018). Individual Development Accounts.
- Oskamp, S., Harrington, M. J., Edwards, T. C., Sherwood, D. L., Okuda, S. M., & Swanson, D. C. (1991). Factors influencing household recycling behavior. *Environment and Behavior*, 23, 494-519.
- Page-Adams, D. (1995). Economic resources and marital violence. Doctoral dissertation, Washington University, St. Louis.
- Page-Adams, D., & Vosler, N. (1995, April). Effects of homeownership on well-being among blue-collar workers. In *Seventh International Conference of the Society for the Advancement of Socio-Economics*, Washington, DC.
- Perkins, D. D., Florin, P., Rich, R. C., Wandersman, A., & Chavis, D. M. (1990). Participation and the social and physical environment of residential blocks: Crime and community context. *American*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18, 83-115.

Pritchard, M. E., Myers, B. K., & Cassidy, D. J. (1989). Factors associated with adolescent saving and spending patterns. *Adolescence*, 24, 711-723.

Robert, S., & House, J. S. (1996). SES differentials in health by age and alternative indicators of SES. *Journal of Aging and Health*, 8, 359-388.

Rohe, W. M., & Stegman, M. A. (1994b). The impact of home ownership on the social and political involvement of low-income people. *Urban Affairs Quarterly*, 30, 152-172.

Sherraden, M. (1991). *Assets and the poor: A new American welfare policy*. Armonk, NY: M.E. Sharpe.

Sherraden, M., Nair, S., Vasoo, S., Liang, N. T., & Sherraden, M. S. (1995). Social policy based on assets: The impact of Singapore's Central Provident Fund. *Asi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3(2), 112-133.

Yadama, G. N., & Sherraden, M. (1996). Effects of assets on attitudes and behaviors: Advance test of a social policy proposal. *Social Work Research*, 20, 3-11.

Zielewski, E. H., Ratcliffe, C., McKernan, S. M., Johnson, L., & Sherraden, M. 2009. Evaluation design for the next phase evaluation of the assets for independence program: Final literature review. The Urban Institute-Center for Social Development.

Citibank. 2019. https://www.citibank.com.hk/global_docs/financial_edu_home_eng/csr/html/social_02.html

Disability Benefits 101[Website]. (2019년 11월 13일). Retrived from https://az.db101.org/az/programs/job_planning/ida/faqs.htm#_q3811

Gov. UK[Website]. (2019년 11월 13일). Retrived from <https://www.gov.uk/get-help-savings-low-income>

Gov. UK[Website]. (2019년 11월 13일). Retrived from <https://www.gov.uk/junior-individual-savings-accounts>

Government of Canada[Website]. (2019년 11월 13일). Retrived from <https://www.canada.ca/en/services/benefits/education/education-savings/resp.html>

Ministry of Education Singapore[Website]. (2019년 11월 13일). Retrived from <https://www.moe.gov.sg/education/post-secondary/post-secondary-education-account/about-the-psea>

부 록

본 조사표에 기재된 내용은 통계법 제33조에 따라 비밀이 보장됩니다.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 등에 대한 조항)

통계 작성 과정에서 알려진 사항으로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보호되어야 한다

ID A0_1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자 패널 조사표 (참여자 대상)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부 및 한국자활복지개발원에서는 청년희망키움통장사업에 관한 심층적이고 장기적인 패널자료 구축을 위하여 본 사업의 참여자를 대상으로 1차년도 패널조사를 실시합니다. 본 패널조사는 자산형성지원사업의 현황 및 성과에 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향후 사업의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연구 및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한 정책 방향을 설정하는데 귀중한 자료로 활용 될 것입니다. 귀하께서 응답해 주신 모든 내용은 통계법 제 33조에 따라 확실하게 비밀이 보장되며, 통계 분석 자료 이외의 용도로는 절대 이용되지 않으니 정확하고 솔직하게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 9월

보건복지부 ·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연구기관: 동국대학교 산학협력단

연 락 처: 연구책임자 최상미 donggukabp@gmail.com, 02-2260-3659

조사원 기입란

주소	시군구 번호 참고		☞ 시군구 번호 5자리 중 앞 2자리 11) 서울 26) 부산 27) 대구 28) 인천 29) 광주 30) 대전 31) 울산 36) 세종 41) 경기 42) 강원 43) 충북 44) 충남 45) 전북 46) 전남 47) 경북 48) 경남 50) 제주 ☞ 시도 번호 이하 3자리는 시군구 코드 참고									
	시 군 구 번 호							☞ 2019년 시군구 코드 기준				
	세 부 주소	도로명(신)	☞ 세부주소까지 도로명 주소를 우선으로 기입하고 모르는 경우 지번으로 기입 _____ (시·군·구) _____ (도로명) (세부주소) _____									
		지 번 (구)	_____ (시·군·구) _____ (읍·면·동) _____ (도로명) (세부주소) _____									
조사원 이름		(인)	조사원 소속				지도원 확인				(인)	

1. 나는 본 연구의 설명문을 읽었으며 담당 연구원과 이에 대하여 의논하였습니다.
2. 나는 위험과 이득에 관하여 들었으며 나의 질문에 만족할 만한 답변을 얻었습니다.
3. 나는 이 연구에 참여하는 것에 대하여 자발적으로 동의합니다.
4. 나는 이 연구에서 얻어진 나에 대한 정보를 현행 법률과 연구윤리심의위원회 규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연구자가 수집하고 처리하는데 동의합니다.
5. 나는 담당 연구자나 위임 받은 대리인이 연구를 진행하거나 결과 관리를 하는 경우와 보건 당국, 학교 당국 및 동국대학교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가 실태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비밀로 유지되는 나의 개인 신상 정보를 직접적으로 열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6. 나는 언제라도 이 연구의 참여를 철회할 수 있고 이러한 결정이 나에게 어떠한 해도 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압니다.
7. 나의 서명은 이 동의서의 사본을 받았다는 것을 뜻하며 연구 참여가 끝날 때까지 사본을 보관하겠습니다.

연구책임자 성명: _____ 서명: _____ 서명일: _____

조사내용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자의 현황 및 욕구 자산형성지원사업의 성과 등		
성명			
주소			
연락처			
답례품	상품권 금 삼만오천원권(W 35,000)		
2019 년 9 월 일 성명 : (서명)			

-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목적 : 수당지급 및 소득세법 제164조 및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23호에 의한 지급명세서의 제출
- ◇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주소, 연락처
-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회계증빙서류 보관 기한까지
-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수당지급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성명 : (서명)

A. 일반현황

A1 다음 항목에 응답해 주십시오.

A1_1 성별	☐ ① 남 ☐ ② 여	A1_3 가구주 여부	귀하는 가구주 입니까? ☐ ① 예 ☐ ② 아니오
A1_2 출생년월	□ □ □ □ 년 A1_2.1 □ □ 월 A1_2.2	A1_5 함께 생활하는 총 가구원 수	□ □ 명 (1인 가구: 1명, 3인 가구: 3명)
A1_4 혼인상태	☐ ① 미혼 ☐ ⑤ 이혼 ☐ ② 기혼 ☐ ⑥ 사실혼관계 (동거) ☐ ③ 별거 ☐ ⑦ 기타 ☐ ④ 사별	A1_6 함께 생활하는 가족	☐ ① 함께 생활하는 가족 없음 ☐ ② 배우자 ☐ ③ 부 ☐ ④ 모 ☐ ⑤ 자녀 ☐ ⑥ 조부모 ☐ ⑦ 형제자매 ☐ ⑧ 친인척 ☐ ⑨ 기타 () * 함께 거주하고 있는 가족을 모두 체크하십시오 (복수응답)
A1_7 학력 (졸업기준)	☐ ① 무학 ☐ ⑤ 대학(2년제) ☐ ② 초등학교 ☐ ⑥ 대학교(4년제) ☐ ③ 중학교 ☐ ⑦ 대학원 이상 ☐ ④ 고등학교	A1_9 종교유무	☐ ① 있음 ☐ ② 없음
A1_8 장애유무 및 장애등급	☐ ① 비해당(장애없음) ☐ ② 경증(4~6급) ☐ ③ 중증(1~3급) ☐ ④ 비등록 장애인	A1_10 자격증 보유	☐ ① 자격증 없음 ☐ ② 자격증 1개 있음 ☐ ③ 자격증 2개 있음 ☐ ④ 자격증 3개 이상 보유
A1_11 근로형태	☐ ① 상용근로자 ☐ ② 임시직 근로자 ☐ ③ 일용직 근로자 ☐ ④ 자활근로/공공근로 ☐ ⑤ 고용주/자영업자 ☐ ⑥ 무급가족종사자 ☐ ⑦ 실업자(지난4주간 구직활동) ☐ ⑧ 비경제활동인구(학생, 주부, 군인 등)	A1_12 직종분류	☐ ① 관리자 ☐ ②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 ③ 사무 종사자 ☐ ④ 서비스 종사자 ☐ ⑤ 판매 종사자 ☐ ⑥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 ⑦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 ⑧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 ⑨ 단순노무종사자 ☐ ⑩ 실업자/비경제활동인구
A1_13 근로시간형태	☐ ① 전일제 ☐ ② 시간제	A1_14 근로지속 가능성	☐ ① 특별한 사유(본인의 중대한 과실, 폐업, 천재지변 등)가 없는 한 지속적으로 근로 가능 ☐ ②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언제든지 회사의 사정에 따라 해고될 수 있음

A2_1 응답자의 소득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난 3개월 동안 자신의 소득(세금공제 후 실수령액)을 기준으로 응답해주세요.

면접원

지난 3개월 동안 평균 월소득, 응답자 개인의 소득에 한함

항목		응답
근로소득	A2_1.1 근로소득 (주된 일자리로부터 받은 세금 공제 후 실수령액, 아르바이트를 포함)	월 평균 □ □ □ □ 만원
기타소득	A2_1.2 공적 이전소득 (국가 혹은 정부로부터 받은 지원금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지원금, 근로장려금, 양육수당, 아동수당, 장애인연금 및 장애수당, 기타 정부보조금 등을 의미함.)	월 평균 □ □ □ □ 만원
	A2_1.3 사적 이전소득 (생계를 같이 하지 않는 부모나 자녀, 친인척을 포함하여 주변단체, 기관(교회 등)으로부터 받은 격려금, 장학금, 지원금 등 정기적으로 받은 소득)	월 평균 □ □ □ □ 만원

A2_2

응답자의 저축과 부채에 관한 질문입니다.

A2_3

☞ 면접원

저축은 지난 3개월 기준 월평균 금액,
부채는 조사 시점 기준 총액기재
응답자 개인의 저축과 부채에 한함

항목	응답
저축* (지난 3개월 기준)	A2_2 응답자 개인 저축액 (예·적금, 개인연금, 저축성 보험, 보장성 보험, 종신보험, 적립식 펀드, 갯돈 불입금 등) 지난 3개월 간 월 평균 만원 (없는 경우 0만원) (저축액에 청년희망키움통장 적립액은 포함하지 않음)
A2_3_1 응답자 개인 부채(학자금 대출금 등, 총 이자 포함)	총 만원 (없는 경우 0만원)
A2_3_2 응답자 개인 부채에 따른 월 평균 상환액	월 평균 만원
A2_3_3 응답자 개인이 부채를 지게 된 가장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해당 없음(부채 없음) ☐ ② 가족을 경제적으로 돕느라 ☐ ③ 생활비가 많이 들어서 ☐ ④ 학자금 지출 ☐ ⑤ 결혼자금 ☐ ⑥ 사업자금 지출 ☐ ⑦ 주택보증금 마련 ☐ ⑧ 기타()
A2_3_4 응답자 개인의 부채에 대해 어느 정도의 부담을 느끼십니까?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 ⑧ ☐ ⑨ ☐ ⑩ 전혀 부담이 되지 않음 ← 보통 → 매우 부담

☞ *저축의 범위

- 저축에는 예·적금(주택청약부금 포함), 개인연금(국민연금 제외), 저축성 보험(재테크 보험, 교육보험 등), 갯돈 불입금, 보장성 보험(생명보험, 건강보험, 상해보험 등), 종신보험, 적립식 펀드 등이 포함됨

☞ *부채의 범위

- 부채에는 은행 빚이나 개인적으로 빌린 돈, 전세금이나 임대보증금으로 받은 돈, 미리 타고 앞으로 부어야 할 게 등이 포함
- 카드할부로 물품을 구입하는 경우는 부채에 해당되지 않음. 단 카드를 이용한 현금대출이나 연체액은 부채에 포함됨.

A2_4 귀하를 가족을 돌보고 부양하는데 어느 정도의 부담을 느끼십니까?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 ⑧ ☐ ⑨ ☐ ⑩
 전혀 부담이
되지 않음 ← 보통 → 매우 부담

A2_5 귀하를 자신의 미래 경제 상황에 대해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 ⑧ ☐ ⑨ ☐ ⑩
 매우 비관적 ← 비관적 보통 희망적 → 매우 희망적

A2_6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에 관한 질문입니다.

항목	해당 여부
A2_6 현재 받고 있는 급여의 유형을 모두 고르시오. (중복응답 가능)	A2_6_1 ☐ ① 생계급여 A2_6_2 ☐ ② 의료급여 A2_6_3 ☐ ③ 주거급여 A2_6_4 ☐ ④ 교육급여 A2_6_5 ☐ ⑤ 해산 및 장제급여 A2_6_6 ☐ ⑥ 자활급여
A2_6 수급 기간 (아래 해당 급여를 1개 이상 받은 전생애 동안의 기간)	A2_6_1 총 년 A2_6_2 개월 응답자가 포함된 가구의 총 수급기간

A3_1 지난 3개월 동안 자신의 소비를 기준으로 응답자의 월평균 총 생활비는 얼마입니까?
또한 월 평균 총 생활비에서 아래의 각 항목마다 어느 정도 금액을 사용하였는지 응답해 주세요.

항목	응답
A3_1_1 총 생활비 (아래 세부항목의 합)	월 평균 만원
A3_1_2 식료품비 (가정식 비용, 외식비, 아동급식비 등)	월 평균 만원
A3_1_3 주거비 (전세조달자금(이자), 관리비, 이사비, 복비, 도배비 등)	월 평균 만원
A3_1_4 광열수도비 (전기요금, 수도요금, 난방비, 취사비 등)	월 평균 만원
A3_1_5 가구집기비 (장롱, 책상, 냉장고, 식기주방용품, 가사소모품 등)	월 평균 만원
A3_1_6 피복신발비 (정장 및 운동복 등 의류, 내의, 신발류 등)	월 평균 만원
A3_1_7 보건의료비 (안경, 위생대, 약값, 보건의료서비스비용 등)	월 평균 만원
A3_1_8 교육비 (등록금, 학원비, 교재비, 문방구비용 등)	월 평균 만원
A3_1_9 교양오락비 (책, 텔레비전, 영화관람, 문화시설관람료 등)	월 평균 만원
A3_1_10 교통통신비 (출근비용, 집전화이용요금, 이동전화이용요금, 인터넷요금 등)	월 평균 만원
A3_1_11 기타소비 (일상소모품: 칫솔, 치약 등 이미용용품, 장신구 비용, 경조사비 등)	월 평균 만원
A3_1_12 비소비 (근로소득세, 주민세, 재산세 등)	월 평균 만원

☞ 면접원 - 매달 지출한 항목이 아닌 경우 해당 항목의 연간 총지출액을 12로 나눈 금액을 작성, 비해당의 경우 0만원으로 기입
- 생활비에 월세 등과 같은 주거비용은 포함되지 않음.

A3_2 다음 중 가장 부담이 되는 지출 항목을 우선 순위에 따라 응답해주십시오

지출부담 1순위	A3_2_1	지출부담 2순위	A3_2_2	지출부담 3순위	A3_2_3
① 식료품비		⑤ 피복신발비		⑨ 교통통신비	
② 주거비		⑥ 보건의료비		⑩ 기타소비(일상소모품)	
③ 광열수도비		⑦ 교육비		⑪ 비소비	
④ 가구집기비		⑧ 교양오락비			

B. 주관적 지표

B1_1 다음 문항을 읽고 해당되는 항목에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항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 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B1_1_1 나는 내가 다른 사람들처럼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B1_1_2 나는 좋은 성품을 많이 가졌다고 생각한다.					
B1_1_3 나는 대체적으로 실패한 사람이라는 생각한다.					
B1_1_4 나는 대부분의 다른 사람들과 같이 일을 잘 할 수 있다.					
B1_1_5 나는 자랑할 것이 별로 없다.					
B1_1_6 나는 내 자신에 대하여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					
B1_1_7 나는 내 자신에 대하여 대체적으로 만족한다.					
B1_1_8 나는 내 자신을 좀 더 존중할 수 있으면 좋겠다.					
B1_1_9 나는 가끔 내 자신이 쓸모없는 사람이라는 느낌이 든다.					
B1_1_10 나는 때때로 내가 좋지 않은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B1_2 우리의 삶은 개인적 측면(개인적 성취, 성격, 건강 등), 관계적 측면(주위사람들과의 관계 등), 집단적 측면(내가 속한 집단 - 직장, 지역사회 등)으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삶의 각 측면에서 귀하께서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부분을 떠올려 보십시오.

귀하는 그러한 삶의 각 측면에 대해서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문항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그렇지 않은 편이다	④ 보통이 다	⑤ 그런 편이다	⑥ 그렇다	⑦ 매우 그 렇다
B1_2_1 나는 내 삶의 개인적 측면에 대해서 만족한다.							
B1_2_2 나는 내 삶의 관계적 측면에 대해서 만족한다.							
B1_2_3 나는 내가 속한 집단에 대해서 만족한다.							

지난 한 달 동안 귀하는 다음의 감정을 얼마나 자주 느끼셨나요?

문항	① 전혀 느끼지 않았다	② 거의 느끼지 않았다	③ 느끼지 않았다	④ 보통이다	⑤ 가끔 느꼈다	⑥ 종종 느꼈다	⑦ 항상 느꼈다
B1_2_4 즐거운							
B1_2_5 행복한							
B1_2_6 편안한							
B1_2_7 짜증나는							
B1_2_8 부정적인							
B1_2_9 무기력한							

B1_3 다음 문항을 읽고 해당되는 항목에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항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거의 그렇지 않다	③ 보통 이다	④ 때때로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B1_3_1 나는 목표를 세웠다가도 금세 다른 목표를 세우곤 한다.					
B1_3_2 나는 새로운 생각이나 일이 생기면 이전 일에 집중하기가 어렵다.					
B1_3_3 나는 좋아했던 일에 쉽게 흥미를 잃는 편이다.					
B1_3_4 나는 몇 달 이상 걸리는 일에는 계속 집중하기가 힘들다.					
B1_3_5 나는 무엇이든 시작하면 끝까지 해낸다.					
B1_3_6 나는 일이 잘 안풀려도 의욕을 잃지 않는다.					
B1_3_7 나는 부지런하다.					
B1_3_8 나는 열심히 일한다.					

B1_4 다음 문항을 읽고 해당되는 항목에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항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거의 그렇지 않다	③ 보통 이다	④ 때때로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B1_4_1 나는 변화에 잘 적응한다.					
B1_4_2 나는 어려운 일을 겪은 후에도 잘 회복하는 편이다.					

B2_1 저축에 대한 귀하의 생각과 가장 가까운 내용에 체크하십시오.

문항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 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B2_1_1 저축은 매우 중요하다.					
B2_1_2 어떠한 상황에서도 저축은 반드시 해야 한다.					
B2_1_3 저축은 나의 미래를 변화시킬 수 있다.					
B2_1_4 예상하지 못한 지출에 대비하여 저축을 하려고 노력한다.					
B2_1_5 나는 저축을 할 만한 여유가 없다.					
B2_1_6 현재 받고 있는 정부의 지원을 잃을까 걱정이 되어 저축을 하지 않는다.					

B2_2 다음 문항을 읽고 해당되는 항목에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항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 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B2_2_1 오늘 돈 문제로 인해 스트레스를 느낀다.					
B2_2_2 나의 재정 상태에 대한 만족도가 낮다.					
B2_2_3 자주 생활비 걱정을 한다.					
B2_2_4 여윌돈이나 비상금이 없어 심리적 긴장감이 크다.					
B2_2_5 공과금 및 세금 납부, 대출금 상환과 관련해 어려움이 크다.					
B2_2_6 돈 문제로 인해 가정 내 갈등이 있다.					
B2_2_7 돈 문제로 인해 직장동료나 친구 등으로부터 상처를 받았다.					

B2_3 다음 문항을 읽고 해당되는 항목에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항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그렇다	④ 매우 그렇다
B2_3_1 매달 주거유지를 위한 충분한 돈을 가지고 있다.				
B2_3_2 긴급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돈(약 100만원)이 준비되어 있다.				
B2_3_3 소비나 저축에 대하여 계획을 세운다.				
B2_3_4 계획소비나 저축을 하고 있다.				
B2_3_5 수입이 증가하면 저축도 늘린다.				
B2_3_6 나의 자산현황을 잘 알고 있다.				
B2_3_7 향후 5~10년 사이에 발생할 지출에 대해 미리 생각하고 준비하고 있다.				

B3_1 다음 문항을 읽고 해당되는 항목에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항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 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B3_1_1 나는 친구나 부모님과 나의 적성 및 진로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다.					
B3_1_2 나는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직업이나 진로에 대한 정보(책, 인터넷 사이트 등)를 찾아본다.					
B3_1_3 나는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직업이나 진로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고 있다					
B3_1_4 나는 직업 또는 진로와 관련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학원을 다니거나 관련교재 및 기자재를 구입한다.					

B3_2 다음 문항을 읽고 해당되는 항목에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항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 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B3_2_1 나는 일을 시작하기만 하면, 잘 해낼 수 있다.					
B3_2_2 나는 무슨 일이든 잘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B3_2_3 나는 일하거나 직장을 찾을 때, 나는 지금의 나의 모습에 만족한다.					
B3_2_4 나는 일할 때 직면할 수 있는 어떤 종류의 장벽도 극복할 수 있다.					
B3_2_5 나는 내가 원하는 어떤 일도 할 수 있다.					
B3_2_6 나는 마음만 먹으면 무슨 일이든 잘한다.					
B3_2_7 나는 미래에 지금의 모습보다 더 나은 모습일 거라고 확신한다.					
B3_2_8 나는 일과 관련한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한발자국씩 나아가고 있다.					
B3_2_9 나는 내가 미래에 내 직업으로부터 얻을 성취를 생각하면 힘이 난다.					
B3_2_10 나는 일과 관련한 목표에 다다르기 위해 최선을 다할 마음이 있다.					
B3_2_11 나는 나의 직업과 관련된 목표를 위한 길 위에 있다.					
B3_2_12 나는 내 삶의 목적에 다다르기 위해 나아가는 과정에 있다.					
B3_2_13 나는 비록 지금 당장 나의 재정적 목적을 성취할 수는 없지만, 결국에는 성취할 방법을 찾아낼 것이다.					
B3_2_14 현재 내가 하고 있는 일은 결국 내가 필요로 하는 일을 하도록 도울 것이다.					
B3_2_15 나는 내가 가진 기술이 어떻게 직장/직업에서 사용될 수 있는지 알고 있다.					
B3_2_16 나는 내가 가진 자원이 어떻게 직장/직업에서 사용될 수 있는지 알고 있다.					
B3_2_17 나는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일을 하기 위한 커리어를 쌓기 위해 나의 기술을 사용할 수 있다.					

B3_3 다음 문항을 읽고 이하의 내용이 자신의 생활이나 진로 준비에 장벽으로 작동하는지 해당되는 항목에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항	①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음	② 영향을 미치지 않는 편임	③ 보통	④ 영향을 미치는 편임	⑤ 매우 영향을 미침
B3_3_1 부진했던 (이전의) 학업 성적					
B3_3_2 우리가족의 전반적으로 어려운 재정상황					
B3_3_3 교육, 직업선택에 대한 정보 부족					
B3_3_4 취업에 필요한 기술과 지식을 습득할 교육 자원의 부족					
B3_3_5 직업관련 경력 부족					
B3_3_6 충동구매, 과도한 지출 등 재정적 문제					
B3_3_7 화를 잘 조절하지 못하는 문제					
B3_3_8 술을 잘 조절하지 못하는 문제					
B3_3_9 SNS, 동영상 시청 등 스마트폰이나 PC를 활용한 지나친 인터넷 사용					
B3_3_10 스마트폰이나 PC 등을 활용한 게임에의 지나친 몰입					
B3_3_11 부모의 보호와 사랑 부족					
B3_3_12 가족 간의 불화 및 단절					
B3_3_13 지지해주는 사람 혹은 환경의 부재					
B3_3_14 내가 원하는 것과 가족 기대간의 불일치					
B3_3_15 부상이나 질병과 같은 신체적 건강 문제					
B3_3_16 스트레스, 외상, 우울함, 불안감과 같은 정신적 문제					

B4_1 다음 문항을 읽고 해당되는 항목에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항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 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B4_1_1 대부분의 사람들을 신뢰할 수 있음					
B4_1_2 사람들은 날 공정하게 대함					
B4_1_3 사람들은 대체로 날 도우려 함					
B4_1_4 사람들은 대체로 날 이용하려 함					
B4_1_5 이웃들과 자주 얘기하는 편임					
B4_1_6 친구들과 전화, SNS(스마트폰)를 통해 자주 연락함					
B4_1_7 혈연(친인척) 관계를 자주 이용함					
B4_1_8 지연(고향) 관계를 자주 이용함					
B4_1_9 학연(학교) 관계를 자주 이용함					
B4_1_10 주민모임(반상회, 노인회 등)에 참여함					
B4_1_11 시민(운동)단체에 참여함					
B4_1_12 여가, 취미, 체육, 문화동호회에 참여함					
B4_1_13 봉사, 자원봉사단체에 참여함					
B4_1_14 정당·정치단체에 참여함					
B4_1_15 종교단체에 참여함					
B4_1_16 다른 사람들을 돕는 것은 중요함					
B4_1_17 선거 때 항상 투표하는 것은 중요함					
B4_1_18 법을 항상 지키는 것은 중요함					
B4_1_19 범죄를 목격한 경우 신고하는 것은 중요함					
B4_1_20 국민의 의무를 다하는 것은 중요함					

B4_2 지난 1년(2018.9.1~2019.8.31) 동안 해당 활동에 대한 귀하의 참여 정도를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참여일수를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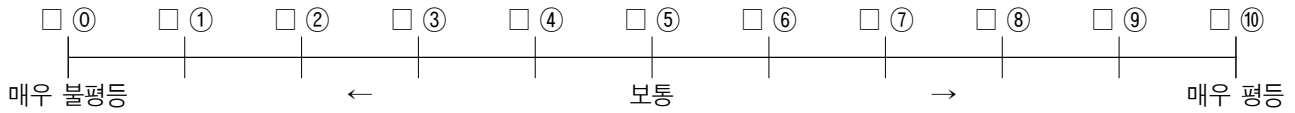
문항	경험 여부 및 지난 1년간 참여일수
1) 종교활동	B4_2_1 연간 총 일
2) 여가활동(음악, 독서, 영화, 스포츠, 레저활동 등)	B4_2_2 연간 총 일
3) 친목모임(친구 모임, 동창회, 향우회 등)	B4_2_3 연간 총 일
4) 정당, 정치 관련 모임(정당 활동, 정치 참여 모임 등)	B4_2_4 연간 총 일
5) 자선단체, 자원봉사활동 단체	B4_2_5 연간 총 일
6) 기타 시민단체(환경단체 등)	B4_2_6 연간 총 일

면접원 참여 일수 작성 : 매월 1회 참여하는 경우는 12일 / 매주 1회 참여하는 경우는 52일 / 하루도 참여하지 않은 경우는 0일
하루에 본 활동을 여러 차례 한 경우도 1일로 측정

B4_3 다음은 문항을 읽고 해당하는 항목에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항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 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B4_3_1 나의 가족들은 나에게 도움을 주고자 진정으로 노력한다.					
B4_3_2 나는 내가 필요로 하는 정서적 도움과 지지를 가족들로부터 얻는다.					
B4_3_3 나는 나의 문제들에 대해 가족들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					
B4_3_4 나의 가족들은 내가 어떤 일을 결정할 때 기꺼이 도움을 주려고 한다.					

B4_4 귀하는 우리 사회의 소득 불평등 수준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C.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

C1 귀하는 청년희망키움통장 사업을 어떻게 알게 되었습니까?

- ☐ 1) 가족의 권고
- ☐ 2) 광고를 보고(버스 등)
- ☐ 3) 지인, 친구의 소개
- ☐ 4) 기타(구체적으로: _____)

C2 현재 참여하고 있는 청년희망키움통장 사업에 언제 가입하였습니까?

C2_1년

C2_2월

C3 현재 매월 본인이 직접 납입하는 월 평균 청년희망키움통장 자유납입금액은 얼마입니까?

월만원 (없는 경우 0만원)

C4 다음은 청년희망키움통장 사업에 대한 만족도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해당되는 내용에 표시해주시요.

문항	① 매우 불만족	② 비교적 불만족	③ 보통	④ 비교적 만족	⑤ 매우 만족
C4_1 지원 금액의 수준					
C4_2 사업과 관련된 소식이나 정보 제공					
C4_3 사업에 참여하고 유지하기 위한 행정적 절차					
C4_4 위의 내용들을 고려할 때 귀하의 청년희망키움통장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					

C5 만약 청년희망키움통장사업을 포기하려고 한 적이 있다면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 ☐ ① 해당없음(포기하려고 한 적 없음)
- ☐ ② 근로지속의 어려움
- ☐ ③ 행정적 불편함
- ☐ ④ 가족의 반대
- ☐ ⑤ 탈수급에 대한 두려움
- ☐ ⑥ 다른 통장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 ☐ ⑦ 기타(_____)

C6 청년희망키움통장 사업의 어떤 점이 개선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십니까?
우선순위에 따라 응답해 주세요.

1순위 항목	C6_1	2순위 항목	C6_2	3순위 항목	C6_3
① 저축금액 다양화 ② 탈수급 조건 완화, 폐지 등 수급 조건 완화 ③ 행정 절차의 편의성 강화 ④ 가족 중복참여 허용 ⑤ 부가 서비스 및 프로그램 강화 ⑥ 기타					

C7 다음 중 귀하가 청년희망키움통장 사업과 함께 제공받고 싶은 서비스나 프로그램은 무엇입니까?
우선순위에 따라 응답해 주세요.

1순위 항목	C7_1	2순위 항목	C7_2	3순위 항목	C7_3
① 가족상담·가족교육 ② 문화여가 ③ 후원금/물품 ④ 심리상담 ⑤ 양육교육		⑥ 의료지원 ⑦ 직업교육·훈련 ⑧ 자격증취득교육 ⑨ 주거개선 ⑩ 창업교육		⑪ 재무상담·재무컨설팅 ⑫ 금융교육 ⑬ 기타()	

C8 다음은 청년희망키움통장 사업 만기 시 지원금 사용계획에 대한 질문입니다. 아래 보기를 참조하여 기입해 주십시오.

1순위 항목 C8_1	C8_4 ↘ 해당 우선순위의 사용예정금액은 어떠합니까? 만기 시 지원금을 100%로 가정하였을 때 비중을 숫자 로 표기해 주세요. □□□ %	2순위 항목 C8_2	C8_5 ↘ 해당 우선순위의 사 용예정금액은 어떠합니까? 만 기 시 지원금을 100%로 가정 하였을 때 비중을 숫자로 표기 해 주세요. □□□ %	3순위 항목 C8_3	C8_6 ↘ 해당 우선순위의 사 용예정금액은 어떠합니까? 만 기 시 지원금을 100%로 가정 하였을 때 비중을 숫자로 표기 해 주세요. □□□ %
	사용계획 보기 ① 교육비(본인 및 가족) ⑦ 불의의 사고 및 질병 대비 ② 주택마련(전세금 포함) ⑧ 여행 및 여가생활 ③ 결혼, 상제비 ⑨ 부채 상환 ④ 미래생활 대비(저축) ⑩ 특별한 목적이 없음 ⑤ 사업(투자) 자금 마련(창업 포함) ⑪ 기타() ⑥ 자동차, 가구, 가전 등 내구재 구입비				

설문에 응답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